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7. 6. 8(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2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현상변경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3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제관식 등 4건 국외반출	"

【검토사항】 11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4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5	남명천화상송증도가	"
6	사기 권8~12	"
7	선종영가집(언해)	"
8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
9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
10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	"
11	자치통감 권57~60	"
12	사분율 권47~50	"
13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
14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보고사항】 1건

15	국보 승격 지정조사 대상 선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
----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7-03-001

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立像)

가. 심의사항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8.1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1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7년 1차 회의(2.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7.2.28~‘17.3.30) 및 과학조사(‘17.5.18) 실시 후,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석조여래삼존상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1982.12.17지정)
석조여래입상 - 비지정
- 명 칭: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立像)
- 소유자(관리자): 초계변씨승지공파 종중(변달수)
-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 수 량: 2건 2점
- 규격(cm): 석조여래삼존상 170×206,
불상 높이 115, 어깨폭 57 / 우협시 보살상 전체높이 116, 높이 87
석조여래입상 높이 144, 상높이 150.5, 어깨 48

- 재 질 : 화강석
- 형 식 : 삼존, 독존
- 제작연대 : 삼국시대(6세기 중엽)
- 제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상에서 논의했다시피 비중리 석조 삼존불좌상과 석조여래입상은 5세기 내지 6세기 전반의 뚝섬금동불좌상이나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에 원류를 두고 있으면서도 형태나 U형 옷주름, 세겹두광배 등 도상특징에서 6세기 3/4분기에 속하는 불상양식으로 판단된다.

청주 비중리 일대는 원래 백제에 속했으나 고구려의 남하로 5세기부터는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6세기 후반기의 청주 비중리 일대는 나제동맹으로 551년 전후부터 신라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비중리불상들은 6세기 후반기(3/4분기)의 불상양식이므로 국적은 신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가 갖 이 지역을 접수했기 때문에 문화환경은 백제와 고구려에 기반을 두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구려는 1세기 이상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 등의 예에서 보다시피 고구려적 기질이 농후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비중리불상이 고구려양식적 요소에 일부 백제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이 불상은 신라국적에 고구려, 백제적 요소 이른바 3국의 복합적 문화요소가 조화되어 조성된 불상이 바로 비중리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상은 복잡했던 삼국의 정세가 잘 반영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의미심장한 불상으로 높이 평가되며, 삼국시대의 가장 귀중한 초기석불상(石佛像)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고대시기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그 희귀성과 역사적, 미술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조각이 분명하므로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을 함께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지정 가치 있음)

삼국시대의 불상일 경우 발견되는 장소에 따라 제작 국가와 그에 따른 역사적·시대적·미술사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고대의 불상일수록 이동이 용이한 소형의 금동불상이 많이 남아

있고, 대형의 석조불상이나 금동불상은 드문 편이다. 이 여래삼존상과 여래입상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대형의 석조불상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분위기를 읽는데 절대적인 자료이다. 이 불상이 자리하고 있는 충북지역은 삼국의 국경이 서로 마주대하던 지역으로, 삼국이 영토 확장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불상이 편년되는 시기에 따라 이 불상의 국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늘 품고 있다. 이곳은 6세기 전반기(2/4분기) 이전은 고구려가 50여 년간 점령했던 지역이며, 6세기 중엽 이후는 신라 영토였고 7세기 초에는 백제와의 국경지대였을 만큼 복잡했다. 6세기 전반기로 불상을 편년할 경우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고구려 불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경우 신라시대 불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 만한 역사적·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고구려가 점령하던 시절에 제작된 불상이라면 현존하는 유일의 고구려 석조불상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조각사적 무게를 지니며, 신라·백제 불상이라고 해도 가장 고식을 띠는 신라시대 불상이라는 점에서 대등한 조각사적 무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불상의 국적이 삼국 어느 나라이건, 6세기 중·후반은 삼국이 모두 상호 교류와 경쟁을 통해 문화발전을 이룩해 나가던 시기였고, 국경지대는 그 전초기 지였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과 문화교류가 공존하던 공간에 조성된 이 불상은 삼국의 복합적인 문화적 양상이 함께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불상은 삼국시대 문화교류의 양상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비록 오랜 세월동안 역사의 상흔과 세월의 고난을 겪으며 파손과 마멸이 있지만, 그 역사적·조각사적 의의를 따져볼 때 마땅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1) 조사경위

충북대학교 이용조교수에게 과제로 제출된 석조 삼존불좌상과 석불입상 그리고 광배 등 비종리 석불상들의 내용을 토대로 동국대 문명대 교수와 충북대 이용조

교수가 1979년 3월 4일에 조사, 삼국시대 고구려 양식 계통의 석불상으로 확인한 후 충청일보 등 지방신문과 중앙일간지에 널리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발견된지 3년 후인 1982년에 불교학보(문명대 「청원 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 (동국대, 1982.9))에 게재되어 학계에 정식 보고되었다. 여기서는 삼국시대 불상이지만 여러 조건으로 보아 고신라시대의 고구려 불상 양식을 계승한 고구려식 신라불상으로 논의한 바 있다.

2) 역사적 배경

고구려가 백제수도 한산을 점령한 475년 이후 고구려는 계속 남하하여 서쪽으로는 아산만에서 조령, 죽령을 넘어 한때는 경북 영주, 봉화에서 충북 괴산, 청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고구려의 위협적인 남하에 대항해서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이라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고구려를 압박하여 마침내 551년부터 한강유역까지 진출하게 된다. 신라는 551년 이전인 525년경에 청주(당시 西京), 옥천(당시 管山), 진천(당시 母山)까지 진출하고 550년에는 도살성과 금현성(현 全義)을 공략한 후 551년에는 진흥왕이 친히 현 청주 북이면의 낭성(娘城)에 순수하여 충주에 있던 대 음악가 우륵까지 불러 북진을 현창하는 큰 연회를 베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550년경까지는 이 청주 비중리 일대는 신라영토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중리 석불상들이 550년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불상의 제작국은 신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II. 석조삼존불좌상

석조삼존불좌상은 발견 당시 본존 어깨 이상과 어깨 이하 그리고 오른쪽(向左) 협시보살상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파손상태로 있었는데 이들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세 쪽을 붙여 하나의 석불상으로 복원해 놓았다.

발견 당시 왼쪽(向右) 협시보살상 부분은 찾을 수 없었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찌면 일찍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이처럼 삼존불좌상(三尊佛坐像)은 완전복원하면 한 돌에 본존불좌상과 좌우협시보살입상 등 삼존불상과 함께 광배, 대좌 등을 모두 조각한 석조 일광삼존불상(石造一光三尊佛像)이 되는 셈이다. 특히 측면과 뒷면 등도 잘 다듬고 조각까지 하고 있어서 원각적인 기법도 나타내고 있다.

본존불좌상은 삼원광(三圓光)의 두광을 배경으로 높은 부조(高浮彫)로 머리부분을 조각했지만 현재 깨어져 얼굴의 형태는 알 수 없고 윤곽만 확인될 뿐이다. 상체는 뚝섬출토 금동불좌상이나 군수리탑출토 납석불좌상처럼 삼각형에 가깝게 어깨가 좁고 팔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며 가슴 등은 볼륨감이 뚜렷하지 않고 상현

좌에 덮여있는 무릎은 높지만 상체에 비해서 넓지 않는 편이다. 얼굴에서 깨어진 부분이 가슴부위까지 내려와 어깨와 가슴의 표면 부분이 탈락되었지만 양감은 크게 손상되지 않아 상체가 거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무릎은 비교적 크고 높은 편이지만 U형의 좁다란 주름을 이루는 상현좌가 무릎을 덮고 대좌로 내려가고 있어서 양감은 뚜렷하지 않다.

오른손은 무릎위에서 바로 들어 올려 손바닥을 보이는 시무외인을 짓고 있고 왼손은 무릎위로 걸치고 있는데 이 손은 신체에 비해 상당히 큼직한 편이어서 고식(古式) 불상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형태는 연가7년명 금동불입상(479년 또는 539년)에서 유래하지만 이보다 더 진전된 양식으로 군수리탑 납석불좌상과 현재로서는 가장 유사한 편이며, 좁고 긴 U형 옷주름의 상현좌는 고구려 평양토성리출토 소조불상 범(范)과 유사한 편이다.

특히 3중 두광배의 층단식 형식은 물론 좌우 5화불의 특징은 중국 동서위(東西魏) 내지 제주(濟周) 양식과 근사한 편이며, 이와 연관된 계미명(癸未銘=563년) 금동불입상 및 경(景) 4년(571년) 금동불입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상현좌 아래 중앙 본존불과 좌우협시3존상은 풍화가 심하며, 3존불 좌우 사자상도 오른쪽(向左) 상은 불분명하지만 활달한 꼬리가 뚜렷하고, 왼쪽(向右) 상은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런 대좌의 부조상들은 인도의 마투라상은 물론 남북조시대 중국불상에서 크게 유행한 형식인데, 삼국시대 불상에는 확실한 예가 없지만 뚝섬 불상의 사자상이 있는 대좌나 장천 1호묘 불상대좌의 사자상 등에 다소 비슷한 형식의 도상이 있는데 3존과 사자상의 조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예로 크게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좌우 협시보살상 중 오른쪽 보살상만 남아있는데 3중 광배, 좌우로 내려진 머리칼 형태, 하체의 평행 세로 옷주름선과 한 줄의 X자의습선 등은 중국 동위나 제주양식 보살상의 영향을 받은 계미명삼존불이나 경4년명금동삼존불의 협시보살상과 유사하고 군수리 금동보살입상과도 근사하지만 좁고 단순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와 대좌 하대(下臺)의 부조상 등은 고구려연가7년명불상이나 뚝섬불상에 원류를 두고 있으나 3중 층단 두광이나 옷주름, 보살상의 머리칼이나 X자의문 등에서 계미명금동불입상이나 군수리탑 석불좌상과 금동보살상으로 이어지는 양식계열이므로 6세기 후반 특히 6세기 3/4분기에 가까운 불상으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Ⅲ. 석조여래입상

석조삼존불상 옆에는 석주(石柱)에 새겨진 석불입상이 서있다. 즉 이 불상은 돌기둥의 앞면을 깎아 석불입상을 부조로 새긴 것이다.

돌기둥 상단부 테두리를 따라 9형의 두광이 둘러있고 두광 안에는 머리부분이

부조되었으나 표면이 탈락되어 윤곽만 남아있다. 이 윤곽으로 유추해보면 머리와 얼굴이 긴편으로 생각되는데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의 얼굴이나 계미년(563년)명 얼굴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통주형의 체구는 양감이 거의 없는 짧은 단신형(單身形)인데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與願印)을 한 두 손은 유난히 큼직하여 신체에 비해서 거의 1/3보다 더 큰 편이어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유난히 큰 손은 연가7년명금동불 입상이나 계미명금동불상에 가까운 고식에 속하는 손 크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하체에 형성된 층단 U자형 옷주름은 역시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에서 유래하여 계미명불상으로 이어지는 형식의 옷주름인데, 군수리탑 납석불좌상에 까지 계승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형태는 연가7년명불상에서 유래하지만 좌우 날개형 옷깃이 없고 동형(童形)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등 563년 계미명불상에 가까운 6세기 후반기(3/4분기 이후)에 속하는 불상으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

문명대, 「청원 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 연구」 『불교학보』 1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2.9)

「청원 비중리 석불상」 『삼국시대 불교조각사연구』 (예경, 2003.9) 재수록.
외 논문다수 있음, (첨부)

□

○ 현 상

1979년 처음 조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석조삼존불상과 석불입상은 지금의 초정약수터에서 2km 떨어진 지점으로 이 일대의 시굴결과 조선시대까지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당초에 삼존불상은 깨어진 채 언덕 기슭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를 모아서 지금은 보호각 안에 보존하고 있으며 석조여래입상은 보호각 앞에 놓여있다.

석조삼존불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불상, 대좌가 거의 환조(丸彫)에 가깝게 고부조로 조각되었는데, 현재 좌협시 보살상은 잃은 상태이다. 본존불은 머리 부분을 비롯해서 가슴부위까지 깨어져 상체부분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어깨는 둥글었던 듯하다. 오른손은 들어서 시무외인을 결하고,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놓았는데, 여원인의 손바닥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무릎을 덮은 본존상의 옷자락은 중앙에 3~4개의 긴 타원형의 U자형 주름을 이루고 그 좌우는 옷자락이 일정한 간격으로 아래로 늘어졌으며 향우측(向右側)의 옷자락 끝단은 옻형 옷주름을 이루고 있다. 그 아래로 방형대좌의 중앙에는 여래좌상과 좌우 협시상이 양각되어 있고 대좌 좌우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오른쪽 사자만 희미하게 몸통 일부의 윤곽과 꼬리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광배는 원형의 두광 주위로 삼중의 동심원이 새겨져 있고 신광부분에도 역시 둥근 곡선의 윤곽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부에 문양은 없다. 두광과 신광의 좌우로 각각 5구의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으며 그 형태는 고식(古式)의 선정인 불좌상으로 정상이 뾰족한 광배를 가지고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얼굴과 머리 부분의 훼손이 심하긴 하지만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다. 세 겹의 탐스러운 머리다발이 어깨위로 늘어지고 목에는 끝이 뾰족한 침관형 목걸이 혹은 둥근 구슬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으며, 가슴에는 사선으로 두꺼운 내의(內衣)가 표현되어 있다. 천의(天衣)는 양 어깨에서 아래로 늘어져 X자형으로 교차되었으며 양 팔에는 두꺼운 천의자락이 걸쳐져 있고, 하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잡힌 치마[裙]를 입고 있다. 또한 머리 뒤에는 가장자리가 돌출한 원형의 두광이 새겨져 있다.

일광삼존불좌상의 보호각 앞 뜰에 세워져 있는 석조여래입상은 얼굴이 훼손되어 상호를 알아볼 수 없으나 머리 뒤에 광배가 보이며, 어깨는 각이 지고, 시무외·여원인의 통인을 결한 큼직한 손과 왼쪽 손목위에 걸쳐진 가사자락, U자형의 옷주름이 새겨진 대의 아래에 주름이 지어진 치마가 표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삼존불상이 하나의 광배에 함께 표현되는 ‘일광삼존불상’의 형식은 고구려 금동불상에서는 경4년 신묘명 금동여래삼존상(571년)을 비롯해서 몇 점이 전해오고 있는데, 비중리 삼존불상은 석조로 일광삼존불상을 새긴 가장 이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존불상의 대좌 좌우에 새겨진 사자상(獅子像)은 집안(集安)에 있는 장천 1호묘 벽화 불좌상의 대좌에 보이는 사자상과 비교될 수 있고, 광배에 새겨진 10구의 화불(化佛)은 고구려 불교조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봉화 북지리 마애불좌상의 광배 화불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비중리 삼존불상이 고구려 조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불상의 제작국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비중리 삼존불상이 위치한 지점은 고대의 주요 교통로상이라는 점으로서 신라 진흥왕대의 북진로(北進路)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향성에서 경주로 통하는 대당 교통로가 통과하던 지점이기도 하므로 이 불상이 조성된 배경은 6세기 후반에 청주지역에 진출한 신라의 지배력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비중리 삼존불상의 제작국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475년경부터 6세기 중엽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고구려의 불교조각의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에서 볼 때, 신라의 지배가 시작된 6세기 중엽에서 후반 무렵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구려계 장인(匠人)에 의한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또한 비중리 석조여래입상 역시 삼존불상과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생각되며 수인과 옷주름, 전체적인 조형감에서 판단할 때, 삼국시대 6세기 불상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진홍섭, 『삼국시대의 미술문화』, 동화출판공사, 1976.

문명대, 「清原飛中里 三國時代 石佛像의 研究」, 『佛敎學報』 19, 1982.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飛中里 一光三尊石佛 復元調査 및 原位置探索調査報告書』, 1992.

徐榮一, 「6世紀 新羅의 北進路와 清原 飛中里 石佛」, 『史學志』 30, 1997.

김춘실, 「청주 비중리 석조불상의 연구 - 조성 국가의 파악과 관련하여 -」, 『美術史學研究』 290·291, 2016.

□

○ 조사내용

이 석조삼존상은 1979년 비중리 초입에 있는 작은 동산 주변에 파손된 채 발견되어 따로 보존되어 왔던 것인데, 이후 편들을 조립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고 1987년에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석조여래입상은 삼존상이 있는 남쪽 전방에 석조광배와 함께 나란히 서 있다. 석조여래삼존상은 좌상의 본존과 입상의 좌우 협시로 구성되었을 것이나 현재 좌협시 보살상은 결실되었고, 우협시도 탈락되어 있던 것을 수습하여 지금과 같이 복원한 것이다. 삼존상은 하나의 광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부 모퉁이의 모를 둥글게 죽인 방향의 광배에 좌우협시를 덧댄 독특한 삼존형식을 띠고 있다. 광배의 상부는 홈을 파턱을 이루게 했는데, 상면에 지붕과 같은 어떤 장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일광삼존형식은 중국의 경우 6세기 초부터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563년으로 추정되는 ‘금동계미명여래삼존상’ 등 주로 금동불상에서 확인되고, 석조불상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림 1 석조여래삼존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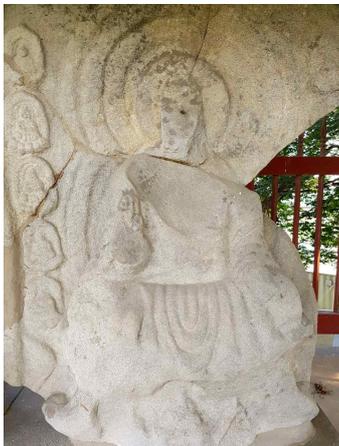


그림 2 본존 여래좌상



그림 3 우협시 보살입상

방형의 거신광배를 등지고 앉은 본존상은 머리가 파손되었고, 아무런 문양을 넣지 않은 4겹의 동심원을 머리 주변으로 돌려 두광을 나타내었고, 두광과 연결된 신광도 佛身을 따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외연을 불꽃문으로 처리한 점에서 다르지만 동심원대를 반복하여 표현한 두·신광의 표현은 北魏 熙平元年(516)명 금동보살입상이나 北魏 熙平 3년(518)명 금동이불병좌상 등 6세기 초반 북위시대의 불상 광배와 비교할 수 있다.

머리의 중심부에는 구멍(지름 3cm, 깊이 5.5cm)이 뚫려 있는데, 제작 당시부터 머리를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기 위해 뚫은 것인지 후대 보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멍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머리만을 별도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후대 보수 과정에서 생긴 구멍으로 추정된다. 대의는 통견으로 걸쳤으며, 가슴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內衣의 착용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무릎 앞으로는 대의자락이 U자형으로 중첩시켜 흘러내린 것이 인상적인데, 480~490년경으로 추정되는 大和文和館所藏의 금동여래좌상과 북위 太和 13년(489)명 금동이불병좌상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확인되지만, 완전히 漢化된 착의형식과 주름의 표현은 동위 天平 2년(535년)명 석조여래좌상에 훨씬 근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산 연동리에서 보다 정돈되고 정형화된 모습의 U자형 주름이 등장하는데, 이 석불은 이 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手印은 마멸이 심하지만 북위 연흥 2년(472)명 석불좌상과 같이 오른손은 들어 施無畏印을, 왼손은 내려 與願印을 결한 것으로 추정되며,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형의 대좌는 중앙에 향로를 두고 좌우에 사자를 배치한 獅子座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형식의 방형 사자좌는 중국에서도 3세기 말의 미국 포그미술관 소장 금동여래입상을 시작으로 後趙 建武 4년(338)명 금동여래좌상, 그리고 523년의 운강석굴 빈양중동 본존상 등 4~6세기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古式의 대좌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세기경 중국 전래품으로 추정되는 뜻섬출토 금동여래좌상과 5세기 후반의 集安 長川里 1호분 전실 동측 받침 천정에 보이는 禮佛圖 정도로 확인될 만큼 매우 드물며, 석불로서는 이 삼존상이 거의 유일한 예이다. 특히, 이 불상은 장천1호분 예불도와 마찬가지로 대의자락이 대좌를 덮어 내리지 않은 非裳懸座 형식이어서 古式 중에서 고식을 띤다. 두·신광의 좌우 측면에는 연화좌에 앉아 선정인을 결한 5구의 化佛을 각각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우측에 5구, 좌측 상단에 1구만 남아 있다. 화불은 꽃잎형의 광배를 갖추고 연화좌에 앉아 선정인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10구를 표현한 것은 시방제불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광배의 외연을 따라 상승하듯이 표현한 점은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의 화불 표현방식과도 유사하지만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이어서 시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불신에 비해 큰 둥근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이목구비는 마멸이 심하여 확인할 수 없다. 보관도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보발

은 두 가닥을 서로 교차시켜 엮었지만, 寶髻는 만들지 않았다. 얼굴 양측으로는 보관의 관식이 무겁게 늘어졌으며, 목에는 心葉形의 두터운 영락장식 내지 구슬이 장식이 붙은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천의는 허벅지에서 X자형으로 교차시켜 팔목으로 두텁게 걸쳤는데, 표현방식이 매우 도식적이다. 수직 주름으로 처리한 치마를 입었다. 오른손은 어깨에 들었고, 왼손은 허리춤에서 지물을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위에는 천의를 고정하는 원형의 장식이 표현되었다. 관대의 표현과 X자형의 천의, 심엽형의 장식, 그리고 지물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북위 熙平 3년(518)명 금동보살입상이나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과 양식적으로 상통하지만, 天衣의 표현이 도식화되고 좌우 뻗침이 완화되는 등 양식적 변화도 관찰된다.



그림 4 석조여래입상



그림 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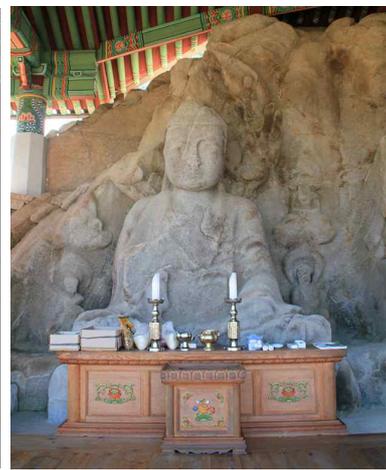


그림 6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밖에 서 있는 독존의 여래입상은 아래 부분은 넓고 윗부분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의 돌에, 불상도 그에 상응하게 좁은 어깨와 넓은 하체를 가진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얼굴은 마멸되어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며, 왼쪽 팔뚝으로 걸쳐 넘긴 통견식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施無畏與願印을 결하고 있다. 대의 주름은 U자형으로 입체적으로 흘러 내렸으며, 裙衣는 일정한 간격의 수직주름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태안마애삼존불이나 서산마애여래삼존상 등 6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석조여래삼존상은 삼국시대 제작된 일광삼존상으로 금동불상에서 그 예가 많이 보이지만 석조불상으로는 유일한 예로서 귀중하다. 본존불의 광배가 배 모양 또는 꽃잎모양이 아닌 네모난 형태로 본존과 협시가 한 광배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존불의 광배 옆에 걸달아 내어 오묘한 조형감각을 연출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발견 당시부터 삼국시대 6세기 중반 작으로 한국조각사에서 중요시 다루어진 불상이다. 불상은 향로와 사자가 표현된 방형의 사자좌

를 보이며, 단순한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광배, U자형으로 짧게 드리운 비상현좌의 주름표현, 보살상은 X자형으로 교차한 주름과 심엽형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5-6세기에 유행한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동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등 6세기 전반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강한 뺨침의 대의자락이 이곳에는 거의 표현되지 않아 이 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인 6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문명대, 「청원 비중리 삼국시대 석불상의 연구」, 『불교학보』 19, 1982(同著, 『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재수록)

서영일, 「6세기 신라의 북진로와 청원 비중리 석불」, 『사학지』 30, 단국사학회, 1997

김춘실, 「청주 비중리 석조불상 연구 - 조성 국가의 파악과 관련하여」, 『미술사학연구』 290·291, 한국미술사학회, 2016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7-03-002

2.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한국국학진흥원
- 수 량 : 일괄 12종 394점(전체) / 분재기 10점(보존처리 대상)
- 규 격 : 63.0 × 50.0cm(최소) ~ 86.0 × 445.0cm(최대)
- 재 질 : 지류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1986. 10. 15.
- 문화재내용 :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載寧李氏 寧海派 宗家 古文書)는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로, 총 12종 394점이다. 대부분 고문서들로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인 분재기 54점, 호구(戶口)사항을 적어놓은 호적단자 84점, 명문 173점, 일반 백성들이 관에 제출하는 진정서인 소지 49점, 남녀가 결혼할 때 양쪽 집안에서 주고받는 글인 예상지 15점, 과거에 응시했던 시험지인 시권 4점, 한 집안에서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문서인 통문 3점, 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특전을 부여할 때 확인하는 문서인 완문 3점 등이다. 이밖에도 소장된 문서는 사령장 입안을 요청하는 소지, 상량문 등 500여건에 달한다. 이것들은 재령 이씨 가문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라. 현 상태 : 전체적으로 지질 약화 및 꺾임, 접힘, 마모, 화면 결실의 물리적 손상이 두드러지며, 본지 표면에서는 습해 얼룩과 곰팡이 얼룩 오염이 관찰된다. 특히 가로로 긴 문서의 경우 과거에 말아서 보관할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로방향의 규칙적인 얼룩과 화면 결실이 관찰된다. 결실면적이 넓은 곳은 주변의 본지 유실 등 2차 추가 손상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뒷면에서 종이를 덧대어 과거 보수한 흔적이 관찰된다. 세척을 통한 표면 오염물 제거 후 과거 보수 부분을 제거하고 결실부에 대한 보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보물 제876-2-6호 재령이씨 영해파 고문서 분재기(화회문기) 전체사진 (가로방향 규칙적인 습해얼룩, 화면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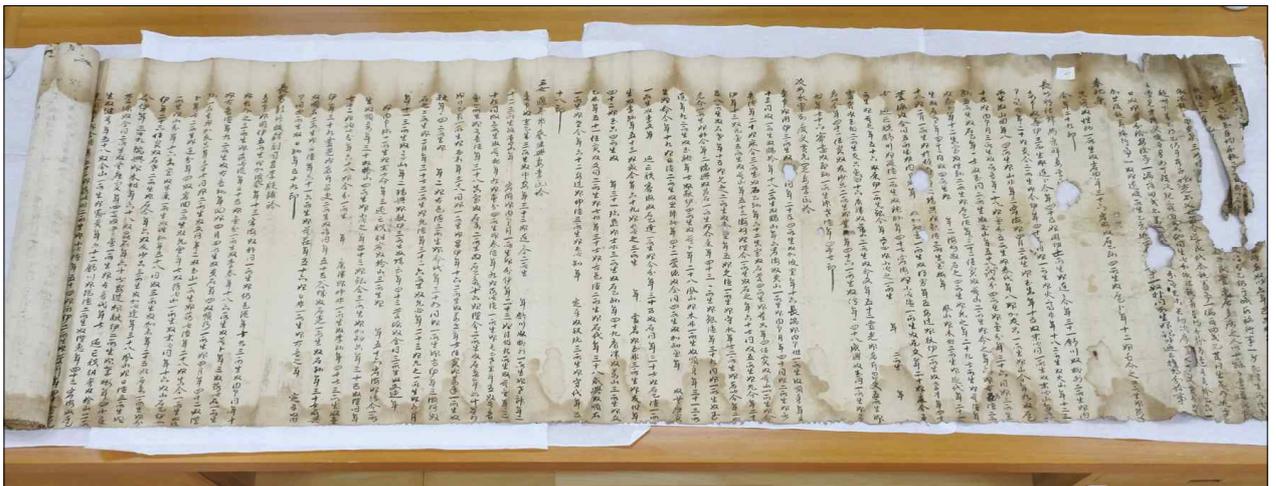


그림 2. 보물 제876-2-7호 재령이씨 영해파 고문서 분재기(화회문기) 전체사진 (가로방향 규칙적인 습해얼룩, 화면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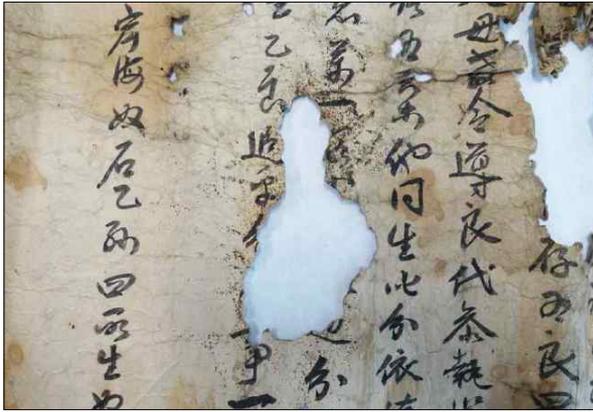


그림 3. 보물 제876-2-7호 재령이씨 영해파 고문서 분재기(화회문기) 세부 상태
(좌: 화면 곰팡이 얼룩, 화면 결실, 우: 표면 오염 얼룩, 화면 결실, 접힘)



그림 4. 보물 제876-2-26호 재령이씨 영해파 고문서 분재기(허여문기) 전체사진
(가로방향 규칙적인 습해얼룩, 화면 결실)



그림 5. 보물 제876-2-1호
재령이씨 영해파 고문서 분재기(화회문기)
세부 상태 (투명테이프 부착)



그림 6. 보물 제876-2-36호
재령이씨 영해파 고문서 분재기(화회문기)
세부 상태(과거 보수 부분 얼룩 오염)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의 보존처리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며 물리적 손상 가속화 방지 및 원형 보존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처리 전 상태 조사 및 기록(사진촬영, 적외선 촬영, 실측 등)
 - 유물의 기본물성(무게, 크기, 두께 등) 및 색도, pH 측정
 - 섬유 재질 분석
- 세척
 - 유물 상태에 따라 건식세척 및 습식세척을 실시하여 오염물을 제거
 - 글씨부분은 번짐 정도를 확인하여 안정화 처리 후 습식세척 진행
- 과거 보강부분 제거
 - 현재 유물 상태 확인 후 과거 보강부분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 결실부분 보강처리
 - 처리 전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본지와 유사한 보강지를 선택한 후 천연염색하여 본래 유물 색에 맞게 색맞춤 하여 결실부에 맞게 보강
- 배접 및 건조
 - 본지의 형태 왜곡 보완을 위해 문서 두께에 따라 선택적으로 배접 처리
 - 보강 및 배접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자연 건조 진행
- 재단 및 보관폴더 제작
 - 건조된 유물은 결실부 외 여분의 보강부분을 재단하여 마무리
 - 낱장 문서 보관을 위한 보관용 중성폴더 제작
- 보존처리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8. 12. 30.까지 예정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 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7-03-003

3.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제관식 등 4건 국외반출

가. 심의사항

‘2017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환 전시를 위해 총 4점(국보 2점, 보물 2점)의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의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청한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제 관식, 국보 제88호 금관총 금제 허리띠, 보물 제632호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 총 4점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경주박물관
- 대상문화재 및 수량
 -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중 금제 관식 1점
 - 국보 제88호 금관총 금제 허리띠 1식
 - 보물 제632호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1쌍
 -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 1병
- 반출 및 전시기간
 - 반출기간 : 2017년 10월 11일 ~ 2017년 12월 27일
 - 전시기간 : 2017년 10월 28일 ~ 2017년 12월 15일
- 전시장소 : 이란국립박물관 신관 1층 특별전시실
- 전시명칭 : 신라와 페르시아, 공동의 기억(Silla and Persia, a Common Memory)

라. 국외반출 대상 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7. 5. 30.(화) / 6. 2.(금)
- 조사장소 : 국립경주박물관
- 조사자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 이용희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정호
- 조사자 의견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중 금제 관식>

-

- 보존상태 양호하며, 보수 및 보존처리 필요하지 않음
- 이동 및 전시에 문제가 없으나 이동시 안전포장에 유의할 것

-

- 해당 문화재는 2002년 2월~2002년 8월까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의 명보전’과 2013년 9월~2014년 3월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등 해외 전시 이력이 있음
- 상태 점검 결과, 금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출토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별다른 손상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보존 조치가 없어도 무방하나 영락장식이 내·외면에 모두 배치된 특수한 유물이기 때문에 포장과 해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국보 제88호 금관총 금제 허리띠>

-

- 보존상태 양호하며, 보수 및 보존처리 필요하지 않음
- 이동 및 전시에 문제가 없으나 이동시 안전포장에 유의할 것

-

- 해당 문화재는 2002년 2월~2002년 8월까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의 명보전’과 2007년 11월~2008년 1월까지 미국 휴스턴미술관 한국실에서 전시되는 등 해외 전시 이력이 있음
- 상태 점검 결과, 재질의 특성상 출토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별다른 손상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 별도의 보존 조치는 없어도 무방하나 유리제 요패장식은 파편 상태로 얽혀 있어서 포장이나 해포, 전시 중에 파편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보물 제632호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

- 상단부 일부 손상이 있으나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보존처리 필요하지 않음
- 이동 및 전시에 문제가 없으나 이동시 안전포장에 유의할 것

-

- 해당 문화재는 2004년 6월~2004년 10월에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특별전과 2013년 9월~2014년 3월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 등 해외전시회 출품 이력이 있음
- 2점의 은제 팔뚝가리개 가운데 1점은 측단이 2.5cm 가량 파열되었고, 2점 모두 끝단이 부식된 상태이지만 출토 이후 공개된 사진자료와 비교한 결과, 근래의 손상이 아니라 출토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토 이후 보존처리된 상태에서 부식이나 손상이 진행된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음
- 현 단계에서 별도의 보존처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파열된 부위와 끝단의 부식된 부분이 날카롭게 잔존하여 포장과 해포 시 포장지에 걸려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

-

- 기 보존처리된 유물로 현 상태 양호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 필요하지 않음
- 이동 및 전시에 문제가 없으나 이동시 안전포장에 유의할 것

-

- 해당 문화재는 2010년 6월~2010년 9월에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미술 오천년’ 특별전과 2013년 9월~2014년 3월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특별전 등 해외전시회 출품 이력이 있음
- 해당 문화재는 2010년 정밀조사와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안전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보존처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식된 목재 부위는 경화처리된 상태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므로 포장과 운송, 해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마. 우리청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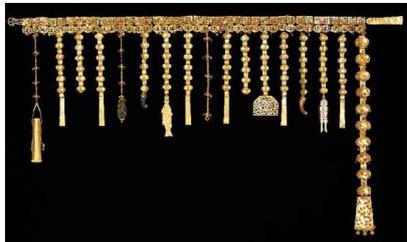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 해외반출 현지조사 결과, 국보 2점과 보물 2점 모두 보존상태 양호하여 보존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단, 유물 포장과 운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또한, 전시기간 동안 유물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전시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국외반출 신청 문화재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허가신청목록-1		
① 지정 번호	국보 제87호	
② 명 칭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40.8cm	
⑤ 보 관 장 소	국립경주박물관	
허가신청목록-2		
① 지정 번호	국보 제88호	
② 명 칭	금관총 금제 허리띠	
③ 수 량	1식	
④ 규 격	길이 109.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경주박물관	
허가신청목록-3		
① 지정 번호	보물 제632호	
② 명 칭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③ 수 량	1쌍	
④ 규 격	높이 34.2cm, 35.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경주박물관	
허가신청목록-4		
① 지정 번호	보물 제635호	
② 명 칭	경주 계림로 보검	
③ 수 량	1병	
④ 규 격	높이 36.8cm	
⑤ 보 관 장 소	국립경주박물관	

[참고자료]

국립경주박물관 출품 이란국립박물관 개최 특별전
 “신라와 페르시아, 공동의 기억”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심사 참고자료

2017. 5. 23./ 국립경주박물관

1. 국외전시 개요

- 전시명: “신라와 페르시아, 공동의 기억(Silla and Persia, a Common Memory)”
- 전시에정장소: 이란 테헤란 이란국립박물관 신관(新館) 1층 특별전시실
- 전시에정기간: 2017. 10. 28. ~ 12. 15. (7주)
- 대여예정기간: 2017. 10. 11. ~ 12. 27.
- 전시에정품: 신라능묘, 월지 출토품, 기와 등 102건 144점(국가지정문화재 4건 5점 포함)
- 전시구성(안)

순서	대주제	소주제	대표 전시품
도입부	전시를 시작하며	- 한국의 지리, 역사, 민족 개괄 - 신라의 역사와 문화 소개	*지도 및 대표적인 신라 유적 이미지 사진
제1부	황금의 나라, 신라	1. 거대한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문화	 국보 87호  국보 88호  
		2. 권위와 위엄의 상징	 보물 632호 
		3. 다양한 무덤의 부장품	

			
제2부	신라와 페르시아	1. 서쪽에서 유래한 물건들	 <p>보물 635호</p> 
		2. 신라미술에 보이는 이방인들	
		3. 이국적인 동물들의 표현	
제3부	신라인의 삶	1. 신라인의 모습	
		2. 건축과 생활	

		3. 영원한 시간과 공간	
종결부	전시를 마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의 왕국 신라 - 신라와 페르시아, 한국과 이란 	*한국사 전체 연표, 신라사 연표, 이미지

2. 전시 개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17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란국립박물관의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16.10.)에 따른 후속 사업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2016.1.) 이후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요문화재를 이란 현지에 출품·전시함으로써 이란 내 한국의 위상 제고
 - 신라와 페르시아의 유구한 역사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이란 양국의 우호 증진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
 - 이란 내 한국 드라마 유행 등의 대중문화 열풍에 이어 한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적 관심을 환기시켜 상호 이해 심화 도모
 - 이란 국민들에게 신라의 찬란한 문화재를 소개하여 한국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림
- ※ 신라 문화의 진수와 국제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능묘 출토 금제품 등 국가지정문화재 명품 전시 필요

3. 이란국립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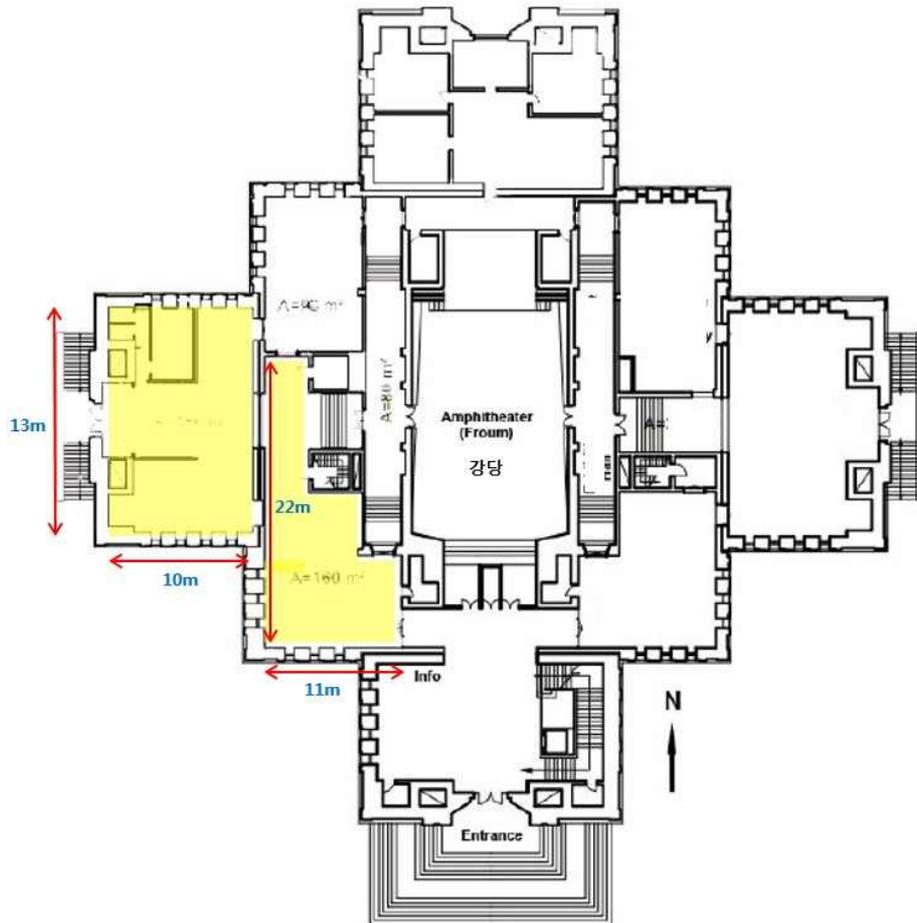
- 위치: 테헤란 시내 중북부
 - 기관 성격: 국립/종합 박물관[1937년 개관, 이란문화유산수공업관광기구(ICHHCTO) 소속]
 - 소장품 범위 및 규모: 구석기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약 30만점
 - 전시관 구성
 - 구관(바스탄 박물관): 페르시아 등 이슬람 이전 시기 문화재 전시
 - 신관(이슬람 박물관): 사파비왕조 등 이슬람 이후 시기 문화재 전시
- ※ 이번 특별전시 사용 공간은 신관 1층 특별전시실(면적 360m²)



이란국립박물관 구관(이슬람 이전) 전경



이란국립박물관 신관(이슬람 이후) 전경



이란국립박물관 신관 1층 평면도(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 특별전시에 사용할 전시공간임)



‘인간과 동물의 뼈’ 전시연출의 예(2014)



‘도시와 문명’ 전시연출의 예(2017)

4. 전시품 안전관리 방안

- 보안

- 건물 내 보안전문인력 24시간 상주
(개관시간 동안 전시실 출입구에 보안요원 배치, 폐관 후 야간 순찰)
- 건물 외곽 24시간 경비 및 순찰 실시
- 전시실 입장객의 가방 등 소지품 및 내용물 확인(폭발물 및 총기류 반입 원천 차단)
- 전시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24시간 운용(중앙감시실에서 통제)
- 전시실 내에서 삼각대 휴대 금지(흉기 또는 파손도구로 전용 방지)

- 화재 방지

- 전시실 내 천정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 운영, 분말소화기 비치

- 기타

- 이란 정부기관이 인증한 전시품 주권면제 및 한국으로의 반환 보증서 수령
- 전시실 내 공조기 가동, 실내 적정 온도도 유지(섭씨 20~24도, 습도 40~50%)
- 전시 기간 동안 경주박물관 직원(관리관)이 현지 상주하며 전시품 안전 확인

5. 전시품 상태점검, 포장·운송 및 보험가입

- 국립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직(전시 담당자, 보존수복 담당자)이 직접 상태점검 후 포장
- 전시품의 포장은 중성지·습포 포장 후 오동나무 상자 격납, 크레이트 격납 순으로 3중 포장하여 이동 중 전시품의 안전 확보
- 육상 및 항공운송은 문화재전문운송회사에서 담당하며, 국립경주박물관 직원이 호송관으로 동행하여 운송·해포·설치 업무 진행과정 감독
- 문화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경주박물관이 문화재 보험가입 예정(전위험 담보, wall-to-wall)

6. 전시품 상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지정문화재: 총 4건 5점
 - 금관총 금제 관식 (국보 제87호)
 -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보물 제632호)
 - 경주 계림로 보검 (보물 제635호)
- 점검 기간: 2017. 5. 15. ~ 5. 22. (경주박물관 전시실 및 수장고)
- 점검 내용: 국외전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전시품의 상태 및 취급 시 유의사항 점검
- 점검 결과: 이상 없음(점검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소장품은 제외함)

구분	사진 및 현상
금관총 금제 관식 (국보 제87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전체적으로 보존상태 양호. 세부 영락장식의 이음선 및 투각 부분 안정적인. 운송 및 전시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p>
금관총 금제 허리띠 (국보 제88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전체적으로 보존상태 양호. 허리띠와 드럼 부분 분리. 운송 및 전시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p>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보물 제632호)



전체적으로 보존상태 양호. 경첩 및 상단 테두리의 곡면 부분도 안정적임.
운송 및 전시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경주 계림로 보검
(보물 제635호)
상태점검 모습



아크릴 전용 판에 넣어 보관 중.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함. 표면 누금 및 보석
부착 안정적이고 내구성 강함. 운송 및 전시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7-03-004

4.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關係文書)

가. 검토사항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4.3.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0.26)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2017년 제1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한 바 있음
- 검토 결과, 목각탱 일괄 비교조사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보물 제989-2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비교조사('17.4.2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보물 제575호 [불상 1구, 문서 4건(제575-1호~제575-4호) / 1973.12.31.지정]
- 명 칭: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關係文書)
- 소유자(관리자): 대승사
- 소재지: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대승사(전두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수량	1점	11건
규격(cm)	346.8×278.9	조사보고서 참조
재질	목조	저지(楮紙)
제작연대	1675년	1869~1876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조선시대 1675년에 조성된 것으로,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한 목각설법상 중에서 선구적인 작품이다. 현존하는 6점의 목각설법상(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설법상들의 모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의 아미타팔대보살과 『관무량수경』의 구품연지, 『근수정업왕생첩경』의 내용이 절묘하게 접목시켜 그림이 아닌 조각으로 표현한 독특한 형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설법상과 자주 비교되는 1684년작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보존상태도 좋고 수준높은 표현력을 갖추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도상의 수도 적으며, 판목 간에 표현들이 유기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존상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격의 성격에 맞게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좌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통하여 불교 세계관을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이 외틀의 64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일부 없어지거나 후보된 것도 있지만, 당시의 신앙 형태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는 점과 불화를 투각 형식으로 조각한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련문서를 제외하더라도 국보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재 극락전 후불탱으로 봉안된 목각탱이다. 이 목각탱은 10매의 조각판을 조합하여 한 판을 형성한 것이다. 중앙에는 본존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주변에 보살 및 제자, 천왕상 등 24구를 정연하게 대칭을 이루며 배치하였다. 특히, 목각탱 존상 및 각 모티브에는 방제명을 적고 있어, 17세기 아미타극락회의 도상 연구에 가치있는 사례이다. 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관무량수경>과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융합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미타의 向法(東向)에 따라 사천왕을 배치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기의 목각탱으로 인근 용문사에 1684년에 조각승 단응(端應)과 탁밀(卓密)이 조성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탱은 용문사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불보살상의 존용 표현이나 작품에 있어서도 격이 뛰어나다. 게다가 대승사 목각탱은 목서명에 의해 강희14년(1675)경에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현존하는 목각탱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승사 목각탱은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과 더불어 이들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탱은 용문사에 비해 작품이 엄격하고 힘이 있어 동일 조각승이 유사 시기에 제작한 것 보다는 오히려 동일 공방에서 제작 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탱으로서 보기드문 목각탱이며, 겨우 6점의 목각탱 사례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더욱이 규모나 작품,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국보로 승격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탱화의 형식을 조각으로 표현한 ‘목각탱’으로, 총 10매의 판목을 조합하여 아미타극락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였다. 그동안 19세기 또는 17세기 후반 경의 작품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조사를 통해 강희14년, 즉 1675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현존하는 6점의 목각탱(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화기를 통해 이 목조설법상의 조성에 참여한 宗現이 9년 후 용문사 목각탱의 조성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목각탱이라는 새로운 도상의 파급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도상적으로는 고려~조선후기에 이르는 아미타계 불화의 도상을 기본으로 하여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 판화의 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러한 도상은 추후 다른 목각탱의 모본이 되었다. 아울러 함께 전해져 오는 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목각탱 이안을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후기 사찰 간의 聖寶의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처럼 대승사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는 현존하는 목조설법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일 뿐 아니라 목조설법상의 移安을 둘러싼 문서가 함께 전해오는 등 자료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본 대승사 목각탱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탱 가운데 가장 오래된 1675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양식 분석에 의하여 단웅, 탁밀 등 경상도 북부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여타 목각탱의 기준이 된 작품으로 추정될 정도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존상들은 매우 강한 고부조로 조각되었고, 작품의 예술적 성취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승사 목각탱과 함께 조사된 예천 용문사 목각탱은 대승사 목각탱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 단웅과 탁밀에 의해 조성된 작품으로 대승사 목각탱의 축약본으로 판단된다. 1684년에 단웅과 탁밀 등에 의해 조성된 우수한 작품으로, 원래의 봉안처에 그대로 봉안되어 있으며, 목각탱의 주존인 아미타삼존상도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작품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구성이 간결하며, 작품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상 대승사 목각탱은 학술성, 작품성, 역사성 등에서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용문사 목각탱은 뛰어난 학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과 작품성에서 다소 미흡하므로 현 상태인 보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이 목각아미타여래상은 화면의 최하단 부분에 기록해 놓은 조성기를 통해, 1675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현존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 최고·최대 작이며, 이후 제작되는 모든 목각설법상의 範本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화면의 구성과 도상은 고려시대 <관경16관변상도>나 아미타여래설법도의 전통적인 도상의 기반 아래, 16·17세기에 새롭게 간행·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 판화의 도상을 조선후기 조각승들이 접목하여 유례가 없는 새로운 불화형식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즉,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러한 형식의 불화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어서 중요하고, 여타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祖形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 과거 비바시불을 통해 불법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원륜 대좌를 통한 불교의 우주관을, 시간 상징하는 글자와 12개의 괘를 통해 시공을 포괄하는 존재로서의 아미타여래를, 더 나아가 시방법계의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적으로나 도상적으로도 빈틈과 생략이 없어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최고의 작품이자 최대의 작품이며,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성과 상징성, 조형감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이안에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 문서이다. 불상 이안 등 불교관련 분쟁을 다룬 문서는 거의 유일한 예여서 당시 이 설법상이 갖는 가치에 대한 사찰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 (승격 지정 가치 있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화를 대신하는 후불목각탱으로 아미타극락회와 구품왕생의 장면을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채택된 도상은 고려말·조선초에 유행하던 <관경16관변상도>나 아미타여래설법도의 전통적 것과 조선후기 간행·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 판화 도상을 결합하여 새롭게 것으로 창안된 것이다. 1675년 종현(宗現)을 증사로 하여 단웅과 탁밀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며, 현존하는 6점의 설법상중 가장 오래되고, 도상, 화면 구성 등이 다른 설법상의 원형이자 모본이 되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후불화를 대신하는 설법상은 예배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방제란에 존상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주제의 전달을 위해 구품왕생의 단계나 시공을 초월하는 불교의 우주관과 법에 대한 탐구, 극락왕생의 염원 등을 글로써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후에 설법상은 이런 주제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과는 차이 있다. 조형적으로도 불·보살과 권속들은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드러나며, 본존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깊은 공간감 등은 다른 설법상들과 비교해 완성도가 높다.

한편 대승사 설법상은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설법상 이안을 둘러싸고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 분쟁을 보여주는 문서도 남아 있는데 불상 이안에 따른 분쟁을 다룬 문서로는 유일하며, 당시 조선후기 불교계 상황을 알려주는 보기 드문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점에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다른 설법상과 비교해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판단되며, 국보 승격의 요건이 충분한 작품으로 생각한다.

<관계문서>

○ (승격 지정 가치 미흡)

목각탱의 소유를 둘러싸고 부석사와 대승사 간에 벌어진 송사에서 생산된 11종의 문서들은 조선후기 사찰의 제반 상황을 연구하는데 일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작성연대가 19세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화재 지정의 절대연대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목각탱의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문서를 국보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승격 지정 가치 미흡)

보물로 기 지정된 4종을 포함한 문서 11종은 목각탱이 대승사에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서이다. 그러나 이 소지류의 문서들은 시대적, 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찰간의 목각탱 이안(移安)에 한정된 것이며, 생산시기도 19세기 후기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서들은 보물급 문화재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서들은 목각탱의 국보승격과는 별도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승격 지정 가치 미흡)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11종은 19세기 후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대승사에 봉안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나, 사찰간 목각탱 이안(移安)에 한정되어 역사적 자료로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 1.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함
- 2. 관계문서의 경우 보물유지 여부 및 지정범위 등 차기 위원회에 부의

조사보고서

[보완 조사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 현 상

2007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밝혀진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강희(康熙) 14년(1675)에 경상북도 태백산(太白山) 부석사(浮石寺)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치(同治) 8년(1869)에 지금의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관련 기록에 의하면, 대정(大正) 원년(1912)에 금어(金魚) 영운창률(影雲敞律), 환월상휴(煥月尙休), 퇴경상로(退耕相老), 용선경현(龍船景玆), 해성창흔(海城昌昕), 범운윤연(梵雲允衍), 육주인택(六洲仁澤), 대형(大炯), 창호(昌浩), 대흥(大興), 진한(鎭閑), 명수(明洙), 경오(景昨), 주경(珠經) 등에 의해 개금되었다고 한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외관상 10개의 나무를 이용하여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짜 맞춤식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투조나 환조 기법으로 존상들을 조성한 것이다. 상하좌우틀 속에는 윗부분에 가로로 2개의 나무와 아랫부분에 1개의 나무가 있으며, 이들 나무 사이에 세로로 7개의 나무가 짜 맞춰져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문경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1)에 의하면, X선 촬영 결과, 각 존상들에서는 얼굴, 어깨, 가슴, 배에서 옛 못 [단정短釘]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들 못은 얼굴을 판목에 고정하거나 각 존상마다 남아 있는 금속제 후령통 등 복장물을 납입한 후 복장공 마개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화면 상단 왼쪽 비천상 부분에는 작은 나무를 비교적 긴 못으로 고정한 흔적도 확인된다. 전체를 고정하기 위한 뒤쪽 판목 안쪽에는 투각된 공간을 종이로 발라 마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일부 부재들은 1966년 이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재 중에는 좌우틀도 있는데 괘(卦)가 새겨진 상하틀과 다르다는 점과 1684년에 조성된 보물 제 989-2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상하좌우틀에 모두 괘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후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구성하고 있는 존상 중에서 주존 아미타불상의 왼쪽에 있는 금강장보살상(金剛藏菩薩像)의 지물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곤 모두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서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설법 장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중앙에는 설법인을 결한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여러 보살과 권속들이 표현되어 있고, 윗부분에는 과거칠불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극락정토의 구품연지가 표현되어 있다. 설법 장면에 등장하는 존상들은 모두 아미타불을 향하고 있는데,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판목 1개 당 세로로 4존씩 배치할 수밖에 없는 조각의 한계 때문이다. 각 존상 옆에는 붉은 바탕의 방제란(傍題欄)에 금색 글씨로 존명들이 새겨져 있어서 어떤 존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방제란에 적힌 존명들을 중심으로 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윗부분의 가로 판목 중앙에는 원형의 붉은 방제란 속에 과거칠불 중에서 첫 번째 붓다인 비바시불(第一毘婆尸佛)이 흰 글씨로 적혀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양옆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6존의 불상이 과거칠불 중 제2 시기불(尸棄佛), 제3 비사부불(毘舍浮佛), 제4 구류손불(拘留孫佛), 제5 구나함모니불(俱那含牟尼佛), 제6 가섭불(迦葉佛), 제7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비바시불의

원형 방제란은 리본으로 양옆을 묶은 화려한 보개(寶蓋)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바깥으로는 좌우에 각각 1존씩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와 구름이 조각되어 있다.

설법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단에는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팔대보살상, 범천상·제석천상, 십대제자상, 사천왕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 존상은 아미타불좌상만 있는 중앙의 세로 판목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세로 판목 3개에다 아래위로 각각 4존씩 배치하였다. 즉 각 단 3존씩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윗단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면 다음과 같다.

- 1단 跋難陀龍王 (月光天子) 須菩提尊者 아 富樓那尊者 日光天子 難陀龍王
- 2단 帝釋天王 目犍連尊者 (地藏菩薩) 미 彌勒菩薩 舍利弗尊者 大梵天王
- 3단 阿難尊者 除障礙菩薩 大勢至菩薩 타 觀世音菩薩 金剛藏菩薩 迦葉尊者
- 4단 西方毘盧博文天王 南方毘盧勒叉天王 普賢菩薩 불 文殊菩薩 東方提頭賴吒天王 (北方毘沙門天王)

이 중에서 월광천자, 지장보살, 북방비사문천왕에는 방제란이 없지만, 도상적인 특징과 구성을 통하여 추측이 가능하다. 월광천자와 북방비사문천왕은 대칭적인 면에서, 지장보살은 민머리에 오른손으로 석장을, 왼손으로 보주를 쥐 전형적인 지장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 존상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대보살들(2단의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3단의 제장애보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장보살, 4단의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감싸고 있으며, 그 밖으로 십대제자 중 6존(1단의 수보리존자와 부루나존자, 2단의 목건련존자와 사리불존자, 3단의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이 배치되어 있다. 다시 그 밖으로 발란타용왕, 월광천자, 일광천자, 난타용왕(이상 1단),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이상 2단), 사천왕상(4단)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 존상들의 자세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아미타불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두 보살을 제외한 팔대보살상과 일광천자, 월광천자는 서 있고, 나머지 존상들은 꿇어 앉아 있다. 즉 존격에 맞게 자세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미타불상의 대좌에도 짙은 청색의 방제란에 글씨가 있는데, 대좌 중대에는 붉은 글씨로, 하대 이하에는 흰 글씨로 내용이 쓰여 있다. 즉 윗부분부터 보면, 申時·未時·午時·巳時·辰時, 水輪·火輪·地輪, 水方·赤方·木方, 上品上, 未地·午地·巳地 등이 있다. 아랫부분에는 서방극락정도 왕생과 관련되는 구품의 내용이 짙은 붉은 색의 연꽃 모양 방제란 속에 흰 글씨로 쓰여 있다. 즉 대좌 하대에 있는 짙은 청색의 방제란 속에 쓰여 있는 상품상(上品上) 좌우로 구품의 내용이 적혀 있다.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品中	上品下	上品上	上品中	中品上
下品下	下品上		中品下	下品中

상하틀 중 윗틀에는 64괘 중 곤괘(坤卦), 범어 움자, 이괘(頤卦), 소축괘(小畜卦)

가, 아랫틀에는 둔괘(遯卦), 구괘(姤卦), 건괘(乾卦)가 각각 새겨져 있다.

아미타불상과 권속들은 판목의 폭이 가진 한계와 제한된 공간 속에 다수의 존상들을 배치한 결과, 대부분 4등신의 비례를 갖추고 있으며, 옷주름도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다만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각진 콧날, 나뭇잎 모양의 광배 장식, 관세음보살상 보관 안쪽에 표현된 독특한 장식 등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조각승 단응(端應)과 탁밀(卓密)에 의해 조성된 1684년작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유사하여 특정한 조각승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증명비구(證明比丘) 종현(宗現)의 이름이 두 설법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아미타불좌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설법인을 결한 채 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불상은 얼굴을 숙여 가늘고 긴 눈으로 아래로 은근히 내려 보고 있다. 꽃문양이 음각된 커다란 광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광배 윗부분에는 도식화된 화염문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수미연화좌로서 이것이 수미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대좌 중대에는 화륜, 수륜 지륜 등이 쓰여 있는데, 이는 풍륜(風輪), 공륜(空輪)과 함께 수미산을 지지하는 오륜(五輪)을 상징한다. 또한 목방, 적방, 수방은 동서남북 중 동방, 남방, 북방을, 진시부터 갑시는 시간을 뜻한다. 즉 아미타불상의 대좌는 단순히 대좌의 개념을 넘어서 불교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상하좌우틀의 64괘와도 연결된다.

팔대보살상은 존격에 따라 모두 다른 지물을 들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은 여느 상과 같이 보관에 화불이 있으며,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데, 연꽃 위에는 정병이 올려져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보관에 정병이, 손에는 연꽃이 있는데, 연꽃 위에는 보협인(寶篋印)이 있다. 문수보살상은 여의(如意)를 들고 있으며, 보현보살상은 연봉우리를 들고 있다. 미륵보살상은 왼손으로 연잎에 감싸인 연꽃을 들고 있으며, 오른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지장보살상은 오른손으로 석장을, 왼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제장애보살은 오른손으로 칼을, 왼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팔대보살상의 지물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걸쳐 조성된 아미타팔대보살도에 보이는 지물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십대제자상 중 가섭존자는 정수리가 솟구쳐 올라가 있으며, 왼손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감싸 권 다음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렸다. 아난존자는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한 젊은 승려의 모습이다.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는 합장하고 있으며,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는 두 손으로 불자(拂子)를 들고 있다. 대범천왕과 제석천왕도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고 있다. 월광천자와 일광천자는 원류관을 쓴 제왕의 모습으로, 월광천자는 복숭아 가지를 들고 있으며, 일광천자는 화반을 들고 있다. 또한 용을 타고 있는 난타용왕과 발난타용왕 중에서 발란타용왕은 여의주를 들고 있다. 사천왕상 중 동방제두뢰천왕은 칼을, 북방비사문천왕은 비파를, 남방비루특차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서방비루박차천왕은 깃발과 보주를 각각 들고 있다.

서방극락정토의 구품연지(九品蓮池)를 표현한 아랫부분은 『관무량수경(觀無量壽

經』에 기록된 제 14관 상배생상(上輩生想), 제 15관 중배생상(中輩生想), 제 16관 하배생상(下輩生想)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중단에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을, 하단에 구품연지를 표현한 것이 17세기에 간행되었던 근수정업왕생첩경도(勤修淨業往生捷徑圖)와 유사하다. 실제 숙종 4년(1678)에 운흥사에서 간행된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와 비교해 보면, 세부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도상 배치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윗틀에 새겨져 있는 범자 음자는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의 윗부분에 새겨진 <관세음보살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觀世音菩薩本心微妙六字大明王眞言)>인 “옴마니반메훔”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이 변상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荼羅經)』의 아미타팔대보살과 『관무량수경』의 구품연지, 『근수정업왕생첩경』의 내용이 절묘하게 접목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와 차이점은 설법 청중들의 수가 많고, 구품왕생을 글자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 문헌자료

1. [조성기]

□□初造成□□ 康熙十四年月日 證明比丘宗現 佛母比丘禪宗 緣化比丘清徹 大施主金就遠 黃金施主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興郡太白山浮石 □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聞慶郡大乘寺

2. [개금불사와 이안기]

改金佛事緣起 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 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 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昶宥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般景玆 奉齋 侑宗 金魚 影雲徹律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般景玆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旣 珠經 鍾頭 敬照 昌奎 茶甬 景舜 南植 供司 蓮秀 慧照 別供 明宣 性林 有變 淨人 張鳳 漢 明埜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別座 侑眞 都監 月波兌永 獨辦大施主 乾命朴廷澤 坤命孔氏 長子仁默 次子元默 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 時住持 退耕相老 山中時住 大衆 共八十二員

3. [관련 문헌]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右道諸各寺僧徒等齋浴焚香百拜上書于順興大都護府使道主閣下細細垂察焉。尙州四佛山大乘寺卽三韓古刹而英廟朝御筆奉安之處也。其所緊重與他自別是如乎，不幸去壬戌年分法宇僧寮沒入火僅僅重建而尙未佛像奉安是乎故，治下浮石寺金色殿法堂頽落毀撤之後其佛像移安於大法堂後面一隅，常不避風雨之滲漏亦未奉香火之供養者已爲四十餘年之久矣。旣爲一佛弟子崇奉一也。故同大乘寺僧徒等其在一隅之佛像渠矣重創之新法堂移安次月前率諸僧入去浮石寺是乎則，卽自官家定將校傳令禁斷教是故一依官分付卽爲退出山外各自散送是乎矣，山僧本以慈悲之意有何不良之心奪去古寺主佛乎。該寺僧欲奉之佛可謂無家之數外餘佛也，亦爲絕香火廢供養悶遣之朽佛也。去乙卯年分聞慶烏井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京新興寺至今崇奉是白乎口，戊午年分昌原熊神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密陽載藥寺是白乎口，又癸亥年大丘夫人寺空虛之後其寺佛像亦爲移安於永川銀海寺火後至今尊奉是乎則，僧家已有如是之法古往今來種種有之，而有佛而無奉供之僧有僧而無崇奉之佛則互相公議待去奉來尊崇供養者此是一佛之弟子也，豈非諸僧之始祖乎。茲敢齊聲仰訴於明政之下爲白去乎，伏乞參商教是後特念彼冒塵之朽佛哀悶此經劫之殘僧特下許題傳令本寺與方洞洞任及口民等處無弊護送奉安新寺。而恒以每日巳時之供晝宵三時之禮奉爲主上殿下聖壽萬歲之祝，亦爲道內甘兵位益高城主閣下位登一品之願，而時和歲豐萬民咸樂之祝願，此豈非朝野之慶儒釋之幸者哉。伏乞分諫處分之地千萬血祝爲是只爲行下向教是事。

順興使道主處分

己巳二月日

順興使 [押]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 正月 日. 題辭(二十日).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右謹陳議送情由段矣僧本寺卽三韓古刹 英廟朝御筆奉案之地也。所重與他自別而寺運不幸去壬戌四月分偶逢回祿之法堂僧寮盡入灰燼中。伊後僅僅重修而佛像新造極爲難便是白加尼 卽聞順興浮石寺頽廢之後刻佛畫幀永絕香火已經四十餘年是如乎，彼寺則有佛而無奉供之僧矣寺則有僧而無崇奉之佛 無論此寺彼寺以僧奉佛自 是當然底道理。故己巳二月日通文於右道各寺齊會公議呈訴於順興官家祇承許題而其佛像始乃移安於矣僧本寺新法堂是白遣至于今七八年恪勤奉供 是白加尼，所謂尙基爲名僧本是浮浪之

人僧形俗行。入本寺者爲屢年而得罪於寺中無緣出去仍爲托名於順興浮石寺與該寺餘存之僧互相設計謂以矣僧盜去佛像誣呈議送於營門至有下嚴截之題教教是如乎，蓋此盜佛之說卽千萬曖昧也。其時順興官家題旨與傳令一張并爲粘聯，仰訴以此下覽則盜之一字不待矣僧之發明而自可脫空是乎矣。教之下矣等不勝悚惶使之還運以去則右漢不惟無意於奉佛反生恒沙之慾索賂數百餘金，此所謂賣佛之賊也。矣寺一經火劫之後凋殘莫甚錢兩辦出其勢末由口除良，有錢兩而私自與受則烏得免買佛之罪乎。緣由茲敢齊聲仰訴於」旬宣之下爲白去乎，商教是後特下處分使彼無據之僧賊無得逞奸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丙子正月日

(4) 완의(完議)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完議

右完議事段貴大乘社與鄙浮石寺相距百里之外然俱爲一道古伽藍，而叢林盛衰興廢理數常然者也。近古以來寺運丕塞大衆渙散之餘金色殿頹圯難緝，故諸佛幀像移安於無量壽殿多年矣。貴寺火後新建之際造像極艱仍謀鄙寺木凋佛像之意則皆爲佛子同袍之道難拒懇誠。故不得固留而移安間撓弄彼此妄舉也。鄙寺方欲修補祖師殿之舉矣。貴寺貳佰伍拾兩助修之義出於盡誠相好事也。豈可無一言證後之遺蹟乎。茲以完議爲去乎日後觀今者愈久愈厚表裏修好之地千萬幸甚。

大清光緒二年丙子三月日

慶尙左道順興浮石寺

(5) 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慶尙左道奉化縣太白山城覺華寺

塔源實錄兩閣守護兼藝文館僧風糾正都摠攝爲勿禁護送事」卽者順興浮石寺今者僧殘寺敗佛宇頹圯佛像顛壞之餘一佛世界一佛弟子頹圯之像見者旣歎之久矣。不意今者」尙州大乘寺灰堆年久寺勢凋殘永無佛像。故浮石寺木幀佛陪去奉供之意今爲侍去爲去乎所到諸處勿爲煩說之次茲以勿禁護送爲去乎所經各處無護送幸甚幸甚。

己巳正月日勿禁

(6) 전령(傳令)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傳令鳳陽面浮石寺僧徒及近洞頭民洞長

爲惕念舉行事。月前大乘寺僧徒以浮石寺佛尊移奉次一齊來到而不告于官自下擅便者事甚未妥。故至有逐送之舉是加尼，今則道內諸僧會同公議有此列名等訴。故不得已許施爲去乎移奉之際毋論僧俗更不必岐貳而所經各處各別護送是矣，如或有浮浪之輩橫出作

拏則懲礪次捉上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 [押]

(7) 전령(傳令)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傳令將差

俄有所僧徒狀題及傳令矣。今聞近洞亂民輩聚會作梗云豈有如許民習乎。一併結縛捉來是遣使之契無奉佛之地宜當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 [押]

(8)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四月 日。

浮石寺僧明學等

右謹陳情由段矣寺木佛寺時首立之佛也。其物像與神明非徒一寺之居甲而通八道寺中第一之佛，其於玩好孰不欽慕哉。矣僧等恃之無比矣。不意去去年分尙州大乘寺居僧等乘其矣寺殘敗之際一介殘僧之說聽。若尋常百餘豪黨之徒壓侮勒奪是乎所，那時奪去之際在傍三佛破像折指惹生不忍之境。其餘碎鼎破門盜屏燒木無數作境不可勝言。言念及此矣寺痛冤之心何處呼訴乎。矣僧今留此寺者不過五六殘僧其是非之心多少一般右佛覓來之意如渴且滔是遣佛亦似不無思鄉之心。矣等若以私力言于彼寺則必有之歎，故仰訴法庭爲去乎伏乞商教是後右佛使彼寺僧運回矣寺之地千萬血祝。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 [押]

(9)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四月 日. 題辭(十七日).

浮石寺僧明學聖基等

右謹陳所志情由段矣等向者以木佛覓來次有所呈狀是乎所特蒙公決之題下往示于彼寺僧徒則彼僧等冷視官題稍無忌憚而只以待秋後好樣云云 是乎則彼等之頑習已無可論是乎所官題之下豈敢乃已. 如有還運之意則斯速而已何待秋成.此必是延拖時日綢繆奸計者也. 觀於彼徒之動靜報 營嚴處之外果無還覓之道. 故緣由茲更仰訴爲去乎洞燭教是後特爲措辭報營卽還運本寺以雪山野積寃之地爲白只爲行下向教是事.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 [押]

(10)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右謹陳情由事段矣寺卽古刹也. 其創建不知幾代而挽近以來僧殘寺敗雖至無名之境佛屬寺物誠難擅移守而勿失 納之不去. 千萬慮外尙州大乘寺居僧等敢乘殘敗勒奪本寺所在刻佛而去. 西域萬古未聞盜佛之僧賊, 況募軍作 黨碎鼎破門衝火燒屏至有在傍三金佛破像折指, 佛雖無言僧有何顏. 且以僧之侍佛何處不宜期欲盜佛作梗他寺 者誠極痛惡. 佛家由來之俗一失一得專責於時在僧. 故茲敢仰訴特爲發關推給之地爲只爲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處分

乙亥十二月日

都巡使 [押]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光緒二(1876) 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順興浮石寺尙州大乘寺僧徒刻佛紛競查實緣由事.

光緒二年正月十八日攝釋[手決]

僧徒之崇佛卽其常理. 至於賣佛之說甚是乖悖豈 勝痛念. 誣訴營門之僧漢 段自本寺各別懲治事.

丙子正月十九日在營

都巡使 [押]

○ 참고자료

김은정, 「대승사 대웅전의 목각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0.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2011.



○ 조사내용

1) 하단 목서명

목각탱 하단 틀 중앙 부분에 주색 바탕에 목서로 조성기를 적고 있다.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宗現」佛母比丘禪宗」緣化比丘清徹」大施主金就遠」黃金施主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昶宥」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徹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昕」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鎭閒」明洙」景旰」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埜」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仁默」次子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退耕相老」山中時住大眾」共八十二員」

2) 현상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은 극락전의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세로 346.9cm, 가로 278.9cm 크기로, 목재 패널 위에 총 10매의 목각 도상판을 고정시킨 작품이다. 목각판에는 도금과 채색을 가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벗겨진 흔적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면의 하단 틀에 적힌 목서 조성기에 의하면, 목각탱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 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동치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대정원년(1912)에 金魚 影雲徹律를 비롯 총14명이 개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은 10매(수직7매, 수평3매)의 목각판을 조합하여 한 판을 형성하고, 4면 가장자리에는 나무 틀로써 각각 고정시켰다. 목각판 대부분은 본존 아미타가 극락회에서 설법하는 장면으로, 최상단에는 천개와 주악천인과 과거불이 조각되어 있고, 최하단에는 구품왕생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목각

탱은 대개 6cm전후 고부조와 투각 기법으로 조각되었다.

중앙에는 본존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주변에 보살 및 제자, 천왕상 등 24구가 정연하게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목각탱 존상 및 각 모티브 옆에는 명패처럼 주색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각 도상들의 존상명을 밝히고 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여래는 높은 연화좌 위에 연판형 광배를 갖추고 정면을 향해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결가좌한 모습이다. 육신부는 흑칠 위에 금색을 칠하고, 눈은 백색을 바른 백안에 먹색으로 동자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눈썹과 수염은 먹선 위에 녹청선을 긋고, 입술은 주색을 발랐다. 두부에는 먹색을 바르고,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는 금색을 발랐으나, 중간계주에는 주색을 바림하였다. 발제선에는 녹청선을 둘렀다. 본존의 신체는 이등변삼각형 구조로 안정적이며, 상호는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이마 등에 비해 돌출된 오뚝한 코, 가늘고 긴 입술이 특징적이다.

본존 주변의 보살상은 총 8위가 배치되었다. 본존의 좌우측, 본존 대좌의 좌우측, 본존 광배의 좌우측에 각각 좌상과 입상의 모습으로 지물을 쥐고 배치되어 있다. 방제명에 의하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등 팔대보살이다. 화면 가장 아래쪽 하단에는 사천왕이 좌우에 각각 2위씩 외호하고 있다.

화면 중단 팔대보살상의 외곽과 상단에는 천부와 제자상, 용왕들이 외호하고 있다. 나한상 모습을 한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 좌우에는 천의를 걸친 합장형의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 가장자리에는 원류관을 쓴 제왕형 도상이 좌우 2위씩 배치되어 있는데, 일광·월광천자와 난타·발난타용왕이다.

그리고 가장 화면 최상단에는 천개와 서기를 표현하였다. 천개 가운데에는 과거 칠불의 하나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이 적혀 있다. 그 양측으로 과거불이 좌우 3위씩 배치되어 있다.

이어 최하단에는 구품왕생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낮은 방형좌 위에 안치된 연화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매우 높고 장엄화된 형식이다. 하대 복련좌 중앙에는 '上品上'이라고 적혀있고, 그 양측으로는 둥근 항아리에서 피어오른 연엽을 각각 새기고, 만개한 연꽃에는 上品中, 上品下, 中品上, 中品下, 中品中, 中品下, 下品上, 下品中, 下品下 등의 구품왕생의 키워드가 적혀있다. 그리고 여러 단으로 구성된 중대에는 방위와 시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木方, 赤方, 水方, 그 위에는 地輪, 火輪, 水輪이 적혀있고, 그 상단에는 辰時, 巳時, 午時, 未時, 甲時 등이 각각 적혀 있다. 전체적인 방위는 자오선을 축으로 괘상들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방제명은 글자체 스타일로 보아 후대에 개금하면서 새로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도상들의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 아래 도식표이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의 도상명						
천녀 과거불			第一毘婆尸佛	천녀 과거불		
용왕②	천부④	제자⑥		본존 아미타여래	제자⑤	천부③
발난타용왕	월광천자	수보리존자	부루나존자		일광천자	난타용왕
천부②	제자④	보살⑧	보살⑦		제자③	천부①
제석천왕	목건련존자	지장보살	미륵보살		사리불존자	대범천왕
제자②	보살⑥	보살②	보살①		보살⑤	제자①
아난존자	제장애보살	세지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장보살	가섭존자
천왕④	천왕②	보살④	보살③		천왕①	천왕③
서방비루박차천	남방비루룩차천왕	보현보살	문수보살	동방제두뢰타천왕	북방천왕	
中品中		上品下	上品上	上品中	中品上	
下品下	下品上	未地	午地	巳地	中品下	下品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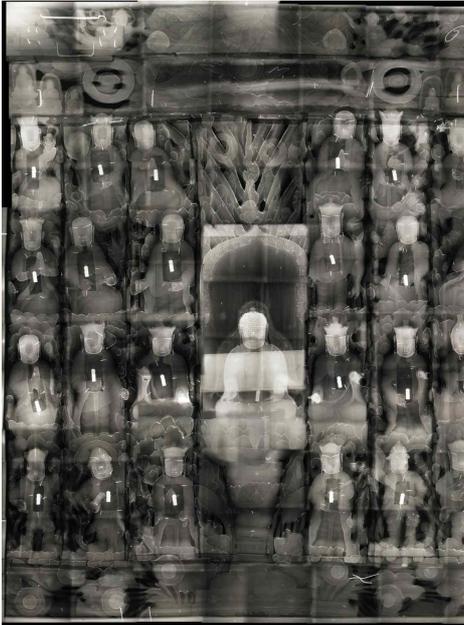
목각탱 가장자리 네 변에는 목재 틀로 마감하였는데, 상단 틀에는 범자, 역만자, 괘상 등이 새겨져 있고, 하단 틀에는 주지묵서와 괘상이 각각 새겨져 있다. 좌우 틀에는 괘상이 보이지 않으나 근대기 사진에는 남아 있었다고 한다.

화면의 하단 틀에 적힌 묵서 조성기에 의하면, 목각탱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 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동치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대정원년(1912)에 金魚 影雲敝律를 비롯 총14명이 개금하였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조성기는 개금 당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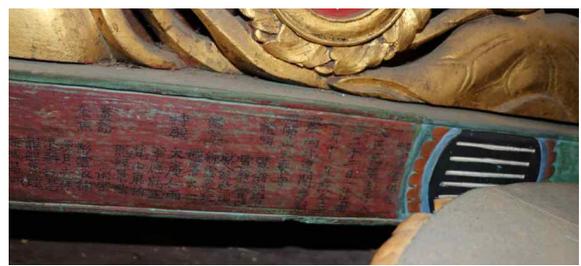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75년경), 346.9×278.9cm



X-RAY 촬영



본존 아미타여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하단 틀에 보이는 묵서조성기

□

○ 내용 및 특징

10개의 판목으로 이루어진 방형 판에 아미타불과 청중으로 구성된 설법 장면이 부조된 목각탱이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의 4단에 걸쳐 정연하게 청중 존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중단의 위로는 하늘이, 아래로는 九品蓮池가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 하단에 서사된 중수개금기 내용 중에 1675년 조성되어 태백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던 후불탱임이 밝혀졌다.

전체 존상의 배치는 조선 후기 불화와 같이 청중들이 주존상을 둘러싼 형식인데, 종이나 천에 그려진 불화와 달리 伍列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는 존상이 표현된 7매의 판목들이 세로로 이어 붙여졌고 매 판마다 4존상씩 줄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7매의 새로 판목 중 좌우 6매의 판목들보다 약 2배 넓게 자리한 중앙 판목에 주존 아미타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의 좁은 판목들에는 8보살, 6제자, 범천·제석천, 4천왕, 2천자, 2용왕 등 24존상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 2매의 횡 판목으로 구성된 하늘부에는 좌우로 2비천과 6타방불이 부조되어 있고 중앙에는 붉은 바탕에 “第一毗婆尸佛”이라 적힌 원형 상징물이 자리하고 있다. 최하단에 위치한 1매의 횡 판목은 주존불의 대좌와 대좌 좌우의 두 물병, 그리고 물병에서 솟아 나간 連枝, 蓮花, 蓮葉이 좌우로 퍼져 마치 연못처럼 보이게 하였다. 퍼져 나간 연꽃 중에서 활짝 핀 9개의 연꽃에는 上品上에서 下品下까지의 구품의 명칭이 새겨져 있다.

현재 좌우 틀이 훼손되어 상하 틀만이 남아 있지만, 상하좌우의 틀이 모두 완존 하였던 1905년 당시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네 틀에는 “十二辟卦方位圖”가 조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復卦와 臨卦가 오기되어 있지만 12방의 표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아미타불 대좌에 음각된 時, 輪, 方, 地 등 시간이나 방위를 나타내는 표기는 모두 중앙에 午時, 赤方, 午地 등 남방을 나타내고 있어 12괘와 상통한다. 다만, 水輪, 火輪, 地輪은 上下로 중첩된 地水火風空輪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방위나 시간의 표기가 아니어서 의문이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聞慶 大乘寺 木造阿彌陀幀 移安記」, 1869년, 괘와 괘 사이에 墨書.

■■初造成■■

(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²⁾

佛母比丘 禪定

緣化比丘 清徽

大施主 金就遠

黃金施主 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順)興郡太白山浮石

(寺)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聞慶郡大乘寺

*「聞慶 大乘寺 木造阿彌陀幀 改金記」, 1912년 8월 22일, 괘와 괘 사이에 墨書.

改金佛事緣起

1) ()는 추정 글자. 이하 동일.

2) 단응탁밀과 함께 여러 불사에 증명으로 참여함.

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昶宥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船景玆

奉齋 侑宗

金魚 影雲敞律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船景玆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昨

珠經

鍾頭 敬照

昌奎

茶角 景舜

南植

供司 蓮秀

慧照

別供 明宣

性林

有燮

淨人 張鳳漢

明培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別座 侑眞

都監 月波兌永

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

坤命孔 氏
 長子 仁默
 次子 元默

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
 時住持 退耕相老
 山中時住大衆
 共 八十二貞

* 주존 대좌의 명문

申 未 午 巳 辰
 時 時 時 時 時

水 火 地
 輪 輪 輪

水 赤 木
 方 方 方

未 午 巳
 地 地 地

* <十二辟卦方位圖>

	3) (坤卦, 亥方)	4) (復卦, 子方)	(臨卦, 丑方)	
(剝卦, 戌方)	北			(泰卦, 寅方)
(觀卦, 酉方)	西		東	(大壯卦, 卯方)
(否卦, 申方)	南			(夬卦, 辰方)
	(遯卦, 未方)	(姤卦, 午方)	(乾卦, 巳方)	

3) 子方を 나타내는 復卦로 추정됨. 현재의 大過卦는 오기.

4) 丑方を 나타내는 臨卦로 추정됨. 현재의 中孚卦는 오기.

[보완 조사 :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일반현황

- 지정현황 : 보물 제989-1, 989-2호
- 조사대상 : 醴泉 龍門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 규격 : 아미타여래 높이 89.8cm, 관음보살 높이 83cm, 대세지보살 높이 88.4cm, 설법상 187.6x180cm
- 수량 : 불상 3점, 아미타여래설법상1점
- 재질 : 나무
- 조성연대 : 1684년(숙종 10)
- 제작자 : 端應, 卓密, 學倫,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 조사내용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에 삼존불과 함께 제작된 것이며, 현재 보물 제989-1호와 제989-2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16판의 나무를 짜맞추어 제작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높이 187.6cm, 너비 180cm의 크기로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도상의 배치는 화면의 중앙에 꽃잎형의 광배를 등지고 높은 구품연지에서 피어난 수미대좌에 앉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하단에는 사천왕상을 일렬로 배치하고, 중단과 상단에는 관음·대세지를 비롯한 8대보살과 가섭·아난의 兩大尊者를 일정한 크기로 배치하였다. 틀에는 ‘만’자와 ‘옴’자를 중심으로 12괘를 돌렸다. 양쪽 틀의 측면에는 타오르는 화염을 부착하였다. 오른쪽 화염(향좌측)의 뒤쪽 상단에 ‘辛未五月旬日 六月 日 方必 畫員 仁○’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후대에 보수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용문사 목각설법여래상은 양식적으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데, 두 설법상 모두 종현의 증명으로 조성된 것이며, 용문사 아미타여래설법상에 참여한 端應, 卓密, 學倫, 法淸,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등의 조각승 집단에 의해 대승사 아미타여래설법상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문사 설법상의 구성 형식은 전반적으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 구성과 등장인물, 세부표현 등에서 한결 간략해진 느낌이다. 이는 전각의 규모에 맞게 등장인물과 세부 구성을 조정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문사 아미타여래설법상과 대승사 아미타여래설법상은 모두 宗現의 증명 아래 용문사 설법상을 조성했던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용문사 설법상은 대승사 설법상에 비해 도상의 구성과 완결성, 조각적 역량과 깊이, 예술적·종교적 감성,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독창성 등 모든 면에서 대승사 설법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국보로 승격할 가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68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차 조사 :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

○ 조사내용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대승사 대웅전 후불벽에 봉안된 설법상으로, 1675년에 조성되었다. 화면의 하단, 아미타불의 뒷부분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의하면 이 상은 원래 강희14년(1675)에 太白山 浮石寺에서 조성되었으나 同治8년(1869)에 문경 대승사로 이안되었으며, 大正元年(1912)에 金魚影雲徹律, 煥月尚休, 退耕相老, 龍船景玆, 海城昌旻, 梵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閑, 明洙, 景旰, 珠經 등이 개금했다고 한다.

목조설법상은 후불벽을 장엄하던 불화를 천이나 종이 등이 아니라 나무를 透彫 또는 浮彫기법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법은 조각이지만 용도는 후불탱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흔히 木刻幀으로 불린다. 모두 10개의 나무를 잇대어 만들었는데, 본존이 조각된 중앙의 판목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각각 3개씩의 판목이 세로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밑에 1개, 그리고 위에 2개의 판목이 이어져 있고 이것을 다시 상하좌우 4개의 외곽 틀로 결구하였다. 각 존상들은 환조에 가깝게 조각되었으며, 인물 및 장식문양 외의 부분들은 투각기법으로 처리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상단과 중단, 하단의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도는 조선후기의 불화와 같이 군도식 구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단의 구별이 뚜렷하여 존상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채 3~4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상이 나무를 조각해서 각 존상을 표현해야 하는 목조설법상인 점에 기인하는데, 판목 1매 당 세로로 4구씩의

존상이 일렬로 서있는 것처럼 확일적으로 배치되었다. 먼저 상단은 2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다. 2매 중 아래 판목에는 과거칠불 중 첫 번째 부처인 第一毘婆尸佛의 명칭이 적힌 원형의 장식을 중심으로 좌우에 구름을 타고 오는 6구의 타방불이 배치되었다. 비바시불의 이름이 적힌 원형의 장식은 리본으로 양옆을 묶은 화려한 寶蓋로 장엄되어 있으며 그 양옆으로는 좌우에 각각 1구씩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와 瑞雲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표현된 7구의 부처는 과거7불인 비바시불과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단은 이 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범천 및 제석천, 10대제자, 사천왕 등 총 25구의 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총7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미타불을 조각한 중앙의 판목이 좌우 6개의 판목보다 너비가 조금 넓다. 존상들은 대부분 3~4등신 정도의 짧은 체구에 방형에 가까울 정도로 넓적한 얼굴, 각진 콧날이 특징적이며, 옷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되었다. 각 존상의 옆에는 각각 명칭이 적혀있어 존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의 중앙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하고, 하단 좌우측에는 문수·보현보살과 사천왕상 4구, 그 위 좌우측에는 관음·대세지보살, 금강장·제장애보살, 가섭·아난존자, 그 위 좌우에는 미륵·지장보살, 사리불·목건련존자, 대범천·제석천을, 그 위 좌우측에는 부루나존자·수보리존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을 좌우대칭으로 배열하였다. 8대보살은 모두 지물을 들고 있는데,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인 아미타불을 모셨으며 손에는 정병이 올려진 연꽃을 들고 있다. 대세지보살은 경책이 놓여있는 연꽃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는 희미하게 정병의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문수보살은 如意, 보현보살은 연봉우리, 미륵보살은 왼손에 연잎으로 감싼 연꽃, 오른손에 보주,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석장,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다. 금강장보살은 지물이 없어져서 확인할 수 없으며, 제장애보살은 오른손에 칼,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물은 고려~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8대보살의 지물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목각설법상의 도상이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불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단은 활짝 핀 9송이의 연꽃과 연잎, 연봉우리로 장식된 아미타불의 蓮池를 나타내고 있다. 9송이의 연꽃은 중앙에 上品上이라고 쓰인 연꽃을 중심으로 좌우에 4개씩 배치되었는데, 8개의 연꽃에는 上品中에서부터 下品下라고 적혀있어, <觀無量壽經>의 제14관인 上輩生想에서 제16관인 下輩生想까지를 연꽃으로 표현한 九品蓮池에서의 왕생장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꽃에 인물이 직접 극락세계로 化生하는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본존불의 대좌 좌우에 마련된 꽃병에서 활짝 핀 둥근 연꽃 안에 上品上生에서 下品下生에 이르기까지의 九品化生을 문자로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중단에 아미타8대보살을 배치하고 하단에 구품연지를 배치한 이와 같은 구성은.

등장하는 권속의 수가 많고 왕생장면을 문자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16·17세기에 간행·유통된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와 유사한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관무량수경과 아미타여래설법도 등의 도상에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접목해서 새롭게 도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이 상은 조성연대가 밝혀지지 않아서 막연하게 19세기 또는 1684년의 용문사 목각탱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7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화기가 발견되었는데, 화면 하단 아미타불 뒷부분에는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 宗現」佛母比丘 禪宗」緣化比丘 清徹」大施主 金就遠」黃金施主 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라고 적혀있어, 강희14년인 1675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화기에는 증명비구로 宗現이라는 승려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용문사 목조설법상의 화기에서도 볼 수 있어 두 작품 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종현은 대승사 및 용문사 목조설법상 외에도 용문사 금당 목조아미타불좌상, 상주 용흥사 삼세불괘불도(1684),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1687), 제천 정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1689), 상주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1689) 중수 등에도 참여하였다. 화기에는 조각승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방형의 넓적한 얼굴 형태와 가늘고 긴 눈 높고 각진 매부리코, 입술모양, 끝이 휘어진 귀의 형태, 어깨로 흘러내리는 보발의 형태 뿐 아니라 이중으로 장식된 보관의 형태와 화문장식, 존상 뒤에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배치하여 두광을 표현하는 듯한 방식이 17세기 후반의 조각승 端應과 卓密이 조성한 용문사 목조설법상(1684)의 양식과 흡사하여, 대승사 목조설법상 또한 단응과 탁밀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승사에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관련된 문서가 11건 전해온다. 이 문서들은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移安을 둘러싸고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所志로, 대승사와 부석사의 승려들이 官府에 올린 上書와 等狀, 完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에 의하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원래 부석사에 있던 것인데, 1862년 대승사에 화재가 나서 법당과 승방이 모두 소실됨에 대승사의 승도들이 새로 법당을 중수하였으나 불상을 조성할 형편이 되지 않자 부석사에 있던 목조설법상을 옮겨왔다고 한다. 그러다 6년 뒤인 1875년에 부석사에서 반환을 요구하여 시비가 일게 되었는데, 1876년에 대승사에서 부석사 조사전의 수리비 250냥을 주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문서를 통해 목조설법상이 처음에는 부석사의 金色殿이라는 전각 안에 봉안되었다가 후에 무량수전으로 이안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조성기>

○○初造成○○」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佛母比丘 禪宗」緣化比丘 清徹」大施主 金就遠」黃金施主 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昶宥」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敞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旻」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鎭閒」明洙」景旻」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培」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長子 仁默」次子 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 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 八十二員」

○ 문헌자료

김은정, 「대승사 대웅전의 목각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2010.
이용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 조사내용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아미타여래가 주재하는 극락세계를 회화적 기법과 조각적 기법을 절충하여 조성한 불화이며, 17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창안되어 등장하는 불화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형식의 설법상은 대승사를 비롯하여 예천 용문사(1684년),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169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1782년) 등 6점이 전하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선 설법상은 대화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크게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 밑에 1개의 판을 가로질러 기초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세로로 된 7판의 나무판을 세우고, 두 개의 가로 판재와 외곽 틀을 야무지게 결구시켜 마무리하였다.

등장하는 존상들은 본존인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 10대 제자, 사천왕상, 용왕 등의 권속들이 엄격한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오와 열을 맞추어 질서 있게 구성되었다. 존상들은 방형에 가까 정도로 넓적한 얼굴에, 각진 콧날과 평범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 정감이 있고 대중적이다. 옷 주름은 특출한 기교 없이 간결하고 힘 있는 선묘를 보인 가운데, 본존불은 연화대좌 위로 옷자락을 늘어 뜨려 율동감을 부여하였다. 존상들은 대체로 3-4등신의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표현은 17세기 후반 충청·강원,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조각승 단응과 탁밀의 작품과 닮은 점이 많고, 설법상의 제작시기와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지역 등이 같아 이들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존상의 세부 배치를 살펴보면, 화면의 상단에는 하늘에 떠 있는 천개와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천녀,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타방불 등이 표현되었다. 천개에는 과거칠불 중 첫 번째 과거불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을 적어 놓았다. 화면의 중앙에 꽃잎형 광배를 등지고 높은 수미좌에 앉은 아미타여래를 두었고, 화면의 하단 좌우측에는 문수·보현보살, 사천왕상 4구(좌측에서 북동남서 순으로 배치)를, 그 위 좌우측에는 관음·대세지보살, 금강장·제장애보살, 가섭·아난존자, 그 위 좌우에는 미륵·지장보살, 사리불·목건련존자, 대범천·제석천을, 그 위 좌우측에는 부루나존자·수보리존자, 일광천자·월광천자, 난타용왕·발난타용왕을 좌우대칭에 입각하여 배열하였다. 제 존상들은 합장을 하거나 존상의 상징물을 든 모습이다. 본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존상들은 화면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원근감 없이 좌상이나 입상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정한 크기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권속들의 자세는 입상과 좌상 그리고 궤상 등 3가지 모습이 등장하며, 다른 예에서 드물게 본존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는 존상들을 대거 배치시킨 점이 이채롭다. 각 존상의 옆에는 붉은색 바탕의 명패를 마련하고 그곳에 금색으로 존명을 적어 두어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구도는 화면의 최상단에 제일 과거불인 비바시불이 주악천녀와 타방불을 이끌고 도량으로 강림하는 장면을 배치하고, 최하단에는 구품 연못에서 연화 왕생하는 장면을 두어, 위·아래에서 흐트러짐 없이 설법장면을 탄탄히 받쳐주는 짜임새 있는 구도이다. 하단의 구품왕생 장면은 본존불의 대좌 좌우에 마련된 꽃병에서 피어난 아홉 개의 연꽃에 구품연지의 상징성을 담았는데, 연꽃에 인물이 직접 극락세계로 化生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활짝 핀 둥근 연꽃 안에 상품상생에서 하품하생에 이르기까지의 구품화생을 문자로 단순화시켜 그 상징성만 담았다.

이와 같이 구품왕생과 아미타여래 팔대보살이 한 화면에 가득 표현되는 사례는 고려시대 <관경16관변상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특히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유사하게 도설한 사례는 조선 16·17세기에 간행·유통된 <勤修淨業往生捷徑變相圖>이다. 다만 <근수정업왕생첩경도변상도>와의 차이점은 등장하는 권속의 수가 많고, 왕생장면을 문자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전통적인 <관경16관변상도>이나 <아미타여래설법도>를 기반으로 해서 16세기부터 17세기에 개관·유통된 <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크게 접목해서 창안해 낸 불화로 판단된다.

아미타여래의 여래의 대좌는 원륜과 팔각, 연꽃, 등 다층 구조를 하고 있으며, 각 단마다 방위와 시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연화대좌를 받치고 있는

방형의 단에는 午地를 중심으로 좌우에 巳地와 未地가 있으며, 단 위에는 구품왕생의 上品上을 상징하는 연꽃을 새겨 놓았고, 이는 구품왕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연화대좌는 복련과 양련의 연화좌 사이에 타원형의 받침대와 연꽃받침대를 중첩하여 쌓아 올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에는 木方, 赤方, 水方 이란 명문이, 다시 그 위에는 地輪, 火輪, 水輪이 있으며, 맨 위에 辰時, 巳時, 午時, 未時, 申時 등이 적혀 있다. 지륜, 화륜, 수륜은 풍륜 공륜과 함께 수미산을 지지하는 오륜이며, 목방, 적방, 수방은 동서남북 중 동방, 남방, 북방을 가리키며, 진사에서 갑시까지는 12간지 중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를 뜻한다. 한편 아미타불의 대좌에 새겨진 방위와 시간의 개념은 화면을 넘어 틀에 새겨져 있는 卦와 연결된다. 현재 좌우 틀이 사라졌지만 20세기 초 사진에는 좌우측에도 괘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괘의 형태는 팔괘를 중첩한 육십사괘이며, 이곳에는 『주역』의 육십사괘에서 12개의 괘를 뽑아 사방에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미타불을 중심에 두고 상단에 과거불 비바시불을 통해 佛法의 끊임 없는 영속성을, 아래의 연화대좌의 지륜, 화륜, 수륜을 새겨 불교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화대좌에 새긴 방위와 시간, 외곽 틀에 새긴 12개의 괘는 시공을 초월한 아미타불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신앙체계를 갖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거치면서 존상 중심으로 간략해지고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는 구품왕생 장면은 생략되고 설법장면만 강조되었다.⁵⁾

관계문서는 1869년부터 1876년에 이르기까지 1·2차에 걸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移安에 둘러싼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소송과 관계된 문서이다. 조선 후기 소송은 주로 山訟으로 불상과 관련된 소송문서로서는 거의 유일한 예이다.

[조성기]

○○初造成○○」康熙十四年月日」證明比丘 宗現」佛母比丘 禪宗」緣化比丘 清徹」大施主 金就遠」黃金施主 李姓名」造成于慶尙北道」○興郡太白山浮石」同治己巳年月日」移安于慶北道」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大正元年壬子八月二十二日(陰曆」七月十日)改金于」慶尙北道聞慶郡」四佛山大乘寺」證明」慧翁昶宥」雪翁鎬鼎」然翁時煥」誦呪」練雲象玩」德峯大仁」持殿」大庵仁雨」華應就正」梵山東杓」龍船景玆」奉齋」侑宗」金魚」影雲敞律」煥月尙休」退耕相老」龍船景玆」海城昌旻」梵雲允衍」六洲仁澤」大炯」昌浩」大興」鎭聞」明洙」景旻」珠經」鍾頭」敬造」昌奎」茶角」景舜」南植」供司」蓮秀」慧照」別供」明宣」性林」有燮」淨人」張鳳漢」明培」金炳翼」鄭大用」裴聖模」別座」侑眞」都監」月波兌永」獨辦大施主」乾命朴廷澤」坤命孔氏」

5) 이용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문경시,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p.122-123.

長子 仁默」次子 元默」化主清信女李氏福德月」時住持 退耕相老」山中時住大衆」共 八十二員」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학술조사보고서」, 문경시·재)불교 문화재연구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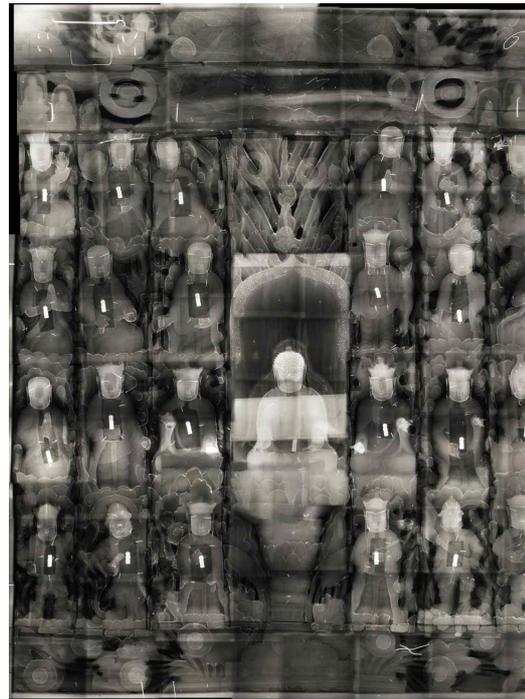


그림 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75년, 346.9x278.9

그림 2 X-RAY 촬영

□

위치 배열순(안①→밖③)	존명	상높이	최대폭
	규격단위(cm)		
중앙	아미타여래	62.6	46.1
좌1단①	문수보살	61.0	26.4
우1단①	보현보살	61.3	21.5
좌1단②	동방제두뢰천왕	61.0	33.9
우1단②	남방비루룩차천왕	57.6	33.9
좌1단③	북방비사문천왕	63.0	39.1
우1단③	서방비루박차천왕	60.3	28.6

좌2단①	관세음보살	51.0	35.5
우2단①	세지보살	55.3	36.1
좌2단②	금강장보살	66.2	27.1
우2단②	제장애보살	67.8	33.9
좌2단③	가섭존자	59.0	33.9
우2단③	아난존자	51.7	28.6
좌3단①	미륵보살	63.0	30.8
우3단①	지장보살	56.9	36.3
좌3단②	사리불존자	50.0	29.5
우3단②	목건련존자	55.8	29.9
좌3단③	대범천왕	54.7	34.6
우3단③	제석천왕	60.2	27.0
좌4단①	부루나존자	54.2	30.8
우4단①	수보리존자	52.8	33.6
좌4단②	일광천자	49.2	24.1
우4단②	월광천자	56.1	26.8
좌4단③	난타용왕	58.2	33.9
우4단③	발난타용왕	47.6	27.7

畫記欄: 백록색의 외곽틀 상·하단에 3개의 괘와 근자, 움자를 그리고, 아래 틀에는 붉은 색으로 일부를 덧칠해 그 위에 불상의 제작시기, 개금불사와 이안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덧칠해 적은 화기 아래에도 또 다른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1】

○ 현상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대웅전에는 가운데 높은 불단 위 삼존상 뒤에 액자형식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봉안되어 있다. 후불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존상들은 높은 부조(浮彫)로 조각되어 있다. 화면은 크게 상중하의 3부분으로, 맨 아래는 9품 연지의 구품왕생장면을 나타내었고, 중단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제보살과 청중들이, 상단은 천공을 표현하였다. 그중에서도 중단의 불보살과 청중들은 가운데 본존을 중심으로 양측 각각 3인씩 4단으로 서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다. 불보살과 청중들은 본존을 향해 앉았으며, 시점이 본존으로 모아지는 구도로 공간의 깊이감이 느껴진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각 존상 옆에 방제란

(傍題欄)을 두고 존명을 적어 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의 내용을 보면 화면 중앙부는 맨 아래 9품 연지(蓮池)로 부터 쪽 뻗어 올라온 연화대좌 위에 아미타여래가 결가부좌의 자세로 하품중생인을 결하여 앉아 있다. 본존 곁에는 8명의 팔대보살이 둘러싸고 있는데 본존 좌우에는 연화좌에 앉아 연 가지를 든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다(좌2단①, 우2단①). 관음보살은 정병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대세지보살은 보협인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의 각각 아래에 문수보살(좌1단①)과 보현보살(우1단①)이 여의와 연봉 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좌2단①)과 대세지보살(우2단①) 옆에는 금강장보살(좌2단②)과 제장애보살(우2단②)이 있는데 금강장보살은 오른손에 지물인 금강검을 잡고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으며, 제장애보살은 지물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배 좌우에 서 있는 보살은 미륵보살(좌3단①)과 지장보살(우3단①)이다. 미륵보살은 왼손에 연꽃, 오른손에 구슬을 쥐고 있으며, 대칭되는 위치의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석장을 잡고 왼손은 보주를 쥐고 있다. 팔대보살 중 본존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2구만 좌상이며, 그외 보살은 입상으로 구성되어 아미타삼존의 도상적 성격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대보살 주변에는 십대제자 중 여섯 제자가 본존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있다. 노인 모습의 가섭은 정수리가 높이 솟아 있으며, 왼쪽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모아 권 손을 가슴 앞에 들고 있다(좌2단③), 이와 대칭 위치의 아난은 젊은 승려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 두 손을 합장하였다(우2단③). 미륵보살 곁의 사리불존자(좌3단②)와 지장보살 곁의 목건련존자(우3단②)는 양손에 불자를 들고 있으며 상단에 있는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는 합장을 하고 있다(좌4단①, 우4단①).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 좌우에는 천의를 솔처럼 걸친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이 합장을 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좌3단③, 우3단③). 부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 옆에는 원류관을 쓴 제왕 모습의 인물이 서 있는데 이중 복숭아 가지를 든 인물이 월광천자이며(우4단②), 명문이 없는 화반을 든 인물은 일광천자로 추정된다(좌4단②). 일광과 월광 천자 옆으로는 각각 용을 타고 있는 난타용왕(좌4단③)과 여의주를 든 발난타용왕이 있다(우4단③). 설법회 장면 하단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곁으로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왼편에는 검을 든 동방제두뢰천왕(좌1단②)과 존명이 없지만 비파를 든 북방비사문천왕이(좌1단③), 오른편에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비루룩차천왕(우1단②)과 당과 보주를 든 서방비루박차천이 서있다(우1단③).

화면의 최상단은 천공, 하단은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천공은 장엄의 공간으로 천개아래에는 과거불인 ‘第一毘婆尸佛’의 존명이 적혀있고, 악기를 든 주악천, 설법을 듣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는 타방불과 과거칠불 등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은 극락세계에 구품왕생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미타여래가 앉은

9층의 연화대좌는 화병으로 부터 뻗어 나온 연 가지와 그 끝에 만개한 연꽃이 하나씩 피어 있는데 가운데의 ‘상품상(上品上)’을 중심으로 좌우의 바깥으로부터 ‘하품하(下品下)’, ‘하품중(下品中)’, ‘하품상(下品上)’, ‘중품하(中品下)’, ‘중품중(中品中)’, ‘상품하(上品下)’, ‘상품중(上品中)’의 구품왕생을 상징하는 글자가 적혀있다. 아미타여래의 대좌는 그 외에도 시간과 방위를 의미하는 명문도 보이는데 맨 아래 방형 기단의 안상에는 가운데 ‘오지(午地)’와 좌우로는 ‘사지(巳地)’와 ‘미지(未地)’가 적혀 있으며, 그 위로는 좌(향우)로부터 우(향좌)로 ‘목방(木方)’, ‘적방(赤方)’, ‘수방(水方)’ 다시 그 위로 ‘지륜(地輪)’, ‘화륜(火輪)’, ‘수륜(水輪)’, 맨 위에 ‘진시(辰時)’, ‘사시(巳時)’, ‘오시(午時)’, ‘미시(未時)’, ‘갑시(甲時)’가 적혀 있다.

아미타여래설법상의 제상들은 얼굴, 신체비례 등의 표현이 대동소이하다. 본존의 아미타여래좌상은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여 아래를 굽어보는 모습으로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다. 방형의 작은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이마로부터 돌출된 듯한 오뚝한 코, 좁은 인중선, 가늘고 긴 입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인상은 독특한데 이 얼굴은 1684년 단웅과 탁밀이 조성한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닮았다. 오른쪽 어깨에는 내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어 대의를 돌려 입었으며, 끝단은 물결모양으로 처리되어 있다. 가슴아래 입은 승각기는 접혀진 곳이 볼록하게 올라와 입체적으로 보이며, 배 앞으로는 두 개의 대칭되는 옷자락의 아래가 넓게 벌어져 W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탁밀의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살상(1694)의 표현과도 닮아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이 유파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대좌를 덮어 상현좌 형식을 이루며, 가운데와 양측은 길고 뾰족한 삼각형의 구불구불한 옷자락으로 모양을 낸 것도 특징적이다.

입상은 좌상과 신체 높이가 거의 비슷하며, 머리가 크고 신체가 짧은 단구형으로 이는 조선후기 입상의 보편적인 표현방법이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무릎을 꿇어앉은 좌상의 표현이 매우 좋은 편인데 안쪽 상보다 바깥 쪽 상의 무릎 높이를 좀 더 높였으며, 자세와 방향도 유연하고 자유로와 사실감과 공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외곽틀에 적힌 화기에는 康熙14年(1675) 조성연대만 기록되어 있지만 얼굴표현과 독특한 인상, 배 앞에 W자형으로 벌어진 옷자락과 상현좌를 이루는 3개의 뾰족하고 구불구불한 옷자락 역시 단웅과 탁밀이 조성한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에서도 보인다. 또한 증명을 맡은 종현(宗現) 역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조성에서 증명을 맡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 외에도 두 번의 화재로 불타 없어졌지만 이전의 외곽틀은 좌우 기둥에 각 3개의 괘 사이에 각각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도 예전의 자료로 확인되어 대승사 목각아미타설법상의 조성자가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조성자 같은 유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단응과 탁밀은 1665년 김천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조성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사례이며, 1692년 서귀포 영조사(永照寺) 목조아미타삼존불감조성까지 두 조각승의 활동은 이어졌다.

표1. 단응·탁밀의 불상조성활동

봉안처	연대	참여 화승
金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坐像	1665년	○○, 卓密, 敬遠, 思遠 法清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1675년	端應, 卓密, ...
醴泉 龍門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木造阿彌陀幀	1684년	端應, 卓密, 學崙,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安東 鳳凰寺 木造三方佛坐像	1692년	丹應, 卓密, 德崙, 寶雄, 裕特 尙念, 就英, 就還, 坦玉, 進念 宗印, 瑞崙, 道允, 琢璘, 廣什
西歸浦 永照寺 木造阿彌陀三尊佛龕	1692년	端應, 卓密 普雄 宗印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단응과 탁밀이 조성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 이들 유파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8세기 말)과 비교하여 사실감과 입체감 등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불보살과 청중 곁에 방제란을 두어 알기 쉽게 도해하여 조각으로서 후불화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단응과 탁밀의 실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참고 1】

<적외선 촬영의 명문>	<개금불사와 이안기>
「□□初造成□□ 康熙十四年月 日 證明比丘 宗現 佛母比丘 禪宗 緣化比丘 清徹 大施主 金就遠 黃金施主李姓名 造成于慶尙北道 □興郡太白山浮石 □ 同治己巳年月日 移安于慶北道 聞慶郡大乘寺」	「改金佛事緣起 大正元年壬子八 月二十二日(陰曆 七月十日)改金于 慶尙北道聞慶郡 四佛山大乘寺 證明 慧翁昶宥 雪翁鎬鼎 然翁時煥 誦呪 練雲象玩 德峯大仁 持殿 大庵仁雨 華應就正

	梵山東杓 龍般景玆 奉齋 侑宗 金魚 影雲敞律 煥月尙休 退耕相老 龍般景玆 海城昌昕 楚雲允衍 六洲仁澤 大炯 昌浩 大興 鎮閒 明洙 景昨 珠經 鍾頭 敬照 昌奎 茶甬 景舜 南植 供司 蓮秀 慧照 別供 明宣 性林 有變 淨人 張鳳漢 明培 金炳翼 鄭大用 裴聖模 別座 侑眞 都監 月波兌永 獨辦大施主 乾命朴廷澤 坤命孔氏 長子仁默 次子元默 化主清信女李氏福徳月 時住持 退耕相老 山中時住 大衆 共八十二員」
--	--

[관계문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大乘寺)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관계문서 중의 문서는 모두 11종이다. 내용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浮石寺)와 대승사간에 소송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문서 들이다.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부석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안(移安)하기 위한 소송 문서(1869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되찾기 위한 부석사와 대승사간의 소송문서(1875-6년),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합의문서(1876년) 등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 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 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 보물 제575-3호), 완의(完議 : 보물 제575-4호) 등 4종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나머지 7종은 비지정 문화재이다. 이들 11종을 <표1>로 정리하고, 문서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관계문서

연번	文書名稱	年代	指定與否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1869.2	보물제575-1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1876.1	보물제575-2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1876.1	보물 제575-3
4	완의(完議)	1876.3	보물 제575-4호
5	금물체(勿禁帖)	1869.1	비지정
6	전령(傳令) 1	1869.3	비지정
7	전령(傳令) 2	1869.3	비지정
8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1	1875.4	비지정
9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2	1875.4	비지정
10	순흥부석사등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1875.12	비지정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1876.1	비지정

①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二月 日, 題辭: 初八日.

부석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을 대승사로 이안(移安)하려는 시도에 따른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 김용사, 혜국사, 남장사 등 25곳의 사찰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이안을

청원한 문서이다. 이에 대해 순흥대도호부사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는 부석사보다 건물을 새롭게 고친 대승사에 모셔져 섬김을 받는 것만 하겠는가?”라며 이를 허락하는 내용이다.

②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丙子(1876)正月 日. 題辭: 十七日.

대승사(大乘寺)에서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영조 어필을 봉안한 대승사는 임술년(1862) 화재 이후 새로 중건하였으나 불상이 없으니 피폐한 순흥 부석사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부석사에서 승려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을 법률에 따라 벌을 주어 후환을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월 17일에 내린 제사에서 “감영에 보고한 뒤 처결”하라 하였다.

③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丙子(1876)正月 日. 題辭: 二十日.

대승사에서 경상도 순찰사에게 1869년의 순흥부 상서와 함께 순흥부의 전령을 첨부하여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는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대승사는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는데 1869년 2월 이후 불상을 대승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가 우리 측에서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하므로 이후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20일에 내린 제사에서는 “이미 관청이 처분이 있었다.”고 하였다.

④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大清 光緒二年 丙子(1876)三月 日.

부석사에서 대승사에 발급한 문서이다.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는데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하겠다는 정성에 감사하며 합의한다는 것이다. 대승사에서 부석사에 250냥을 지원함으로써 불상의 이안에 대한 문제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⑤ 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正月 日勿禁.

기사년(1869) 정월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이 없던 대승사가 부석사의 목각탱을 모셔가려 하므로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다.

⑥ 전령(傳令) 1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己巳(1869) 三月初九日.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이전에 “지금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공의(公議)하고 등소(等訴)하므로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라.”는 것이다.

⑦ 전령(傳令) 2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代 己巳(1869) 三月初九日.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을 모셔 가는데 “인근 동네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이 막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⑧ 부석사승도등장1(浮石寺僧徒等狀 1)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代：乙亥(1875) 四月 日.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소장을 보내 대승사가 강탈해간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다.

⑨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12年(1875)

年代：乙亥(1875)四月 日. 題辭：十七日.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하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감영의 지시가 없었다.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임을 온 고을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⑩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代: 乙亥(1875)十二月 日. 題辭: 廿四日.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려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사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⑪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代: 光緒二(1876)年正月十八日. 題辭: 丙子正月十九日.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감영(監營)의 제사는 “터무니 없이 무고한 부석사의 승려는 천주사에서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의 관계문서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와 대승사간에 소송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문서 11종이다. 이 문서들은 부석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이안하기 위한 소송 문서(1869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되찾기 위한 부석사와 대승사간의 소송문서(1875-6년), 대승사와 부석사간의 합의문서(1876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보물 제575-3호), 「완의」(보물 제575-4호) 등 4종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7종은 비지정 문화재이다. <표1>의 문서 11종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구분	年紀	문서제목	지정현황
1	1869.2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	보물 제575-1호
2	1876.1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	보물 제575-2호
3	1876.1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	보물 제575-3호
4	1876.3	완의	보물 제575-4호
5	1869.1	물금체	비지정
6	1869.3	전령 1	비지정
7	1869.3	전령 2	비지정
8	1875.4	부석사승도등장1	비지정
9	1875.4	부석사승도등장2	비지정
10	1875.12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	비지정
11	1876.1	영남도총섭서목	비지정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1869년 정월에 대승사로의 이안시도가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 김용사, 혜국사, 남장사 등 25곳의 사찰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부석사 목각탱의 대승사 이안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전령으로 알리시어 불상을 새 절에 봉안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흥대도호부사는 2월 8일에 내린 제사에서 “비가 새고 옆으로 바람이 들이치는 부석사보다 건물을 새롭게 고친 대승사에 모셔져 섬김을 받는 것만 하겠는가?”라며 이를 허락하였다.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1876년 정월에 대승사에서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영조 어필을 봉안한 대승사는 임술년(1862) 화재 이후 새로 중건하였으나 불상이 없으니 피폐한 순흥의 부석사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모시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부석사에서 승려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을 법률에

따라 벌을 주어 후환을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17일에 내린 제사에서 “감영에 보고한 뒤 처결”하라고 하였다.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寫本. 1張. 104×58.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二十日).

대승사에서 경상도 순찰사에게 1869년의 순흥부 상서와 함께 순흥부의 전령을 첨부하여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는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대승사는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는데 1869년 2월 이후 불상을 대승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가 우리 측에서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하므로 이후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월 20일에 내린 제사에서는 “이미 관청이 처분이 있었다.”고 하였다.

(4)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발급한 문서이다. 내용은 “부석사의 조사전(祖師殿)을 수리 하는데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하겠다는 참된 정성”에 감사하며 합의한다는 것이다. 아마 대승사에서 250냥을 지원함으로써 불상의 이안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 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기사년(1869) 정월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이 없던 대승사가 부석사의 목각탱을 모셔가려 하므로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다.

(6) 「전령」 1(傳令 1)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이전에 “지금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공의(公議)하고 등소(等訴)하므로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라.”는 것이다.

(7) 「전령」 2(傳令 2)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불상을 모셔 가는데 “인근 동네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이들을 모두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이 막지 말도록”한 것이다.

(8) 「부석사승도등장」 1 (浮石寺僧徒等狀 1)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四月 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소장을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내 1869년에 대승사에서 강탈한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浮石寺僧明學等”이라는 제명으로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에 대해 제사에서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9) 「부석사승도등장」 2(浮石寺僧徒等狀 2)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四月 日. 題辭(十七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앞선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결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오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4월 17일의 제사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감영의 지시가 없었다.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임을 온 고을이 모두 알고 있으니 저절로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고 하였다.

(10)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1875년 12월에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의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리시어 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24일의 제사에서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였다.

(11)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光緒二(1876)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1876년 정월 18일에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현재는 순흥 부석사(浮石寺)와 상주 대승사의 승도들이 목각탱 분쟁사실의 조사사실과 관청의 제사만 남아 있다. 아마 조사사실이 수록된 별도의 보고서가 있었을 것이나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정월 19일의 감영(監營)의 제사에서는 “터무니없이 무고한 부석사의 승려는 천주사에서 벌을 주라.”고 하였다.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

○ 현 상 :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의 고문서 11점은 목각아

미타여래설법상의 소유를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부석사와 대승사간에 소송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문서는 고종 6년(1869) 1월부터 3월 9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대승사 관련 문서, 고종 12년(1875)~고종 13년(1876) 사이에 작성된 대승사와 부석사 간 소송 문서, 고종 13년(1876) 대승사와 부석사의 합의문서 등이다.

그 중 보물 제575호로 지정된 문서는 다음의 4점이다.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보물 제575-1호),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보물 제575-2호),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보물 제575-3호), (4) 「완의」(完議, 보물 제575-4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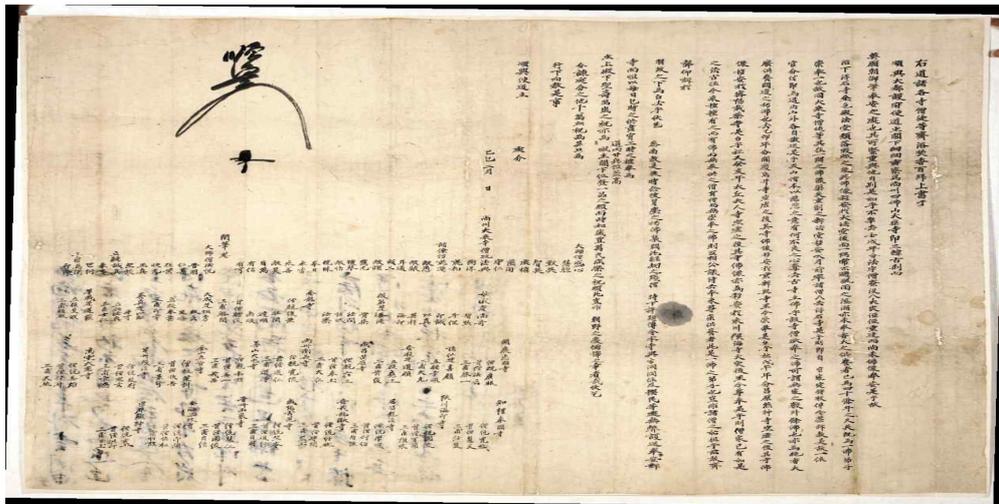
각 문서별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우도각사승도상서(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寫本. 1張. 121.1×100.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二月 日, 題辭(初八日).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1869년 정월에 부석사 목각탱의 대승사 이안이 부석사측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경상우도의 대승사(大乘寺), 윤필암(潤筆菴), 묘적암(妙寂菴), 반야암(般若菴), 김용사(金龍寺), 혜국사(惠國寺), 남장사(南長寺) 등 많은 사암(寺菴)의 승려들이 연명해서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불상의 이안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慶尙右道各寺僧徒上書

右道諸各寺僧徒等齋浴焚香百拜上書于順興大都護府使道主閣下細細垂察焉. 尙州四佛山大乘寺卽三韓古刹而英廟朝御筆奉安之處也. 其所緊重與他自別是如乎, 不幸去壬戌年分法宇僧寮沒入火僅僅重建而尙未佛像奉安是乎故, 治下浮石寺金色殿法堂頽落毀撤之後其佛像移安於大法堂後面一隅, 常不避風雨之滲漏亦未奉香火之供養者已爲四十餘年之久矣. 旣爲一佛弟子崇奉一也. 故同大乘寺僧徒等其在一隅之佛像渠矣重創之新法堂移安次月前率諸僧入去浮石寺是乎則, 卽自官家定將校傳令禁斷教是故一依官分付卽爲退出山外各自散送是乎矣, 山僧本以慈悲之意有何不良之心奪去古寺主佛乎. 該寺僧欲奉之佛可謂無家之數外餘佛也, 亦爲絕香火廢供養悶遣之朽佛也. 去乙卯年分聞慶烏井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京新興寺至今崇奉是白乎口, 戊午年分昌原熊神寺空虛之後其寺佛像移安於密陽載藥寺是白乎口, 又癸亥年大丘夫人寺空虛之後其寺佛像亦爲移安於永川銀海寺火後至今尊奉是乎則, 僧家已有如是之法古往今來種種有之, 而有佛而無奉供之僧有僧而無崇奉之佛則互相公議侍去奉來尊崇供養者此是一佛之弟子也, 豈非諸僧之始祖乎. 茲敢齊聲仰訴於明政之下爲白去乎, 伏乞參商教是後特念彼冒塵之朽佛哀悶此經劫之殘僧特下許題傳令本寺與方洞洞任及口民等處無弊護送奉安新寺. 而恒以每日巳時之供晝宵三時之禮奉爲主上殿下聖壽萬歲之祝, 亦爲道內甘兵位益高城主閣下位登一品之願, 而時和歲豐萬民咸樂之祝願, 此豈非朝野之慶儒釋之幸者哉. 伏乞分諫處分之地千萬血祝爲是1)只爲行下向教是事.

順興使道主處分

己巳二月日

順興使 [押]

경상우도(慶尙右道) 여러 절 승도(僧徒)들의 상서(上書)

경상우도 여러 절의 승도(僧徒)들은 목욕재계하고 향 사르어 백 번 절하며 순흥 대도호부(順興大都護府) 사또님 합하(閣下)께 상서(上書)하오니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상주(尙州)의 사불산(四佛山) 대승사(大乘寺)는 삼한시대의 고찰이자 영조 임금의 어필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 요긴하고 소중한데 다른 곳과 저절로 구별되더니, 불행히도 지난 임술년(1862) 즈음 법우(法宇)와 승료(僧寮) 등이 화재를 당해 근근히 중건하였으나 아직도 불상을 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부석사(浮石寺)의 금색전(金色殿) 법당이 퇴락, 훼손된 뒤 그곳에 있던 불상을 큰법당 뒤 한쪽 구석에 옮겨두었는데, 항상 비바람이 들이침을 피하지 못하였고, 또한 향화를 받들지 못한 지가 이미 4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일불제자(一佛弟子)가 되었으니 존승해 받드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대승사 승도들은 한쪽 구석에 옮겨둔 그 불상을 저희가 중창한 새 법당에 옮겨 모시려고 한 달쯤 전에 여러 승려들을 거느리고 부석사에 들어갔사운데, 관가(官家)에서 장교(將校)를 보내 전령(傳令)으로 금지하셨기에 한결 같이 관가의 분부에 따라 즉각 산 밖으로 물러나 각자 흩어져 돌아왔습니다. 산

승들이 본디 자비로운 뜻에서 한 일이지 무슨 불량한 마음으로 옛절의 주불(主佛)을 빼앗으려 했겠습니까? 저희 사찰의 승려들이 받들고자 하는 부처님은 가히 집 없는, 숫자 밖의 여벌 불상이며, 또한 향화가 끊기고 공양이 그친, 민망히 버려진 낡은 부처님입니다. 지난 을묘년 무렵 문경(聞慶)의 오정사(烏井寺)가 비게 된 뒤 그 절의 불상을 서울의 신흥사(新興寺)로 이안(移安)하여 지금까지 귀하게 받들고 있사오며, 무오년 무렵에 창원(昌原)의 용신사(熊神寺)가 비게 된 뒤에는 그 절의 불상을 밀양(密陽)의 재약사(載藥寺)로 이안하였사옵고, 또한 계해년에 대구(大丘)의 부인사(夫人寺)가 비게 된 뒤로는 그 절의 불상을 역시 화재 뒤의 영천(永川) 은해사(銀海寺)로 이안하여 지금까지 존중하여 받들고 있사옵니다. 그러한즉 절집에 이미 이와 같은 법도가 예전부터 종종 있었사오니, 부처님은 있되 받들어 모실 스님네가 없거나 스님네는 있되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다면 서로 의논하여 모셔가고 받들어와 존중, 공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일불제자의 도리이니, (불상은) 어찌 모든 스님네의 시조(始祖)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우러러 밝은 다스림을 펼치시는 사또께 호소하오니, 엿드려 청하건대 잘 참작하신 뒤 특별히 저 먼지를 무릅쓰고 있는 낡은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액운을 겪은 잔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내리시되 본사와 방동(方洞)의 동임(洞任) 및 계민 등에게 전령으로 알리시어 호송하여 새 절에 봉안함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 사시(巳時)의 공양과 밤낮 세때의 예불을 올릴 때마다 주상전하의 성수만세를 발원토록 하며, 또한 도내 감병(甘兵)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성주(城主) 합하께서는 일품(一品)의 지위에 오르도록 기원드리며, 시절은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즐겁도록 축원한다면 이것이 어찌 조야의 경사가 아니겠으며 유가와 불가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엿드려 청하건대, 잘 분간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를 위해 분부하옵실 일.

순흥사또님 처분

기사년(1869) 2월 일

순흥사(順興使)

(2)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寫本. 1張. 97.3×59.2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正月 日. 題辭(十七日)

1876년 정월에 대승사에서 가산장수(架山將帥) 에게 보낸 문서이다. 대승사에서 순흥 관가에 등장(等狀)을 올려 허락을 받은 이후 목불탱을 옮겨 봉안하였으나, 부석사에서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이 수백냥의 돈을 요구하자 이를 처벌하여 달라 청원하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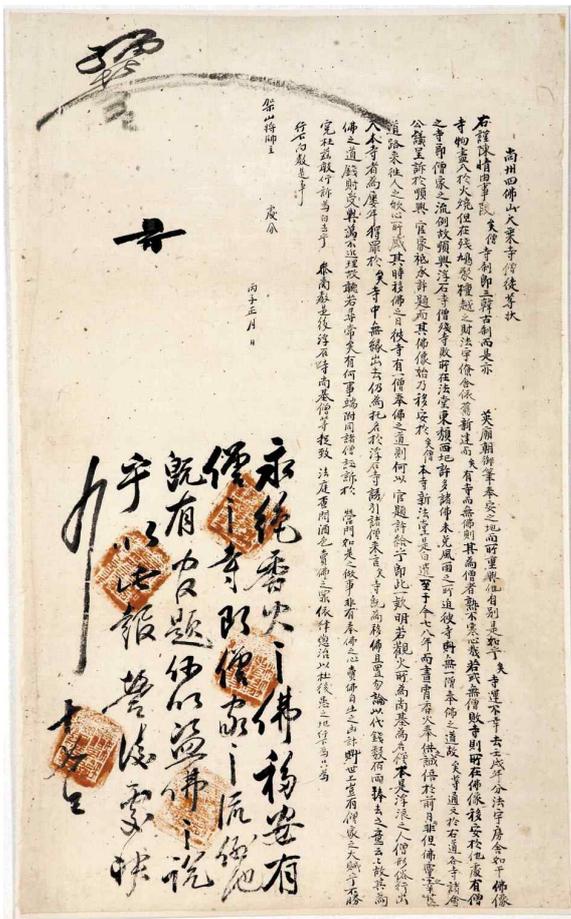
(3)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寫本. 1張. 104×58.8cm. 紙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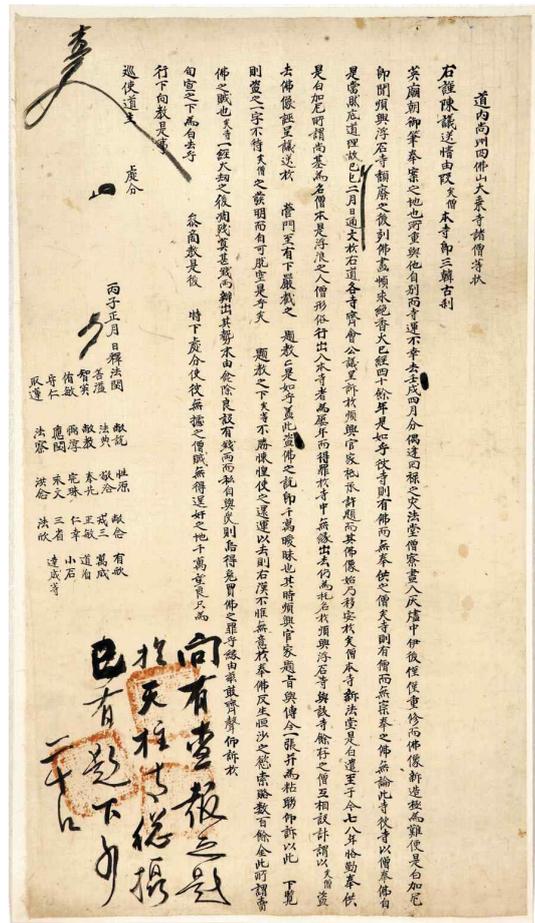
高宗 13年(1876)

年紀: 丙子(1876) 正月 日. 題辭(二十日).

대승사에서 1869년에 순흥 관아에서 내린 ‘천주사(天柱寺) 총섭(總攝)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전령을 첨부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의 내용과 같이 관의 허락을 받고 목불탱을 옮겨 봉안하였으나, 부석사에서 승려 행세를 하는 상기(尙基) 등이 수백냥의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청원이다.



尙州四佛山大乘寺僧徒等狀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등장(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道內尙州四佛山大乘寺諸僧等狀

右謹陳議送情由段矣僧本寺卽三韓古刹」英廟朝御筆奉案之地也。 所重與他自別而寺運不幸去壬戌四月分偶逢回祿之法堂僧寮盡入灰燼中。 伊後僅僅重修而佛像新造極爲難便是白加尼」 卽聞順興浮石寺頽廢之後刻佛畫幀永絕香火已經四十餘年是如乎，彼寺則有佛而無奉供之僧矣寺則有僧而無崇奉之佛 無論此寺彼寺以僧奉佛自」是當然底道理.故己巳二月日通文於右道各寺齊會公議呈訴於順興官家祇承許題而其佛像始乃移安於矣僧本寺新法堂是白遣至于今七八年恪勤奉供」是白加尼， 所謂尙基爲名僧本是浮浪之人僧形俗行。 入本寺者爲屢年而得罪於寺中無緣出去仍爲托名於順興浮石寺與該寺餘存之僧互相設計謂以矣僧盜」去佛像誣呈議送於營門至有下嚴截之題教教是如乎，蓋此盜佛之說卽千萬曖昧也。 其時順興官家題旨與傳令一張并爲粘聯，仰訴以此下覽」則盜之一字不待矣僧之發明而自可脫空是乎矣。 教之下矣等不勝悚惶使之還運以去則右漢不惟無意於奉佛反生恒沙之慾索賂數百餘金， 此所謂賣」佛之賊也。 矣寺一經火劫之後凋殘莫甚錢兩辦出其勢末由口除良， 有錢兩而私自與受則烏得免買佛之罪乎。 緣由茲敢齊聲仰訴於」旬宣之下爲白去乎， 商教是後 特下處分使彼無據之僧賊無得逞奸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丙子正月日

삼가 의송(議送)하는 사정은 저희들의 본사(本寺)는 삼한의 고찰로서 영조임금의 어필을 봉안한 곳입니다. 그 소중함이 다른 절과 저절로 구별되더니, 절의 운수가 불행하여 지난 임술년(1862) 4월 즈음 우연히 불이 나는 재앙을 만나 법당과 승료(僧寮)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뒤 겨우겨우 중수를 하였으나 불상을 새로 조성하는 일은 극히 어렵더니, 순흥(順興)의 부석사(浮石寺)가 퇴락해진 뒤 각 불화탱(刻佛畫幀)에 향화가 끊긴 지 이미 40여 년이 지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절은 부처님은 계신데 받들어 모실 승려가 없고, 저희 절은 승려는 있는데 받들어 모실 부처님이 없었습니다. 이 절이니 저 절이니를 막론하고 승려로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심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사년(己巳年, 1869) 2월 아무날 경상우도의 각 사찰로 통문을 띄워 함께 모여 공의로 순흥 관가에 등장(等狀)을 올려 삼가 허락하는 관제(官題)를 받들어 그 불상을 비로소 저희들 본사의 새 법당에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7~8년 동안 근심하게 받들어 왔습니다. 이른바 상기(尙基)라고 이름하는 승려는 본디 부랑자로서 걸모습은 승려이나 행실은 속인이옵니다. 본사에 드나든지 여러 해이온데, 저희 사중(寺中)에 죄를 지어 인연을 끊고 떠나더니 그 길로 순흥 부석사에 이름을 의탁하고는 그곳에 남아 있는 승려들과 일을 꾸며 저희들이 불상을 훔쳐갔다고 무고(誣告)로써 영문(營門)에 의송(議送)을 올려 마침내 엄중한 제교(題教)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릇 이

부처님을 흠꼴했다는 말은 대단히 애매한 일입니다. 그때 순흥 관가의 제지(題旨)가 전령(傳令)한 장과 함께 첨부되었사오니, 우리러 호소하건대 이것을 살펴보면 흠꼴다는 ‘도(盜)’ 한 글자는 저희들의 발명(發明)을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억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교(題敎)가 내려오자 저희들은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들에게 되가져 가도록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자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끝없는 욕심을 내어 수백 금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부처님을 팔아먹는 도적입니다. 저희 절은 한번 화재를 겪은 뒤 쇠락함이 참으로 심해 돈을 마련해 내놓을 형편이 못 될 뿐더러,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사사로이 주고받는다면 어찌 부처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죄를 면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이에 감히 목소리를 합하여 왕명에 따라 다스리시는 순사또께 우리러 호소하오니 참작하신 뒤 특별히 처분을 내리셔서 저 불일 데 없는 승려 도적으로 하여금 멋대로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천만 바라옵니다. 이를 위해 분부하옵실 일.

순사또님 처분

병자년(1876) 정월 일

(4) 완의(完議)

寫本. 1張. 55.9×34.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大清光緒二年丙子(1876)三月 日.



完議

完議

右完議事段貴大乘社與鄙浮石寺相距百里之外然俱爲一道古伽藍，而叢林盛衰興廢理數常然者也。近古以來寺運不塞大眾渙散之餘金色殿頹圯難緝，故諸佛幀像移安於無量壽殿多年矣。貴寺火後新建之際造像極艱仍謀鄙寺木凋佛像之意則皆爲佛子同袍之道難拒懇誠。故不得固留而移安間撓弄彼此妄舉也。鄙寺方欲修補祖師殿之舉矣。貴寺貳佰伍拾兩助修之義出於盡誠相好事也。豈可無一言證後之遺蹟乎。茲以完議爲去乎日後觀今者愈厚表裏修好之地千萬幸甚。

大清光緒二年丙子三月日
慶尙左道順興浮石寺

부석사에서 대승사로 발급한 문서이다. 대청 광서2년 병자(大清光緒二年丙子, 1876) 삼월(三月)에 이루어진 대승사와 부석사의 합의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일은 귀 대승사(大乘寺)와 저희 부석사(浮石寺)는 서로 백 리 밖에 떨어져 있으나 모두 같은 도에 있는 옛 가람인데, 총림(叢林)의 흥망 성쇠는 이치로나 운수로나 늘 있는 일입니다. 근자에 절의 운세가 부새(否塞)하여 대중들이 흩어진 나머지 금색전(金色殿)이 퇴락하고 기울었으나 수리조차 어려워 제불탱상(諸佛幀像)을 무량수전(無量壽殿)으로 옮겨 모신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귀사(貴寺)는 화재 뒤 건물을 새로 세울 즈음 불상을 조성하기가 극히 어려워 저희 절의 목조불상(木彫佛像)을 도모하려는 뜻이 있었으니, 같은 불자 동포의 도리로는 간절한 정성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묵혀 두지 않고 옮겨 모시도록 했으니, 그 사이 소란이 생기면 피차간에 잘못된 망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절은 바야흐로 조사전(祖師殿)을 수리하려 합니다. 귀사에서 250냥으로 수리를 돕겠다는 뜻은 참된 정성에서 우러난 것으로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어찌 한마디 말로써 뒷날의 증거가 되는 유적(遺蹟)을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합의하오니 오늘 이후 이 일을 살펴 날이 갈수록 우의를 두터이 하여 안팎으로 정의(情誼)가 돈독해진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대청 광서(光緒) 2년 병자(丙子, 1876) 3월 일“

이상 보물로 기지정된 문서 외의 7점의 문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물금체(勿禁帖)

寫本. 1張. 30×35.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正月日勿禁.

관부문서의 하나인 물금체(勿禁帖)로서 관아에서 금한 일을 특정인에게 특별히 허가하여 준 사실을 적은 문서이다. 기사(己巳, 1869) 정월(正月)에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에 있는 각화사(覺華寺) 도총섭에게 보낸 문서이다.



물금체

慶尙左道奉化縣太白山城覺華寺」
 璿源實錄兩閣守護兼藝文館僧風糾」正都摠
 攝爲勿禁護送事」卽者順興浮石寺今者僧殘
 寺敗佛宇頽」圯佛像顛壞之餘一佛世界一佛
 弟子」頽圯之像見者旣歎之久矣。不意今
 者」尙州大乘寺灰堆年久寺勢凋殘永無」佛
 像。故浮石寺木幘佛陪去奉供之意今」爲侍
 護送爲去乎所到諸處勿爲煩說之」次茲以勿禁
 護送爲去乎所經各處」無護送幸甚幸甚。

己巳正月日勿禁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경상좌도 봉화현 태백산성 각화사(覺華寺)의 선원각(璿源閣)과 실록각(實錄閣) 수호 겸 예문관 승풍 규정 도총섭은 물금호송할 일

이제 순흥(順興) 부석사(浮石寺)가 근자에는 승려는 줄어들고 절은 피폐해졌으며 건물들은 퇴락하고 불상은 넘어져 무너지니, 같은 부처님 세계의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 쇠락한 모양을 보며 안타까워한 지 오래입니다. 뜻하지 않게 근래에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는 (화재를 당해) 잿더미가 된 지 여러 해여서 사세(寺勢)가 쇠미하고 오래도록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석사의 목탱불(木幘佛)을 모셔다 받들려는 뜻으로 이제 모셔가려 하므로, 이르는 곳마다 번다한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호송하는 일을 금하지 말게 하니, 경유하는 곳마다 탈 없이 호송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기사년(1869) 정월 일 “

(2) 전령(傳令)

寫本. 1張. 26.7×54.3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己巳(1869)三月初九日.

기사(己巳, 1869) 삼월초구일(三月初九日)에 순흥도호부사가 부석사 승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傳令鳳陽面浮石寺僧徒及近洞頭民洞長
爲惕念舉行事。 月前大乘寺僧徒以浮石寺佛
尊移奉次一齊來到而不告于官自下擅使者事
甚未妥。 故至有逐送之舉是加尼， 今則道內
諸僧會同公議有此列名等訴。 故不得已許施
爲去乎移奉之際毋論僧俗更不必岐貳而所經
各處各別護送是矣， 如或有浮浪之輩橫出作
拏則懲礪次捉上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 [押]

傳令

“봉양면(鳳陽面) 부석사(浮石寺) 승도(僧徒) 및 인근 동의 두민(頭民)과 동장(洞長)에게 보내는 전령(傳令)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행할 일. 한 달쯤 전 대승사(大乘寺)의 승도들이 부석사의 불존(佛尊)을 옮겨 모시려고 일제히 들이닥쳐 관가에 고하지도 않고서 아래에서 멋대로 처리한 것은 그 일이 심히 타당하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쫓아 보내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더니, 지금은 도내의 여러 승도들이 함께 모여 공의(公議)로써 이처럼 이름을 나열하여 등소(等訴)하였다. 그러므로 부득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니 옮겨 모실 때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다시는 의논이 나뉘지 않도록 하여 경유하는 곳곳마다 각별히 호송하되, 만일 부랑배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징려(懲礪)키 위해 잡아 올릴 일.

기사년(1869) 3월 초아흐레”

(3) 전령(傳令)

寫本. 1張. 23.6×31.5cm. 紙製.

高宗 6年(1869)

年紀: 己巳(1869) 三月初九日.

1869년 3월 9일에 순흥도호부사가 장차(將差)에게 보낸 문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傳令將差
 俄有所僧徒狀題及傳令矣. 今聞近洞亂民輩聚會作梗云豈有如許民習乎. 一併結縛捉來是遣使之無契奉佛之地宜當向事.
 己巳三月初九日
 使 [押]

전령

“장차(將差)에게 내리는 전령(傳令)

지난번 승도(僧徒)들의 장제(狀題) 및 전령(傳令)이 있었다. 이제 듣자니 인근 동네의 난민(亂民)들이 모여서 말썽을 부린다고 한다. 어찌 이 같은 민간의 습속이 있겠는가? 모조리 결박하여 잡아오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모셔가는 일을 막지 말도록 마땅히 거행할 일.

기사년(1869) 3월 초아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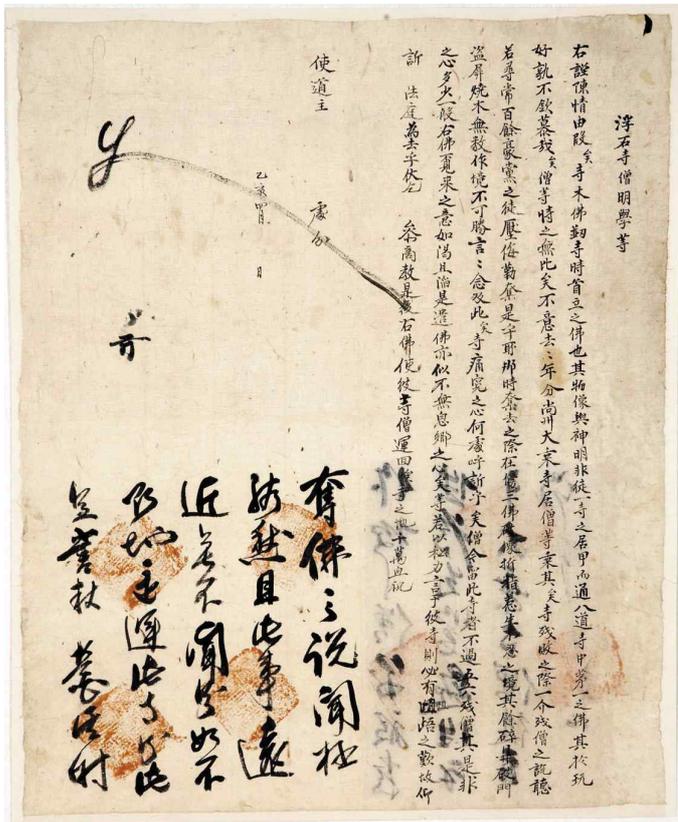
(4)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68.8×55.7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 乙亥(1875) 四月 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소장을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내 1869년에 대승사에서 강탈한 불상을 반환하도록 처분해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부석사 승 명학등(浮石寺僧明學等)”이라는 제명으로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직접 올린 의송(議送)이다.



浮石寺僧明學等

右謹陳情由段矣寺木佛寺時首立之佛也其物像與神明非徒一寺之居甲而通八道寺中第一之佛其於玩好孰不欽慕哉矣僧等恃之無比矣不意去去年際一介殘僧之說聽若尋常百餘之徒壓侮勒奪是乎所那奪去之際在傍三佛破像折指惹生不忍之境其餘碎鼎破門盜屏燒木無數作境不可勝言言念及此矣寺痛冤之心何處呼訴乎矣僧今留此寺者不過五六殘僧其是非是遣佛亦似不無思鄉之心矣等若以力言于彼寺則必有之歎故仰訴法庭爲去乎伏乞商教是後右佛使彼寺回矣寺之地千萬血祝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 [押]

浮石寺僧徒等狀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석사(浮石寺)의 승려 명학(明學) 등이 삼가 아뢰올 사정은 저희 절의 목불(木佛)은 절을 창건할 때 처음 세운 부처님입니다. 그 물상(物像)과神明(神明)함은 비단 한 절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팔도(八道)의 절을 통틀어서도 제일가는 불상이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 누구인들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비할 바 없이 자랑스러워하는 바이온데, 뜻하지 않게 지지난해 즈음 상주(尙州) 대승사(大乘寺)에 살고 있는 승려들이 저희 절이 쇠락함을 틈타 일개 못된 승려의 말을 듣고 마치 심상한 일인 양 백여 명의 거친 무리들을 동원해 모욕을 가하고 능탈(勒奪)하온 바, 그 당시 빼앗아 갈 때 곁에 있던 세 불상 또한 형상을 파괴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킴이 차마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숲을 깨트리고 문을 부수며, 병풍을 훔치고 나무에 불을 내는 등 무수한 사단을 일으킴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침에 저희 절의 원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요즈음 이 절에 머무는 저희는 불과 대여섯에 지나지 않지만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이야 매일반이오니, 앞에 말씀드린 불상을 되찾아 오려는 뜻은 마치 목마른 듯, 큰물이 넘치듯 하옵고 부처님 역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사적으로 저쪽 절에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저어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법정(法庭)에 호소

하오니 엿드려 청하건대 잘 참작하신 뒤 말씀드린 부처님을 저쪽 절의 승려들로 하여금 저희 절로 되돌려주도록 하옵시길 천만 번 소원하옵니다.

사또님 처분

을해년(1875) 4월 일 사”

이에 대해 제사에서는 “즉시 부석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당시 소란을 피운 승려들은 벌을 주며 우선 이 제사를 대승사 승도들에게 보여주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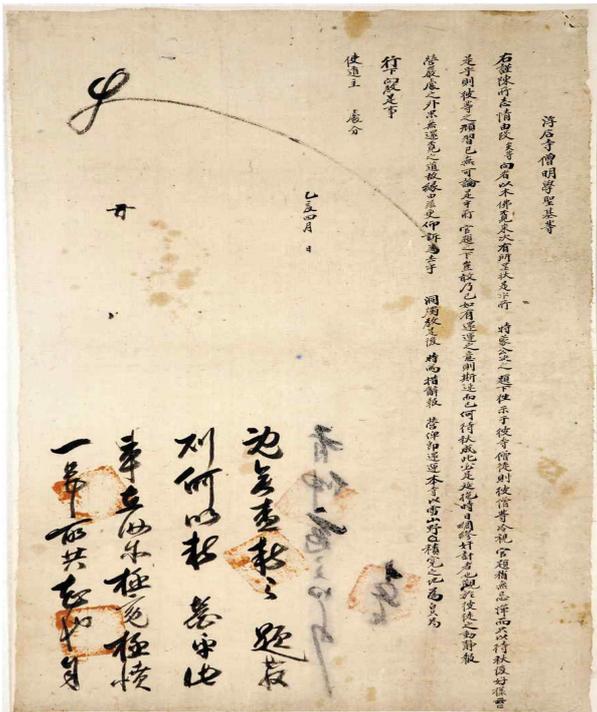
(5) 부석사승도등장(浮石寺僧徒等狀)

寫本. 1張. 98.9×57.8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四月 日. 題辭(十七日).

을해년(1875) 4월에 부석사 주지 명학(明學) 등이 순흥대도호부사에게 보낸 소지이다. 내용은 앞선 “공정한 제사를 대승사에 찾아가서 보여주었으나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엄히 처결하는 외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오니 문서로 감영에 보고하여 한을 갚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浮石寺僧徒等狀

浮石寺僧明學聖基等

右謹陳所志情由段矣等向者以木佛覓來次
有所呈狀是乎所特蒙公決之題下往示于彼
寺僧徒則彼僧等冷視官題稍無忌憚而只
待秋後好樣云云」是乎則彼等之頑習已無
可論是乎所官題之下豈敢乃已。如有還運
之意則斯速而已何待秋成。此必是延拖時日
網繆奸計者也。觀於彼徒之動靜報」營嚴
處之外果無還覓之道。故緣由茲更仰訴為
去乎洞燭教是後特為措辭報營即還運本
以雪山野積冤之地為白只為
行下向教是事。

使道主處分

乙亥四月日

使 [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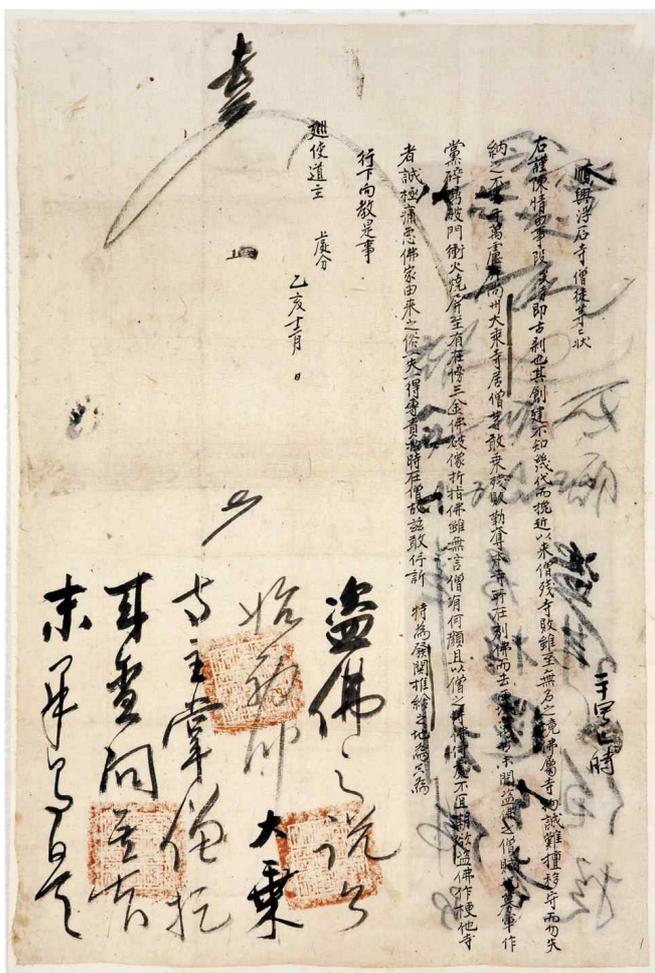
(6) 순흥부석사승도등등장(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寫本. 1張. 84.5×56.6cm. 紙製.

高宗 12年(1875)

年紀：乙亥(1875) 十二月 日. 題辭(廿四日).

1875년 12월에 부석사 승도들이 순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내용은 “대승사의 승려들이 부석사의 목각탱을 강탈해 갔으니 공문을 내리시어 이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24일의 제사에서는 “대승사의 주장승(主掌僧)을 조사, 심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목각탱을 부석사로 돌려보내라.”고 천주사 총섭에게 지시하였다.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順興浮石寺僧徒等等狀

右謹陳情由事段矣寺卽古刹也。其創建不知幾代而挽近以來僧殘寺敗雖至無名之境佛屬寺物誠難擅移守而勿失」納之不去。千萬慮外尙州大乘寺居僧等敢乘殘敗勒奪本寺所在刻佛而去。西域萬古未聞盜佛之僧賊，況募軍作」黨碎鼎破門衝火燒屏至有在傍三金佛破像折指，佛雖無言僧有何顏。且以僧之侍佛何處不宜期欲盜佛作梗他寺」者誠極痛惡。佛家由來之俗一失一得專責於時在僧。故茲敢仰訴特爲發關推給之地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處分

乙亥十二月日
都巡使 [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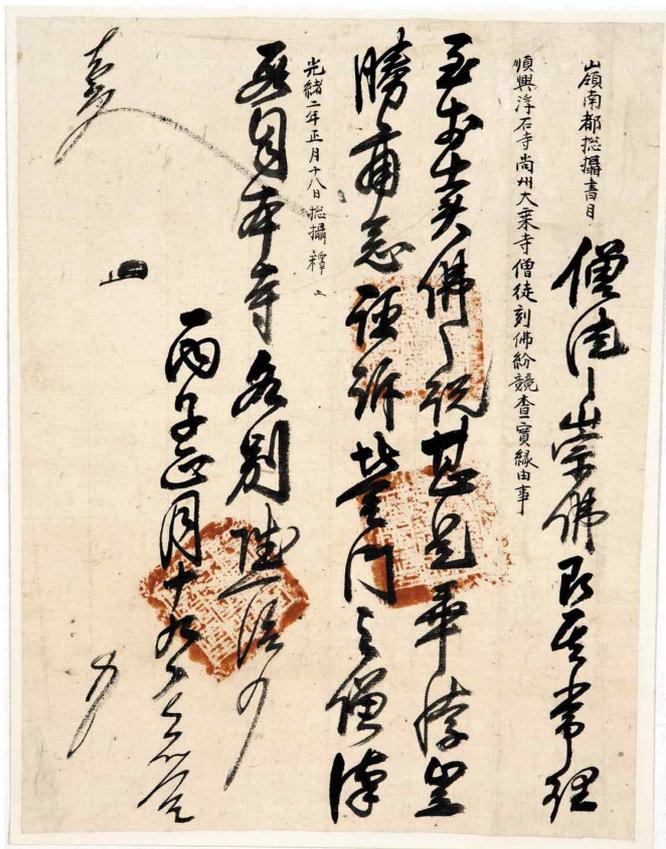
(7) 영남도총섭서목(嶺南都摠攝書目)

寫本. 1張. 54.7×40.8cm. 紙製.

高宗 13年(1876)

年紀: 光緒二(1876) 年正月十八日. 題辭(丙子正月十九日).

1876년 정월 18일에 천주사 총섭이 감영에 보고한 것이다. 순흥 부석사(浮石寺)와 상주 대승사의 승도들이 목각탱 분쟁사실의 조사 사실과 관청의 제사만 남아 있다.



嶺南都摠攝書目

順興浮石寺尙州大乘寺僧徒刻佛紛競查實緣由事.

光緒二年正月十八日攝釋[手決]

순흥 부석사와 상주 대승사 승도들의 각불 분쟁의 연유를 사실대로 조사한 일.

僧徒之崇佛卽其常理。」至於賣佛之說甚是乖悖豈」勝痛念. 誣訴營門之僧漢」段自本寺各別懲治事.

丙子正月十九日在營

都巡使 [押]

승도들이 부처님을 존승하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다. 부처님을 팔아먹는다는 말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니 어찌 애통한 마음을 가눌 수 있겠는가? 영문에 터무니없이 무고한 승려는 본사에서 각별히 징치할 일.

○ 문헌자료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불교문화재연구소 편역, 문경시청, 2011.

『경상북도 지정조사보고서』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7-03-005

5.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가. 검토사항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 소유자(관리자) : 김병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 수량 : 1책(44장)
- 규 격 : 半郭 18.2×13.0(26.5×16.1) (cm)
- 재 질 : 저지(종이)
- 판 종 : 목판본(금속활자 번각)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472년(성종 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지정조사대상본인 김병구씨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김수온(金守濶;1409-1481)의 발문에 의하여 1472(성종3년)에 인수대비의 발원에 따라 인출된 책임이 분명해졌다. 고려 고종 26년(1239)에 주자본을 번각하여 간행한 판목에서 인출한 후쇄본임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후쇄본이기는 하지만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주조 및 이용과 관련한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발문의 훼손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해당 발문이 원위치로 복원될 때까지는 문화재의 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고종 26년(1239)에 주자본을 번각하여 간행한 후인본이지만 우리나라 주자 인쇄시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현존자료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발문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지정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권말에 최이(崔怡)가 1239년에 쓴 후지(後識)를 통하여 금속활자로 인출된 증도가의 번각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곧 1239년(고종 26)을 전후한 시기에 주자본(鑄字本)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실전(失傳)되어 실물이 전래되지 않으니,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崔瑀, ?~1249)가 주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중조(重彫)하여 간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239년 보다 앞선 시기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활자로 인쇄한 바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한국의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현재 1책(44장)이 결장없이 남아 있으나, 이미 알려진 여러 자료를 통하여 본래 권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수온의 발문이 결락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된 자료로서 보물 지정은 훼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표지가 개장되고 일부의 누습(漏濕)의 흔적이 있다. 본문의 매장의 앞면 상단에 전의 소유자의 인장으로 보이는 원형주인이 날인되어 있고, 이 책의 소유자가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청색 스탬프가 각기 전후에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南明泉和尚頌證道歌. 玄覺(唐)頌 ; 法泉(宋)繼頌

[高麗 高宗 26년(1239)板刻本の 後刷本(1472년, 成宗3)]

不分卷1冊(44張) : 四周單邊 半郭 18.2×13.0cm, 無界, 8行15字, 無魚尾 ; 26.5×16.1cm.

序: 時熙寧十年丁巳(1077)七月 括蒼吳庸天用序

後序: 時熙寧九(1076)年七月十日 括蒼祝況後序

卷末 誌 : 時己亥(1239)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지은 증도가(247구)의 각 구절 끝에 송(宋)나라의 승려인 남명선사(南明禪師) 법천(法泉)이 이어서 노래한 320편을 계송(繼頌)한 것을 합하여 묶은 것이다. 송신종(宋神宗) 희령(熙寧) 9년(1076)에 중국 절강성의 괄창(括蒼)에서 축황(祝況)이 처음 간행하면서 後序를 써서 권말에 붙이고 이듬해인 1077년 7월에 같은 지방사람인 오용(吳庸)의 서문을 받아 권두에 붙인 본이 초간본이다.

이 책이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축황의 후서 다음에 실려있는 최이(崔怡, ?~1249)의 지문(誌文)의 다음 대문을 통해 고려의 금속활자의 기원 년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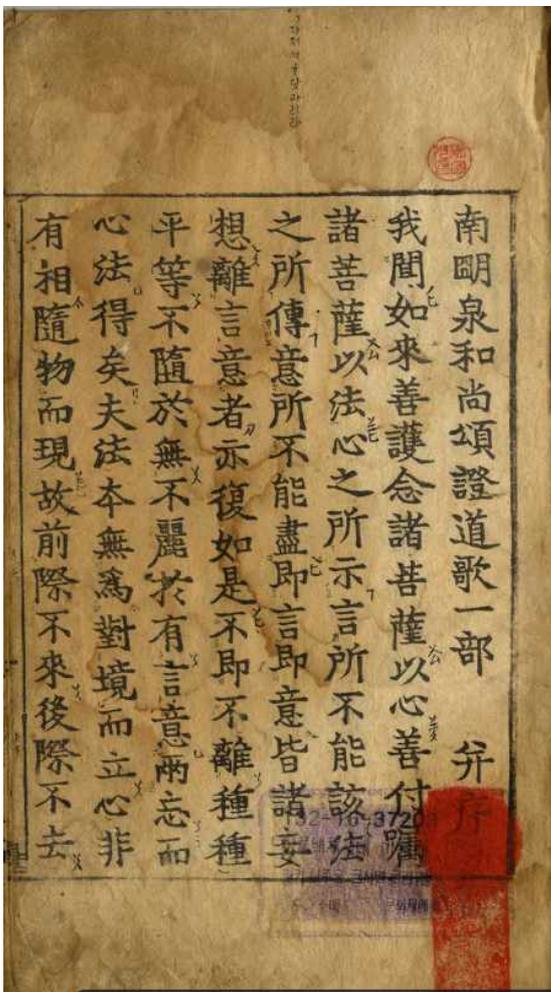
즉 지문중의

“夫南明證道歌者，實禪門之樞要也。故後學參禪之流，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於是，募工重彫鑄字本，以壽其傳焉。時己亥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남명증도가는 선종(禪家)에서 매우 중시하는 책이다. 그래서 참선을 배우는 후학들은 누구나 이 책을 통해서 <학문에 입문하고> 나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끝내는> 심오한 경지에 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하니 <이 책의> 전래가 끊어져서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놔두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공인(工人)을 모집하여 주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새겨 길이 전하게 한다.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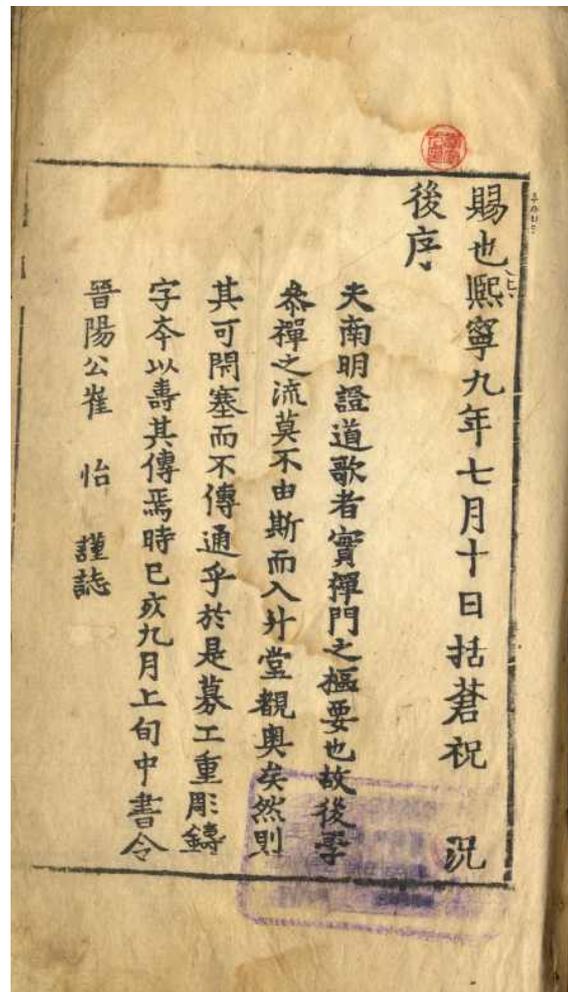
기해년(1239) 9월 상순이다. 중서령 진양공 최이는 삼가 쓴다.”)

이 판본을 검토해보면 금속활자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고 천혜봉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①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가지런한 점, ②본문의 항열(行列)이 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빼뺏어졌다 하는 점, ③장마다 한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나는 점, ④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래 글자의 윗 획이 서로 닿거나 엇물린 것이 없다는 점 등이 발견된다.

조사대상본인 김병구 장본은, 후인본이지만 인쇄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위에서 열거한 주자본의 특징들이 확인된다.



<김병구씨 소장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첫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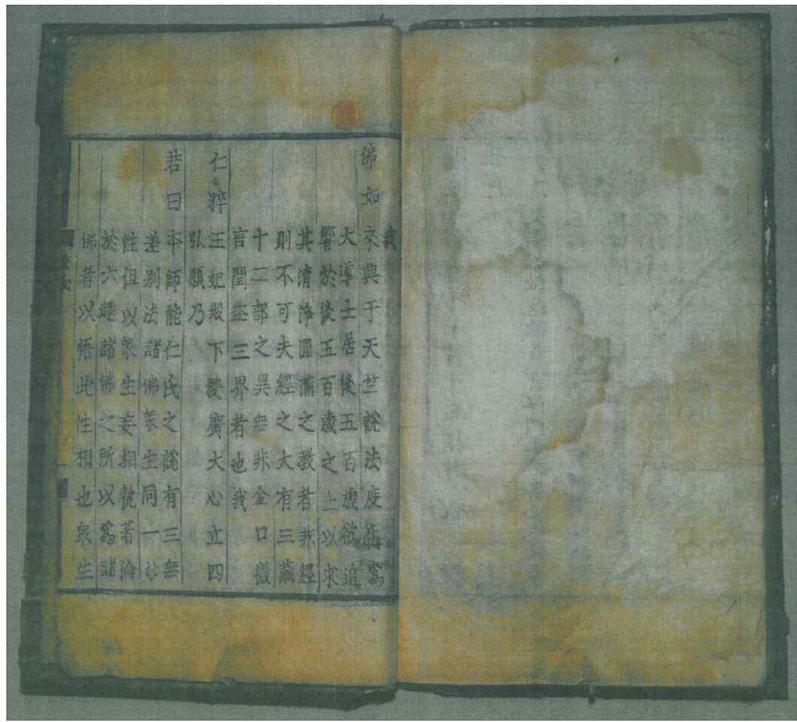
<김병구씨 소장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마지막 장 >

이 책은 국가문화재지정본인 같은 판본들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인 보물제 758-1호(1984지정)과 공인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758-2호(2012 지정)과 같은 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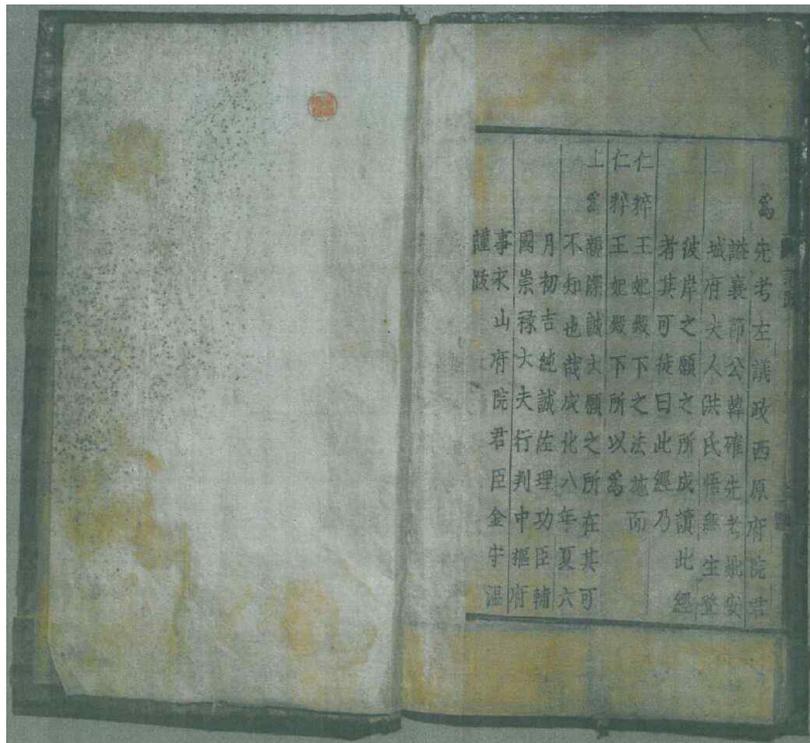
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밀한 대조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각기 인출시기의 선후가 발견될 뿐이다. 특히 삼성출판박물관 장본의 다음으로 이른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금속활자 인쇄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어보인다.

2015년 8월 이 책의 지정조사를 마치고 나서의 일이다. 같은 해 9월에 간행된 조형진교수의 “금속활자본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감별 방법 연구”(『서지학연구』 제63집, 2015. 9.30.)라는 논문에서 김병구소장본의 권말에는 본시 1472(성종) 김수온발이 붙어 있었으나 이 발문을 제거하고 문화재지정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어서 김병구장본의 각 장의 앞면 상단마다 찍혀있는 원형의 주인과 같은 위치에 같은 인장이 날인된 김수온 발문의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발문이 김병구장본 증도가의 권말에 함께 장책되어 있던 것이 언젠가 절개되어 따로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발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책이 인수대비가 선왕인 세조, 예종과 죽은 남편인 덕종, 그리고 친정부모인 한확과 부인 홍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책을 인경(印經)하고 그 사실을 김수온에게 맡겨 발을 쓴 것임을 보여준다. 갑인소자로 인쇄한 이 발문은 실물의 대사를 통하여 같은 책판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인출한 현존하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 지정신청을 한 2012년 당시에 이 발문은 본서에서 제거된 상태였다 한다. 따라서 그 시기는 2012년 이전으로 추측된다.



<김수온 발의 첫 면>



<김수온 발의 마지막 면>

○ 문헌자료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1993.
- 남권희, 『증도가연구』, 고인쇄박물관, 2011.
-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범우사, 2012.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 4.
- 김수온찬 증도가발문 사진.



○ 현 상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玄覺(唐) 著 ; 法泉(宋) 註
 木板本(後印本)
 [14-5世紀]
 1冊(44張) : 四周單邊 半郭 18.2×13.0cm, 無界, 8行15字, 無魚尾 ; 26.5×16.1cm.
 序: 時熙寧十年丁巳(1077)七月括蒼吳庸天用序
 後序: 時熙寧九(1076)年七月十日括蒼祝況後序
 卷末: 時己亥(1239)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남명선사(南明禪師) 법천(法泉)이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지은 증도가 247구의 각 구절 끝에 7자 3구, 원문이 3자인 경우에는 3자를 더한 형식으로 320편을 계송(繼頌)한 것이다. 처음 송나라 신종(神宗) 희령 9년(1076)에 중국 절강성의 괘창(括蒼)에서 간행되었는데 이 때 축황(祝況)의 서문을 권말에 붙이고, 1077년 7월에 오용(吳庸)이 지은 서문을 권두에 붙여 간행한 것이 초간본이다. 이 초간본 계통의 책이 13세기 이전에 고려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최이(崔怡, ?~1249)의 지(誌)에는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시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남명증도가』는 선가에서 매우 긴요한 책이다. 그러므로 후학 가운데 참선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책을 통해 학문이 깊어져서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전래가 끊어져서 유통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공인(工人)을 모집하여 주자본을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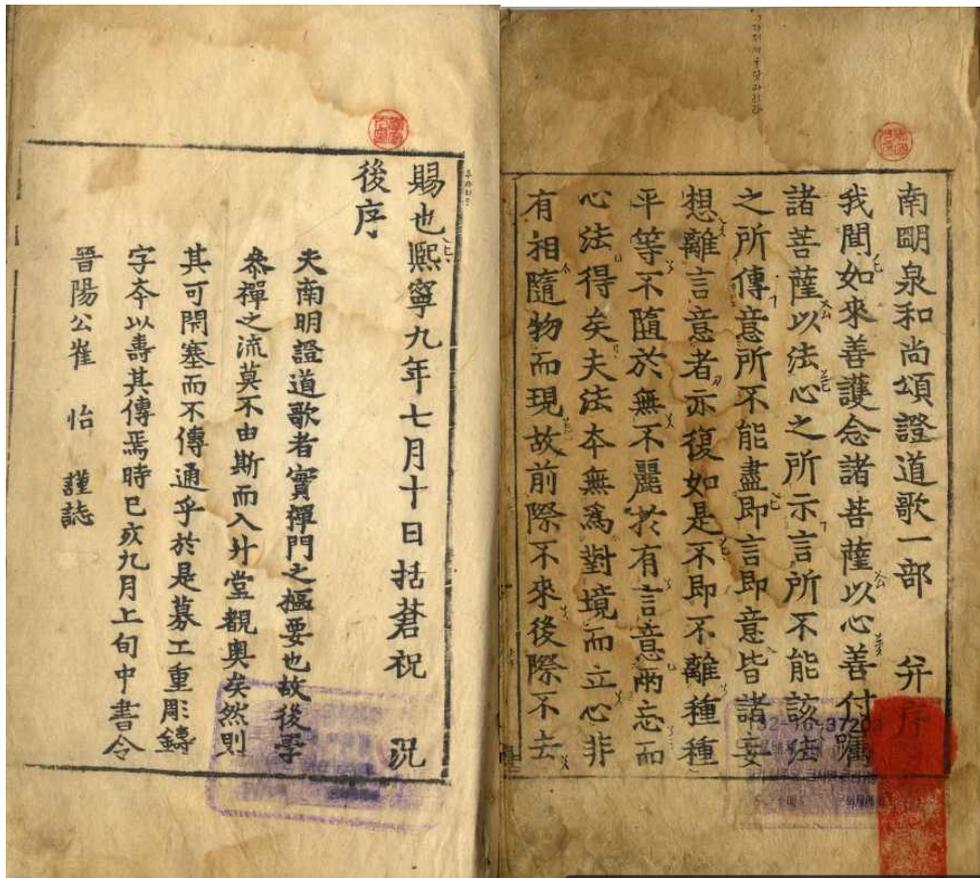
새겨 길이 전한다. 때는 기해년(1239) 9월 상순이다. 중서령 진양공 최이는 삼가 적는다.”

(“夫南明證道歌者，實禪門之樞要也。故後學，參禪之流，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於是，募工重彫鑄字本，以壽其傳焉。時己亥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

최이의 글에 따르면, 이 책의 판각시기인 1239년 이전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활자(주자본)로 인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금속활자본은 강화도로 천도하던 고종 19년(1232) 이전에 개경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 판본은 금속활자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일찍이 천혜봉 박사는 이 책이 보여주는 금속활자본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비교적 가지런한 점에서 우선 주자의 특징이 인지된다.
- ②본문의 항열(行列)이 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빼뺏어졌다.
- ③책장마다 한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난다.
- ④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래 글자의 위 획이 서로 닿거나 엇물린 것이 없다.

김병구 소장의 이 책은 남권희의 『증도가 연구』(2011)에서 개인소장본으로 소개되면서, 모든 장은 채색사진으로 공개되었다. 판심에는 각수명이 있는데 당시 각수는 득(得), 동백(東伯), 진재(珍才), 당보(唐甫), 공대(公大), 오준(吳準), 일명(一明), 이세(二世), 원휘(元暉), 사집(思集), 숙□(叔□) 등 11명이었다. 이들은 각자 최소 2장부터 최대 6장까지 새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44장이며 판심에는 장차(張次)와 각수명이 있다. 반엽은 8행15자이나 제39장 후면만은 7행15자이다. 후인본이지만 인쇄상태는 양호하며, 위에서 든 네 가지 주자본의 특징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백에는 한자 약체자 구결이나 한글 구결로 토를 달아 놓았는데 한글변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근거가 된다.



<마지막 장>

<첫 장>

현재 장책용 실이 모두 끊어져 없어졌으나 해체되지는 않고 선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뒤표지는 원래의 것이 아니고, 근자에 상하를 절단하면서 옛 소장자의 일부 목서가 약간 잘려나간 곳도 있다. 전장(全張)에 누습의 흔적이 남아 있고, 첫째 장 우측 하단에는 원소장자의 장서인이 있으나 후대에 인주로 문질러 놓아 판독할 수가 없다. 또 그 곳과 마지막 장 아래에는 「132-16-37203 경기 여주군 금사면 궁리 문화재매매」라는 내용이 있는 장방형의 스탬프가 찍혀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골동품상의 주소이므로 이 책은 아마 그곳에 있었던 공식적인 골동품상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구 소장의 이 책은 고종 26년(1239)에 주자본을 번각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며, 인쇄 시기는 15세기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 공개되어 전하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758-1호(1984.05.30지정), 공인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758-2호(2012.06.29지정) 등 모두 4-5부가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시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현존자료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문화재지정을 위한 신청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발문을 훼손한 사

실이 최근 학계에 공개되었다. 곧 조형진 교수는 “금속활자본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감별 방법 연구”(『서지학연구』 제63집, 2015. 9.30. p.94-5의 주석)에서

“대구 김병구 소장본은 책 말미에 1472년의 김수온 인경발문이 붙어 있었으나 2015년 3월 현재 이 발문을 떼어내고 문화재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였다.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에 처음 문화재지정 신청(2012)을 할 때부터 김수온의 발문은 없었고, 인위적으로 발문을 제거한 것은 거의 사실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문화재가 훼손되었다면 지정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인쇄사(서울: 범우, 2012).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서울: 범우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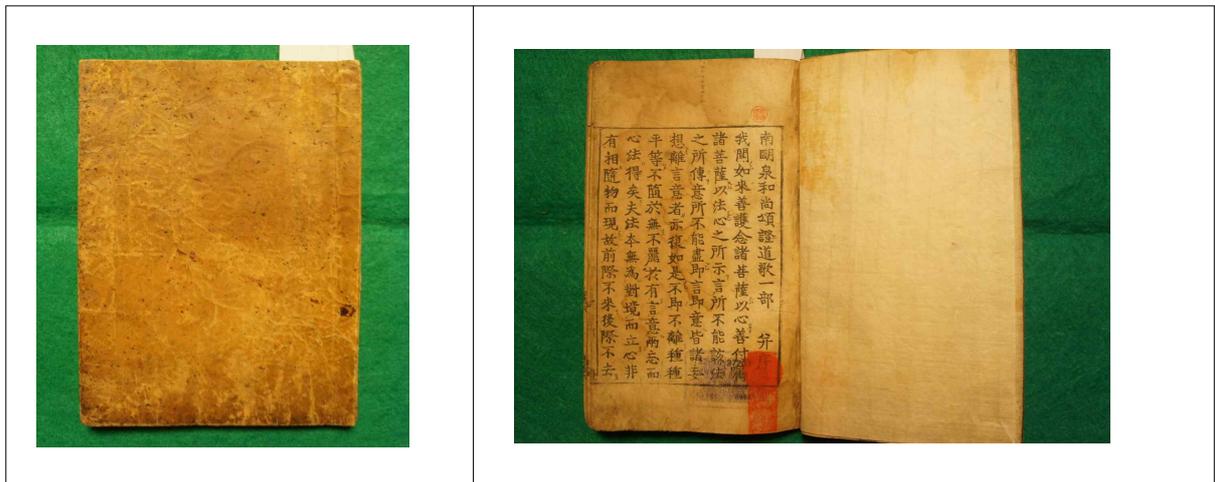
남권희, 『증도가 연구』(청주: 고인쇄박물관, 2011)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

○ 현 상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표지는 개장되었고, 철사는 끊어진 상태이다. 본문 가운데 여러 장이 완전하게 매여 있지 않아 훼손이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책의 상단에 누습의 흔적이 있고, 열화된 상태이나 인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唐)玄覺(665~713) 頌 ; (宋)法泉 繼頌. - 木版本(金屬活字本 翻刻). - [高麗 高宗 26(1239) 板刻, 1472년 印出].

不分卷1冊(44張) : 四周單邊, 半郭 18.2×13.0cm, 無界, 8行15字 ; 26.5×16.1cm. 楮紙. 線裝.

序文 :

南明泉和尚頌證道歌一部 并序

我聞如來善護念諸菩薩以心 善付囑諸菩薩以法 心之所示 言所不能該 法之所傳 意所不能盡 卽言卽意 皆諸妄想 離言意者 亦復如是 不卽不離 種種平等 不墮於無 不麗於有 言意兩忘 而心法得矣 夫法本無爲 對境而立 心非有相 隨物而現 故前際不來 後際不去 其於今也 如轉輪 如流水 不流不轉 而亦不住 不住則無在也 無在而無不在 是真常住者也 而昧者不知 乃以色見如來 以音聲求如來 豈不謬哉 永嘉禪師證道歌 其深於道矣 然道無所事於證也 而永嘉方且嘵嘵 而與世俗辯者 彼豈累於言意爲哉 惟如來不厭世間 而入涅槃 不去文字 而住解脫 不斷煩惱 而流出一切眞如菩提 永嘉蓋得諸此而已 南明禪師泉公 昔居千頃 復頌證道歌 成三百二十篇 嗚呼 發如來大智慧海 使人皆得望其涯涘 而泝其流 不絕諸念 不著諸相 不外諸因緣 普以吾覺悅可衆心 何其盛哉 觀其頌 而吾無能惜其狂言 故 爲之序云時 熙寧十年(1077)丁巳七月 括蒼 吳庸天用(約1046~1106) 序

後序 :

夫法不可見聞覺知 而見聞覺知亦不外於法 迷之則凡 了之則聖 故古之得道者 非卽非離 不縛不脫 應機顯用 言或不能免 而其自在 則雖終日言 而未嘗言 昔永嘉之見六祖 振錫而立 目擊而道存矣 少駐一宿 因爲之證道歌 道本無證 證之以歌 雖不免

於有言 而卒無所累者也 則後世由其歌而悟入者 不知其幾何也 又從而爲之注釋者 亦不知其幾何也 然眞得永嘉之趣者 蓋難其人矣 泉公禪師 穎出其類 千頃領徒之暇 於其歌句句之間 分爲之頌 大抵隨色而言空 卽定而言慧 不見一相 而充滿法界 不離一塵 而圓具佛性 其詞灑落 其旨宏遠 昭昭然 發永嘉之心於數百年曠絕之後 予竊幸叩師之緒餘 而因以開明 故覽師之頌 慕其清風 而不能自己 命之鏤板 用廣其傳 庶使導者通冥者明 而一超頓以悟 乃師之賜也 熙寧九(1076)年七月十日 括蒼祝況 後序

崔怡 誌

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 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1239)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崔怡(?~1249)謹誌

刻手:

得(1·2),東伯(3·4·27·28·44), 叔耽(5·6·29·37-39), 玠才(7·8·21·32), 唐甫(9·10·30·35), 公大(11·12·24·36),吳準(13·14·41·42),一明(15·16·22·23·31), 二世(17·18·33·34), 元暉(19·20·40·43), 思集(25·26)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당(唐)나라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이 6조 혜능(慧能)을 배견(拜見)하고 깨우친 오도(悟道)의 경지를 표현한 「증도가(證道歌)」의 각 구절 끝에, 송(宋)나라 남명 법천(南明法泉)이 7자 3구씩 총 320편을 계송(繼頌)하여 증도(證道)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책으로 선가(禪家)에서 매우 중시하는 서적이다.

영가 현각은 6조 혜능(慧能) 문하의 제자로서 청원행사(靑原行思, ?~740)·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하택신회(荷澤神會, 685~760)·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등과 함께 조계종을 널리 일으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출가한 처음에 영가 용흥사(永嘉 龍興寺)의 승려가 되어 천태(天台)의 지관법(止觀法)을 공부하였다. 저술로는 「영가집(永嘉集)」과 「증도가(證道歌)」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약 2,000자의 「증도가」는 선문문자(禪門文字)의 정화(精華)로서 ‘명심견성(明心見性)’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전한다.

한편, 남명 법천은 요거산(龍居山)의 지문원(智門院) 신기선사(信記禪師)에 출가하여 운거(雲居)의 효순(曉舜)선사를 법사로 하여 깨달음을 이룬 분이다. 대명(大明), 천경(千境), 영암(靈巖), 남명(南明) 및 금릉(金陵) 등 여러 곳을 옮겨 수도하였는데,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천경산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권말에 수록된 최이(崔怡)의 후지(後識)를 통하여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남명증도가(南明證道歌)는 선가(禪家)에서 매우 중요한 서적이다. 그러므로 후학(後學) 가운데 참선(參禪)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책을 통해서 입문(入門)하고 높은 경지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 책이 전래가 끊겨서 유통되지 않고 있으니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각공(刻工)을 모집하여 주자본(鑄字本)을 바탕으로 다시 판각하여 길이 전하게 한다. 때는 기해년(1239) 9월 상순이다. 중서령 진양공 최이는 삼가 적는다.(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 然則 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 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 晉陽公 崔怡謹誌)

곧 1239년(고종 26)을 전후한 시기에 주자본(鑄字本)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실전(失傳)되어 실물이 전래되지 않으니,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崔瑀, ?~1249)가 주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중조(重彫)하여 간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239년 보다 앞선 시기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활자로 인쇄한 바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한국의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이의 본래 이름은 최우(崔瑀)로 후에 이(怡)로 개명된 것이다. 최충헌(崔忠獻)의 뒤를 이어 집권하면서 민심수습과 함께 강화천도(江華遷都)를 단행하여 성을 쌓아 침략에 대비하였던 인물이다.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기지정된 판본과 같이 자열(字列)이 비뚤어지고, 글자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확인되며, 글자 크기가 일정치 않으면서도 그 글자모양이 바르고 해정하며, 윗글자와 아랫글자의 획이 서로 물리지 않고 있는 등의 상태 등을 통하여 초기 주자인쇄(鑄字印刷)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자(刻字)에 마멸(磨滅)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중조(重彫)한 훗날 뒤에 후쇄(後刷)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끝부분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인수대비(仁粹大妃) 발원문이 확인되었다.



이 발원문은 인수대비가 선왕(세조, 예종)과 죽은 남편(덕종) 그리고 부모(한확과 부인 흥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발원한 것을 1472(성화 8)년 6월에 김수온(金守濶;1409~1481)이 작성한 것이다. 모두 3장으로 1434(조선 세종 16)년에 주조하여 만든 갑인자(甲寅字)의 작은 자(小字)를 사용하였다. 7행으로 12자를 배열하였는데 6행은 쌍행으로 하고, 관심제가 있는 부분 1행은 단행으로 하였다. 관심은 상하대흑구에 상하내향흑어미이며, 관심제는 ‘증발(證跋)’이라 하여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발문임을 알 수 있다.

이 발문은 1472년에 김수온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1239년에 인쇄한 것이 아니라 1472년에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미 지정된 보물 제758-1호 및 보물 제758-2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인출되었으나, 각책의 인출 상태 등으로 보아 인출 시기와 환경은 서로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千惠鳳 著,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千惠鳳 著,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7.

○ 지정사례

- 보물 제758-1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김종규, 1984-05-30 지정)
- 보물 제758-2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공인박물관, 2012-06-29 지정)

6. 사기 권8~12 (史記 卷八~十二)

가. 검토사항

‘사기 권8~1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사기 권8~12’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사기 권8~12(史記 卷八~十二)
- 소 유 자 : 김병구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 수 량 : 1책(94장)
- 규 격 : 半郭 22.8×14.9(31.4×18.6) (cm)
- 재 질 : 저지(종이)
- 판 종 : 금속활자본(경자자본)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25년(세종 7)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경자자로 인출한 『사기(史記)』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보물 제905-2호로 지정된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鶴峰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에 포함된 분이 75권 14책이 있고, 같은 본으로 비지정본인 성암고서박물관본 15권7책(1책 중복),국립

중앙도서관본 1권 1책 등 22책이 있다.

김병구씨 소장본 사기는 같은 경자자 인출본이고 그중 권8은 지금까지 알려진 첫 사례이기는 하나 낙장과 결손이 있는 책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지정 신청사유로 적기된 효령대군의 자로 추정한 인기인 선숙(善叔)은 확대해서 보면 본래의 장서인이 날인되었던 지면을 절거하고 붙인 종이 위에 날인한 것이어서 세종조에 효령대군이 반사받았을 시기의 인장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함께 한 곳에 날인된 일신당인(日新堂印)도 화의군의 것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기 어려워서, 궁중의 사가장서라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경자자본 사기의 전본이 더 출현하고 그 중에서 이 책의 가치를 더 뚜렷하게 확정지어줄 수 있는 본이 출현할 때까지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동일한 판본의 다른 책이 제법 전하는데다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영본 1책이라는 점, 또 절거된 부분의 장서인을 오래지 않은 시기에 변조해놓은 점 등을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 (지정 가치 미흡)

『사기(史記)』 권8-12는 경자자본으로 간행 시기는 세종대로 추정된다. 현재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 제905-2호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鶴峰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 사기(史記)」가 있다.

다만, 조사본은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고, 책사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판심이 많이 분리된 상태이다. 또한 소장인이 권8, 권10에는 있으나 권9, 권11, 권12에는 없고, 소장인이 찍혀진 밑으로는 인위적으로 오려낸 흔적이 보이는 등 조금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경자자본으로 한국의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보물 지정 자료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표지와 내용 첫 면의 상단이 파손되어 권8의 첫면의 본문이 일부 손상되었다. 권수면의 상단에는 「日新堂」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있고, 같은 면의 하단의 우측과 권10의 권수면 하단의 우측에는 「善叔」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울러 권8의 제34장 후면과 권9의 제13장 후면, 그리고 권11의 제23장은 결락되어 남아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아 책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 내용 및 특징

史記. 卷8-12 / 司馬遷(漢) 撰.

金屬活字本(庚子字)[世宗 7(1425)] 5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2.8×14.9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上下細黑口, 上下 內向黑魚尾 ; 31.4×18.6 cm. 印記: 「日新堂」, 「善叔」

사기(史記)는 사마천(BC.145~86) 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기전체 사서(史書)로서, 위로는 황제시대에서부터 아래로는 저자의 활동시대인 한무제(漢武帝)까지의 역사를 다룬 사서이다. 구성은 12본기(本紀), 30세가(世家), 70열전(列傳), 10표(表), 8서(書)의 130권으로 되어 있다.

조사대상본인 김병구씨 장본은 조선 세종2년(1420)에서 4년(1422)에 걸쳐 주조한 경자자(庚子字)로 인출한 것이다. 이 활자는 자획이 가늘고 글자크기가 작아서 1판에 많은 양을 조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읽기에 불편하다하여 12년 뒤인 세종 16년(1434)에 갑인자를 새로 주조하면서 폐기되었다.

이 책의 출간시기와 관련한 기사가 세종실록에 보인다. 즉 세종 7년(1425) 1월 24일자에 『사기』를 인출하기 위한 종이를 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마련해서 보내도록 지시한 기사가 보이고, 이어서 같은 해 11월 8일자 기사에 주자(활자)로 인쇄한 사기(史記)를 문신(文臣)들에게 반사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들 기록에 의하여 이 경자자본 『사기』 1425(세종 7년)에 인출한 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책의 저본은 남조 송(宋)의 배인(裴駰)의 집해(集解)와 당(唐)나라 사마정(司馬貞)의 색은(索隱), 장수절(張守節) 정의(正義)를 합각한 『사기삼가주(史記三家注)』 본이다.

김씨의 소장본은 5권1책(권8-12)으로 <고조본기(高祖本紀)>(권8), <여후본기(呂

后本紀)>(권9), <효문본기(孝文本紀)>(권10), <효경본기(孝景本紀)>(권11), <효무본기(孝武本紀)>(권12) 이다.



김병구 소장본 경자자본 사기의 권8의 권수면

○ 문헌자료

『世宗實錄』

誠庵文庫典籍目錄,1975,성암고서박물관. 제76면.

이인영, 淸芬室書目,寶蓮閣,1968. 제320-321면.

李廷燮, 鶴峰 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韓國書誌學會,1990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

○ 현 상

표지와 권수제면의 좌측 윗부분 일부 탈락

○ 내용 및 특징

史記. 卷8-12 / 司馬遷(漢) 撰.

金屬活字本(庚子字)

[世宗 7(1425)]

5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2.8×14.9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黑口, 上下 內向黑魚尾 ; 31.4×18.6 cm.

印: 「日新堂」, 「善叔」

『사기』는 사마천(BC.145~86) 부자가 황제부터 한나라 무제까지의 역사를 찬술한 기전체의 중국역사서이다. 모두 12본기(本紀), 30세가(世家), 70열전(列傳), 10표(表), 8서(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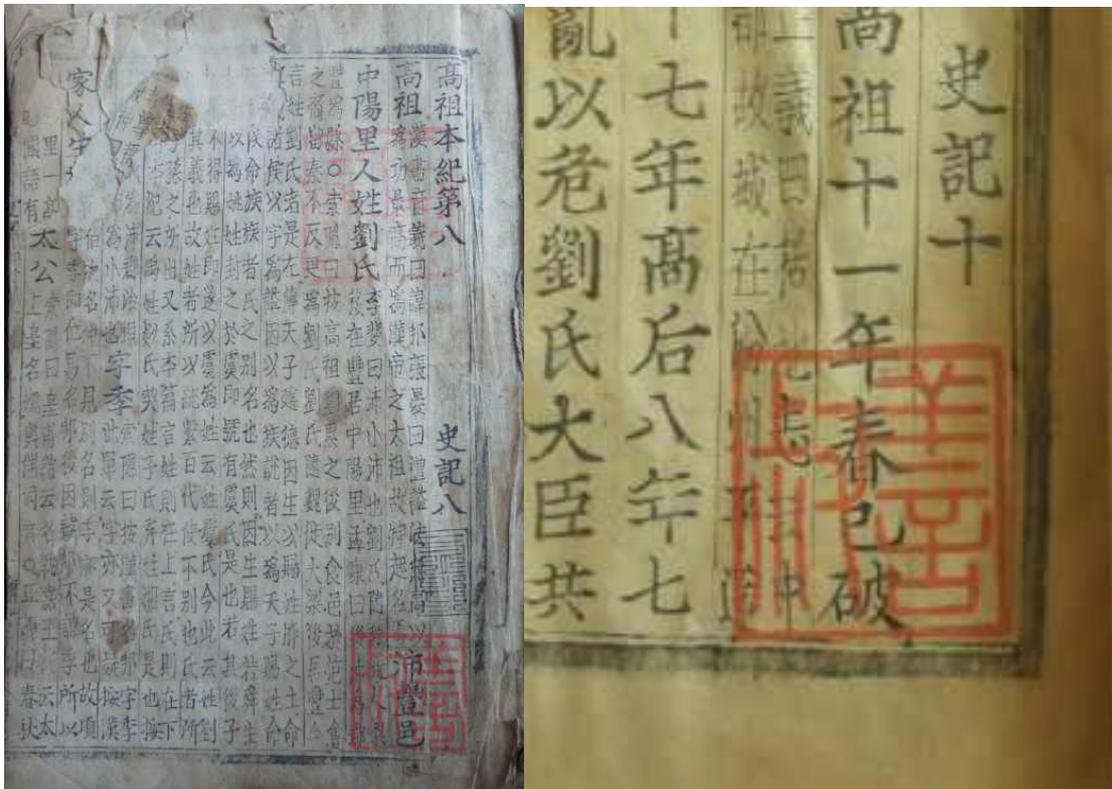
김병구 소장의 이 책은 조선 세종 때 주조한 경자자로 인출된 것이다. 경자자는 세종 2년(1420)에 겨울에 착수하여 1422년 겨울에 주조를 끝낸 조선의 두 번째 금속활자이다. 경자자 조판인쇄부터 활자의 동요가 생겨 능률이 오르지 않은 계미자 조판법을 개량함으로써 활자가 움직이지 않고 매우 해정하여 인쇄능률이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활자의 자체가 가늘고 뻑뻑하여 보기가 어려워지자 세종 16년(1434)에 주조된 갑인자가 이 활자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자자는 빠리는 세종 2년(1420)부터 늦게는 세종 16년(1434)까지 사용된 금속활자이므로 이 책의 간행 시기는 1420~34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기를 인출한 기록이 『세종실록』에 전한다. 곧 세종 7년(1425) 1월 24일에 “사마천의 『사기』를 인쇄하여 반포하고자 하니, 그 책을 인쇄할 종이를 올려 보내도록 하라.”고 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명령한 일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주자로 인쇄한 사마천의 『사기』를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병구 소장의 경진자본 『사기』는 세종 7년(1425) 11월에 주자로 간행된 판본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권8-12는 고조본기(권8), 여후본기(권9), 효문본기(권10), 효경본기(권11), 효무본기(권12) 등에 해당한다.

한편 전 5권 중에서 권8의 권수제면의 권수제 좌측으로 「日新堂」이라는 장서인이, 권8·10의 권수제면의 우측 아래에는 「善叔」이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인장에 대해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에는 “「日新堂」은 세종의 9남인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璿, 1425~1460)의 호로 추정되고, 아래의 「善叔」은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왕실 사가에 서 주장하던 서적”이라고 하였다. 정리한다면 세종이 처음 이 책을 동복동생인 효령대군에게 내려주었고, 이후 이복동생인 화의군의 소장이 되었다가 오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세종 9년(1427) 4월 10일에 “세종이 (첫째 형인) 양녕대군 이제(李裨)를 만나보고 『사기』를 내려주었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둘째 형인 효령대군에게도 내려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善叔」이라는 장서인은 원래 인쇄된 종이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다. 곧 그 전의 인장부분을 사각형으로 절거(切去)한 뒤 내면에 다른 한지로 보수한

다음에 전의 인장 크기와 유사한 크기의 「善叔」이라는 장서인을 찍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변조한 시기는 보수한 종이로 보아 오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장부분이 절거된 상태로 전하던 책을 근자에 보수한 뒤 새로 「善叔」이라는 장서인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근자에 절거, 보수, 날인을 함께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이 책은 효령대군으로 추정되는 「善叔」이라는 인장이 오래지 않은 시기에 날인된 것이므로 처음 효령대군의 소장본이라는 추정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호로 사용하는 「日新堂」을 화의군의 인장으로 추정하는 것도 연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왕실 사가 소장본으로 추정되는 특성”이 있다는 의견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판본이 발견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권8의 34장 후면, 권9의 13장 후면, 권11의 23장은 결락되어 있다.



권8 「日新堂」 「善叔」

권9 「善叔」

그렇다면 이 책의 분명한 가치는 조선에서 두 번째로 주조한 경자자로 인쇄한 책이라는 점이다. 현재 경자자본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장자권재구의(莊子膚齋口義)』,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 등 비교적 여러 종이 전래되고 있다. 그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청주고인

쇄박물관 소장의 보물 1655호인 『노자권재구의(老子虜齋口義)』(2010.06.28. 지정)가 있는데 전 2권1책으로 결장(缺張)이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권(全卷)이 온전하다. 지방문화재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1호인 『자치통감강목』 권16의 1책(2003.12.30. 지정)도 보존상태가 온전하다.

김병구 소장의 경진자본 『사기』는 경지자로 찍은 희귀본이란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판본의 다른 책이 제법 전하는데다 결락장이 있는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영본 1책이라는 점, 또 절거된 부분의 장서인을 오래지 않은 시기에 변조해놓은 점 등을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 문헌자료

『세종실록』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

○ 현 상

조사본 『사기』는 표지의 상단 부분이 일부 탈락되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접힘, 마멸 등 훼손으로 인하여 본문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도 확인된다. 소장인으로 일신당(日新堂), 선숙(善叔)이 확인되는데 권8, 권10에만 보이고 권9, 권11, 권12에는 없어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다. 또한 소장인이 찍혀진 밑으로는 인위적으로 오려낸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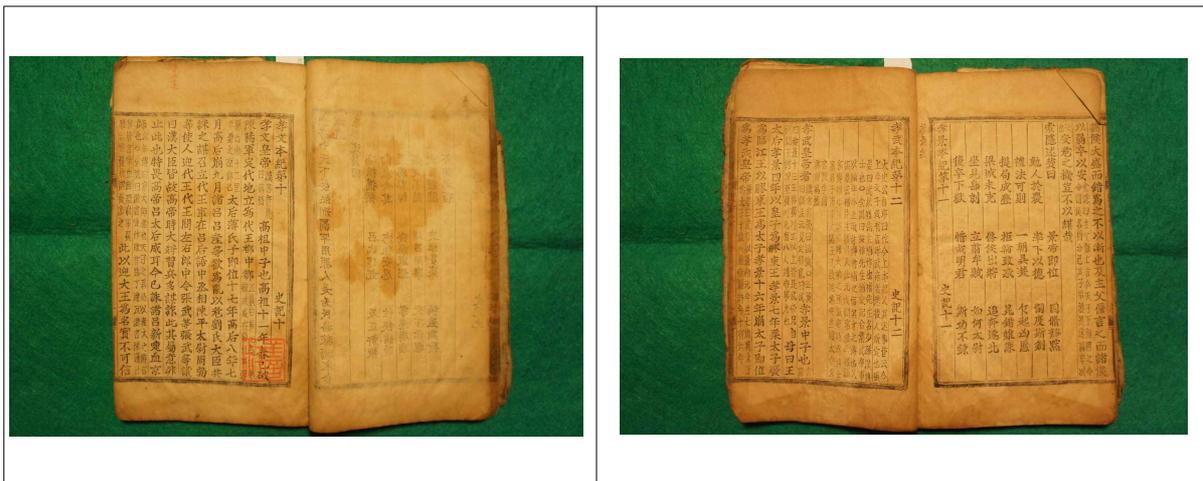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사기』는 중국 한나라 사관 사마천(司馬遷)이, 황제(黃帝)로부터 한무제

(漢武帝)까지의 역대 왕조의 사적을 기전체(紀傳體)로 적은 역사책으로 본기(本紀) 12편, 표(表) 10편, 서(書) 8편, 세가(世家) 30편, 열전(列傳) 70편 등 모두 130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던 책으로 1425년(세종 7)에 경자자(庚子字)로 간행하였고, 그 뒤 성종 · 중종 년간에 갑인자(甲寅字)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조사본은 권8~권12의 5권 1책으로 경자자판(庚子字版)이다. 경자자는 1420년(세종2)에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연(經筵)에 소장되었던 옛주석이 수록된 시(詩), 서(書), 좌씨전(左氏傳)을 글자본으로 하여 동으로 주조한 활자이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며 인출시에도 동요가 잦아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이천(李蕝)이 주관하고 남급(南汲)을 비롯한 김익정(金益精)과 정초(鄭招) 등이 감독하여 완성하였다.

조사본은 반엽 11행 21자의 구성을 갖고 있으며 주(註)는 쌍행이다. 판심은 상하대흑구에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사(史)’이다. 권8에 고조기(高祖紀) 권9에 여후기(呂后紀), 권10에 효본기(孝本紀), 권11에 효경기(孝景紀), 권12에 효무기(孝武紀) 등 이제(耳題)가 판의 좌측 상단에 있다. 권수면에 두 개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상단에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일신당(日新堂), 하단에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선숙(善叔)이 있다. ‘일신당’은 세종의 9남인 화의군(和義君) 이영(李嬰, 1425~1460)의 호(號)로, ‘선숙’은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1396~1486)의 자(字)로 추정하고 있으나, 하단에 찍혀진 ‘선숙’의 방형주인 아래로 본래의 종이가 인위적으로 오려진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원상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권수의 소장인이 권8, 권10에만 보이고 권9, 권11, 권12에는 없는 등 전체적으로 소장인이 고르게 찍혀 있지 않아 왕실 사가(私家)의 소장본인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본과 동일한 경자자판(庚子字版)은 학봉종가(鶴峯宗家) 소장본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일산문고(一山文庫)와 성암문고(誠庵文庫) 등에 미완질의 몇 권만이 남아 있다.

○ 지정사례

보물 제905-2호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鶴峰金誠一宗孫家所藏典籍) 사기(史記) 卷 2~3, 23~26, 27~29, 30~34, 35~39, 44~48, 80~86, 87~93 94~102, 103~108, 109~113, 114~119, 120~126, 127~130(14冊)

7.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가. 검토사항

‘선종영가집(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선종영가집(언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 소 유 자 : 김병구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 수 량 : 4책(상, 하)
- 규 격 : 半郭 20.7×15.3(30.8×21.0) (cm)
- 재 질 : 저지(고정지)
- 관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64년(세조 10)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병구소장 선종영가집(언해)는 세조 10년(1464) 경에 간경도감에서 인출한 초

인본으로 인정된다. 권수면에 「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4장의 결락이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한글 창제의 초창기에 인출된 관계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그리고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은 「校正」인이 찍힌 간경도감본 『선종영가집』 초인본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가장 선본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글 창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도움을 주는 국어학분야의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불교학과 서지학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는 유산이다. 응당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선종영가집』(언해본)은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한 책으로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된 것이다.

조사본은 권수 상단에 있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교정(校正)’을 통하여 1464년 당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교정을 거친 초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과 주해에 사용된 언해는 훈민정음 이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권하의 말미에 수록된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의 끝부분에 4장의 낙장이 있고, 표지가 최근에 개장된 점은 있으나 본문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상태로 보아 상하 2책으로 장책되었던 것을 근래에 분책하여 4책으로 장책한 것으로

로 생각된다. 제3책의 권수제면의 우측 난외에는 이암(頤菴)이라는 목서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禪宗永嘉集(諺解) / 玄覺(唐) 著; 行靖(宋) 註; 淨源(晉) 科門; 信眉(朝鮮) 等 諺解
木板本 [漢城]: [刊經都監], [世祖 10(1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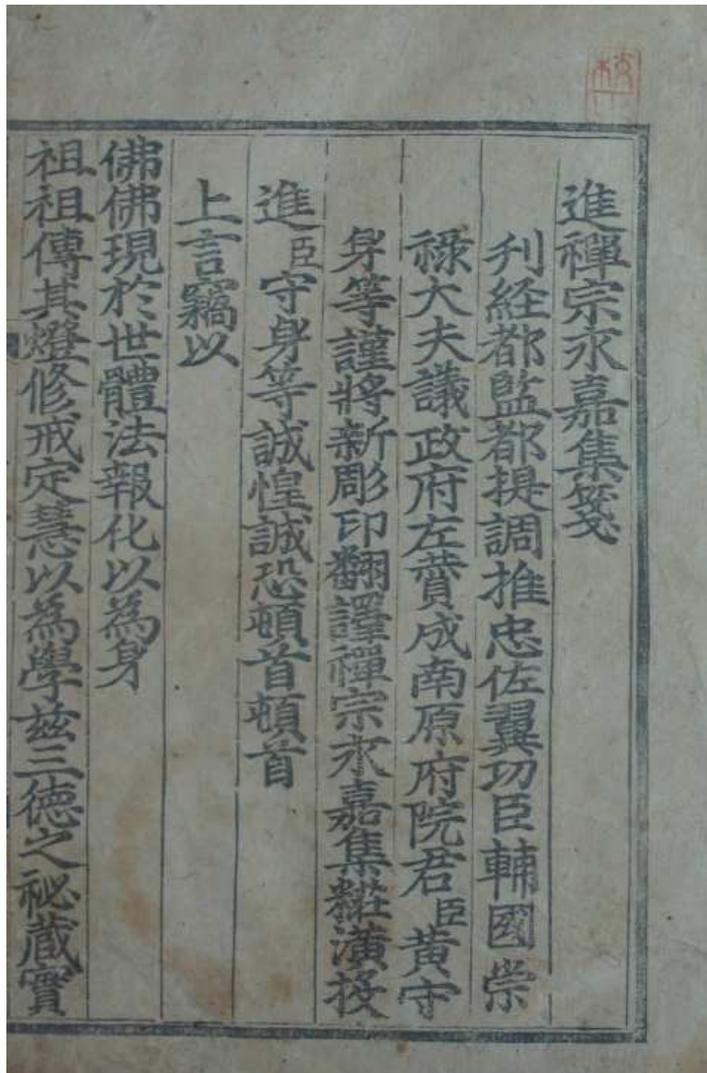
2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0.7×15.3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21.0cm. 版心題: 永嘉集. 進箋: 天順八(1464)年…黃守身. 序: 魏靜. 印: 「校正」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구성은 모도지의(慕道志儀), 계교사의(戒橋奢意), 정수삼업(淨修三業), 사마지송(奢摩池頌),毗婆舍那(毗婆舍那頌), 우필차송(優畢叉頌), 삼승점차(三乘漸次), 사리불이(事理不二), 권우인서(勸友人書), 발원문(發願文)의 열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난해자에 대한 석음(釋音)이 있다. 이어서 함허당찬송병서(涵虛堂讚頌并序),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 등이 붙어 있다.

이 책은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 : 647-713)의 원저에, 당나라 위정(魏靜)이 주를 달았고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단을 나눈 즉 과문(科門)을 한 것은 진(晉)의 정원(淨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우왕(禡王) 7년(1381)에 나옹 혜근의 제자인 환선(田禪)이 이방직(李邦直)에게 부탁하여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처음 간행하였는데 전본이 보물 제641호로 지정된 바 있다.

김병구소장 『선종영가집』은 세조가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1403-1480) 등이 언해한 것을 효령대군 등의 감수를 받아 간경도감에서 세조 10년(1464)에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상품의 고정지(藁精紙)로 인쇄한 데다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게다가 제1책과 제3책 제1행 상단에 「校正」印이 찍혀 있어서, 간경도감의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김병구 소장본 선종영가집 제1책 권수의 校正印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문화재로는 다음의 3종이 있다.

- ①보물 제774-1호, 동국대학교 소장본, 1984지정 : 권상- 세조 10년(1464)원간, 권하-연산군 1년(1495) 원각사후쇄본
- ②보물 제774-2호, 겹외사 소장, 2010지정 : 권하 78장이하 낙장
- ③보물 제1163호, 한글박물관 소장, 1993.지정 ; 연산군 1년(1495) 인출 권하 1책.

○ 문헌자료

장영길, (역주) 선종영가집언해. 상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2014.10.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 현 상

대체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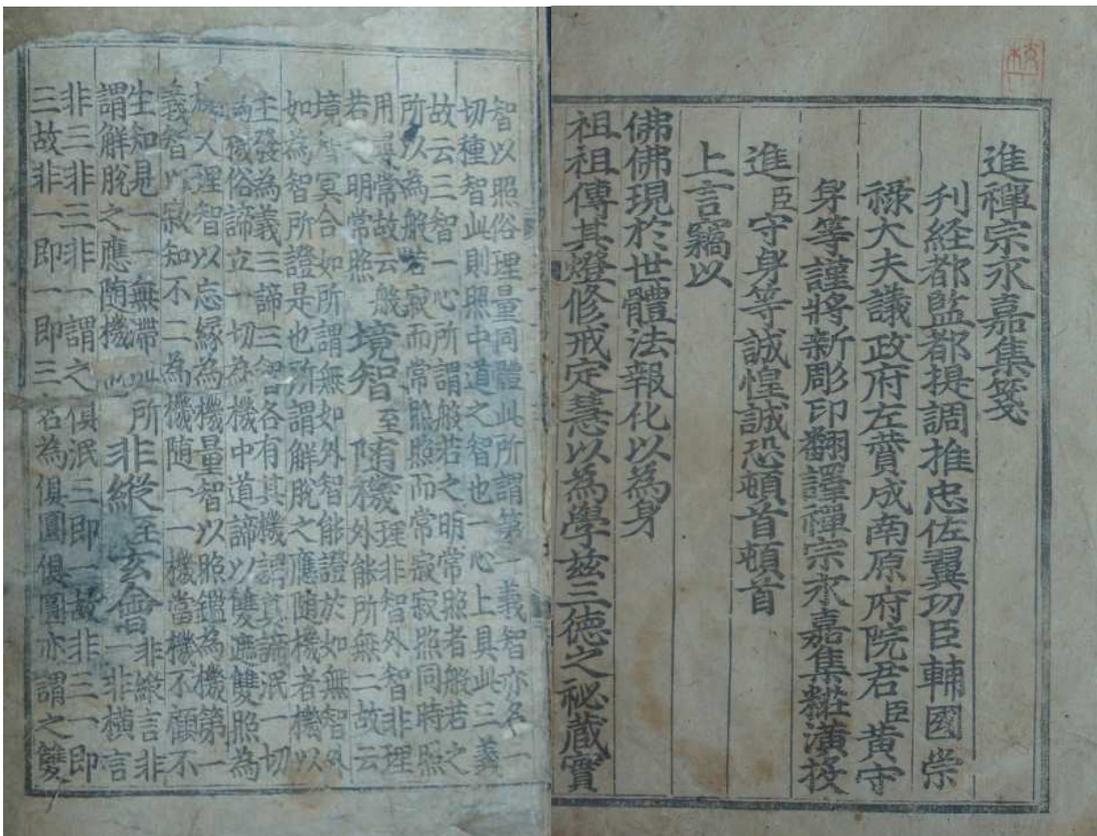
禪宗永嘉集(諺解) / 玄覺(唐) 著; 行靖(宋) 註; 淨源(晉) 科門; 信眉(朝鮮) 等 諺解
 木板本
 [漢城]: [刊經都監], [世祖 10(1464)]
 2卷4冊 : 四周雙邊 半郭 20.7×15.3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0.8×21.0cm.
 版心題: 永嘉集
 進箋: 天順八(1464)年…黃守身
 序: 魏靜
 印: 「校正」

『선종영가집』은 당나라 영가(永嘉) 현각선사(玄覺禪師, 647~713)가 수행인의 입지와 수선의 요결에 대해 설명한 10편을 당나라 위정(魏靜)이 편집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에 들 때 유의할 일과 수행의 방법을 10문(十門)으로 나누어 간명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후 송나라 때 행정(行靖)이 주석을 달고 정원(淨源, 1011~1088)이 항목별로 정리함으로써 선종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게 여기는 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우왕 7년(1381)에 이방직(李邦直)이 나옹 혜근의 제자인 환선(田禪)의 요청으로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처음 간행되었으며(보물 제 641호), 조선시대 사찰에서 번각된 사찰본도 여럿 전한다.

조사대상의 이 책은 세조가 구결, 곧 현토를 달고 신미(信眉, 1403~1480) 등이 국역한 것을 효령대군과 고승들이 감수하여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 『선종영가집』이다. 책머리에는 남원부원군 황수신(黃守身) 등이 올린 전문(箋文)과 봉교조조(奉敎雕造)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있다. 여기에는 황수신, 박원형, 조석문, 윤자운, 김수운, 원효연, 성임, 한계희, 강희맹, 노사신, 윤찬, 안관후, 김달전, 남륜, 권감, 이원효, 조지, 김영건, 최호, 김계창 등 20명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어 『선종영가집』이라는 권수제 아래에 위정이 지은 선종영가집서(모두 17장)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慕道志儀」, 「戒憍奢意」, 「淨修三業」, 「奢摩池頌」, 「毗婆舍那頌」(이상 권상), 「優畢叉頌」, 「三乘漸次」, 「事理不二」, 「勸友人書」, 「發願文」(이상 권하)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 뒤 끝으로 석음(釋音)이 있다. 이어 함허당찬송병서(涵虛堂讚頌并序),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 등이 붙어 있다. 본문은 한글로 토를 달았고, 국역부분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어놓았다. 굵고 가장 큰 자는 본문이고, 한 자 낮은 중간자는 행정의 주석이다. 정원의 과문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몇 글자에 불과하다.

김병구 소장의 이 책은 상품의 고정지(藁精紙)에 인쇄되었으며, 인쇄 및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간경도감의 초인본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1책과 제3책 제1행 상단에 「校正」印이 찍혀 있다. 상하권 각각 2책(모두 4책)으로 개장되었으나 손상된 부분을 보면 처음 상하 2책으로 장책되어 있었던 것을 근자에 4책으로 분책한 것으로 보인다. 권하 제1-2장의 상하부에는 손상이 있으며, 10여장까지 윗부분에 누습의 흔적이 있다. 또 개장할 때 상하를 절단함으로써 옛날 소장자가 적어놓은 목서가 약간 잘려나간 점이 아쉽다. 상하 2권은 제1책은 진선종영가집 전 3장, 봉교조조(명단) 2장, 권상의 제1-48장, 제2책은 권상의 제49-120장, 제3책은 권하의 제1-37장, 제4책은 권하의 제38-149장, 함허당찬송병서(제1-3장), 함허당설의(제4-8장; 제4-12장 중에서 제9-12장 등 4장 결락)으로 나누어 장책되어 있다. 이 중에서 득통 기화(得通 己和, 1376~1433)의 함허당설의 중에서 제9-12장 등 4장이 결락된 점이 아쉽다. 제3책의 권수제면 우측 란외에는 「頤菴」이라는 목서가 있는데 옛 소장자로 생각된다.



<권하의 마지막 장(이하 4장 결락)>

<제1책의 「校正」印>

현재 간경도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몇 종이 있다. 이 중에서 동국대학교 소장(1984.05.30.지정)의 보물 제774-1호는 권상은 세조 10년(1464)에 인쇄한 원간본이나 권하는 연산군 1년(1495)에 정현대비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인쇄한 후쇄본의 합질이다. 또 겹외사 소장(2010.12.21.지정)의 보물 제774-2호는 권하의 78장부터 결락되었고, 한글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163호(1993.06.15.지정)는 연산군 1년(1495)에 후인된 권하의 1책이다. 이외에도 호림박물관 소장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6호(2015.06.18.지정)는 상하권 2책이지만 결락된 판본이다. 이렇게 김병구 소장의 간경도감본 『선종영가집』 2권4책은 완전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전하는 동일 판본 중에서 최고의 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이 책은 권하의 말미에 있는 함허당설의의 제9-12장 등 4장이 결락되긴 하였으나 상하권을 거의 모두 갖춘 간경도감본으로 보존상태도 거의 완전하다. 이렇게 조사대상본은 「校正」印이 찍힌 간경도감본 『선종영가집』이며,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는 가장 선본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글 창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도움을 주는 국어학분야의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불교학과 서지학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는 유산이다. 응당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2014.10.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대구광역시, 2013.4.

남권희, 대상자료 조사의견서, 2012.

이미령, “선종영가집언해 연구 : 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8.

□

○ 현 상

조사본 『선종영가집』 (언해본)은 개장되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누습의 흔적이 있다. 접힘, 마멸, 찢김 등 훼손으로 인하여 본문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인출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四周雙邊, 半郭 20.7×15.3cm, 有界, 半葉 8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板心題; 永嘉集

刊記 : 天順八年(1464)正月初五日部提調推忠佐翼功臣輔國崇祿大夫議 政府左贊成南原府院君臣黃守身等謹上箋



『선종영가집』(언해본)은 중국 당의 영가 현각(永嘉玄覺) 선사가 수선(修禪)의 요결(要訣)을 찬술한 것으로, 중국 송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하고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과(科)를 단 것을,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한 것이다. 그 내용은 모도지의(慕道志義) · 계교사의(戒奢意) · 정수삼업(淨脩三業) · 사마타송(奢摩他頌) · 비바사나(毗婆舍那) · 우필차송(優畢叉頌) · 삼승점차(三乘漸次) · 이사불이(理事不二) · 권우인서(勸友人書) · 발원문(發願文) 등 모두 10개의 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간본은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상, 하 2책으로 간행된 것이다.

조사본 『선종영가집』(언해본)은 모두 4책으로 권상(卷上) 2책, 권하(卷下)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1에는 집전(集箋) 장(張)1~3, 봉교(奉敎) 조조문(彫造文) 장(張)1~2, 서(序) 장(張)1~17, 본문(本文) 장(張)1~48 까지 수록되었고, 권상-2에는 본문(本文) 장(張)49~120 까지 들어 있다. 권하-1에는 본문(本文) 장(張)1~77, 권하-2에는 본문(本文) 장(張)78~148, 석음(釋陰) 장(張)149, 함허당(涵虛堂)의 찬송병서(讚頌并序) 장(張)1~10, 함허당설의(涵虛堂說義)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 일부는 훼손되었다.



조사본은 본문을 굵은 대자(大字)로 새겨 넣었고, 송의 행정(行靖)이 주해(註解)한 내용은 본문보다 한 글자를 아래로 내려 중자(中字)로 하였다. 본문과 언해는 1행 19자, 주해와 언해는 1행 18자로 되어 있다. 변란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은 20.7×15.3cm이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상하에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판심제(板心題)는 영가집(永嘉集)이다.

한편, 권상-1과 권하-1의 권수 상단에는 방형주인(方形朱印)의 ‘교정(校正)’이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조사본이 1464년 당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교정을 거친 언해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권하-1의 권수 하단 변란 밖으로 원소장자로 추정되는 ‘이암(頤菴)’이라는 목서명과 수결이 있는데, 이는 상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상권과 하권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었던 정황을 보여 준다.

○ 문헌자료

보물 제774호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권상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84.05.30 지정)

8.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

가. 검토사항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유물’에 대한 지정조사('16.1.2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출토 유물 일괄(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338(단장면 구천리 23)
- 수 량 : 불·보살상 20점과 개수탑기비 1점 외 기타유물
- 규 격 : 불입상 높이 16.2cm, 불입상 높이 16.8cm 외
- 재 질 : 금동, 석조, 쇠, 수정
- 형 식 : 불상, 탑, 석비 등
- 조성연대 : 통일신라~조선시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표충사 삼층석탑출토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20구의 금동불상과 탑에 봉안된 여러 공양물들 및 석탑의 보수를 알려주는 조선초기의 <개수기비>(1491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유물들은 표충사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미술사 및 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적심부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은 불상과 청동탑, 석탑중수기비, 상평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을 이루는 불상은 더러 머리와 대좌 등이 파손되어 완전하지 못하지만, 전세품이 아닌 출토지가 분명한 곳에서 한꺼번에 시기를 달리하는 불상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들 불상이 어떠한 연유로 석탑의 적심부에 봉납되었는지 지금으로선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불상의 상태가 완전한 것에서 주물상태가 불량하거나 일부 파손된 것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주자들이 소중히 보관해 오던 불상을 석탑 중수를 계기로 자신들이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납한 것으로 여겨진다. 석탑 내에 사리장엄구 이외 불상을 봉납하는 사례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양식, 그리고 다양한 시대 층위를 가진 불상이 다량으로 봉납된 사례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드문 사례이다. 또한 이는 통일신라 9세기 대에 건립된 석탑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실증적 자료이기도 하다.

표충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및 청동탑편, 석탑중수기비, 상평통보 등은 금동불상 연구와 석탑의 공양의식, 중수사례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되므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표충사 석탑 안의 7세기 후반부터 고려시대까지 금동불이 함께 봉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카 다리, 대좌가 결실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인 것으로 보아 탑에 봉안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작기법상으로 보면 통주조의 원각상은 주로 10cm 이하의 소형상이 많고, 10cm 이상의 것은 뒤가 편불인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광배꽃이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뒷면 어깨에 축을 내어 광배를 세운 방법인데 대체로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를 추정되는 불상에서 편불이나 구조상태나 목덜미가 얇은 경우에 이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상적으로는 머리에 보관턱이 마련된 여래상인데 보관을 쓴 여래는 일반적으로 비로자나불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상은 통

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불상과 같이 발견된 표충사 삼층석탑 개수비는 수리와 관련된 15세기의 기록으로 표충사 원래의 사명이나 조선전기의 탑 중수와 관련된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려준다.

이 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충사 삼층석탑출토 유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조각의 편년과 도상, 제작기법 등을 비롯해 통시대를 거쳐 다양한 유물들이 총망라된 유일한 사례이며,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연구의 과제로 삼는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조사보고서

□

○ 현 상

1995년 실시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보물 제 467호)의 해체보수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은 1층 탑신의 사리공(舍利孔)에서 백자사리함, 유리구슬, 청동편 등과 기단 적심부(積心部)에서 불상 19점, <개수기비(改修記碑)>, 청동탑편, 상평통보, 청동편, 철편 등이다. 이 가운데 석탑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수기비>에는 홍치4년(1491)에 탑을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기단부에서는 조선후기에 사용된 상평통보가 출토되어 석탑이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보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탑신부에서 발견된 백자사리함과 그 안에 납입되어 있던 유리구슬과 청동편 등은 탑을 보수하면서 공양물로 탑 안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사찰에 전해오던 금동불상들이 기단부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내용 및 특징

금동불 20구는 모두 소형상으로 불상이 17구, 보살상이 3구인데, 광배와 대좌를 갖춘 완전한 상은 없으며, 현존 크기가 최대 16.8cm이고 최소 4.2cm이다. 금동불은 통일신라 9세기부터 고려후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주조된 상들로서 주조기법과 조형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해 볼 때 대략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좌와 옷주름의 형태와 전체적인 비례 등의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될 수 있는 상들이 다섯 구(목록 No. 4, 5, 6, 15, 18)이고, 다음으로 뒷면이 거의 없는 이른바 ‘편불(片佛)’ 형태인 상들(목록 No. 1, 2, 3, 7, 8,

9, 14)과 통주식으로 주조된 불·보살입상(목록 No. 10, 11, 13, 17, 19)들, 주조공(鑄造孔)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뚫려있는 불입상(목록 No. 12)의 13구는 고려초에서 전기로 편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주조기법이 떨어지고 조형적인 면에서도 쇠퇴한 단계를 보여주는 두 구(목록 No. 16, 20)의 제작시기는 고려후기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불입상들은 전체적으로 상호가 뚜렷하고 옷주름의 표현이나 양감이 좋은 편이며 뒷면 아랫쪽에 광배축이 돌출되어 있어(No. 4, 5, 6, 15) 원래는 몸 전체를 감싸는 주형거신광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고려시대 불입상들(No. 1, 2, 3, 7, 8)은 대부분 대의 옷주름이 선각되어 있고 상호가 분명하지 않으며 대좌형태도 단순한데 뒷면의 목부분에 광배축이 돌출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제작당시의 주조결함으로 몸체가 기울고 대좌가 틀어지거나(No. 9) 옷자락의 일부가 떨어지고 수인이 훼손된 경우(No. 14)도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입상 가운데 한 구(No. 5)는 머리의 높은 육계 아래에 보관을 씌웠던 것으로 보이는 턱이 있고 흠이 파여 있어 주목된다. 고려시대의 보살입상(No. 17)은 16cm로 비교적 큰 편이고 중량도 358g으로 출토된 20구 가운데 가장 무겁다. 오른팔을 잃었는데 왼손이 너무 커서 비례면에서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관에서 무릎 아래로 길게 늘어진 영락, 가슴의 조백(條帛) 등은 고려시대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출토 이후에 판불로 이름 지워진 불좌상은 타출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주조된 상이므로 ‘판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 목록에는 육안으로도 금(鍍金)이 확인되는 불상은 금동여래입상으로, 금이 보이지 않으면 청동여래입상으로 명칭을 주었는데, 여래[佛]는 금인(金人)이라는 경전상의 내용에 따라 동(銅)으로 주조하여 도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래는 모두 금을 입힌 금동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동여래입상’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불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첩편(鐵片)으로 분류된 유물 가운데 길이 4.84cm의 파편(No. 25)은 첩불의 손가락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크기로 보아서 등신대(等身大) 높이의 첩불상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청동향로의 다리(No. 24), 청동탑의 일부(No. 21)와 그 기단에 장식되었던 불보살상편들(No. 26), 크기 5.4cm의 나신(裸身)의 청동인물상은 고려시대 유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금속제 유물과 함께 출토된 높이 71cm, 최대폭 61cm의 <개수기비>(1491년)에 음각된 발원문에는 재악산(載岳山) 영정사(靈井寺)에서 흥치 4년 신해 2월에 기연(既然) 비구를 비롯한 스님들과 대중들이 시주하여 탑을 보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석탑의 보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

○ 내용 및 특징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도 1]은 신라시대 전형양식을 따르는 석탑으로 9세기경에 건립된 석탑으로 보물 제4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탑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은 1677년(숙조 3)에 작성된 『영정사고적기(靈井寺古蹟記)』에는 흥덕왕(興德王) 4년(829) 그의 셋째 왕자가 앓고 있던 악성 피부병을 죽림사(竹林寺)⁶⁾에서 약수를 마시고 치유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절을 중창하고 삼층석탑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단층기단에 간결한 형태미를 보이는 석탑의 양식적인 연대와 『영정사고적기』에 기록된 건탑(建塔)의 연대가 잘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도 9세기 무렵에 조성된 석탑으로 볼 수 있다.



도 1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9세기



도 2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통일신라~고려



도 3 석탑개수기비, 68×59×10cm, 1491년

1995년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이루어진 삼층석탑에 대한 해체 보수작업에서 1층 탑신과 기단 적심부(積心部)에서 다량의 공양품이 발견되었다. 1층 탑신 사리공에서 출토된 것은 백자사리함, 유리구슬, 청동편 등이고, 기단 적심부(積心部)에서 출토된 것은 불상 19점[도 2], ‘석탑개수기비(石塔改修記碑, 도 3)’, ‘청동탑편’, ‘상평통보(常平通寶)’, 청동편, 철편 등이다. 금동불상은 통일신라, 나말여초, 고려시대 등 3개의 시대 층위를 보이며, 청동탑편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개수기비’는 홍치 4년(1491) 2월에 既然 비구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이 참여하여 탑을 보수한 금석문 자료이다. 작은 규모의 금동불상은 1491년에 석탑이 보수되던 해에 한꺼번에 납입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중수 때 납입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대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석탑을 건립한 이후 몇 차례의 보수가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석탑의 기단 적심부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여래입상, 여래좌상, 보살입상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조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와 나말여초, 고려전기 등 세 시기로 편

6) 표충사는 원래 이름은 竹林寺로, 829(흥덕왕 4)에 중창하여 영정사로 고쳐 불렀던 것을, 1839년(헌종 5)에 밀양시 무안면에 있던 表忠祠를 영정사로 옮기면서 절 이름을 表忠寺라고 하였다.

년된다. 여래입상은 모두 통견착의법으로, 다시 허리 아래쪽에서 U자형이 두 갈래로 흘러내린 우전왕식 통견착의법(I형식)[도 4, 도 5]과 U자형의 주름이 한 갈래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린 아육왕식 통견착의법(II형식)[도 6, 도 7]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전왕식 통견착의법과 아육왕식 통견착의법 중에서 다시 내의의 표현 여부에 따라 I-1형식(내의가 표현 되지 않은 것)과 I-2형식(내의가 표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도 4 우전왕식 통견착의법 I-1형식, 여래입상, no1 도 5 우전왕식 통견착의법 I-2형식, no7 도 6 아육왕식 통견착의법 II-1형식, no14 도 7 아육왕식 통견착의법 II-2형식, no10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불상(연번 1~5)은 큼직한 복발형의 육계와 양감있는 얼굴, 뚜렷하고 입체적인 주름선, 유연한 신체곡선과 풍만한 부피감을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나말여초로 편년되는 불상(연번6~16)은 높은 육계에 가름한 얼굴, 신체의 유연한 굴곡은 잘 드러내었으나 옷 주름은 마치 신체의 일부인양 깊이를 얇게 선각하여 긴장감 넘치는 탄력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보살입상은 2점으로, 두 점 모두 대좌와 불상이 하나로 구조되었다. 한 점[도 8]은 허리는 잘록하고 불신은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이며, 천의는 양어깨를 걸쳐 팔뚝으로 흘러 내렸다. 다른 한 점[도 9]은 머리는 결손 되었고, 三屈의 유연한 자세와 균형 잡힌 신체 곡선을 통해 감각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연번 18·19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금동여래좌상[도 10]은 거칠게 타오르는 화염광배를 배경으로 톱니모양으로 표현된 仰蓮의 연꽃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는데, 육계가 불분명한 팽이모양의 머리, 눈·코·입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이국적인 상호(相好), 투박하게 묘사한 옷주름 등은 강화 관청리 출토 금동여래좌상과 한 공방에서 제작하였다고 할 만큼 양식적으로 유사하고, 나아가 단호사·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등 충주 지역의 신비주의 경향의 철불 등과도 시대양식을 공유한다. 늘씬한 신체비례를 보이고 있는 금동보살입상[도 11]은 삼보문이 새겨진 삼화형 보관, 풍만한 턱살이 강조된 얼굴, 보관에서부터 무릎까지 U자형으로 길게 드리운 띠모양의 영락장식, 가슴 앞에서 T자형으로 교차한 천의자락과 나비매듭으로 묶어 내린 垂飾 등은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좌상의 협시보살상, 동국대학교 금동보살입상 등 11-12세기 보살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제작기법은 통주식과 중공식 등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확인되며 중공식은 마치 관불처럼 머리와 등 뒤를 크게 노출시켜 동(銅)을 최대한 아꼈다. 대부분의 불상 뒷면에는 광배를 꽃았던 축이 남아 있다. 대좌와 불신을 한 몸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별도로 제작하여 축으로 연결한 것도 있다. 광배를 남기고 있는 작품은 나말여초의 동조여래입상 1점[도 12]과 고려시대의 여래좌상[도 10]등 2점이며, 나머지는 모두 광배를 소실하였다. 청동탑[도 13]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형태는 목탑의 뼈대를 연상시키듯 그 골격만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청동탑의 기단과 탑신에 부착되었던 여래상과 신장상은 분리된 채 남아 있다.



도 8 금동보살입상, 통일신라, No5



도 9 금동보살입상, 통일신라, No17



도 10 금동여래좌상, no19



도 11 금동보살입상, no18



도 12 동조여래입상, no16



도 13 청동탑편 및 상평통보

청동탑과 불상이 석탑의 공양품으로 납입된 사례는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보물 제429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표충사 삼층석탑이 우수하고 다량이어서 그 수준을 달리한다.

□

○ 현상 및 특징

표충사 삼층석탑은 보물 제467호로 표충사 경내 조사당과 팔상전 앞에 위치하며, 이중기단 위에 옥신을 올린 통일신라시대의 탑이다. 문화재관리국은 1995년

5월17일에서 8월24일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에 걸쳐 석탑해체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1층 탑신부 정방형 사리공내에서 조선백자, 유리구슬, 청동편 등이 발견되었고, 기단내 적심부에서 불상, 석탑개수비, 청동소탑편, 상평통보 등 28건 49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기단의 적심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역사성을 가진 것들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료1. 탑내출토 유물 목록 참조)

1. 금동여래입상(연번1)

전체적으로 신체의 균형이 잘 맞으며 시무외·여원인을 취했지만 오른쪽 손가락은 모두 구부린 모습이다.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옷주름은 Y자형식인데 구조 후 선각한 것으로 보인다. 상의 뒷부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게 구조 구멍이 뚫려있으며 내면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광배꽃이는 바깥의 무릎 높이 정도에서 높게 돌출되어 있으며, 원발 아래에도 축이 있다. 이 상의 특이점은 머리 위에 보관 턱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래 보관불은 비로자나불에 해당하는 도상적 특징으로 지권인을 하지 않은 비로자나불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금동여래입상(연번2)

앞의 금동불상(연번1)과 대동소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손과 머리는 결실되었다. 판불형식으로 뒷면 무릎의 위치에 광배꽃이가 있으며, 조주 마무리 상태가 좋지 않다.

3. 금동여래입상(연번3)

다리 아래와 왼손은 결실되었다. 단정한 얼굴에 시무외·여원인을 취했으며,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다리선을 따라 옷주름이 Y자 형식을 이룬다. 신체 뒷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편불이며, 하단에 1개의 광배꽃이와 2개의 형지(形持)가 남아 있다.

4. 금동여래입상(연번4)

도금이 잘 남아 있고 상태도 좋은 편이다. 이중의 연화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끈게 정면으로 서 있다. 엄숙한 얼굴 표정에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었으며, 옷주름은 Y자 형식으로 다른 상에 비해 좀 더 입체적이다. 뒷면에 구조공 없는 통주식으로 불상과 대좌를 따로 별조한 결합식으로 보이며, 대좌 안쪽에 축이 나와 있다. 하단에 광배꽃이가 나와 있다.

5. 금동보살입상(연번5)

머리와 얼굴, 오른쪽 대좌, 천의의 양측 끝자락이 훼손되어 있다. 대좌와 상이 하나로 구조되어 되었으며, 거의 원각상에 가깝다. 왼손에는 연봉을 들고 오른손은 천의자락을 쥐고 있으며, 얼굴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직립의 자세이다. 어깨에 두른 천의는 양 팔을 따라 내려오고, 목에는 중앙 드리개와 연결되는 영락이 2단으로 장식되어 있다. 뒷면 중앙에 1개의 광배꽃이가 있다. 자세나 장신구 등 삼국시대의 전통이 남아 있는 통일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6. 동조여래입상(연번 6)

시무외·여원인을 반대로 하고 있으며, 머리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얼굴은 침울해 보이며, 정면의 신체는 비만해 보이지만 입체감이 없고 평면적이다. 오른쪽에 내의를 입고 그 위에 대의로 양 어깨를 감싸 입었으며 옷주름은 Y자형을 이룬다. 벌어진 가슴으로 사선의 승각기와 수평의 허리띠가 노출되어 있다. 뒤는 거의 열려 있는 편불형식으로 우측에는 잡물이 붙어 있어 면이 고르지 못하다, 목덜미 쪽으로 광배꽃이와 두발 아래 대좌꽃이가 남아 있다.

7. 동조여래입상(연번 7)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정면관의 자세를 하고 있으며, 앞의 동조상(연번6)과 옷, 신체표현 등이 거의 동일하다. 뒷면은 팔과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편불이며, 목덜미에 광배꽃이와 양 발 아래 대좌꽃이가 남아 있다.

8. 금동여래입상(연번 8)

머리가 결실되었으며 오른쪽 대좌부 쪽으로 파손도 있다. 무릎 부위에 도금이 남아 있다. 두 손은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이 심하게 구부러져 손 갖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내의 위에 대의로 양 어깨를 감싸 입었으며, Y자형의 옷주름을 이룬다. 가슴에는 사선으로 내려오는 승각기가 드러나 있다. 정면은 비만한 모습으로 신체나 옷주름은 양감이 없고 매우 평면적이며, 간략하다. 이 상은 연번 6과 7의 불상과 대동소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의 특이점은 양측 팔꿈치 정도의 높이에 축이 나와 있는데 광배꽃이의 용도로 사용된 듯 하며, 연번 12의 불상에 경우 같은 모양의 축이 어깨 정도의 위치에 보이며, 별도의 광배꽃이를 만들지 않았다. 머리의 결실로 목덜미의 광배꽃이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원래 광배꽃이를 제작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발아래에는 대좌꽃이가 남아 있다.

9. 동조여래입상(연번9)

목과 가슴 쪽에 파손이 있으며, 양 손가락, 발목이하 부분이 결실되었다. 소발에

머리와 육계구분이 분명하며, 가름한 얼굴에 표현은 침잠하다.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옷주름은 가슴으로부터 다리까지 U자형의 옷주름이 이어진다. 옷주름은 선각으로 형식적이고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허리에서 한 번 절단된 듯 굴곡져 있는데 10세기 초로 추정되는 안압지 출토 금동비로자나불입상과 유사한 특징이다.

10. 금동여래입상(연번10)

머리에 비해 신체가 짧고, 배를 앞으로 살짝 내민 자세로 연화좌 위에 서 있다. 손끝이 부러져 손 갖춤은 정확하지 않다. 근엄한 표정에 통견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U자형 옷주름이 연속적으로 아래까지 이어지고, 대의 안으로 사선의 승각기는 여러 개의 옷주름선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와 상이 하나로 구조되었으며, 목덜미 쪽으로 1개의 광배 축이 있고, 뒷면이 거의 드러나 있는 편불이다.

11. 동조여래입상(연번11)

얼굴, 수인, 법의 특징이 연번 9번의 불상과 대동소이하다. 상과 대좌가 하나로 구조되었으며, 뒷면의 왼쪽 어깨에 땀질 자국이 있다. 광배꽃이는 없다.

12. 동조여래입상(연번12)

6엽의 연화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정면관의 자세를 취했다.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옷주름은 Y자형식이다. 고개가 우측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며, 대좌도 좌측면이 일그러져 있다. 뒷면은 머리와 신체가 관통하는 편불형식이며 광배꽃이는 없다. 특이점은 연번 8의 불상과 같이 뒷면의 우측 어깨쪽에 광배를 끼우기 위한 축이 나와 있다.

13. 금동여래입상(연번13)

약 8cm의 소형으로 대좌와 하나로 구조된 원각상이다.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원형의 큼직한 대좌 위에 서 있으며,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U자형의 옷주름이 무릎까지 연속되어 있다.

14. 동조여래입상(연번14)

상과 대좌가 하나로 구조된 약 6cm 크기의 소형상이다. 높은 대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취해 서 있으며,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얼굴 표현은 알아보기 어렵다. 통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U자형의 옷주름이 큼직하게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뒷면에 장방형으로 머리와 신체에 얇은 홈이 있으며, 광배꽃이는 없다.

15. 금동여래입상(연번15)

높은 대좌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해 서 있는 10cm이하의 소형상이다.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우며, 대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옷주름은 U자형식이다. 표면에 기포 흔 같은 작은 구멍들이 있으며, 뒷면은 편불형식으로 가운데에 큼직한 광배꽃이가 있다.

16. 동조여래입상(연번16)

6cm의 소형상으로 상, 광배, 대좌가 하나로 구조되었다. 얼굴 표현은 알아보기 어려우며, 대의는 통격식으로 입고 옷주름은 U자형식이다. 광배 가장자리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다.

17. 금동보살입상(연번17)

머리가 결실되었으며, 가슴과 다리, 대좌에 도금이 남아 있다. 안상이 뚫린 6각 기단 위에 이중 연화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시무외·여원인을 하여 한쪽 다리에 힘을 뺀 삼굴 자세를 하고 있다. 몸은 가늘고 길어 보이며, 양 어깨에 두른 천의 자락은 팔 아래에서 결실되었다. 군의는 몇 개의 선각으로 옷주름이 표현되어 형식적이고 도식적이다. 뒷면은 얇게 흠이 져 있으며, 상단에 광배꽃이가 마련되어 있다.

18. 금동보살입상(연번18)

이 상은 통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오른팔과 양 발이 결실된 상태이다. 머리에 비해 몸이 길고 뚱뚱하며, 팔은 굵고 긴 편이다. 다리의 모양이 삼굴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자세가 어색하다. 정수리의 높은 보발은 아래를 묶어 상단을 네 가닥으로 펼쳐 놓은 모양이며, 보관은 띠 형태이다. 얼굴 턱 아래가 부분 듯 볼록하며, 작은 눈에 친근한 인상이다.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고, 목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띠가 길게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같은 형태는 고려 초로 추정하는 개성 관음굴 불상에서도 같은 장신구를 볼 수 있다. 가슴에 조백의 띠 자락이 가슴 앞으로 흘러내리고, 양 어깨에 두른 천의는 왼팔을 감아 돌아 내려오는 모양인데 왼팔의 자락이 훼손되었다. 군의는 길게 신체에 밀착되게 입었으며, 허리로부터 내려오는 띠 매듭은 나비모양으로 한 번 묶어 자락이 길게 내려와 있다. 뒤편에는 광배꽃이가 없는 원각상이며, 천의와 군의도 표현되어 있다. 얼굴, 옷자락, 장신구 등의 특징으로 보아 고려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거나 제작국에 대한 것은 의문이 된다.

19. 금동여래입상(연번19)

상, 대좌, 광배가 하나로 조각되었다. 투조된 화염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좌에 결가부좌하여 오른 손은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아미타인의 손 모양을 갖추고 있다.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없으며, 얼굴은 토속화된 모습이다. 대의는 통견식으

로 입어 옷자락을 왼쪽 팔로 넘겼으며, 벌어진 가슴 앞의 대의는 V자형으로 벌어져 있다. 뒷면은 평면으로 구조된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 기타(연번20-26, 28)

동조의 판불(연번20), 청동탑 일괄품(연번21,22), 청동향로다리(연번23), 철제 손가락(연번24), 청동편(연번25,26), 상평통보(연번27), 유리구슬이 있다. 고려 청동탑은 옥개의 구성, 높이 등으로 보아 7층탑으로 추정되며, 작은 인물상(연번22)은 원래 탑의 구성의 일부로 추정된다.

철제 손가락은 굵기 정도로 보아 엄지편으로 추정되며, 팔상전의 봉안되어 있는 철제여래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시대 상평통보와 청동편 등은 장식의 일부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21. 삼층석탑개수비(연번 27)

기단 적심에서 불상과 같이 발견되었다. 10cm 두께의 판에 10행 약120자를 음각하였는데 홍치4년(1461)에 계심(械心)이 주도하여 시주자들의 시주로 탑을 수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조】 자료1. 탐내출토 유물 목록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현상·특징	이미지
1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3.8cm 귀-귀: 2.3cm 어깨폭: 3.2cm 두께: 0.3cm 광배꽃이: 1.2cm 무게 22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보관 턱이 있음 · 통인(왼손과손, 오른쪽 손가락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음) · 소발, 통견 · 왼발대좌꽃이, 대좌결실 · 뒷면하단 광배꽃이 	
2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현존고: 10.7cm 두께: 0.3cm 광배꽃이: 1.3cm 무게: 201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통견 · 머리와 대좌결실 · 오른손 결손 · 뒷면광배꽃이 · 대좌꽃이 훼손 	
3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8.5cm 두고: 2.3cm 귀-귀: 1.7cm 어깨폭: 2.0cm 두께: 0.6cm 무게: 96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소발, 통견 · 양다리, 왼손결실 · 뒷면 하단에 광배꽃이 · 대좌결실 	
4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5cm 상고: 8.9cm 두고: 2.1cm 어깨폭: 2.2cm 대좌고: 2.6cm 두께: 0.3cm 무게 154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소발, 통견 · 시무외·여원인 · 팔각대좌 · 후면광배꽃이 	
5	금동보살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6.7cm 상고: 4.8cm 어깨폭: 1.3cm 대좌고: 1.9cm 무게: 57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나형의 상반신에 천의를 둘러 양측으로 내림 · 목걸이 착용과 신체에 화문을 중심으로 2단의 영락장식 · 6엽의 이중연화좌에 기단에 안상투각 · 광배꽃이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현상·특징	이미지
6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16.2cm 어깨폭: 4.0cm 무게: 294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소발, 시무외 · 여원인 · 통견 · 관불형식, 광배꽃이 · 대좌결실 	
7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16.8cm 어깨폭: 4.5cm 무게: 25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적심중심상단부 · 소발, 시무외 · 여원인 · 통견 · 대좌와 광배꽃이 · 관불형식, 대좌결실 	
8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8cm 어깨폭: 4.2cm 두께: 0.2cm 무게: 162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단적심 후면 · 관불형식 · 팔꿈치에 양측에 2개의 광배용, 광배꽃이 없음 · 우측대퇴부 일부결손 · 가슴부분 균열 있음 · 머리 · 대좌결실 	
9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8.0cm 어깨폭: 2.0cm 무게: 70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무릎이하, 대좌 결실 · 뒷면 광배꽃이 없음 · 목부분 손상 	
10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0cm 어깨폭: 2.0cm 무게: 143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소발, 통견, 6엽 연화좌 · 시무외 · 여원인 · 목덜미 광배꽃이 	
11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1.0cm 어깨폭: 1.7cm 무게: 116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소발, 통견 · 6엽 연화대좌 · 내면의 좌측어깨 땀 흔적 	
12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11.4cm 어깨폭: 2.0cm 무게: 134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심하 · 소발, 통견, · 시무외 · 여원인 · 대좌 좌측하단 일그러짐 · 목이 우측으로 기울어짐 · 뒷면 어깨에 광배축 있음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현상·특징	이미지
13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8.4cm 어깨폭: 1.2cm 무게: 86g	· 기단적심 중심부상단 · 소발, 통견 · 대좌광배꽃이	
14	동조여래입상	동조	1	총고: 6.3cm 어깨폭: 1.0cm 무게: 56g	· 적심하 · 소발, 통견 · 시무외 · 여원인	
15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8.1cm 무게: 96g	· 적심하 · 소발, 통견 · 얼굴, 옷주름 윤곽을 확 인하기 어려움 · 표면에 기포흔 있음 · 시무외 · 여원인 · 광배꽃이	
16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5.0cm 상고: 3.0cm 광배폭: 1.8cm 무게: 26g	· 기단적심 중심부상단 · 소발, 통견 · 광배일부 파손	
17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현고: 9.3cm 어깨폭: 1.5cm 대좌고: 2.9cm 두께: 0.4cm 무게: 26g	· 적심하 · 머리결실 · 뒷면 상단 광배꽃이 · 6엽연화좌	
18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16.0cm 두고: 3.0cm 면폭: 1.5cm 무게: 358g	· 적심하 · 오른쪽 팔, 발목아래, 대좌 부 결실 · 통주물	

연번	명칭	재질	수량	규격(cm)	현상·특징	이미지
19	금동여래입상	동조 도금	1	총고: 5.8cm 두고: 1.7cm 어깨폭: 1.9cm 좌폭: 2.5cm 두께: 0.4cm 무게: 66g	· 적심하 · 소발, 통견 단판연화좌 · 투조화염광배 · 시무외 · 여원인	
20	관불	동조	1	높이: 4.2cm 너비: 2.0cm	· 적심하	
21	청동탑일괄	동조	1	청동탑높이: 16.0cm 청동탑최대폭: 4.0cm	· 적심하	
22	청동인물상	동조	1	인물상높이: (대)5.4cm	· 적심하 · 오른팔 결실	
23	청동향로다리	동조	1	높이 6.7 폭 4.1cm	· 적심하 · 동체부 결실	
24	철제불상손가락(엄지?)	철조	1	길이: 4.8cm 단면직경: 2.8cm	· 적심하 · 표층사 팔상전 봉안된 철제불상의 엄지손가락 일부로 추정됨	
25	청동편	청동	6		· 적심하 · 장식품의 일부로 추정 · 용도미상	
26	청동편	청동	2		· 적심하 · 장식품의 일부로 추정 · 용도미상	
27	상평통보	동조	1	직경: 2.3cm	· 적심하	
28	삼층석탑개수비	석재	1	높이 :68.0cm 너비: 59.0cm 두께: 10.0cm	· 홍치4년(1461)개수 · 10행 약120자로 추정 · 탑기단 적심부 중앙에서 발견	

2. 영정사삼층석탑개수담기(靈井寺三層石塔改修塔記)

「▷名載岳山靈井寺也

弘治四年辛亥二月日改修塔記

夫此塔開剝圮窳傾危頽落旣然

比丘□□同□比丘文一信了木一見有重新之

志以振寒□遂□于□成造指揮處

□□正□心□義□□□居大衆百

八餘□日也禪宗大禪師械□百同□□施

都□智照施主□山主徐同

□主□午 禾万

刻記雪印」

9.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浦項 寶鏡寺 寂光殿 須彌壇)

가. 검토사항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浦項 寶鏡寺 寂光殿 須彌壇)
- 소유자 : 보경사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수 량 : 1점
- 규 격 : 92.0 × 358 × 159.7cm
- 재 질 : 목재
- 형 식 : 불교 목공예품
- 조성연대 : 1569년(선조 2)
- 제작자 : 畫工 溟暘, 木手 克淳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은 원래 놓였던 장소에서 이전 설치되는 과정에서 원형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명문에 의해 제작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임이 분명하다. 또 여의두문에 좌우향 초엽장식을 한 풍혈양식과 쌍사면과 쌍사모 의 쇠

시리 양식, 쇠뿔과 나무뿔을 겸용한 점 등 조선 중기의 양식을 잘 보이고 있어 목공예의 편년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찰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목재 유물인 이 수미단은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역사적 가치, 희소성, 학술적 가치 및 활용, 예술성 등 국가의 보물로 지정하여야 될 유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수미단은 1569년에 조성되었다는 조성기를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수미단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수미단의 형태는 가리개형 수미단으로 寶殿形 수미단과 대좌형 수미단과 더불어 일반형 수미단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어, 불단 연구의 변화과정을 살피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수미단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화공(溟暘)과 목수(克淳) 등 제작자를 분명히 알 수 있어 귀중하고, 당시 수미단 제작에 화공과 목수의 분업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 큰 의의가 있다.

이 수미단은 임진왜란 이후 대규모 불전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화려하고 장대한 규모의 수미단은 아니지만, 아담한 규모와 담백한 장엄만으로 단정하고 세련된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작가와 절대 연대가 거의 없는 수미단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가 되는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은 측면에 조각된 명확한 조성연도와 더불어 古式의 유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목공예품은 조성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매우 희소하여 史的인 연구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리 풍혈의 특징적인 조각은 후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인데,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1569년이라는 명확한 연도까지 알 수 있어, 목공예 양식 고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되어, 앞으로 연구의 기준이 되기에 적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보류

조사보고서

□

○ 현 상

마대 위에 2층의 단이 얹어진 형태로 현재 수미단의 평면은 형이며 좌우대칭이다. 수미단 틀 내면(內面)의 공간에 후에 제작한 별도의 단을 설치하여 삼존불을 모셨다.

○ 내용 및 특징

1. 명문이 있어 조성시기(1569년)와 조성목적(열반 이룸), 조성자(시주 겸 화주, 공양주, 화공, 목수 등 모두가 승려임)를 알 수 있다.
2. 대부분의 수미단은 3층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 수미단은 2층으로 된 점이 특징이다.
3. 양식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중기 까지 이어져온 목공예 양식을 보인다. 즉 쌍사면에 쌍사모를 쇠목에 장식하였으며, 다리 풍혈은 여의두문을 중앙에 두고 좌우향 초새김(草刻)을 하고 있다.
4. 쇠못과 나무못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후기의 목공예품에는 쇠못을 쓰지 않는다.
5. 원래의 장소에서 이전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일부 훼손이 있었다고 보인다.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수미단은 2단(마대포함 3단)의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일반적인 3단(마대 포함 4단)의 수미단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2. 수미단의 현재 평면은 형으로 상판(上板)과 안쪽의 3면은 현재 판재로 막혀있어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좌우측면 하부의 3곳에 장부구멍과 장부촉을 볼 수 있어 원형은 장방형으로 그 위에 불상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현재는 수미단 형 내면의 공간에 별도의 단을 설치하여 삼존불을 모셨다.
4. 치수는 가로가 345cm, 문에서 단을 향해본 우측면의 세로는 199cm, 문에서 단을 향해 본 좌측면의 세로는 199,5cm 이며 총고는 91.5cm이나 현재의 상판인 두께 5.5cm의 판은 후보한 것이므로 원래의 높이는 86cm로 보인다. 1단과 2단의 두께는 알 수 없으나 아래쪽 마대부분은 상부가 14cm, 아래쪽 다리부분이 9.5cm이다. 즉 마대부분은 적어도 14cm 의 통판(全板)나무를 사용하여 다리와 풍혈을 양각으로 돌출되게 박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다리의 풍혈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 중기 까지 목공예에 보이는 양식을 보인다.(사진 4, 사진5, 사진 6, 사진 8, 사진 9) 사진 4 육존자상은 傳 당나라 노릉가의 그림으로 불교의 도입과 함께 그림 속 경상 양식은 우리나라에 전해져 사찰에서 사용되었고 시대가 흐르면서 신숙주 영정(사진 8), 이현보 영정(사진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같은 풍혈은 조선후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6. 수미단 上段의 쇠목은 쌍사면에 쌍사모를 하였고 下段의 쇠목은 쌍사면에 쌍사모이며 마대부분의 쇠목은 평면에 쌍사모를 하였다. 이와같이 쇠목과 동자에 쌍사면, 쌍사모를 하는 기법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온 양식(사진 7 참조)으로 조선 후기의 쇠목이나 동자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다.

7. 머름판의 동자는 연주형으로 고려시대 광명대의 간주와 같은 양식이다.

8. 앞면과 좌우 측면의 조각된 머름판은 안상형으로 투공하여 뒤쪽에 널을 댄 부판을 한 형태이다. 조선 후기 무늬가 아름다운 용목, 문목을 대어 부판하는 화장재의 선행기법으로 보인다.

9. 조각은 용과 모란, 귀(용)면, 연당초, 과일화 등 모든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문양을 시문하였다. 조각은 화려하고 정교하지는 않으나 소박하고 성실하게 정성들여 제작하였다. 다만 덧칠한 채색으로 본래의 아름다움이 손상되었다.

10. 나무못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수미단의 좌측면과 정면이 맞닿는 부분은 나무못과 쇠못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소목에는 쇠못을 사용하지 않으나 사진 7고려장(2011, 3, 26일 한국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 홍무 21년 무진4월명 가구)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경함(2014년 7월15일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나전경함 기증유물공개 보도자료)에는 쇠못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 좌우측 하단의 머름칸은 빗모로 접은 아자형 투공을 나란히 내어 뒷면에 부판하고 불상의 우측에 발원문을 각을 하였는바 이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양식으로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12. 발원문의 내용으로 조성시기(1569년)와 조성목적(열반 이룸), 조성자(시주 겸 화주, 공양주, 화공, 목수 등 모두가 승려임)를 알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銘文: 發願文「無過煩惱斷」無量法門學「誓度諸有情」皆共成正覺「願生出善家」願早遇明師「願語茲法門」願信心堅固「願戒行清淨」願經心永斷「願○眠輕衍」常行六波羅密「佻天大報恩」國王哀報恩「世界施主恩」父母受主恩「四恩三有盡忠」忘永

斷生」 凡入涅槃」 隆慶三年己巳」 元月日成」 施主兼化主信眉」 供養主玄一」 畫工溟
 禧」 木手克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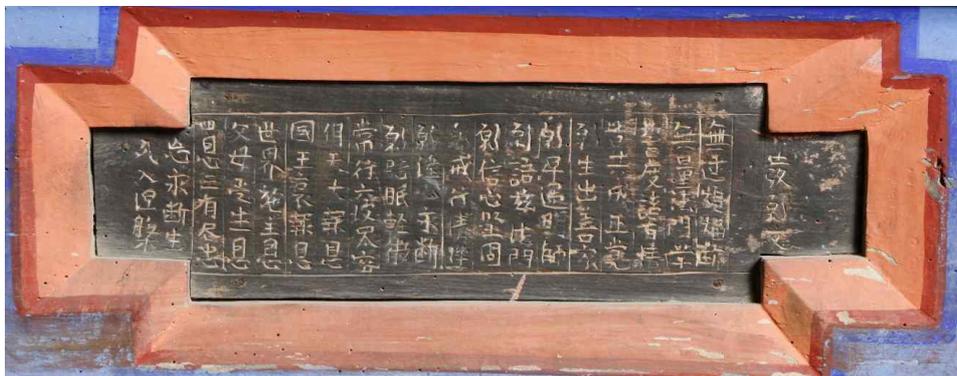
위의 결손된 글자는 단(斷) 또는 멸(滅)자로 보임

<발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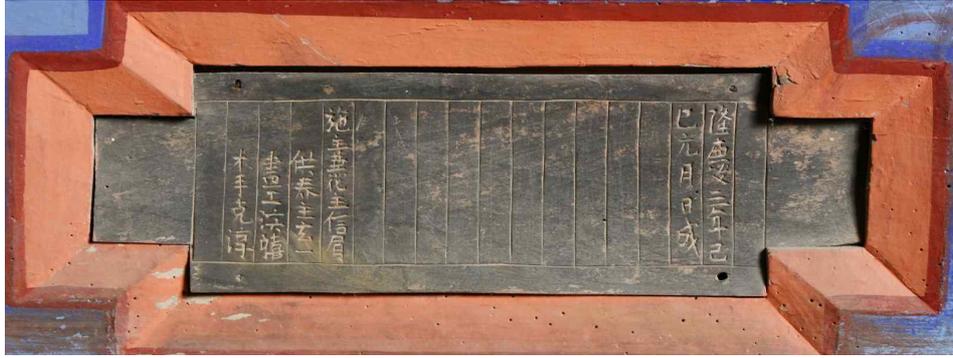
한없는 번뇌를 끊고, 끝없는 법문을 배우며, 모든 유정을 제도하고 함께 정각을 이루기를 서원하고, 좋은 가정에 태어남을 바라며, 좋은 스승을 일찍이 만나기를 바라며, 법문을 말로 풀어 내기를 원하고, 신심이 견고하기를 원하며 계행을 청정히 함을 바라며, 욕심이 영구히 끊어지고, 눈요기의 즐거움 조차 끊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육바라밀을 행하여, 하늘이 큰 보은을 내리어, 국왕이 궁홀히 보은을 내리며, 세계가 은혜의 베푸는 주체가 되고, 부모가 주인된 은혜를 받으며, 이러한 四恩(천지, 국왕, 부모, 중생의 네가지 은혜)과 三有(色界, 欲界, 無色界의三界)에 마음을 다하여 영원한 죽음을 다 잊고, 두루 열반에 이르기를 융경 3년(1569년)기사, 1월 일 이튿. 시주겸 화주 신미, 공양주 현일, 화공 명희, 목수 극순.



[사진 1]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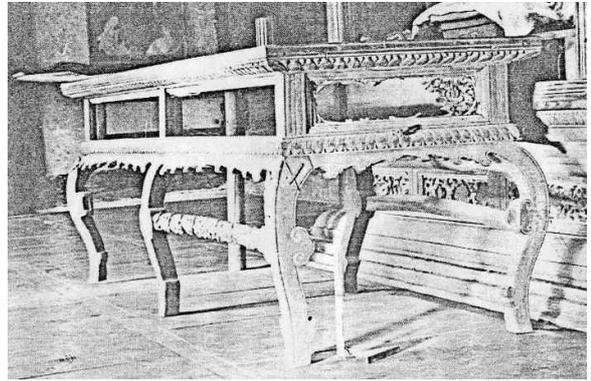
[사진 2]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명문 ①



[사진 3]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명문 ②



[사진 4] 傳 唐나라 盧稜伽작 六尊者 像



[사진5] 봉정사 극락전 내부 탁자(近藤豊 한국건축사도록에서 발췌, 일본 경도 1938년)



[사진 6] 선암사 궤(선암사 성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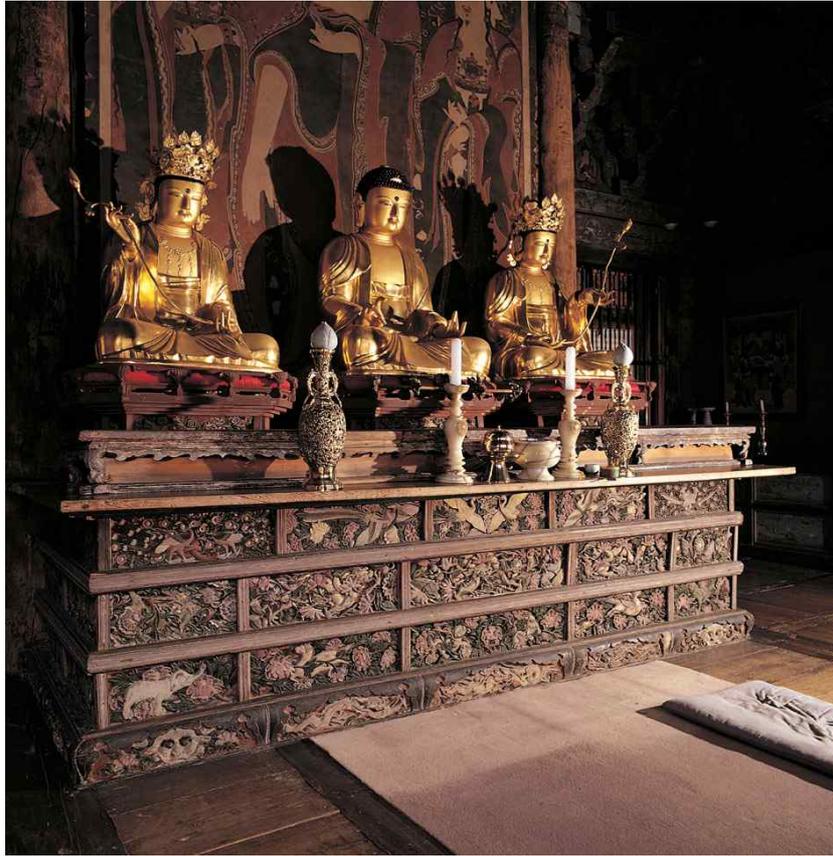
[사진 7] 〈洪武二十一年 戊辰 四月〉 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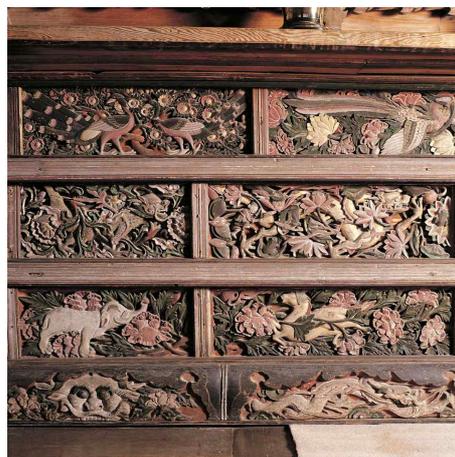
[사진 8] 신숙주영정 보물 제613호(1475년)



[사진 9] 이현보영정 보물 제 872호(1537년)



[사진 10]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永川 銀海寺 百興庵 須彌壇) 보물 제 486호



[사진 11]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세부

□

○ 내용 및 특징

적광전(보물 제1868호) 내부는 상·하 연등천장과 우물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미단은 흔히 볼 수 있는 수미단과 달리 수미단 위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지 않다. 불단의 측면도 高柱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장판과 홍살로 연결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적광전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방형수미단을 설치하지 않고, 불상을 돌며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고식 불전의 구조를 가진 건물이었으나, 후대 건물이 중창되고, ‘右繞三匝’의 예불 의식에서 佛前 禮佛로 의식행위가 변화하면서 고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가리개형 수미단은 寶殿形 수미단과 臺座形 수미단과 더불어 일반형 수미단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과도기적 형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미단의 평면은 ‘U’字形으로, 수미단의 안쪽에는 흙으로 빚어 조성한 비로자나삼존불을 봉안하였다. 비로자나삼존불상은 조성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개금으로 인하여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존불상의 뒷면에는 붉은 바탕에 白描로 그린 비로자나불설법도가 후불도로 걸려 있다.

수미단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는 전돌의 상부에 1단의 토층으로 쇠시리하고 그 윗면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족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족대와 족대 사이에는 여의두문과 계눈각을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구름처럼 연결하였다. 중대에는 각종 문양을 조각하여 장엄하고 채색하였다.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중대는 중대목을 중심으로 상하로 2단으로 구분하였다. 상단은 다시 동자목로 3면으로 구획하고, 중앙 청판에 구름 속을 역동적으로 비행하는 측면관의 龍文을 새겨 넣었고, 그 좌우에는 波蓮의 風穴을 마련하고 모란당초문을 입체감 있게 조각하였다. 좌우 측면에는 眼象 모양의 풍혈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겨 넣었다. 하단은 童子木으로 4면으로 구획하고, 가운데 위치하는 두 면에는 과일형의 풍혈 내부에 정면향의 귀면문을 새겨 넣었고, 그 좌우 풍혈에는 연화당초문과 버선코 형태의 波蓮花文을 새겨 장엄하였다. 좌우 측면은 청판 안에 가구형식의 머판인 궁창을 ‘十’자형으로 모접이 하였는데, 좌측칸 2면에는 界線을 긋고 발원문과 제작시기, 제작자 등을 음각하였다. 이곳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이 수미단은 隆慶 3年 己巳(1569년, 선조 2) 해에 畫工 ‘溟禧’와 木手 ‘克淳’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는 안으로 내반된 천판과 1단의 오목형 천판받침, 두터운 중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터운 중대목이 받치고 있는 상대는 古式의 수미단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이는 수장판과 홍살을 이용하여 고주에 연결시켜 마무리한 점 등과 함께 16세기 수미단의 특징이다.



그림 1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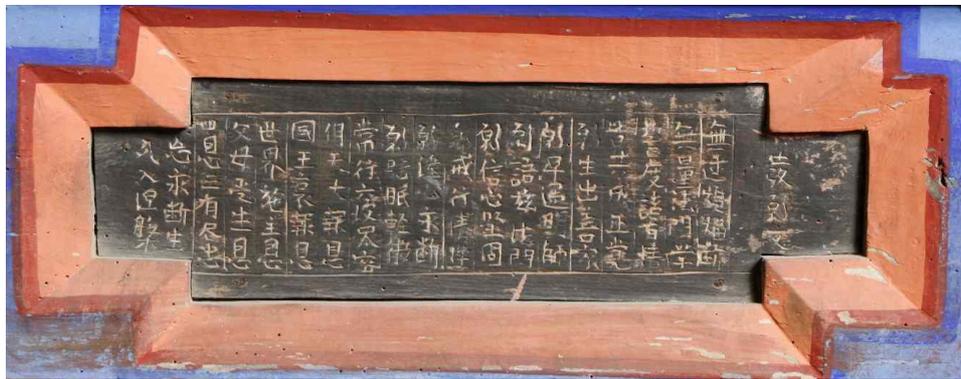


그림 2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발원문



그림 3 포항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조성기

<좌측>

無^过煩惱斷」無量法門學」誓度諸有情」皆共成正覺」願生出善家」願早遇明師」願語茲法門」願

信心堅固」願戒行清淨」願淫心永斷」願瞎眼輕術」常行六波羅密」**侂**天大報恩」國王哀報恩」世界施主恩」父母受生恩」四恩三有**尽**忠」忘永斷生」**死**入涅槃」

<우측>

隆慶三年己」巳元月日成」施主兼化主信眉」供養主玄一」畫工溟(?)嘻」木手克淳」

○ 문헌자료

허상호, 「조선시대 불탁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 현 상

1. 맨 위판과 좌우 측면의 후반을 잇는 부분은 근래에 보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ㄷ'자형의 앞좌우면은 큰 변형 없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 결구에 있어 굵은 쇠못을 쓰고, 쇠목은 5cm 이상으로 굵은 부재를 사용하는 등 탄탄한 짜임과 구조를 했다. 다리 부분은 두께가 14cm 이상이나 되는 부재를 사용하여 무게를 튼튼하게 받칠 수 있게 하고, 바탕을 파내어 문양을 조각하여서 장식성을 부여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였다.
3. 봉안된 불상을 기준으로 좌측면에 해당하는 쇠목을 보면, 맨 위와 중간 쇠목에는 쌍사면과 쌍사모를 쳤고, 맨 아래에는 쌍사모를 쳐서 두꺼운 부재를 장식하였다.
4. 수미단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면을 비롯하여 각 면을 연주문 조각으로 구획하고, 면마다 龍面과 연화·초문 등을 조각하였다. 연주문의 분할은 각각의 면을 등분하였는데, 정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단은 108cm씩으로 일정하게 나누었고, 하단 양 끝단은 52-53cm 정도로 하고 중앙부분은 108-109cm 정도로 각각 분할하였다.
5. 앞면과 좌우면의 다리 풍혈 부분은 다른 古式의 유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6. 불상을 기준으로 오른쪽 측면에는 아자형 안에 발원문을 쉐하고, 조성 연도와 시주자·제작자를 명시하였다.

○ 내용 및 특징

1. 굵은 부재의 쇠목에 쌍사면과 쌍사를 치고, 쇠못을 사용한 것은 이 목조 구조물의 특징으로 古式이다.
2. 다리 부분의 특징적인 풍혈은 고식의 유물들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조성연도와 더불어 이 수미단 역시 고식임을 말해주는 특징이다.

3. 불상 기준 우측면의 명문 기록은 이 수미단의 조성연도를 알려주는 기록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조성연대의 기록은 수미단 뿐 아니라 목공예품 중에서도 매우 희소한 것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 조성연도 또한 1569년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그 중요성을 더한다.
4. 불상 기준 좌측면에 발원문이 조각되어 있다. 발원문에서는 四恩三有와 열반에 이르기를 바라는 내용과 더불어 말미에,
“隆慶三年己巳元月日成施主兼化主信眉 供養主玄一 畫工溟疇 木手克淳” 라고 적고 있다. 즉 시주자 信眉· 화공 溟疇· 목수는 克淳이 참여했으며, 隆慶三年(1569년) 6월에 제작하였다고 명시하여, 조성연도를 비롯한 시주자와 참여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도 3〉)
5. 쇠못을 사용하고, 쇠시리를 쌍사면과 쌍사로 처리한 것은 古式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4〉-〈도 5〉) 이러한 쇠시리 장식은 전등사 수미단(인천유형문화재 제48호)과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수미단(보물 제486호)에서도 확인되어 비교할 수 있다.
6. 다리 부분 풍혈의 모양은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고식의 사찰 목공예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6〉-〈도 8〉)



<도 1>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도 2>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정면)



<도 3>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측면의 명문기록)



<도 4> 수미단 측면 쇠목(쌍사면과 쌍사모)



<도 5> 홍무 21년명(1388년 명) 단층장. (미술사학연구 271·272,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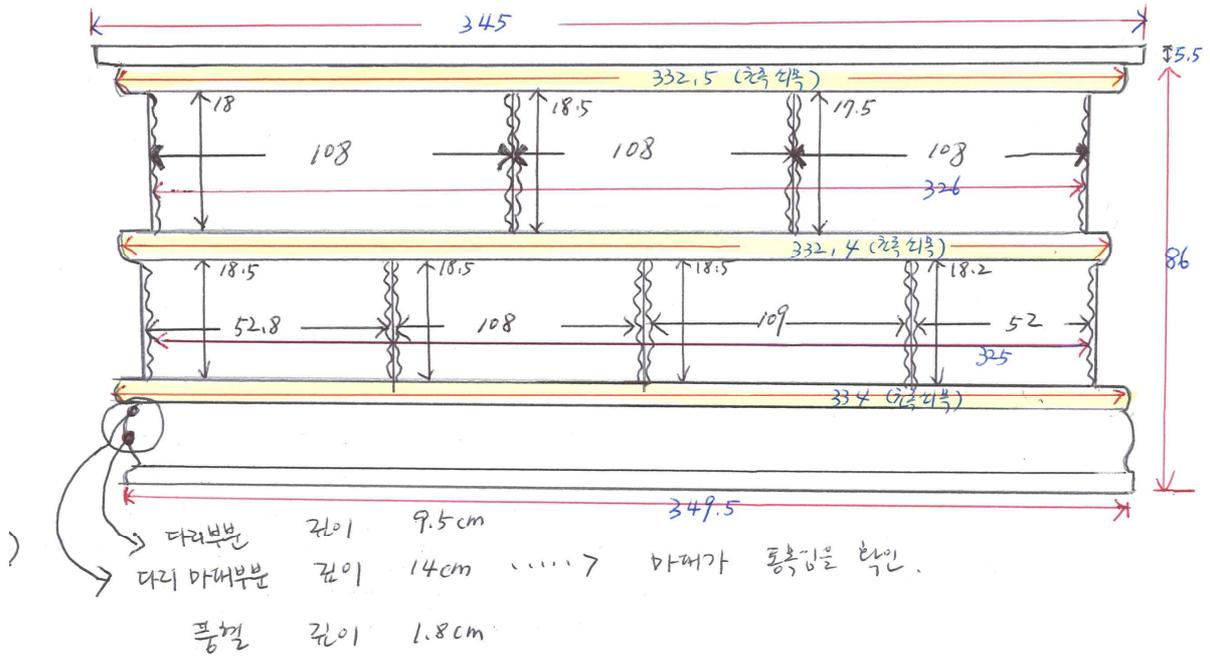
<도 6> 수미단 측면/ 다리 풍혈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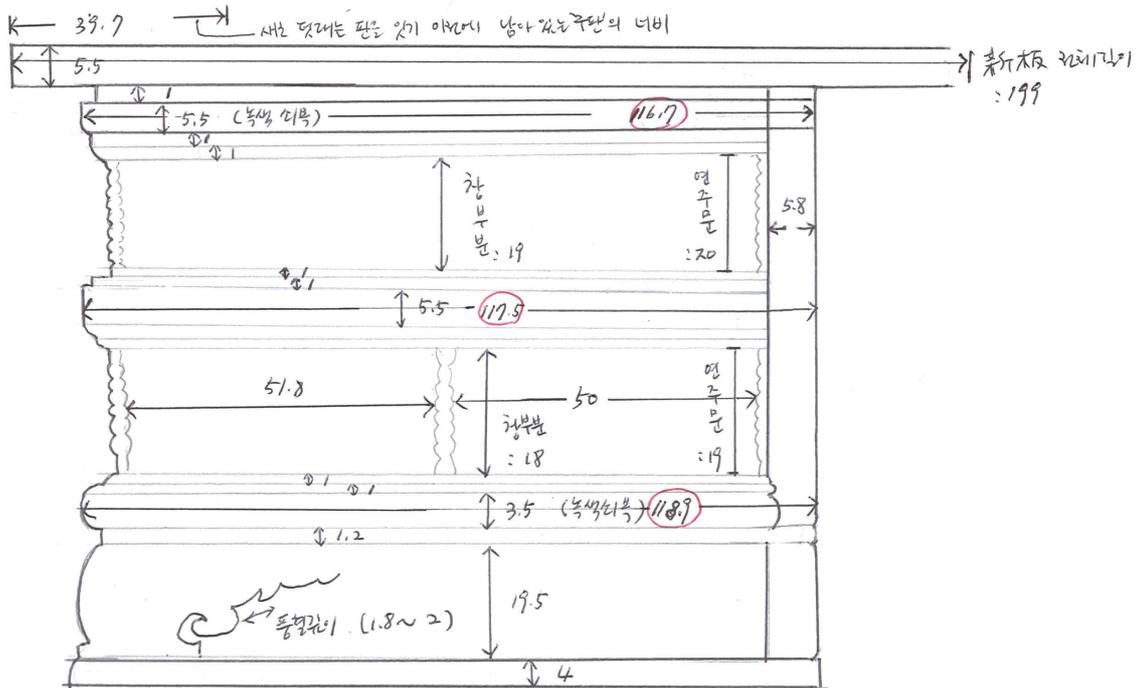
<도 7> 康熙 21년명(1682년) 경상, 개인소장



<도 8> 봉서암 감로탱, 1759년, 호암미술관 소장



<도 9> 수미단 정면 규격



<도 10> 불상 기준 좌측면 규격

10.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會圖)

가. 검토사항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2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3.10)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浦項 寶鏡寺 毘盧遮那佛會圖)
- 소유자 : 보경사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91×291.9cm, 화면 278×272.1cm
- 재 질 : 삼베바탕에 홍칠
- 형 식 : 선묘화
- 조성연대 : 1742년(영조 18)
- 제작자 : 雷現, 密機, 碩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는 세로 278.0, 가로272.1cm 크기의 삼베 바탕에 주색을 칠한 뒤 백색선묘로 그린 전형적인 선묘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금선으로 그린 금니선묘불화는 고려후기에 아주 드물게 1사례(일본 尊體寺 소장)가 있으나,

삼베에 그린 선묘불화는 조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조선 1562년 일본 소겐지(曹源寺) <석가설법도>, 1563년 일본 지후쿠지(持福寺) <석가설법도>, 1586년 일본 초안지(長安寺) <아미타오존도> 등을 들 수 있다. 왕실의 금선묘 불화에 대응해서 민중불화 확산의 일종인 삼베바탕 선묘 불화는 16세이후 18세기 불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게다가 보경사 작품은 조선후기 기년명 있는 비로자나불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이다. 수화승은 雷現을 비롯 密機, 碩岑 등 3인이 참여하였는데, 雷現은 그 외 작화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화승이다. 그러나 密機는 1731~64년까지 경북 일대에서 활약한 화승으로 세관과 함께 활동한 경력을 가진 자로 주목된다. 또한 碩岑은 보경사 선묘불화 외에도 1764년에 아미타선묘불화 구성에 동참하였다.

결국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는 현존 상태가 양호하며,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 및 제작자가 뚜렷한 작품이다. 게다가 18~19세기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선묘불화이다. 또한 필선이 섬세하고 소형 문양들의 장식성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조선후기 비로자나불 도상 및 선묘불화 연구에 귀중한 사례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포항 보경사 적광전 봉안의 <비로자나불도>는 조성시 가 1742년으로 분명하고 수화승 ‘雷現’을 위시하여 ‘密機’와 ‘碩岑’ 등 3인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하였음 또한 확인되었다.

특히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수화승 ‘뇌현’의 유일한 대표작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온 ‘밀기’가 참여하여 조성한 불화로서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삼베바탕에 붉은 칠을 하고 분선으로 그려낸 예가 많지 않은 선묘불화로서 화면 구성력이 돋보일 뿐 아니라, 精緻한 선의 자유로운 구사로 작품성 또한 뛰어나 불교회화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보경사 적광전 봉안의 <비로자나불도>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742년에 내연산 보경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로, 雷現, 密機, 碩岑 등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화사들이 참여하여 그렸다는 화기를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이 불화는 현재까지 사찰에서 봉안된 단 폭의 비로자나불회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에 해당하며, 주로 삼신불의 주존도로 그려진 것과 달리 전각의 규모에 맞게 단독의 비로자나불회도로

제작된 점도 주목된다.

또한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이 시기 불화에서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 붉은 바탕에 백묘로 그린 朱地線描佛畫로서 특색이 있으며, 적색과 백색이 색 대비를 통해 선명하고 강렬한 회상의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붉은 색 바탕색과 백색의 선묘, 그리고 피부와 불신에 칠해진 肉色과 백색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우수한 화격을 보여준다. 한편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면서 그 크기를 조금씩 줄여가며 배치한 인물의 짜임새 있게 구도에서 무한한 공간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佛衣에는 선묘불화의 장점을 살려 화려하고 섬세한 온갖 문양들로 채워 佛法의 세계를 장엄하게 드러내었다. 보살상의 三屈의 유연한 자세와 사천왕상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 등에서 18세기 전반기 우수한 불화의 세계를 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전반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보류

조사보고서

□

○ 현 상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적광전에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삼베 8매 (8.9+38.8+37.4+37.0+37.9+37.6+37.6+36.9cm)를 연결하여 한 화폭을 형성하였다. 삼베바탕에 주색을 전체 바른 후 백색선으로 도상을 그리고, 두발과 눈썹, 입술, 수염 등 일부부분에 먹색을 비롯 백군, 주색 등의 채색을 가미한 전형적인 선묘불화이다. 화면은 전반적으로 백색이 약간 뿌옇게 번진 상태이고, 두발에 바른 백군의 박락이 눈에 띄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1) 화기 및 금서

화면 하단 중앙에 백색선으로 삼전패를 그리고, 그 안에 황서로 위패명을 적고 있다. 그 아래쪽에는 주색 바탕에 백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邸下千秋」(주색 바탕에 황서)

乾隆七年壬戌五月日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證師聖纘保体」誦呪戒聰保

体」持殿雪湖保体」畫員秩」雷現保体」密機保体」碩岑保体」養供主秩」偉學保体」呂言保体」別座呂弘」化主雷善」都監嘉善」大夫覺信」本寺秩」山中大德」玄卞」老德國察」善行」前和尚時性」嘉善幸根」前和尚文(擇)」老德性希」前和尚天敏」前和尚竺瓊」前和尚玄默」前和尚竺能」老德再軒」老德最堅」老德文眼」贅梅」淸印保体」克点」僅寬」惠淡」衍輝」書記懶建」淨天」竺還」宗侃」宗熙」通政戒熏」前和尚印還」營首僧處湜」持事斗天」公員致贅」首僧双遠」三保宝旭」僧統六哲」(주색 바탕에 묵서)

2) 특징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세로 278.0, 가로272.1cm 크기의 삼베 바탕에 주색을 칠한 뒤 백색선묘로 그린 전형적인 선묘불화이다. 비단 바탕에 그린 금니 선묘불화는 고려후기에 드물게 1사례(1359년, 일본 尊體寺 소장)가 있으나, 삼베에 그린 선묘불화는 조선 16세기 중반부터 출현하였다.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화면 가운데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보살과 권속들이 에워싼 형태이다. 연관형 광배를 갖춘 본존은 낮은 방형좌위의 연화좌 위에 앉아 지권인을 곁하고 있다. 그 양측에 원형 광배를 갖추고 연꽃가지를 손에 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삼굴법 자세로 시립하고, 그 뒤쪽으로 화불보관을 착용하고 정병을 쥔 관음, 옥인을 쥔 세지보살이 본존을 향해 몸을 약간 튼 자세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보살의 외곽에는 사천왕이 각각 2위씩 전후열을 지워 배치하였는데, 본존의 좌측(향우측)에는 장검을 쥔 천왕, 비파를 든 천왕, 우측(향좌측)에는 이무기와 여의주를 쥔 천왕, 보차와 탑을 쥔 천왕이 외호하고 있다.

그 위쪽에는 천부복식을 한 범천과 제석천이 합장한 모습으로 시립하고 있다. 가장 최상단에는 선과가 담긴 반을 받들고 있는 동자와 공양녀, 합장형의 가섭과 아난, 사자와 코끼리 가면을 머리에 쓴 팔부중 2위(건달바, 야차)가 그려져 있다.

본존의 신체는 어깨가 둥글고 완만하게 처리되었으며, 지권인의 양 손은 흉전에 위치하며, 결가좌한 오른쪽 발은 노출되어 있다. 육신은 황색이 강한 황백색을 바르고, 육신선은 먹선으로 처리하였다. 안면은 방형의 둥근 얼굴로 가늘고 긴 눈은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며, 코는 콧망울이 이중으로 겹치게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콧등 너비를 넘지 않게 작게 그려 매우 인상적이다. 두부는 먹을 바른 위에 백군을 발랐으나, 박락 흔이 심하다. 지발은 넓게 표현하였고, 육계는 위로 높게 치솟은 형태로,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본존의 법의는 승각기와 균의를 착용하고 복견의와 대의를 걸쳤다. 복견의에는 소형 화엽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흘뜨려 장식하였고, 대의에는 마름모 연속무늬를 지문(地文)으로 그리고, 그 위에 이중원권문을 주문(主文)으로 표현하였으며, 가장자리 띠 부분에는 화엽문의 반쪽을 반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이

같은 문양 표현은 16세기 삼베 선묘불화의 본존불 법의에 보이는 문양의 특징이다. 본존의 연관형 광배는 정상부에 여의두문을 장식하였고, 광배 가장자리에는 백색 선으로 광염을 표현하였다.

좌우 협시보살은 7.5두신에 가까운 늘씬한 자태로 삼굴법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염문과 보주 장식의 화관, 허리 아래로 늘어뜨려진 수발 표현 등으로 보아 매우 화려한 모습이다. 어깨에 걸친 천의에는 소형 기하학원문과 화염문을 흘뜨려 장식하였다. 반면, 관음과 세지보살은 복견의와 대의를 착용한 모습으로 소형 화문과 만자문, 동그라미, 격자문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범·제석천와 사천왕의 육신은 기본적으로 백색을 발라 불보살과 위격을 달리하였다.

화면 하단 방형좌 전면에는 삼전패를 그리고, 중앙 전패에는 ‘主上殿下壽萬歲’ 좌측은 ‘王妃殿下壽齊年’ 우측은 ‘世子邸下千秋’라고 각각 적어 왕실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이어 아래쪽 화기란에는 묵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내용은 건륭7년(1742)에 제작된 시기를 비롯하여 각종 소임을 맡은 승려들과 화원 등을 밝히고 있다. 수화승은 雷現을 비롯 密機, 碩岑 등 3인이 참여하였는데, 雷現은 그의 작화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화승이다. 반면 密機는 1731년 수화승으로 경북 상주 정수사 석가후불도(의성 고운사 소장)와 지장보살도, 1739년에 경북 울진 불영사 삼장보살도(불국사 소장), 1740년에 수화승 혜식과 함께 대구 과제사 건칠보살좌상 중수에 참여하였다. 1744년에는 수화승 세관과 함께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석가, 약사)와 시왕도(변성대왕) 등의 제작에도 관여하였다. 碩岑은 1764년에 수화승 수성과 함께 경주 금정암 지장보살도(소재불명),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아미타선묘불화 조성에 관여하였다.

시기	명칭	소재	참여화승	비고
1731	석가후불도	경북 상주 정수사	密機, 仁坦, 哲眼	의성 고운사 소장
1731	지장보살도		密機, 仁坦, 哲(眼)	
1739	삼장보살도	경북 울진 불영사	密機, 彩元, 瑞澄	불국사 소장
1740	건칠보살좌상	대구 파계사	慧湜, 密洵, 明俊, 偉順, 性清, 天真, 證戒, 玉蓮, 善海, 厚心, 義謙, 震贊, 自還	1447년 원통전 건칠보살상 중수
1742	비로자나불도	경북 포항 보경사	雷現, 密機, 碩岑	*백색선묘불화
1744	삼세불도(석가)	경북 김천 직지사	世冠, 神覺, 密機, 三玉, 月印, 瑞澄, 性贊, 舜侃, 尊慧, 宇平, 天柱, 應岑, 有香, 自還, 湜演, 謹軒	
1744	삼세불도(약사)		世冠, 密機, 月印, 三玉, 瑞澄, 性贊, 舜侃, 尊慧	
1744	시왕도(변성대왕)		世冠, 神覺, 密機, 三玉, 月印, 瑞澄, 性贊	
1764	지장보살도	경북 경주 금정암	守性, 碩岑, 廣學, 善定, 定寬	소재불명
1764	아미타후불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守性, 碩岑	*은선묘불화

시기	명칭	소장처	화승	수화승
1731	비로자나불도	포항 보경사	마본주지백선묘	雷現
1759	비로자나불도	평창 월정사 (원주 영원사)	견본채색	悟寬
1791	비로자나불도	부산 범어사	견본채색	萬謙
1869	비로자나불도	순천 선암사 비로암	견본주지황선묘	妙英
1873	비로자나불도	해인사 법보전	견본채색	霞隱偉相
1886	비로자나불도	서울 봉은사	면본채색	影明天機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 전도



본존 비로자나불 부분도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1742) 좌 : 좌협시 우 : 묵서화기

□

○ 현 상

보경사 주법당인 적광전 봉안의 <비로자후불도>로서 삼베바탕에 붉은색을 올린 다음 분선(흰 선)을 사용하여 그린 線描佛畫이다. 본존불을 비롯하여 각 존상의 경우 피부와 머리칼만 색을 칠하여 선묘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 내용 및 특징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상을 본존으로 삼고 주위로 주협시보살인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을 위시한 6보살상 및 사천왕상,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호계대신과 복덕대신 2대신상, 2위의 동녀상을 좌우 2열로 배치한 群圖 形式의 <비로자나불도>이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智拳印을 짓고 있는 화면 중앙의 본존불은 둥글어진 턱으로 원만형이나 넓게 벌어진 어깨에 미소가 보이지 않는 얼굴에 눈과 코를 큼직하게 표현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반면, 입을 작게 묘사하여 다소곳한 느낌이다. 귀 윗부분의 옆머리가 넓어지고 뺨쪽한 육계를 한 머리에는 반원형 中央髻珠와 구형의 頂上髻珠를 갖추었으며, 두 귀는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지고 목에는 三道 표현이 뚜렷하다.

法衣는 양어깨를 다 덮은 通肩으로 마름모꼴 문양이 바탕을 이루는 大衣 몸체에는 안쪽에 파도문이 표현된 둥근 문양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으며, 깃의 넓은 단에는 蓮花와 牡丹花가 복합된 형태의 寶相華 문양이 섬세하게 시문되어 있다. 대의 아래로 드러난 上衣의 경우 몸체에는 花紋을 뺨뺨하게 그리고 단에는 연화문을 나타내었으며, 가슴 아래로 묶음이 표현된 裙衣 단에는 결련문 모양의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몸체에는 +자형 幾何紋이 들어 있는 둥근 문양과 작은 크기의 꽃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본존불의 경우 18세기 들어 키 형 광배와 함께 유행한 單瓣 연꽃잎 모양(혹은 舟形)의 광배를 구비하였는데, 안쪽으로는 화문이 연속하여 묘사된 테두리가 둘러지고 바깥쪽으로는 불꽃무늬를 둘러 장식한 화염광배이다.

본존불 좌우에서 시립하고 있는 협시보살상은 왼쪽(向右側)에 문수보살상을 그리고 오른쪽(向左側)에 보현보살상이 배치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좌우가 바뀌어 왼쪽에 보현보살상을 그리고, 오른쪽에 문수보살상을 표현하였다.

두 보살상 모두 중앙의 본존불 쪽을 향해 S자 형으로 몸을 살짝 튼 채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胸飾에 卍字를 장식한 문수보살상은 如意를 오른 어깨에 비껴 들고 있으며, 보현보살상은 曇字를 장식한 흉식을 착용하고 연꽃가지를 왼 어깨에 기대어 받쳐 들고 있다.

두 보살상 모두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턱이 둥글어진 원만형의 얼굴에 미소를 잃은 채 큼직한 눈과 코를 구비한 반면 입은 작게 그렸으며, 목에는 삼도 표현이 뚜렷하다.

이와는 다르게 머리 부분 좌우에 본존불을 향한 채 자리한 4보살상의 경우는 후덕한 모습의 얼굴에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난다. 4보살상 가운데 본존불 광배 좌측에 접하여 자리한 보살상은 머리의 보관에 化佛이 보이고 손에 甘露瓶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상임이 분명하지만,

나머지 보살상들의 존명은 잘 알 수가 없다.

화면 상단 좌우에 대칭하여 자리한 존상은 2대신과 2제자, 2동녀로서 2제자는 10제자를 대표하는 백발이 성성한 노비구 모습의 가섭존자와 청년 비구 모습의 아난존자상으로, 본존불 및 좌우협시보살상들과는 달리 둥근 얼굴에 표정이 온화하다.

좌우 협시보살상 바깥쪽에 상하로 그려져 있는 사천왕상은 좌측에는 琵琶와 劍을 받쳐 든 2위의 천왕상을 그렸으며, 우측에는 龍과 火焰寶珠를 파지한 상과 幢과 塔을 지물로 한 상 등 2위의 천왕상이 자리하였다. 4위의 천왕상의 얼굴 표현을 보면 짙은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과 좌우로 뻗친 수염을 하여 강인한 인상을 주어 호위신중으로서의 분노상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본존불 수미단에 이어 3개의 牌가 그려져 있는데 중앙쪽의 ‘主上殿下壽萬歲’와 함께 좌우측으로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三殿牌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미단 아래쪽 화면 중앙에 화기란을 마련하여 ‘乾隆七年壬戌五月日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 …畫員秩 雷現保体 密機保体 碩岑保体… …’라는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어 이 불화는 1742년 ‘뇌현, 밀기, 석잠’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파악된다.

수화승 ‘뇌현’과 참여화승 ‘밀기’는 18세기 전반 경상북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화승들로, ‘뇌현’의 경우는 이 보경사 <비로자나불도>가 현존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에 비해 ‘밀기’는 이보다 먼저 1731년 팔공산화파의 대표적 화승인 ‘의균’의 영향을 받아 상주 정수사 <석가모니불도>와 <지장보살도>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1739년 울진 불영사 <삼장보살도>와 1742년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1744년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 ; 석가모니불도, 약사불도>와 <시왕도> 등을 조성하는데 수화승 또는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활약상을 보인다.

홍칠 바탕에 분선을 사용하여 표현한 선묘불화로서의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군도형식의 불화들과 달리 권속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화면 구성력이 돋보일 뿐 아니라, 각 존상의 형태 및 문양 표현에 있어 精緻한 선의 자유로운 구사로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고 하겠다.

[書記]

乾隆七年壬戌五月日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
證師 聖纘保体
誦呪 戒聰保体
持殿 雪湖保体
畫員秩

雷現保体 密機保体 碩岑保体

養供主秩

偉學保体 呂言保体

別座 呂弘

化主 雷善

都監 嘉善大夫覺信

本寺秩

山中大德 玄卞 老德國察 善行 前和尚時性 嘉善幸根

前和尚文擇 老德性希 前和尚天敏 前和尚竺瓊 前和尚玄默

前和尚竺能 老德再軒 老德最堅 老德文眼 贅梅 清印保体

克点 仅寬 惠淡 衍輝

書記 懶建 淨天 竺還 宗侃 宗熙 通政戒熏 前和尚印還 營首僧處湜

持事 斗天

公員 致贅

首僧 双远

三保 宝旭

僧統 六哲

[사진자료]



사진 1.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불도 전체, 1742년



사진 3. 비로자나불도 우측부



사진 2. 비로자나불도 좌측부



사진 4. 비로자나불도 상부



사진 5. 본존불 상반신



사진 6. 본존불 하반신



사진 8. 우측부 문수보살 및 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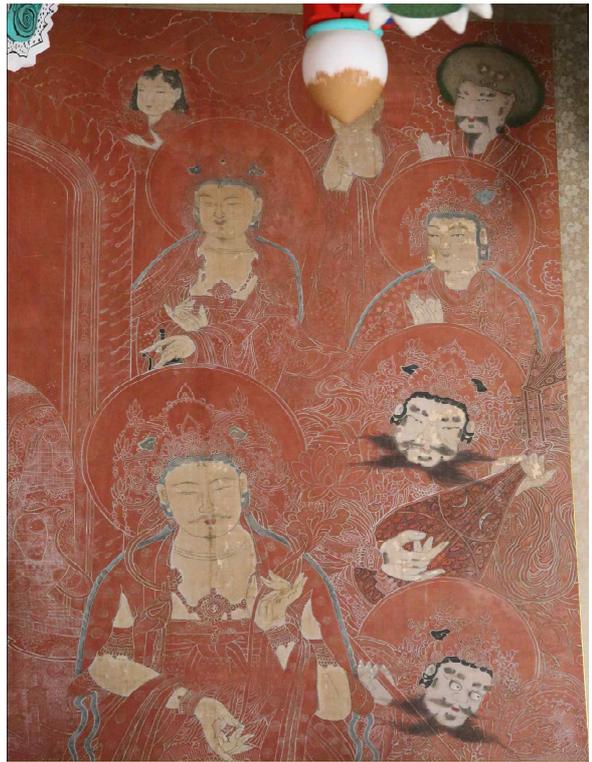


사진 7. 좌측부 보현보살과 권속



사진 10. 문수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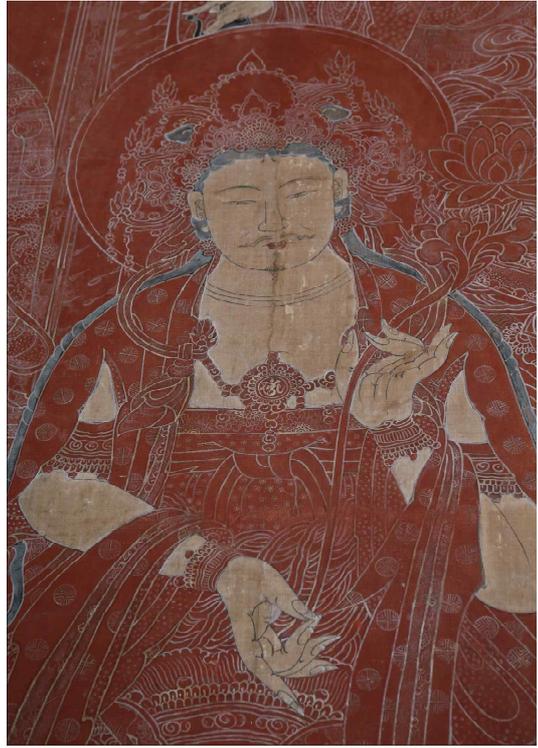


사진 9. 보현보살상



사진 12. 보살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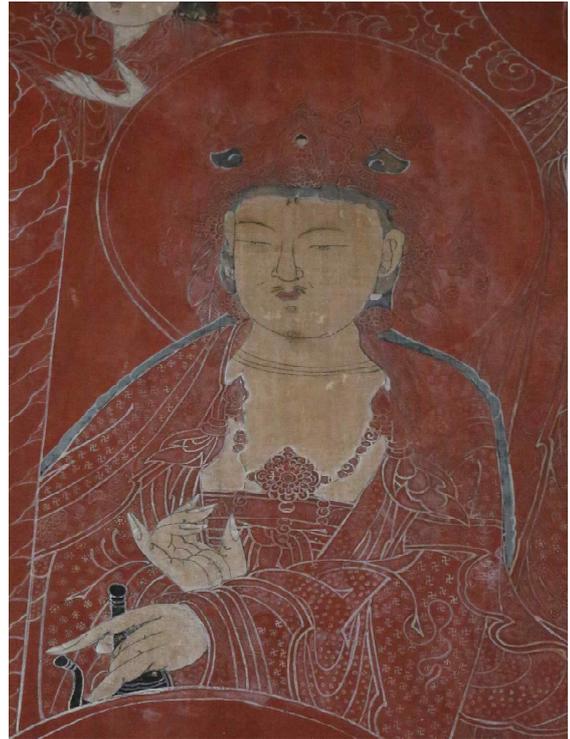


사진 11. 보살상 1 - 관음보살상



사진 14. 전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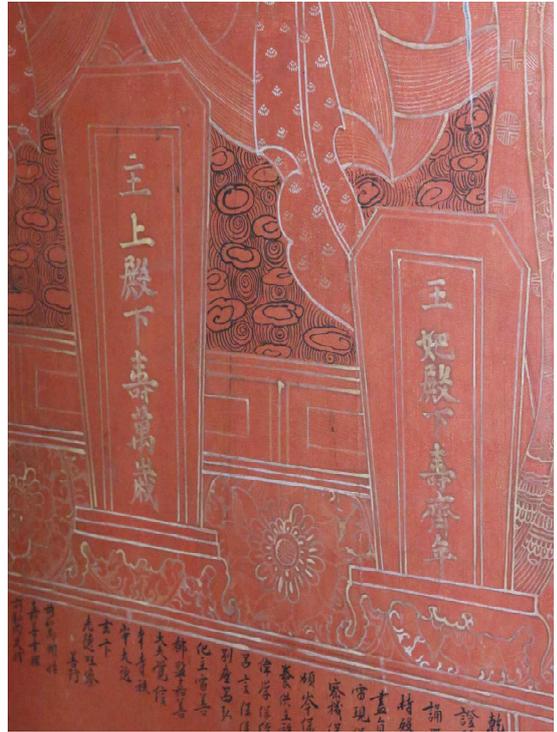


사진 13. 전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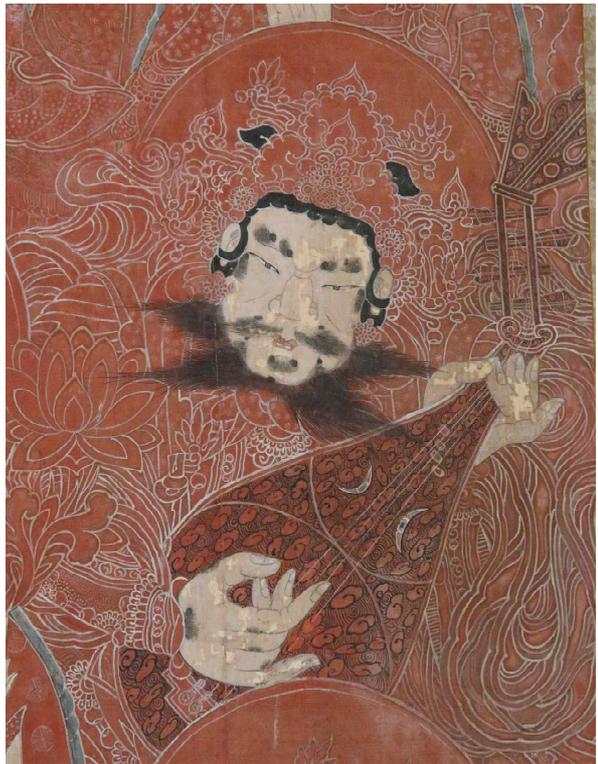




사진 16. 사천왕상 2 ; 서-북방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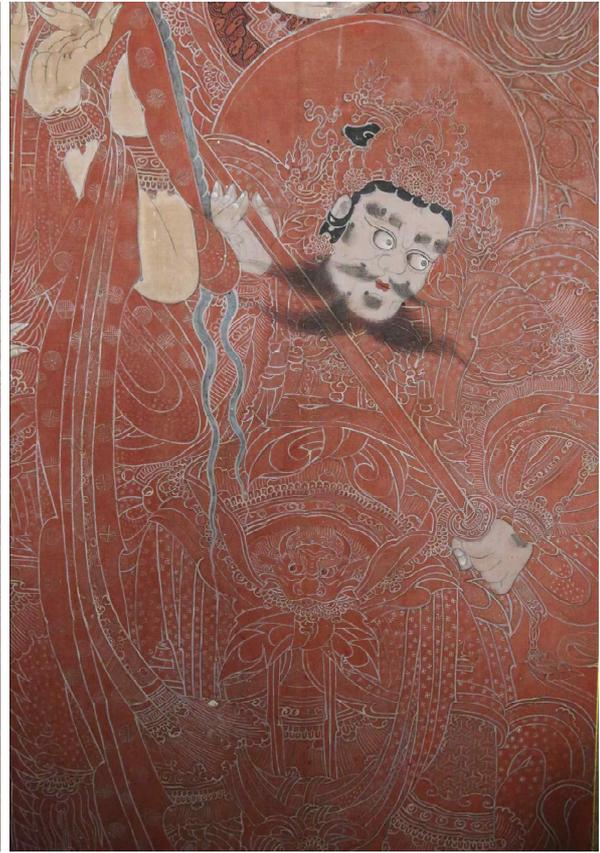


사진 15. 사천왕상 1 ; 동-남방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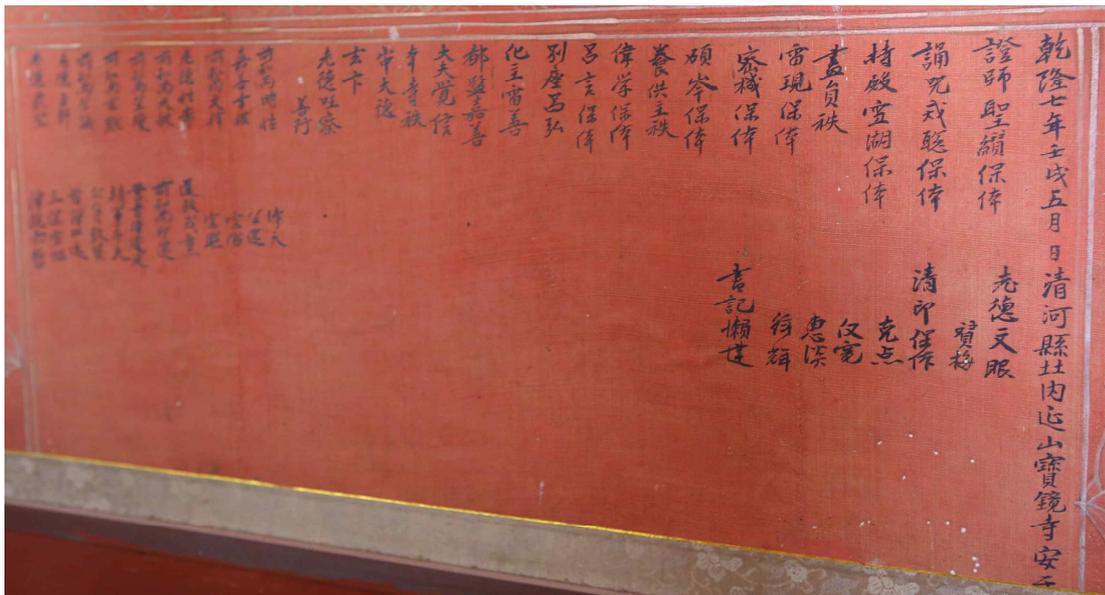


사진 17. 화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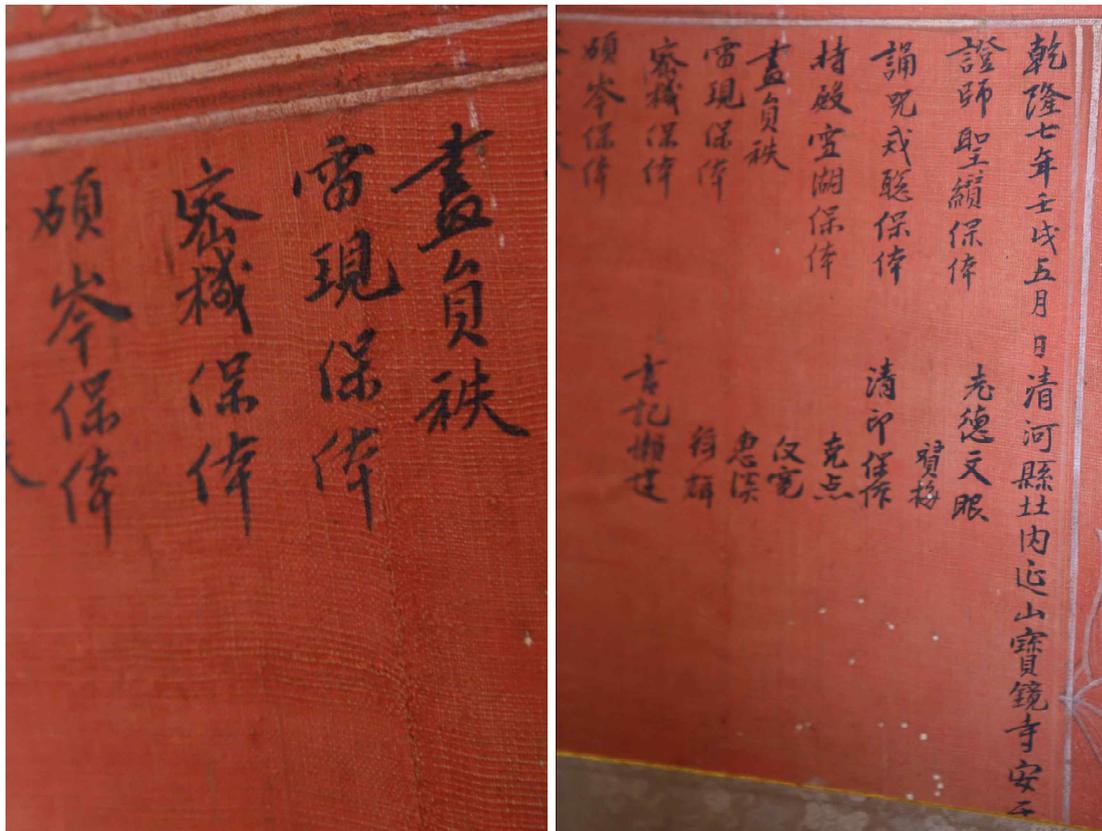


사진 19. 화기 부분 2 - 화원질 사진 18. 화기 부분 1 - 조성시기, 봉안처

□

○ 내용 및 특징

이 「비로자나불회도」는 보경사 적광전 후불화 조성된 것으로, 삼베바탕에 붉은 색을 칠하고 白線描와 金線妙로 그린 비로자나설법도이다. 이와 같은 선묘불화는 채색불화와 함께 불교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른 선례로는 1309년 노영이 그린 ‘노영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보물 제1887호)가 있으며, 이외에 사경화도 이와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보경사 불화와 흡사한 붉은색 바탕에 백선묘 또는 금선묘로 그린 것은 조선 전기에 등장한다.

이 불화는 적광전 상단에 봉안된 후불도답게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會上 장면을 담고 있는데, 아마도 『화엄경』을 설법한 장소의 하나인 보광명전이나 적멸도량의 설법 장면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불회도는 현재 석가·노사사불회도와 함께 3폭의 삼신불회도를 이루며, 대형 불전의 후불벽에 걸리는데, 이 불회도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보경사 대적전의 규모에 맞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1742년(영조 18)에 내연사 보경사에 봉안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원래의 봉안장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그림의 증명은 聖纘이 맡았고, 재원을 마련한 化主는 雷善, 화사는 雷現, 密機, 碩岑 등 3명의 승려화원이 공동으로 그렸다. 수화승 뇌현은 이 비로자나불회도 이외 알려진 작품이 없지만, 이 작품을 통해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화사였음을 알 수 있다. 차화원 밑기는 이 그림에 앞서 1731년에 정수사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원 봉안처 울진 불영사, 1739년)를 수화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1742년)이다. 1744년에는 수화승 세관을 도와 직지사 석가여래삼세불도(1744)라는 대작불사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직지사 시왕도도 제작하였다. 이외 제작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전사 영산회상도도를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밑기는 18세기 전반기 경북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이 시기 의 대표적인 화사중 한명이다. 세 번째 화승 석잠은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를 비롯하여 금정암 지장보살도(1764, 소장처미상)7),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1768) 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붉은색 바탕에 백묘로 선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강렬한 분위기와 선명한 선묘를 한눈에 들어다 볼 수 있다. 불꽃이 타오르는 꽃잎형의 거신광배를 등지고 지권인을 결한 주불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에워싼 군도형식의 불화이다. 비로자나불상은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라고 묵서한 왕실 삼전하에 대한 수명을 축원한 三殿牌가 놓인 수미단 위에, 놓인 붉은 연꽃대좌에 걸가부좌하였다. 노출된 오른발의 발꿈치를 유달리 돌출시킨 발꿈치가 인상적이다. 불상의 머리에는 깔때기모양으로 뾰족하게 솟구친 육계를 지녔으며, 머리의 정상과 중앙에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구슬모양의 정상계주와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표현하였다.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단정하게 표현하였고, 二重의 콧방울은 이 시기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의 특징이다. 비로자나불은 얼굴이 신체에 비해 크게 묘사되었는데, 아마도 예배자의 시선이 고려된 듯하다. 大衣는 이중착의법으로 걸쳐 입었는데, 대의에 표면과 깃에는 화려한 문양을 정차하게 그려 넣어 화려함을 극대화 하였다. 대의의 표면에는 격자문을 굵고 그 안에 작은 마엽문을 그려넣었고, 마엽문 위에는 수를 놓은 듯 水波圓文을 큼직큼직하게 배열하였다. 대의의 깃에는 국화문과 연화문을 시문하였고, 군의 깃에는 흔히 단청문양에서 많이 보이는 녹화문(곱쟁이문)을 시문하였다. 이외 대의와 군의의 표면에는 화문, 구슬문 등을 세밀하게 그려 넣어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지권인은 주먹 권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 권 지권인으로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상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머리의 검은색 안료와 눈썹과 수염의 녹색 안료는 떨어져 나갔다. 피부와 신체의 윤곽은 가장 밝은 색 선을 사용하였고, 세부 주름과 문양에 사용되는 주름 선은 이 보다 가는 선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7) 금정암 지장보살도는 현재 소장처 미상으로 守性, 碩岑, 廣學, 善定, 定寬 등의 승려화원이 그렸다. 석잠은 차화원으로 참여하였다.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 554.

주었다. 선은 대체로 유려한 흐름의 보이며, 머뭇거림이 없다.

화면의 비로자나불의 좌우측에는 화려한 보관과 세밀한 문양이 시문된 천의를 걸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시립해 있다. 문수보살은 ‘옴’자가 적힌 큼직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잡았고, 보현보살은 ‘卍’자가 적힌 큼직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두 손으로 여의를 잡았다. 두 보살상은 풍성한 검푸른 보발을 어깨를 따라 허리춤까지 길게 늘어뜨렸고, 본존불의 어깨 높이까지의 늘씬한 신체비례를 보이며 三屈의 유연한 자세를 뽐내고 있다. 화면 하단 가장자리 좌측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이 보검을 쥐고 있는 동방 지국천왕이 위아래로 배치되었으며, 우측에는 용과 여의주를 쥐고 있는 남방 증장천왕과 당탑을 들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이 아래·위에 각각 배치되었다. 사천왕상은 흰색 피부에 수염을 호방하게 붓질하고, 위협적인 표정과 눈을 굴러가며 사방을 호위하는 자세이다. 화면의 중단에는 보관에 화불을 가지고 있는 관음보살이 검정색 정병을 잡았고, 그 옆에는 범천이 자리를 잡았다. 그 대칭되는 반대편에는 대세지보살과 제석천이 자리하고 있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사자관을 쓴 건달바와 늙은 비구로 표현된 가섭존자, 그리고 두 갈래로 상투를 묶은 동자가 여의주를 들었고, 그 반대편에는 코끼리관을 쓴 야차와 젊은 비구모습으로 표현된 아난존자, 그리고 공양물을 받쳐 든 천녀가 대칭적 구도 속에 배치되었다. 하늘의 빈 공간에는 부처님의 계주에서 뻗어 나온 瑞光과 뭉게뭉게 흘러가는 구름으로 채웠다. 이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자세와 표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즉, 반쯤 잠긴 눈으로 슬며시 곁눈질 하는 서방 광목천왕의 익살스런 표정과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三屈의 유연한 자태를 취한 협시보살상은 엄숙한 회상에 상큼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에워싼 원형구도를 보여주고 주며, 화면의 아래쪽은 존상을 크게 위쪽은 작게 표현하여 원근감과 공간감을 동시에 드러내었다. 이러한 배치와 표현방식은 조선시대 불화에서 보편적인 표현방식이다. 특히 불상과 보살상의 피부는 육색으로 하여 차별하게 처리하고, 화면의 외연에서 도량을 옹호하는 사천왕상은 하얀 피부와 호방하게 터치한 검은 수염을 통해 입체적인 효과를 부여하였다. 선묘는 주로 백선묘를 사용하되, 삼전패와 연화대좌, 보살과 불의 천의 등 일부에는 강조색으로 금색선이 사용되었다.



그림 226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회도, 1742년

○ 화기(33.1×71.2cm)

乾隆七年壬戌五月 日 清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

證師 聖纘保体

誦呪 戒聰保体

持殿 雪湖保体

畫員秩

雷現保体

密機保体

碩岑保体

養供主秩

偉學保体

呂言保体

別座呂弘

化主雷善

都監嘉善

大夫覺信

本寺秩
山中大德
玄卞
老德旺察
 善行
前和尚時性
嘉善幸根
前和尚文捧
老德性希
前和尚天敏
前和尚竺瓊
前和尚玄默
前和尚竺能
老德再軒
老德最堅
<하단>
老德文眼
 贊梅
清印保体
 克点
 僅寬
 惠淡
 衍輝
書記懶建

淨天
竺還
宗侃
宗熙
通政戒熏
前和尚印還
營首僧處湜
持事斗天
公員致贊
首僧双遠
三保宝旭
僧統六哲

11.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가. 검토사항

‘자치통감 권57~6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통감 권57~6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2.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5.1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 소유자 : 김응규(金應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2 취정사
- 수 량 : 4권 1책
- 규 격 : 36.5×24.3(반곽 27.8×19.9)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1책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권57-60)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금

속활자본으로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더욱이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司馬光의 「資治通鑑」은 政治와 軍事의 敍述을 爲主로 統治者에게 國家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提供하는 것이 目的이었던 만큼, 朝鮮에서도 國家의 經營에 絶對的으로 필요한 書籍이었다.

調査本 「資治通鑑」은 世宗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名臣·學者들의 訓義와 校勘을 거쳐 「資治通鑑」의 編纂을 完了하고 柳義孫(1398~1450)의 序文을 붙여 世宗 18(1436)년에 初鑄甲寅字로 刊行하여 京外에 配布하였던 版本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刊行된 「資治通鑑」의 版本은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 등에 所藏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다.

調査本 「資治通鑑」은 歷史學·政治學·行政學·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朝鮮時代 初期의 金屬活字印刷術研究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充分한 것으로 判斷된다.

※근거 기준

調査本과 同一한 版本의 「資治通鑑」이 寶物 第1281號로 指定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세종 18(1436)년에 편찬이 완료된 총 294권 가운데 권57~60의 4권 1책본이다.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조사본 『자치통감』 권57~60의 4권 1책은 기지정된 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하고 있으며,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 정치학, 행정학 및 서지학 등의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資治通鑑」은 중국 北宋의 司馬光(1019~1086)이 역대의 史實을 밝혀 정치의 規律으로 삼고 王朝의 興亡盛衰의 原因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編年體 역사서로, 戰國時代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6년(960)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것이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조선 世宗이 여러 신하와 학자들에게 명하여 思政殿에서 訓義, 參校하게 하고 世宗이 친히 검토한 후,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初鑄甲寅字 294卷으로 간행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휘귀본이다. 초주갑인자본 「資治通鑑」 완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으며, 이미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등 4곳을 비롯 국립도서관, 서울대규장각등 몇몇 기관에 零本만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조사본은 기 지정된 보물과도 권수가 중복되지 않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귀중본으로 조선 전기 歷史, 政治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며 印刷文化 및 書誌學 연구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본과 동일한 初鑄甲寅字本 「資治通鑑」이 寶物 第1281-1, 第1281-2, 第1281-3, 第1281-4號로 指定되어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표지는 오래전에 개장되었으며, 누습으로 인한 얼룩이 전권의 하부에 있으나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함.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 卷57-60 / 司馬光(宋) 奉勅撰 ; 思政殿 訓義

金屬活字本(甲寅字)

[世宗 18年(1436)]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8 × 19.9 cm, 有界, 10行19字, 下向黑魚尾 ; 36.5 × 24.3cm

版心題: 通鑑

『자치통감』은 북송 시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이다. 전국시대인 주나라 위열왕 23년(BC 403)부터 오대 후주 세종 현덕 6년(959)까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이 방대한 탓으로 후대 송나라의 주희(朱熹, 1130~1200)는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는 서명으로 다시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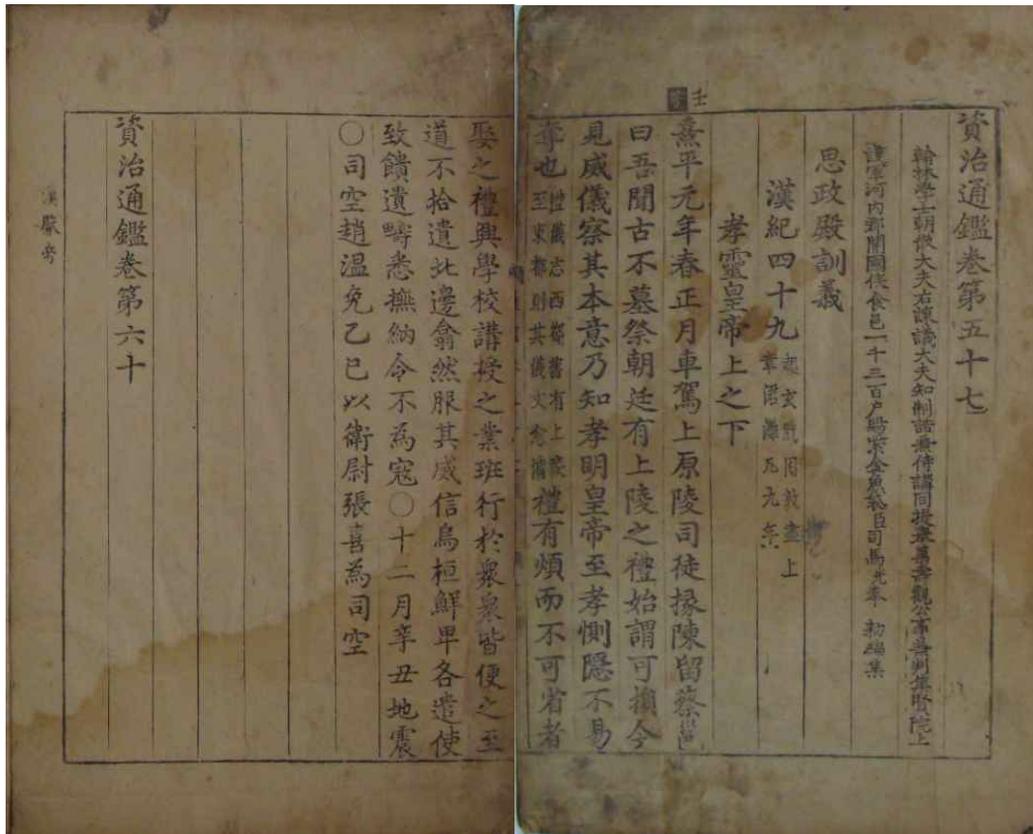
조선에서도 쉽게 이용하고자 중국의 인명, 지명, 고사에 대한 주석을 달게 된다. 곧 세종의 명을 받들어 윤희, 권도, 설순, 김말, 유의손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을 바탕으로 교정하고 가감하여 편찬하였던 것이다. 편찬이 끝나자 세종은 16년 7월 17일에 『자치통감』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를 각도에 배정하는 등 물자를 준비토록 하였다. 드디어 18년(1436) 4월 4일에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사용하여 『자치통감』을 간행해내자 이를 대소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당시 1부는 294권 100책이었으며, 취정사 소장의 『자치통감』 권57-60의 1책은 이때 간행된 판본의 하나이다.

이 『자치통감』은 당시 역대의 중요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경복궁 사정전에서 이 일을 하면서 주석을 교정 가감하였으므로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구분하기 위해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는 서명으로도 일컫는다. “훈의”란 “뜻을 풀다.” 또는 “뜻을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훈의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자치통감』이 중국의 역사기록이다 보니 중국의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읽을 때 발음과 글자의 뜻에 대한 풀이도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현전하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양 원각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서울역사박물관, 성주 회연서원, 울산박물관, 조동기(옛 성암고서박물관), 창녕 신흥사, 청주박물관, 화봉문고 등에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 236-238의 3권1책(제1281-1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권131-135, 246-250의 10권2책(제1281-2호), 고양 원각사 소장의 권193-195의 3권1책(제1281-3호), 울산박물관 소장의 권226-229의 4권1책(보물 제1281-4호) 등이다.

취정사 소장의 이 판본은 결락된 장은 없으며, 권57(26장), 권58(26장), 권59(30

장), 권60(28장) 등 모두 110장이다. 아주 오래전에 개장한 흔적이 보이며, 권59의 제1장은 개장할 때 잘 맞추지 못한 탓에 다른 장과 높이의 차이가 있다. 비록 권 57-60의 4권1책의 잔본에 불과하나,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본인데다 동일한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권57(권수)와 권60(권미)

○ 문헌자료

오항령, “조선 세종대 《자치통감사정전훈의》와 《자치통감강목사정전훈의》의 편찬”, 『태동고전연구』 제15집, 1998

『세종실록』, 『국가기록유산』, 『문화재청』

□

○ 현 상

書誌記述 : 調査本「資治通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資治通鑑, 卷57~60 / 司馬光(1019~1086, 北宋) 奉勅編集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 推定].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7.6×19.9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5×24.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 資治通鑑

卷末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內 容: -卷57; 漢紀49 孝靈皇帝上之下. -卷58; 漢紀50 孝靈皇帝中. -卷59;
漢紀51 孝靈皇帝下, 孝獻皇帝甲. -卷60; 漢紀52 孝獻皇帝乙.

狀 態: 一部の 面紙에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임

所 藏: 鷲井寺(釜山廣域市 機張郡 日光面 上谷路 55)

傳來歷: 住持 金應圭스님의 恩師인 兩翼스님으로부터 傳해오는 文化財라 傳
言함

既指定: 寶物 第1281號(卷236~238, 國立中央博物館), 寶物 第1281-2號(卷
131~135, 卷246~250, 서울歷史博物館), 寶物 第1281-3號(卷193~195,
圓覺寺), 寶物 第1281-4號(권226~229, 蔚山博物館)

調査本「資治通鑑」은 중국 宋朝의 司馬光(1019~1086) 등이 元豐 7(1084)年에 編年體로 編纂한 中國의 通史를 底本으로 朝鮮 世宗(1397~1450)의 命으로 尹淮(1380~1436)·權蹈(1387~1445)·僕循(?~1435)·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 등 40여명의 文臣들이 司馬光의 「資治通鑑」에 「通鑑音注」·「通鑑源委」·「通鑑輯覽」·「通鑑釋義」 등의 歷代 主要 註釋書를 바탕으로 도합 294卷으로 訓義하고 校勘한 뒤 世宗 18(1436)年에 甲寅字의 金屬活字로 刊行한 版本 중 卷57~60의 4卷1冊이다. 本書의 編輯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行하여진 關係로 國王이 ‘思政殿訓義’로 賜名하여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며,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 別稱되기도 한다.

調査本「資治通鑑」은 釜山廣域市 機張郡 日光面 上谷路 55의 鷲井寺 住持인 金應圭스님의 恩師인 兩圭스님으로부터 傳해오는 文化財라 傳言되고 있다.

調査本「資治通鑑」의 保存現狀은 一部の 面紙에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要求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을 具備하지 못한 鷲井寺에 의하여 收藏·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은 中國 北宋 中期의 政治家이며 史學家인 司馬光(1019~1086)이 皇命으로 治平 2(1065)년부터 元豐 7(1084)년까지 19년간에 걸쳐 編纂한 編年體의 歷

史書이다. 編纂者인 司馬光是 北宋의 政治家·學者로 자는 君實이고 號는 迂夫·迂叟 等이며, 諡號는 文正이다. 山西省 夏縣 涑水鄉 出身이라 ‘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死後에 ‘溫國公’에 封하여졌으므로 ‘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寶元 2(1039)년에 進士에 及第하여 地方官을 두루 歷任한 뒤 嘉祐 6(1061)년에 起居舍人同知諫員에 轉職되고 神宗이 卽位하여 翰林學士에 任命하였으나, 駢文에 어둡다는 理由로 固辭하여 御史中丞이 되었다. 熙寧 3(1070)년에 神宗과 王安石(1021~1086)이 新法政治를 施行하자 이를 批判하고 舊法의 回復을 圖謀하다 失脚하여 洛陽에 隱遁하면서 神宗의 支援을 받아 前後 19년간에 걸쳐 『資治通鑑』 294권을 撰進하였다.

元祐 元(1086)년에 尙書左僕射兼門下侍郎에 起用되어 ‘元祐更化’를 主導하여 新法을 차례로 廢止함으로써 社會를 混亂에 빠뜨렸으나 執政한지 8개월 만에 卒去하였다. 溫公의 立場은 大地主와 大商人 등 保守勢力의 利益을 代辯하는 것이었으며, 死後에 新法黨에 의해 名譽가 剝奪되었다가 南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名譽가 回復되었다. 溫公은 治平 元(1064)년에 『春秋左氏傳』을 模倣하여 戰國과 秦代의 史實을 敘述한 『通志』 8卷을 撰進하였는데, 이를 擴大하여 編纂하라는 英宗의 皇命으로 이듬해(1065)부터 崇文院에 史局을 設置하고 國家의 積極的인 後援아래 劉放(1023~1089)이 前漢과 後漢을, 劉恕(1032~1078)가 三國부터 南北朝까지를, 范祖禹(1041~1098)가 唐朝 및 五代를 각각 分擔·記述하여 着手한지 19년만인 元豐 7(1084)년에 戰國의 周 威烈王 23(BC 403)년에서 五代 後周의 顯德 6(959)년에 이르는 1,362년간의 歷事를 294卷으로 編年하여 撰進하였다. 編纂 當時까지의 正史는 물론 實錄·野史·小說·墓誌類 등 무려 322種의 各種 資料를 參考로 하여 『春秋左氏傳』의 書法에 따라 撰進되자, 神宗은 “지난 歷史를 거울삼아 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意味에서 ‘資治通鑑’이라는 書名과 序文을 내렸다. 溫公이 『資治通鑑』을 撰述한 目的은 歷代의 史實을 밝혀 政治의 規範으로 삼고 王朝의 興亡盛衰의 原因과 大義名分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史實을 있는 그대로 記述하지 않고 독특한 史觀으로 記事를 選擇하였으며, 政治나 人物의 得失을 評論하여 鑑戒가 될 만한 史蹟들을 주로 拾錄하였다. 또한 編年에 있어서도 三國의 경우에는 魏朝의 年號를, 南北朝의 경우에는 南朝의 年號로 각각 正統을 明示하였다. 특히 重要한 記事에는 ‘臣光曰’이라는 按語로 溫公 自身의 評論을 添加하고 있어, 溫公의 史觀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史實의 眞僞與否에 대해서는 溫公 자신이 별도로 『通鑑考異』 30卷을 著述하여 史實의 考證에 參考가 되도록 하였으며, <通鑑目錄>과 <通鑑釋例>에는 目錄과 凡例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溫公은 『稽古錄』을 著述하여 不足한 『資治通鑑』의 內容을 補充하고 있다. 『資治通鑑』은 魏朝로 紀年을 삼아 直筆한데 반해, 朱子(1130~1200)는 溫公의 이러한 史筆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溫公은 삼국의 曹魏가 後漢을 繼承한 正統으로 認定하여 <魏紀>를 記述하였으나, 朱子は 溫公의 이러한 史觀을 問題로 여겨 昭烈帝(劉備)가 후한 獻帝를 이어 그 遺統을 繼承한 것으로 바로 잡아 『資

「資治通鑑綱目」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資治通鑑」은 “天地間에 없어서는 안 될 書籍인 동시에 學者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書籍”이라는 王鳴聲(1722~1797)의 評價처럼 學者들의 必讀書가 되면서 많은 註釋書가 編纂되었다. 그 중 劉安世(1048~1125)의 「資治通鑑音義」는 이미 失傳되었고, 比較的 完全한 狀態로 傳해지는 것이 南宋 史炤(1090~?)의 「資治通鑑釋文」과 王應麟(1223~1296)의 「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대한 全面的인 註釋書는 宋末元初의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註」이며, 이것이 通行本이다. 「資治通鑑」의 版本은 元代 以後로 거의 모든 版本이 胡三省의 註釋本이며, 祖本은 元祐年間에 刊行된 杭州刻本이나 이조차도 이미 失傳되고 紹興 2(1132)년에 余姚에서 刊行된 重刻本이 現存하고 있다.

「資治通鑑」의 卷次別 詳細目錄은 다음과 같다.

-卷001; 周紀一(起著雍攝提格盡玄默困敦凡三十五年). 威烈王二十三年(戊寅·紀元前四零三年)~威烈王七年(壬子·紀元前三六九年). -卷002; 周紀二(起昭陽赤奮若盡上章困敦凡四十八年). 顯王元年(癸丑·紀元前三六八年)~顯王四十八年(庚子·紀元前三二一年). -卷003; 周紀三(起重光赤奮若盡昭陽大淵獻凡二十三年). 慎靚王元年(辛丑·紀元前三二零年)~慎靚王十七年(癸亥·紀元前二九八年). -卷004; 周紀四(起闕逢困敦盡著雍困敦凡二十五年). 赧王中十八年(甲子·紀元前二九七年)~赧王中四十二年(戊子·紀元前二七三年). -卷005; 周紀五(起屠維赤奮若盡旃蒙大荒落凡十七年). 赧王下四十三年(己丑·紀元前二七二年)~赧王下五十九年(乙巳·紀元前二五六年). -卷006; 秦紀一(起柔兆敦牂盡昭陽作噩凡二十八年). 昭襄王五十二年(丙午·紀元前二五五年)~昭襄王十九年(癸酉·紀元前二二八年). -卷007; 秦紀二(起闕逢閹茂盡玄默執徐凡十九年). 始皇帝下二十年(甲戌·紀元前二二七年)~始皇帝下元年(壬辰·紀元前二零九年). -卷008; 秦紀三(起昭陽大荒落盡闕逢敦牂凡二年). 二世皇帝下二年(癸巳·紀元前二零八年)~二世皇帝下三年(甲午·前二零七年). -卷009; 漢紀一(起旃蒙協洽盡柔兆涖灘凡二年). 太祖高皇帝上之上元年(乙未·紀元前二零六年)~太祖高皇帝上之上二年(丙申·紀元前二零五年). -卷010; 漢紀二(起彊圉作噩盡著雍閹茂凡二年). 太祖高皇帝上之下三年(丁酉·紀元前二零四年)~太祖高皇帝上之下四年(戊戌·紀元前二零三年). -卷011; 漢紀三(起屠維大淵獻盡重光赤奮若凡三年). 太祖高皇帝中五年(己亥·紀元前二零二年)~太祖高皇帝中七年(辛丑·紀元前二零零年). -卷012; 漢紀四(起玄默攝提格盡昭陽赤奮若凡十二年). 太祖高皇帝下八年(壬寅·紀元前一九九九年)~太祖高皇帝下七年(癸丑·紀元前一八八年). -卷013; 漢紀五(起闕逢攝提格盡昭陽大淵獻凡十年). 高皇后元年(甲寅·紀元前一八七年)~高皇后二年(癸亥·紀元前一七八年). -卷014; 漢紀六(起闕逢困敦盡重光協洽凡八年). 太宗孝文皇帝中前三年(甲子·紀元前一七七年)~太宗孝文皇帝中十年(辛未·紀元前一七零年). -卷015; 漢紀七(起玄默涖灘盡柔兆閹茂凡十五年). 太宗孝文皇帝下前十一年(壬申·紀元前一六九年)~太宗孝文皇帝下二年(丙戌·紀元前一五五年). -卷016; 漢紀八(起彊圉大淵獻盡上章困敦凡十四年). 孝景皇帝下前三年(丁亥·紀元前

一五四年)~孝景皇帝下三年(庚子·紀元前一四一年)。-卷017; 漢紀九(起重光赤奮若盡疆圉協洽凡七年)。世宗孝武皇帝上之上建元元年(辛丑·紀元前一四零年)~世宗孝武皇帝上之上元光元年(丁未·紀元前一三四年)。-卷018; 漢紀十(起著雍灘盡柔兆執徐凡九年)。世宗孝武皇帝上之下元光二年(戊申·紀元前一三三年)~世宗孝武皇帝上之下元朔四年(丙辰·紀元前一二五年)。-卷019; 漢紀十一(起疆圉大荒落盡玄默闍茂凡六年)。世宗孝武皇帝中之上元朔五年(丁巳·紀元前一二四年)~世宗孝武皇帝中之上元狩四年(壬戌·紀元前一一九年)。-卷020; 漢紀十二(起昭陽大淵獻盡重光協洽凡九年)。世宗孝武皇帝中之下元狩五年(癸亥·紀元前一一八年)~世宗孝武皇帝中之下元封元年(辛未·紀元前一二零年)。-卷021; 漢紀十三(起玄默涿灘盡玄默敦牂凡十一年)。世宗孝武皇帝下之上元封二年(壬申·紀元前一零九年)~世宗孝武皇帝下之上天漢二年(壬午·紀元前九九年)。-卷022; 漢紀十四(起昭陽協洽盡闕逢敦牂凡十二年)。世宗孝武皇帝下之下天漢三年(癸未·紀元前九八年)~世宗孝武皇帝下之下后元二年(甲午·紀元前八七年)。-卷023; 漢紀十五(起旃蒙協洽盡柔兆敦牂凡十二年)。孝昭皇帝上始元元年(乙未·紀元前八六年)~孝昭皇帝上元鳳六年(丙午·紀元前七五年)。-卷024; 漢紀十六(起疆圉協洽盡昭陽赤奮若凡七年)。孝昭皇帝下元平元年(丁未·紀元前七四年)~孝昭皇帝下地節二年(癸丑·紀元前六八年)。-卷025; 漢紀十七(起闕逢攝提格盡屠維協洽凡六年)。中宗孝宣皇帝上之下地節三年(甲寅·紀元前六七年)~中宗孝宣皇帝上之下元康四年(己未·紀元前六二年)。-卷026; 漢紀十八(起上章涿灘盡玄默闍茂凡三年)。中宗孝宣皇帝中神爵元年(庚申·紀元前六一年)~中宗孝宣皇帝中神爵三年(壬戌·紀元前五九年)。-卷027; 漢紀十九(起昭陽太淵獻盡玄默涿灘凡十年)。中宗孝宣皇帝下神爵四年(癸亥·紀元前五八年)~中宗孝宣皇帝下黃龍元年(壬申·紀元前四九年)。-卷028; 漢紀二十(起昭陽作噩盡屠維單闕凡七年)。孝元皇帝上初元元年(癸酉·紀元前四八年)~孝元皇帝上永光二年(己卯·紀元前四二年)。-卷029; 漢紀二十一(起上章執徐盡著雍困敦凡九年)。孝元皇帝下永光三年(庚辰·紀元前四一年)~孝元皇帝下竟寧元年(戊子·紀元前三三年)。-卷030; 漢紀二十二(起屠維赤奮若盡著雍闍茂凡十年)。孝成皇帝上之上建始元年(己丑·紀元前三二年)~孝成皇帝上之上陽朔二年(戊戌·紀元前二三年)。-卷031; 漢紀二十三(起屠維大淵獻盡疆圉協洽凡九年)。孝成皇帝上之下陽朔三年(己亥·紀元前二二年)~孝成皇帝上之下永始三年(丁未·紀元前一四年)。-卷032; 漢紀二十四(起著雍涿灘盡昭陽赤奮若凡六年)。孝成皇帝中永始四年(戊申·紀元前一三年)~孝成皇帝中綏和元年(癸丑·紀元前八年)。-卷033; 漢紀二十五(起闕逢攝提格盡旃蒙單闕凡二年)。孝成皇帝下綏和二年(甲寅·紀元前七年)~孝成皇帝下建平元年(乙卯·紀元前六年)。-卷034; 漢紀二十六(起柔兆執徐盡著雍敦牂凡三年)。孝哀皇帝中建平二年(丙辰·紀元前五年)~孝哀皇帝中建平四年(戊午·紀元前三年)。-卷035; 漢紀二十七(起屠維協洽盡玄默闍茂凡四年)。孝哀皇帝下元壽元年(己未·紀元前二年)~孝哀皇帝下元始二年(壬戌·二年)。-卷036; 漢紀二十八(起昭陽大淵獻盡著雍執徐凡六年)。孝平皇帝下元始三年(癸亥·三年)~孝平皇帝下初始元年(戊辰·八年)。-卷037; 漢紀二十九(起屠維大荒落盡闕逢闍茂凡六年)。王莽中始建

國元年(己巳·九年)~王莽中天鳳元年(甲戌·一四年). -卷038; 漢紀三十(起旃蒙大淵獻盡玄默敦牂凡八年). 王莽下天鳳二年(乙亥·一五年)~王莽下地皇三年(壬午·二二年). -卷039; 漢紀三十一(起昭陽協洽盡闕逢涪灘凡二年). 淮陽王更始元年(癸未·二三年)~淮陽王更始二年(甲申·二四年). -卷040; 漢紀三十二(起旃蒙作噩盡柔兆闔茂凡二年). 世祖光武皇帝上之上建武元年(乙酉·二五年)~世祖光武皇帝上之上建武二年(丙戌·二六年). -卷041; 漢紀三十三(起疆圉大淵獻盡屠維赤奮若凡三年). 世祖光武皇帝上之下建武三年(丁亥·二七年)~世祖光武皇帝上之下建武五年(己丑·二九年). -卷042; 漢紀三十四(起上章攝提格盡旃蒙協洽凡六年). 世祖光武皇帝中之上建武六年(庚寅·三零年)~世祖光武皇帝中之上建武十一年(乙未·三五年). -卷043; 漢紀三十五(起柔兆涪灘盡柔兆敦牂凡十一年). 世祖光武皇帝建武十二年(丙申·三六年)~世祖光武皇帝中之下建武二十二年(丙午·四六年). -卷044; 漢紀三十六(起疆圉協洽盡上章涪灘凡十四年). 世祖光武皇帝下建武二十三年(丁未·四七年)~世祖光武皇帝下永平三年(庚申·六零年). -卷045; 漢紀三十七(起重光作噩盡旃蒙大淵獻凡十五年). 顯宗孝明皇帝下永平四年(辛酉·六一年)~顯宗孝明皇帝下永平十八年(乙亥·七五年). -卷046; 漢紀三十八(起柔兆困敦盡闕逢涪灘凡九年). 肅宗孝章皇帝上建初元年(丙子·七六年)~肅宗孝章皇帝上元和元年(甲申·八四年). -卷047; 漢紀三十九(起旃蒙作噩盡重光單闕凡七年). 肅宗孝章皇帝下元和二年(乙酉·八五年)~肅宗孝章皇帝下永元三年(辛卯·九一年). -卷048; 漢紀四十(起玄默執徐盡旃蒙大荒落凡十四年). 孝和皇帝下永元四年(壬辰·九二年)~孝和皇帝下元興元年(乙巳·一零五年). -卷049; 漢紀四十一(起柔兆敦牂盡旃蒙單闕凡十年). 孝殤皇帝延平元年(丙午·一零六年)~孝殤皇帝元初二年(乙卯·一一五年). -卷050; 漢紀四十二(起柔兆執徐盡闕逢困敦凡九年). 孝安皇帝元初三年(丙辰·一一六年)~孝安皇帝三年(甲子·一二四). -卷051; 漢紀四十三(起旃蒙赤奮若盡昭陽作噩凡九年). 孝安皇帝下延光四年(乙丑·一二五年)~孝安皇帝下陽嘉二年(癸酉·一三三年). -卷052; 漢紀四十四(起闕逢闔茂盡旃蒙作噩凡十二年). 孝順皇帝下陽嘉三年(甲戌·一三四年)~孝順皇帝下永嘉元年(乙酉·一四五年). -卷053; 漢紀四十五(起柔兆闔茂盡柔兆涪灘凡十一年). 孝質皇帝本初元年(丙戌·一四六年)~孝質皇帝永壽二年(丙申·一五六年). -卷054; 漢紀四十六(起疆圉作噩盡昭陽單闕凡七年). 孝桓皇帝上之下永壽三年(丁酉·一五七年)~孝桓皇帝上之下延熹六年(癸卯·一六三年). -卷055; 漢紀四十七(起闕逢執徐盡柔兆敦牂凡三年). 孝桓皇帝中延熹七年(甲辰·一六四年)~孝桓皇帝中延熹九年(丙午·一六六年). -卷056; 漢紀四十八(起疆圉協洽盡重光大淵獻凡五年). 孝桓皇帝下永康元年(丁未·一六七年)~孝桓皇帝下建寧四年(辛亥·一七一年). -卷057; 漢紀四十九(起玄默困敦盡上章涪灘凡九年). 孝靈皇帝上之下熹平元年(壬子·一七二年)~孝靈皇帝上之下光和三年(庚申·一八零年). -卷058; 漢紀五十(起重光作噩盡疆圉單闕凡七年). 孝靈皇帝中光和四年(辛酉·一八一年)~孝靈皇帝中中平四年(丁卯·一八七年). -卷059; 漢紀五十一(起著雍執徐盡上章敦牂凡三年). 孝靈皇帝下中平五年(戊辰·一八八年)~孝靈皇帝下初平元年(庚午·一九零年). -卷060; 漢紀五十二(起重光協洽盡昭陽作噩凡三年). 孝獻皇帝

乙初平二年(辛未·一九一年)~孝獻皇帝乙初平四年(癸酉·一九三年). -卷061; 漢紀五十三(起關逢闞茂盡旃蒙大淵獻凡二年). 孝獻皇帝丙興平元年(甲戌·一九四年)~孝獻皇帝丙興平二年(乙亥·一九五年). -卷062; 漢紀五十四(起柔兆困敦盡著雍攝提格凡三年). 孝獻皇帝丁建安元年(丙子·一九六年)~孝獻皇帝丁建安三年(戊寅·一九八年). -卷063; 漢紀五十五(起屠維單閼盡上章執徐凡二年). 孝獻皇帝戊建安四年(己卯·一九九年)~孝獻皇帝戊建安五年(庚辰·二零零年). -卷064; 漢紀五十六(起重光大荒落盡旃蒙作噩凡五年). 孝獻皇帝己建安六年(辛巳·二零一年)~孝獻皇帝己建安十年(乙酉·二零五年). -卷065; 漢紀五十七(起柔兆闞茂盡著雍困敦凡三年). 孝獻皇帝庚建安十一年(丙戌·二零六年)~孝獻皇帝庚建安十三年(戊子·二零八年). -卷066; 漢紀五十八(起屠維赤奮若盡昭陽大荒落凡五年). 孝獻皇帝辛建安十四年(己丑·二零九年)~孝獻皇帝辛建安十八年(癸巳·二一三年). -卷067; 漢紀五十九(起關逢敦牂盡柔兆涓灘凡三年). 孝獻皇帝壬建安十九年(甲午·二一四年)~孝獻皇帝壬建安二十一年(丙申·二一六年). -卷068; 漢紀六十(起強圜作噩盡屠維大淵獻凡三年). 孝獻皇帝癸建安二十二年(丁酉·二一七年)~孝獻皇帝癸建安二十四年(己亥·二一九年). -卷069; 魏紀一(起上章困敦盡玄默攝提格凡三年). 世祖文皇帝上黃初元年(庚子·二二零年)~世祖文皇帝上黃初三年(壬寅·二二二年). -卷070; 魏紀二(起昭陽單閼盡彊圜協洽凡五年). 世祖文皇帝下黃初四年(癸卯·二二三年)~世祖文皇帝下太和元年(丁未·二二七年). -卷071; 魏紀三(起著雍涓灘盡上章闞茂凡三年). 烈祖明皇帝上之下太和二年(戊申·二二八年)~烈祖明皇帝上之下太和四年(庚戌·二三零年). -卷072; 魏紀四(起重光大淵獻盡關逢攝提格凡四年). 烈祖明皇帝中之上太和五年(辛亥·二三一年)~烈祖明皇帝中之上青龍二年(甲寅·二三四年). -卷073; 魏紀五(起旃蒙單閼盡彊圜大荒落凡三年). 烈祖明皇帝中之下青龍三年(乙卯·二三五年)~烈祖明皇帝中之下景初元年(丁巳·二三七年). -卷074; 魏紀六(起著雍敦牂盡旃蒙赤奮若凡八年). 烈祖明皇帝下景初二年(戊午·二三八年)~烈祖明皇帝下正始六年(乙丑·二四五年). -卷075; 魏紀七(起柔兆攝提格盡玄默涓灘凡七年). 邵陵厲公中正始七年(丙寅·二四六年)~邵陵厲公中嘉平四年(壬申·二五二年). -卷076; 魏紀八(起昭陽作噩盡旃蒙大淵獻凡三年). 邵陵厲公下嘉平五年(癸酉·二五三年)~邵陵厲公下正元二年(乙亥·二五五年). -卷077; 魏紀九(起柔兆困敦盡重光大荒落凡六年). 高貴鄉公下甘露元年(丙子·二五六年)~高貴鄉公下景元二年(辛巳·二六一年). -卷078; 魏紀十(起玄默敦牂盡關逢涓灘凡三年). 元皇帝下景元三年(壬午·二六二年)~元皇帝下景元四年(癸未·二六三年). -卷079; 晉紀一(起旃蒙作噩盡玄默執徐凡八年). 世祖武皇帝上之上泰始元年(乙酉, 二六五年)~世祖武皇帝上之上泰始八年(壬辰·二七二年). -卷080; 晉紀二(起昭陽大荒落盡屠維大淵獻凡七年). 世祖武皇帝上之下泰始九年(癸巳·二七三年)~世祖武皇帝上之下咸寧五年(己亥·二七九年). -卷081; 晉紀三(起上章困敦盡著雍涓灘凡九年). 世祖武皇帝中太康元年(庚子·二八零年)~世祖武皇帝中太康九年(戊申·二八八年). -卷082; 晉紀四(起屠維作噩盡著雍郭牂凡十年). 世祖武皇帝下太康十年(己酉·二八九年)~世祖武皇帝下元康八年(戊午·二九八年). -卷083; 晉紀五(起屠維協洽盡目

章涪灘凡二年). 孝惠皇帝上之下元康九年(己未·二九九年)~孝惠皇帝上之下永康元年(庚申·三零零年). -卷084; 晉紀六(起重光作噩盡玄默闞茂凡二年). 孝惠皇帝中之上永寧元年(辛酉·三零一年)~孝惠皇帝中之上太安元年(壬戌·三零二年). -卷085; 晉紀七(起昭陽大淵獻盡闞逢困敦凡二年). 孝惠皇帝中之下太安二年(癸亥·三零三年)~孝惠皇帝中之下永興元年(甲子·三零四年). -卷086; 晉紀八(起旃蒙赤奮若盡著雍執徐凡四年). 孝惠皇帝下永興二年(乙丑·三零五年)~孝惠皇帝下永嘉二年(戊辰·三零八年). -卷087; 晉紀九(起屠維大荒落盡重光協洽凡三年). 孝懷皇帝中永嘉三年(己巳·三零九年)~孝懷皇帝中永嘉五年(辛未·三一一年). -卷088; 晉紀十(起玄默涪灘盡昭陽作噩凡二年). 孝懷皇帝下永嘉六年(壬申·三一二年)~孝懷皇帝下建興元年(癸酉·三一三年). -卷089; 晉紀十一(起闞逢闞茂盡柔兆困敦凡三年). 孝愍皇帝下建興二年(甲戌·三一四年)~孝愍皇帝下建興四年(丙子·三一六年). -卷090; 晉紀十二(起彊圉赤奮若盡著雍攝提格凡二年). 中宗元皇帝上建武元年(丁丑·三一七年)~中宗元皇帝上太興元年(戊寅·三一八年). -卷091; 晉紀十三(起屠維單闞盡重光大荒落凡三年). 中宗元皇帝中太興二年(己卯·三一九年)~中宗元皇帝中太興四年(辛巳·三二一年). -卷092; 晉紀十四(起玄默敦牂盡昭陽協洽凡二年). 中宗元皇帝下永昌元年(壬午·三二二年)~中宗元皇帝下太寧元年(癸未·三二三年). -卷093; 晉紀十五(起闞逢涪灘盡彊圉大淵獻凡四年). 肅宗明皇帝下太寧二年(甲申·三二四年)~肅宗明皇帝下咸和二年(丁亥·三二七年). -卷094; 晉紀十六(起著雍困敦盡重光單闞凡四年). 顯宗成皇帝上之下咸和三年(戊子·三二八年)~顯宗成皇帝上之下咸和六年(辛卯·三三一年). -卷095; 晉紀十七(起玄默執徐盡彊圉作噩凡六年). 顯宗成皇帝中之上咸和七年(壬辰·三三二年)~顯宗成皇帝中之上咸康三年(丁酉·三三七年). -卷096; 晉紀十八(起著雍淹茂盡重光赤奮若凡四年). 顯宗成皇帝中之下咸康四年(戊戌·三三八年)~顯宗成皇帝中之下咸康七年(辛丑·三四一年). -卷097; 晉紀十九(起玄默攝提格盡彊圉協洽凡六年). 顯宗成皇帝下咸康八年(壬寅·三四二年)~顯宗成皇帝下永和三年(丁未·三四七年). -卷098; 晉紀二十(起著雍涪灘盡上章淹茂凡三年). 孝宗穆皇帝上之下永和四年(戊申·三四八年)~孝宗穆皇帝上之下永和六年(庚戌·三五零年). -卷099; 晉紀二十一(起重光大淵獻盡闞逢攝提格凡四年). 孝宗穆皇帝中之上永和七年(辛亥·三五一年)~孝宗穆皇帝中之上永和十年(甲寅·三五四年). -卷100; 晉紀二十二(起旃蒙單闞盡屠維協洽凡五年). 孝宗穆皇帝中之下永和十一年(乙卯·三五五年)~孝宗穆皇帝中之下升平三年(己未·三五九年). -卷101; 晉紀二十三(起上章涪灘盡著雍執徐凡九年). 孝宗穆皇帝下升平四年(庚申·三六零年)~孝宗穆皇帝下太和三年(戊辰·三六八年). -卷102; 晉紀二十四(起屠維大荒落盡上章敦牂凡二年). 海西公下太和四年(己巳·三六九年)~海西公下太和五年(庚午·三七零年). -卷103; 晉紀二十五(起重光協洽盡旃蒙大淵獻凡五年). 太宗簡文皇帝咸安元年(辛未·三七一年)~太宗簡文皇帝寧康三年(乙亥·三七五年). -卷104; 晉紀二十六(起柔兆困敦盡玄默敦牂凡七年). 烈宗孝武皇帝上之中太元元年(丙子·三七六年)~烈宗孝武皇帝上之中太元七年(壬午·三八二年). -卷105; 晉紀二十七

(起昭陽協洽盡闕逢涪灘凡二年). 烈宗孝武皇帝上之下太元八年(癸未·三八三年)~烈宗孝武皇帝上之下太元九年(甲申·三八四年). -卷106; 晉紀二十八(起旃蒙作噩盡柔兆闕茂凡二年). 烈宗孝武皇帝中之上太元十年(乙酉·三八五年)~烈宗孝武皇帝中之上太元十一年(丙戌·三八六年). -卷107; 晉紀二十九(起彊圉大淵獻盡重光單闕凡五年). 烈宗孝武皇帝中之下太元十二年(丁亥·三八七年)~烈宗孝武皇帝中之下太元十六年(辛卯·三九一年). -卷108; 晉紀三十(起玄默執徐盡柔兆涪灘凡五年). 烈宗孝武皇帝下太元十七年(壬辰·三九二年)~烈宗孝武皇帝下太元二十一年(丙申·三九六年). -卷109; 晉紀三十一(彊圉作噩一年). 安皇帝甲隆安元年(丁酉·三九七年). -卷110; 晉紀三十二(著雍闕茂一年). 安皇帝乙隆安二年(戊戌·三九八年). -卷111; 晉紀三十三(起屠維大淵獻盡上章困敦凡二年). 安皇帝丙隆安三年(己亥·三三九年)~安皇帝丙隆安四年(庚子·四零零年). -卷112; 晉紀三十四(起重光赤奮若盡玄默攝提格凡二年). 安皇帝丁隆安五年(辛丑·四零一年)~安皇帝丁元興元年(壬寅·四零二年). -卷113; 晉紀三十五(起昭陽單闕盡闕逢執徐凡二年). 安皇帝戊元興二年(癸卯·四零三年)~安皇帝戊元興三年(甲辰·四零四年). -卷114; 晉紀三十六(起旃蒙大荒落盡著雍涪灘凡四年). 安皇帝己義熙元年(乙巳·四零五年)~安皇帝己義熙四年(戊申·四零八年). -卷115; 晉紀三十七(起屠維作噩盡上章闕茂凡二年). 安皇帝庚義熙五年(己酉·四零九年)~安皇帝庚義熙六年(庚戌·四一零年). -卷116; 晉紀三十八(起重光大淵獻盡闕逢攝提格凡四年). 安皇帝辛義熙七年(辛亥·四一一年)~安皇帝辛義熙十年(甲寅·四一四年). -卷117; 晉紀三十九(起旃蒙單闕盡柔兆執徐凡二年). 安皇帝壬義熙十一年(乙卯·四一五年)~安皇帝壬義熙十二年(丙辰·四一六年). -卷118; 晉紀四十(起彊圉大荒落盡屠維協洽凡三年). 安皇帝癸義熙十三年(丁巳·四一七年)~安皇帝癸元熙元年(己未·四一九年). -卷119; 宋紀一(起上章涪灘盡昭陽大淵獻凡四年). 高祖武皇帝永初元年(庚申·四二零年)~高祖武皇帝景平元年(癸亥·四二三年). -卷120; 宋紀二(起闕逢困敦盡彊圉單闕凡四年). 太祖文皇帝上之上元嘉元年(甲子·四二四年)~太祖文皇帝上之上元嘉四年(丁卯·四二七年). -卷121; 宋紀三(起著雍執徐盡上章敦牂凡三年). 太祖文皇帝上之中元嘉五年(戊辰·四二八年)~太祖文皇帝上之中元嘉七年(庚午·四三零年). -卷122; 宋紀四(起重光協洽盡旃蒙大淵獻凡五年). 太祖文皇帝上之下元嘉八年(辛未·四三一年)~太祖文皇帝上之下元嘉十二年(乙亥·四三五年). -卷123; 宋紀五(起柔兆困敦盡重光大荒落凡六年). 太祖文皇帝中之上元嘉十三年(丙子·四三六年)~太祖文皇帝中之上元嘉十八年(辛巳·四四一年). -卷124; 宋紀六(起玄默敦牂盡柔兆闕茂凡五年). 太祖文皇帝中之中元嘉十九年(壬午·四四二年)~太祖文皇帝中之中元嘉二十三年(丙戌·四四六年). -卷125; 宋紀七(起彊圉大淵獻盡上章攝提格凡四年). 太祖文皇帝中之下元嘉二十四年(丁亥·四四七年)~太祖文皇帝中之下元嘉二十七年(庚寅·四五零年). -卷126; 宋紀八(起重光單闕盡玄默執徐凡二年). 太祖文皇帝下之上元嘉二十八年(辛卯·四五一年)~太祖文皇帝下之上元嘉二十九年(壬辰·四五二年). -卷127; 宋紀九(昭陽大荒落一年). 太祖文皇帝下之下元嘉三十年(癸巳·四五三年). -卷128; 宋紀十(起闕逢敦牂盡著雍闕茂凡五年). 世祖

孝武皇帝上孝建元年(甲午·四五四年)~世祖孝武皇帝上大明二年(戊戌·四五八年). -卷129; 宋紀十一(起屠維大淵獻盡闕逢執徐凡六年). 世祖孝武皇帝下大明三年(己亥·四五九年)~世祖孝武皇帝下大明八年(甲辰·四六四年). -卷130; 宋紀十二(旃蒙大荒落一年). 太宗明皇帝上之上泰始元年(乙巳·四六五年). -卷131; 宋紀十三(柔兆敦牂一年). 太宗明皇帝上之下泰始二年(丙午·四六六年). -卷132; 宋紀十四(起彊圉協洽盡上章闔茂凡四年). 太宗明皇帝中泰始三年(丁未·四六七年)~太宗明皇帝中泰始六年(庚戌·四七零年). -卷133; 宋紀十五(起重光大淵獻盡旃蒙單闕凡五年). 太宗明皇帝下泰始七年(辛亥·四七一年)~太宗明皇帝下元徽三年(乙卯·四七五年). -卷134; 宋紀十六(起柔兆執徐盡著雍敦牂凡三年). 蒼梧王下元徽四年(丙辰·四七六年)~蒼梧王下升明二年(戊午·四七八年). -卷135; 齊紀一(起屠維協洽盡昭陽大淵獻凡五年). 太祖高皇帝建元元年(己未·四七九年)~太祖高皇帝永明元年(癸亥·四八三年). -卷136; 齊紀二(起闕逢困敦盡屠維大荒落凡六年). 世祖武皇帝上之下永明二年(甲子·四八四年)~世祖武皇帝上之下永明七年(己巳·四八九年). -卷137; 齊紀三(起上章敦牂盡玄默涓灘凡三年). 世祖武皇帝中永明八年(庚午·四九零年)~世祖武皇帝中永明十年(壬申·四九二年). -卷138; 齊紀四(昭陽作噩一年). 世祖武皇帝下永明十一年(癸酉·四九三年). -卷139; 齊紀五(闕逢闔茂一年). 高宗明皇帝上建武元年(甲戌·四九四年). -卷140; 齊紀六(起旃蒙大淵獻盡柔兆困敦凡二年). 高宗明皇帝中建武二年(乙亥·四九五年)~高宗明皇帝中建武三年(丙子·四九六年). -卷141; 齊紀七(起彊圉赤奮若盡著雍攝提格凡二年). 高宗明皇帝下建武四年(丁丑·四九七年)~高宗明皇帝下永泰元年(戊寅·四九八年). -卷142; 齊紀八(屠維單闕一年). 東昏侯上永元元年(己卯·四九九年). -卷143; 齊紀九(上章執徐一年). 東昏侯下永元二年(庚辰·五零零年). -卷144; 齊紀十(重光大荒落一年). 和皇帝中興元年(辛巳·五零一年). -卷145; 梁紀一(起玄默敦牂盡闕逢涓灘凡三年). 高祖武皇帝一天監元年(壬午·五零二年)~高祖武皇帝一天監三年(甲申·五零四年). -卷146; 梁紀二(起旃蒙作噩盡彊圉大淵獻凡三年). 高祖武皇帝二天監四年(乙酉·五零五年)~高祖武皇帝二天監六年(丁亥·五零七年). -卷147; 梁紀三(起著雍困敦盡闕逢敦牂凡七年). 高祖武皇帝三天監七年(戊子·五零八年)~高祖武皇帝三天監十三年(甲午·五一四年). -卷148; 梁紀四(起旃蒙協洽盡著雍闔茂凡四年). 高祖武皇帝四天監十四年(乙未·五一五年)~高祖武皇帝四天監十七年(戊戌·五一八年). -卷149; 梁紀五(起屠維大淵獻盡昭陽單闕凡五年). 高祖武皇帝五天監十八年(己亥·五一九年)~高祖武皇帝五普通四年(癸卯·五二三年). -卷150; 梁紀六(起闕逢執徐盡旃蒙大荒落凡二年). 高祖武皇帝六普通五年(甲辰·五二四年)~高祖武皇帝六普通六年(乙巳·五二五年). -卷151; 梁紀七(趙柔兆敦牂盡彊圉協洽凡二年). 高祖武皇帝七普通七年(丙午·五二六年)~高祖武皇帝七大通元年(丁未·五二七年). -卷152; 梁紀八(著雍涓灘一年). 高祖武皇帝八大通二年(戊申·五二八年). -卷153; 梁紀九(屠維作噩一年). 高祖武皇帝九中大通元年(己酉·五二九年). -卷154; 梁紀十(上章闔茂一年). 高祖武皇帝十中大通二年(庚戌·五三零年). -卷155; 梁紀十一(起重光大淵獻盡玄默困敦凡二年). 高祖武皇帝十一中大通三年(辛

亥·五三一年)~高祖武皇帝十一中大通四年(壬子·五三二年). -卷156; 梁紀十二(起昭陽赤奮若盡闕逢攝提格凡二年). 高祖武皇帝十二中大通五年(癸丑·五三三年)~高祖武皇帝十二中大通六年(甲寅·五三四年). -卷157; 梁紀十三(起旃蒙單闕盡彊圉大荒落凡三年). 高祖武皇帝十三大同元年(乙卯·五三五年)~高祖武皇帝十三大同三年(丁巳·五三七年). -卷158; 梁紀十四(起著雍敦牂盡闕逢困敦凡七年). 高祖武皇帝十四大同四年(戊午·五三八年)~高祖武皇帝十四大同十年(甲子·五四四年). -卷159; 梁紀十五(起旃蒙赤奮若盡柔兆攝提格凡二年). 高祖武皇帝十五大同十一年(乙丑·五四五年)~高祖武皇帝十五中大同元年(丙寅·五四六年). -卷160; 梁紀十六(彊圉單闕一年). 高祖武皇帝十六太清元年(丁卯·五四七年). -卷161; 梁紀十七(著雍執徐一年). 高祖武皇帝十七太清二年(戊辰·五四八年). -卷162; 梁紀十八(屠維大荒落一年). 高祖武皇帝十八太清三年(己巳·五四九年). -卷163; 梁紀十九(上章敦牂一年). 太宗簡文皇帝上大寶元年(庚午·五五零年). -卷164; 梁紀二十(起重光協洽盡玄默涓灘凡二年). 太宗簡文皇帝下大寶二年(辛未·五五一年)~太宗簡文皇帝下承聖元年(壬申·五五二年). -卷165; 梁紀二十一(起昭陽作噩盡闕逢闍茂凡二年). 世祖孝元皇帝下承聖二年(癸酉·五五三年)~世祖孝元皇帝下承聖三年(甲戌·五五四年). -卷166; 梁紀二十二(起旃蒙大淵獻盡柔兆困敦凡二年). 敬皇帝紹泰元年(乙亥·五五五年)~敬皇帝太平元年(丙子·五五六年). -卷167; 陳紀一(起彊圉赤奮若盡屠維單闕凡三年). 高祖武皇帝永定元年(丁丑·五五七年)~高祖武皇帝永定三年(己卯·五五九年). -卷168; 陳紀二(起上章執徐盡玄默敦牂凡三年). 世祖文皇帝上天嘉元年(庚辰·五六零年)~世祖文皇帝上天嘉三年(壬午·五六二年). -卷169; 陳紀三(起昭陽協洽盡柔兆闍茂凡四年). 世祖文皇帝下天嘉四年(癸未·五六三年)~世祖文皇帝下天康元年(丙戌·五六六年). -卷170; 陳紀四(起強圉大淵獻盡重光單闕凡五年). 臨海王光大元年(丁亥·五六七年)~臨海王太建三年(辛卯·五七一年). -卷171; 陳紀五(起玄默執徐盡闕逢敦凡三年). 高宗宣皇帝上之下太建四年(壬辰·五七二年)~高宗宣皇帝上之下太建六年(甲午·五七四年). -卷172; 陳紀六(起旃蒙協洽盡柔兆涓灘凡二年). 高宗宣皇帝中之上太建七年(乙未·五七五年)~高宗宣皇帝中之上太建八年(丙申·五七六年). -卷173; 陳紀七(起彊圉作噩盡屠維大淵獻凡三年). 高宗宣皇帝中之下太建九年(丁酉·五七七年)~高宗宣皇帝中之下太建十一年(己亥·五七九年). -卷174; 陳紀八(上章困敦一年). 高宗宣皇帝下之上太建十二年(庚子·五八零年). -卷175; 陳紀九(起重光赤奮若盡昭陽單闕凡三年). 高宗宣皇帝下之下太建十三年(辛丑·五八一年)~高宗宣皇帝下之下至德元年(癸卯·五八三年). -卷176; 陳紀十(起闕逢執徐盡著雍涓灘凡五年). 長城公下至德二年(甲辰·五八四年)~長城公下禎明二年(戊申·五八八年). -卷177; 隋紀一(起屠維作噩盡重光大淵獻凡三年). 高祖文皇帝上之上開皇九年(己酉·五八九年)~高祖文皇帝上之上開皇十一年(辛亥·五九一年). -卷178; 隋紀二(起玄默困敦盡屠維協洽凡八年). 高祖文皇帝上之下開皇十二年(壬子·五九二年)~高祖文皇帝上之下開皇十九年(己未·五九九年). -卷179; 隋紀三(起上章灘盡昭陽大淵獻凡四年). 高祖文皇帝中開皇二十年(庚申·六零零年)~高祖文皇帝中仁壽三年(癸亥·六零三年). -卷

180; 隋紀四(起關逢困敦盡彊圉單闕凡四年). 高祖文皇帝下仁壽四年(甲子·六零四年)~高祖文皇帝下大業三年(丁卯·六零七年). -卷181; 隋紀五(起著雍執徐盡玄默涪灘凡五年). 煬皇帝上之下大業四年(戊辰·六零八年)~煬皇帝上之下大業八年(壬申·六一二年). -卷182; 隋紀六(起昭陽作噩盡旃蒙大淵獻凡三年). 煬皇帝中大業九年(癸酉·六一三年)~煬皇帝中大業十一年(乙亥·六一五年). -卷183; 隋紀七(起柔兆困敦盡彊圉赤奮若五月凡一年有奇). 煬皇帝下大業十二年(丙子·六一六年)~煬皇帝下義寧元年(丁丑·六一七年). -卷184; 隋紀八(起強闕赤奮若六月不滿一年). 恭皇帝下義寧元年(丁丑·六一七年). -卷185; 唐紀一(起著雍攝提格正月盡七月不滿一年).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上之上武德元年(戊寅·六一八年). -卷186; 唐紀二(起著雍攝提格八月盡十二月不滿一年).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上之中武德元年(戊寅·六一八年). -卷187; 唐紀三(起屠維單闕正月盡十月不滿一年). 高祖神堯聖光孝皇帝上之下武德二年(己卯·六一九年). -卷188; 唐紀四(起屠維單闕十一月盡重光大荒落二月凡一年有奇).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中之上武德二年(己卯·六一九年)~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中之上武德四年(辛巳·六二一年). -卷189; 唐紀五(起重光大荒落三月盡十二月不滿一年).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中之中武德四年(辛巳·六二一年). -卷190; 唐紀六(起玄默敦牂盡闕逢涪灘五月凡二年有奇).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中之下武德五年(壬午·六二二年)~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中之下武德七年(甲申·六二四年). -卷191; 唐紀七(起關逢涪灘六月盡柔兆闕茂八月凡二年有奇).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下之上武德七年(甲申·六二四年)~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下之上武德九年(丙戌·六二六年). -卷192; 唐紀八(起柔兆闕茂九月盡著雍困敦七月凡二年). 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下之下武德九年(丙戌·六二六年)~高祖神堯大聖光孝皇帝下之下貞觀二年(戊子·六二八年). -卷193; 唐紀九(起著雍困敦九月盡重光單闕凡三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上之中貞觀二年(戊子·六二八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上之中貞觀五年(辛卯·六三一年). -卷194; 唐紀十(起玄默執徐盡彊圉作噩四月凡五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上之下貞觀六年(壬辰·六三二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上之下貞觀十一年(丁酉·六三七年). -卷195; 唐紀十一(起彊圉作噩五月盡上章困敦凡三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上貞觀十一年(丁酉·六三七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上貞觀十四年(庚子·六四零年). -卷196; 唐紀十二(起重光赤奮若盡昭陽單闕三月凡二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中貞觀十五年(辛丑·六四一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中貞觀十七年(癸卯·六四三年). -卷197; 唐紀十三(起昭陽單闕四月盡旃蒙大荒落五月凡二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下貞觀十七年(癸卯·六四三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中之下貞觀十九年(乙巳·六四五年). -卷198; 唐紀十四(起旃蒙大荒落六月盡著雍涪灘三月凡二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下之上貞觀十九年(乙巳·六四五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下之上貞觀二十二年(戊申·六四八年). -卷199; 唐紀十五(起著雍涪灘四月盡闕蒙單闕九月凡七年有奇). 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下之下貞觀二十二年(戊申·六四八年)~太宗文武大聖大廣孝皇帝下之下永徽六年(乙卯·六五五

年). -卷200; 唐紀十六(起旃蒙單闕十月盡玄默闍茂七月凡六年有奇). 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上之下永徽六年(乙卯·六五五年)~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上之下龍朔二年(壬戌·六六二年). -卷201; 唐紀十七(起玄默闍茂八月盡上章困敦凡八年有奇). 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中之上龍朔二年(壬戌·六六二年)~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中之上咸亨元年(庚午·六七零年). -卷202; 唐紀十八(起重光協洽盡重光大荒落凡十一年). 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中之下咸亨二年(辛未·六七一年)~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中之下開耀元年(辛巳·六八一年). -卷203; 唐紀十九(起玄默敦牂盡柔兆闍茂凡五年). 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下永淳元年(壬午·六八二年)~高宗天皇大聖大弘孝皇帝下垂拱二年(丙戌·六八六年). -卷204; 唐紀二十(起彊圉大淵獻盡重光單闕凡五年). 則天順聖皇后上之下垂拱三年(丁亥·六八七年)~則天順聖皇后上之下天授二年(辛卯·六九一年). -卷205; 唐紀二十一(起玄默執徐盡柔兆涪灘凡五年). 則天順聖皇后中之上長壽元年(壬辰·六九二年)~則天順聖皇后中之上萬歲通天元年(丙申·六九六年). -卷206; 唐紀二十二(起彊圉作噩盡上章困敦六月凡三年有奇). 則天順聖皇后中之下神功元年(丁酉·六九七年)~則天順聖皇后中之下久視元年(庚子·七零零年). -卷207; 唐紀二十三(起上章困敦七月盡旃蒙大荒落正月凡四年有奇). 則天順聖皇后下久視元年(庚子·七零零年)~則天順聖皇后下神龍元年(乙巳·七零五年). -卷208; 唐紀二十四(起旃蒙大荒落二月盡彊圉協洽凡二年有奇). 中宗大和大聖大昭孝皇帝中神龍元年(乙巳·七零五年)~中宗大和大聖大昭孝皇帝中景龍元年(丁未·七零七年). -卷209; 唐紀二十五(起著雍涪灘盡上章闍茂七月凡二年有奇). 中宗大和大聖大昭孝皇帝下景龍二年(戊申·七零八年)~中宗大和大聖大昭孝皇帝下景雲元年(庚戌·七一零年). -卷210; 唐紀二十六(起上章闍茂八月盡昭陽赤奮若凡三年有奇). 睿宗玄真大聖大興孝皇帝下景雲元年(庚戌·七一零年)~睿宗玄真大聖大興孝皇帝下開元元年(癸丑·七一三年). -卷211; 唐紀二十七(起闕逢攝提格盡彊圉大荒落凡四年).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上之中開元二年(甲寅·七一四年)~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上之中開元五年(丁巳·七一七年). -卷212; 唐紀二十八(起著雍敦牂盡旃蒙赤奮若凡八年).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上之下開元六年(戊午·七一八年)~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上之下開元十三年(乙丑·七二五年). -卷213; 唐紀二十九(起柔兆攝提格盡昭陽作噩凡八年).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中之上開元十四年(丙寅·七二六年)~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中之上開元二十一年(癸酉·七三三年). -卷214; 唐紀三十(起闕逢闍茂盡重光大荒落凡八年).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中之中開元二十二年(甲戌·七三四年)~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中之中開元二十九年(辛巳·七四一年). -卷215; 唐紀三十一(起玄默敦牂盡彊圉大淵獻十一月凡五年有奇).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中之下天寶元年(壬午·七四二年)~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中之下天寶六年(丁亥·七四七年). -卷216; 唐紀三十二(起彊圉大淵獻十二月盡昭陽大荒落凡六年有奇).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下之上天寶六年(丁亥·七四七年)~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下之上天寶十二年(癸巳·七五三年). -卷217; 唐紀三十三(起闕逢敦牂盡柔兆涪灘四月凡二年有奇).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下之下天寶十三年(甲午·七五四年)~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下之下至德元年(丙申·七五六年). -卷218; 唐紀三十四(起柔兆涸灘五月至九月不滿一年). 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上之下至德元年(丙申·七五六年). -卷219; 唐紀三十五(起柔兆涸灘十月盡彊圉作噩閏月不滿一年). 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中之上至德元年(丙申·七五六年)~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中之上至德二年(丁酉·七五七年). -卷220; 唐紀三十六(起強圉作噩九月盡著雍闍茂凡一年有奇). 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中之下至德二年(丁酉·七五七年)~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中之下乾元元年(戊戌·七五八年). -卷221; 唐紀三十七(起屠維大淵獻盡上章困敦凡二年). 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下之上乾元二年(己亥·七五九年)~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下之上上元元年(庚子·七六零年). -卷222; 唐紀三十八(起重光赤奮若盡昭陽單闕六月凡二年有奇). 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下之下上元二年(辛丑·七六一年)~肅宗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下之下廣德元年(癸卯·七六三年). -卷223; 唐紀三十九(起昭陽單闕七月盡旃蒙大荒落十月凡二年有奇). 代宗睿文孝武皇帝上之下廣德元年(癸卯·七六三年)~代宗睿文孝武皇帝上之下永泰元年(乙巳·七六五年). -卷224; 唐紀四十(起旃蒙大荒落閏月盡昭陽赤奮若凡八年有奇). 代宗睿文孝武皇帝中之上永泰元年(乙巳·七六五年)~代宗睿文孝武皇帝中之上大曆八年(癸丑·七七三年). -卷225; 唐紀四十一(起闕逢攝提格盡屠維協洽七月凡五年有奇). 代宗睿文孝武皇帝中之下大曆九年(甲寅·七七四年)~代宗睿文孝武皇帝中之下大曆十四年(己未·七七九年). -卷226; 唐紀四十二(起屠維協洽八月盡重光作噩五月凡一年有奇). 代宗睿文孝武皇帝下大曆十四年(己未·七七九年)~代宗睿文孝武皇帝下建中二年(辛酉·七八一年). -卷227; 唐紀四十三(起重光作噩六月盡玄默闍茂凡一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二建中二年(辛酉·七八一年)~德宗神武聖文皇帝二建中三年(壬戌·七八二年). -卷228; 唐紀四十四(起昭陽大淵獻正月盡十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三建中四年(癸亥·七八三年). -卷229; 唐紀四十五(起昭陽大淵獻十一月盡闕逢困敦正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四建中四年(癸亥·七八三年)~德宗神武聖文皇帝四興元元年(甲子·七八四年). -卷230; 唐紀四十六(起闕逢困敦二月盡四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五興元元年(甲子·七八四年). -卷231; 唐紀四十七(起闕逢困敦五月盡旃蒙赤奮若七月凡一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六興元元年(甲子·七八四年)~德宗神武聖文皇帝六貞元元年(乙丑·七八五年). -卷232; 唐紀四十八(起旃蒙赤奮若八月盡彊圉單闕七月凡二年). 德宗神武聖文皇帝七貞元元年(乙丑·七八五年)~德宗神武聖文皇帝七貞元三年(丁卯·七八七年). -卷233; 唐紀四十九(起彊圉闕八月盡重光協洽凡四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八貞元三年(丁卯·七八七年)~德宗神武聖文皇帝八貞元七年(辛未·七九一年). -卷234; 唐紀五十(起玄默涸灘盡闕逢闍茂五月凡二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九貞元八年(壬申·七九二年)~德宗神武聖文皇帝九貞元十年(甲戌·七九四年). -卷235; 唐紀五十一(起闕逢闍茂六月盡上章執徐凡六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十貞元十年(甲戌·七九四年)~德宗神武聖文皇帝十貞元十六年(庚辰·八零零年). -卷236; 唐紀五十二(起重光大荒落盡旃蒙作噩凡五年). 德宗神武聖文皇帝十一貞元十七年(辛巳·八零一

年)~德宗神武聖文皇帝十一永貞元年(乙酉·八零五年). -卷237; 唐紀五十三(起柔兆闍茂盡屠維赤奮若六月凡三年有奇). 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上之上元和元年(丙戌·八零六年)~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上之上元和四年(己丑·八零九年). -卷238; 唐紀五十四(起屠維赤奮若七月盡玄默執徐九月凡三年有奇). 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上之下元和四年(己丑·八零九年)~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上之下元和七年(壬辰·八一二年). -卷239; 唐紀五十五(起玄默執徐十月盡柔兆涒灘凡四年有奇). 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中之上元和七年(壬辰·八一二年)~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中之上元和十一年(丙申·八一六年). -卷240; 唐紀五十六(起彊圉作噩盡屠維大淵獻正月凡二年有奇). 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中之下元和十二年(丁酉·八一七年)~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中之下元和十四年(己亥·八一九年). -卷241; 唐紀五十七(起屠維大淵獻二月盡重光赤奮若六月凡二年在奇). 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下元和十四年(己亥·八一九年)~憲宗昭文章武大聖至神孝皇帝下長慶元年(辛丑·八二一年). -卷242; 唐紀五十八(起重光赤奮若七月盡玄默攝提格凡一年有奇). 穆宗睿聖文惠孝皇帝中長慶元年(辛丑·八二一年)~穆宗睿聖文惠孝皇帝中長慶二年(壬寅·八二二年). -卷243; 唐紀五十九(起昭陽單闕盡著雍涒灘凡六年). 穆宗睿聖文惠孝皇帝下長慶三年(癸卯·八二三年)~穆宗睿聖文惠孝皇帝下太和二年(戊申·八二八年). -卷244; 唐紀六十(起屠維作噩盡昭陽赤奮若凡五年). 文宗元聖昭獻孝皇帝上之下太和三年(己酉·八二九年)~文宗元聖昭獻孝皇帝上之下太和七年(癸丑·八三三年). -卷245; 唐紀六十一(起闕逢攝提格盡彊圉大荒落凡四年). 文宗元聖昭獻孝皇帝中太和八年(甲寅·八三四年)~文宗元聖昭獻孝皇帝中開成二年(丁巳·八三七年). -卷246; 唐紀六十二(起著雍敦牂盡玄默闍茂凡五年). 文宗元聖昭獻孝皇帝下開成三年(戊午·八三八年)~文宗元聖昭獻孝皇帝下會昌二年(壬戌·八四二年). -卷247; 唐紀六十三(起昭陽大淵獻盡闕逢困敦七月凡一年有奇). 武宗至道昭肅孝皇帝中會昌三年(癸亥·八四三年)~武宗至道昭肅孝皇帝中會昌四年(甲子·八四四年). -卷248; 唐紀六十四(起闕逢困敦閏月盡屠維大荒落凡五年有奇). 武宗至道昭肅孝皇帝下會昌四年(甲子·八四四年)~武宗至道昭肅孝皇帝下大中三年(己巳·八四九年). -卷249; 唐紀六十五(起上章敦牂盡屠維單闕凡十年). 宣宗元聖至明成武獻文睿智章仁神聰懿道大孝皇帝下大中四年(庚午·八五零年)~宣宗元聖至明成武獻文睿智章仁神聰懿道大孝皇帝下大中十三年(己卯·八五九年). -卷250; 唐紀六十六(起上章執徐盡彊圉大淵獻凡八年). 懿宗昭聖恭惠孝皇帝上咸通元年(庚辰·八六零年)~懿宗昭聖恭惠孝皇帝上咸通八年(丁亥·八六七年). -卷251; 唐紀六十七(起著雍困敦盡屠維赤奮若凡二年). 懿宗昭聖恭惠孝皇帝中咸通九年(戊子·八六八年)~懿宗昭聖恭惠孝皇帝中咸通十年(己丑·八六九年). -卷252; 唐紀六十八(起上章攝提格盡柔兆涒灘凡七年). 懿宗昭聖恭惠孝皇帝下咸通十一年(庚寅·八七零年)~懿宗昭聖恭惠孝皇帝下乾符三年(丙申·八七六年). -卷253; 唐紀六十九(起彊圉作噩盡上章困敦十月凡三年有奇). 僖宗聖恭定孝皇帝上之下乾符四年(丁酉·八七七年)~僖宗聖恭定孝皇帝上之下廣明元年(庚子·八八零年). -卷254; 唐紀七十(起上章困敦十一月盡

玄默攝提格四月凡一年有奇)。僖宗惠聖恭定孝皇帝中之上廣明元年(庚子·八八零年)~僖宗惠聖恭定孝皇帝中之上中和二年(壬寅·八八二年)。-卷255; 唐紀七十一(起玄默攝提格五月盡闕逢執徐五月凡二年有奇)。僖宗惠聖恭定孝皇帝中之下中和二年(壬寅·八八二年)~僖宗惠聖恭定孝皇帝中之下中和四年(甲辰·八八四年)。-卷256; 唐紀七十二(起闕逢執徐六月盡彊圉協洽三月凡二年有奇)。僖宗惠聖恭定孝皇帝下之上中和四年(甲辰·八八四年)~僖宗惠聖恭定孝皇帝下之上光啓三年(丁未·八八七年)。-卷257; 唐紀七十三(起彊圉協洽四月盡著雍涓灘凡一年有奇)。僖宗惠聖恭定孝皇帝下之下光啓三年(丁未·八八七年)~僖宗惠聖恭定孝皇帝下之下文德元年(戊申·八八八年)。-卷258; 唐紀七十四(起屠維作噩盡重光大淵獻凡三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上之上龍紀元年(己酉·八八九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上之上大順二年(辛亥·八九一年)。-卷259; 唐紀七十五(起玄默困敦盡闕逢攝提格凡三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上之中景福元年(壬子·八九二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上之中乾寧元年(甲寅·八九四年)。-卷260; 唐紀七十六(起旃蒙單闕盡柔兆執徐凡二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上之下乾寧二年(乙卯·八九五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上之下乾寧三年(丙辰·八九六年)。-卷261; 唐紀七十七(起彊圉大荒落盡屠維協洽凡三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中之上乾寧四年(丁巳·八九七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中之上光化二年(己未·八九九年)。-卷262; 唐紀七十八(起上章涓灘盡重光作噩凡二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中之中光化三年(庚申·九零零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中之中天夏元年(辛酉·九零一年)。-卷263; 唐紀七十九(起玄默闔茂盡昭陽大淵獻正月凡一年有奇)。昭宗聖穆景文孝皇帝中之下天夏二年(壬戌·九零二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中之下天夏三年(癸亥·九零三年)。-卷264; 唐紀八十(起昭陽大淵獻二月盡闕逢困敦閏月凡一年有奇)。昭宗聖穆景文孝皇帝下之上天復三年(癸亥·九零三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下之上天祐元年(甲子·九零四年)。-卷265; 唐紀八十一(起闕逢困敦五月盡柔兆攝提格凡二年有奇)。昭宗聖穆景文孝皇帝下之下天祐元年(甲子·九零四年)~昭宗聖穆景文孝皇帝下之下天祐三年(丙寅·九零六年)。-卷266; 後梁紀一(起彊圉單闕盡著雍執徐七月凡一年有奇)。太祖神武元聖孝皇帝上開平元年(丁卯·九零七年)~太祖神武元聖孝皇帝上開平二年(戊辰·九零八年)。-卷267; 後梁紀二(起著雍執徐八月盡重光協洽二月凡二年有奇)。太祖神武元聖孝皇帝中開平二年(戊辰·九零八年)~太祖神武元聖孝皇帝中乾化元年(辛未·九一一年)。-卷268; 後梁紀三(起重光協洽三月盡昭陽作噩十一月凡二年有奇)。太祖神武元聖孝皇帝下乾化元年(辛未·九一一年)~太祖神武元聖孝皇帝下乾化三年(癸酉·九一三年)。-卷269; 後梁紀四(起昭陽作噩十二月盡彊圉赤奮若六月凡三年有奇)。均王上乾化三年(癸酉·九一三年)~均王上貞明三年(丁丑·九一七年)。-卷270; 後梁紀五(起彊圉赤奮若七月盡屠維單闕九月凡二年有奇)。均王中貞明三年(丁丑·九一七年)~均王中貞明五年(己卯·九一九年)。-卷271; 後梁紀六(起屠維單闕十月盡玄默敦牂凡三年有奇)。均王下貞明五年(己卯·九一九年)~均王下龍德二年(壬午·九二二年)。-卷272; 後唐紀一(昭陽協洽一年)。莊宗光聖神閔孝皇帝上同光元年(癸未·九二三年)。-卷273; 後唐紀二(起闕逢涓灘盡旃蒙作噩十月凡一年有奇)。

莊宗光聖神閔孝皇帝中同光二年(甲申·九二四年)~莊宗光聖神閔孝皇帝中同光三年(乙酉·九二五年). -卷274; 莊宗唐紀三(起旃蒙作噩十一月盡柔兆闍茂三月不滿一年). 莊宗光聖神閔孝皇帝下同光三年(乙酉·九二五年)~莊宗光聖神閔孝皇帝下天成元年(丙戌·九二六年). -卷275; 後唐紀四(起柔兆闍茂四月盡彊圉大淵獻六月凡一年有奇) 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上之下天成元年(丙戌·九二六年)~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上之下天成二年(丁亥·九二七年). -卷276; 後唐紀五(起彊圉大淵獻七月盡屠維赤奮若凡二年有奇). 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中之上天成二年(丁亥·九二七年)~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中之上天成四年(己丑·九二九年). -卷277; 後唐紀六(起上章攝提格盡玄默執徐六月凡二年有奇). 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中之下長興元年(庚寅·九三零年)~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中之下長興三年(壬辰·九三二年). -卷278; 後唐紀七(起玄默執徐七月盡闕逢敦牂閏閏正月凡一年有奇). 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下長興三年(壬辰·九三二年)~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下清泰元年(甲午·九三四年). -卷279; 後唐紀八(起闕逢敦牂二月盡旃蒙協洽凡一年有奇). 潞王下清泰元年(甲午·九三四年)~潞王下清泰二年(乙未·九三五年). -卷280; 後晉紀一(柔兆涒灘一年). 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上之上天福元年(丙申·九三六年).-卷281; 後晉紀二(起彊圉作噩盡著雍闍茂凡二年). 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上之下天福二年(丁酉·九三七年)~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上之下天福三年(戊戌·九三八年). -卷282; 後晉紀三(起屠維大淵獻盡重光赤奮若凡三年). 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中天福四年(己亥·九三九年)~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中天福六年(辛丑·九四一年). -卷283; 後晉紀四(起玄默攝提格盡闕逢執徐正月凡二年有奇). 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下天福七年(壬寅·九四二年)~高祖聖文章武明德孝皇帝下開運元年(甲辰·九四四年). -卷284; 後晉紀五(起闕逢執徐二月盡旃蒙大荒落七月凡一年有奇). 齊王中開運元年(甲辰·九四四年)~齊王中開運二年(乙巳·九四五年). -卷285; 後晉紀六(起旃蒙大荒落八月盡柔兆敦牂凡一年有奇). 齊王下開運二年(乙巳·九四五年)~齊王下開運三年(丙午·九四六年). -卷286; 後漢紀一(起彊圉協洽正月盡四月不滿一年). 高祖睿文聖武昭肅孝皇帝上天福十二年(丁未·九四七年).-卷287; 後漢紀二(起彊圉協洽五月盡著雍涒灘二月不滿一年). 高祖睿文聖武昭肅孝皇帝中天福十二年(丁未·九四七年)~高祖睿文聖武昭肅孝皇帝中乾祐元年(戊申·九四八年). -卷288; 後漢紀三(起著雍涒灘三月盡屠維作噩凡一年有奇). 高祖睿文聖武昭肅孝皇帝下乾祐元年(戊申·九四八年)~高祖睿文聖武昭肅孝皇帝下乾祐二年(己酉·九四九年). -卷289; 後漢紀四(上章闍茂一年). 隱皇帝下乾祐三年(庚戌·九五零年). -卷290; 後周紀一(起重光大淵獻盡玄默困敦八月凡一年有奇). 太祖聖神恭肅文孝皇帝上廣順元年(辛亥·九五一年)~太祖聖神恭肅文孝皇帝上廣順二年(壬子·九五二年). -卷291; 後周紀三(起闕逢攝提格五月盡柔兆執徐二月凡一年有奇). 太祖聖神恭肅文武孝皇帝下顯德元年(甲寅·九五四年)~太祖聖神恭肅文武孝皇帝下顯德三年(丙辰·九五六年). -卷292; 後周紀三(起闕逢攝提格五月盡柔兆執徐二月凡一年有奇). 太祖聖神恭肅文武孝皇帝下顯德元年(甲寅·九五四年)~太祖聖神恭肅文武孝皇帝下顯德三年(丙辰·九五六年). -卷293; 後周紀四(起柔兆執徐三

月盡疆圉大荒落凡一年有奇). 世宗睿武孝文皇帝中顯德三年(丙辰·九五六年)~世宗睿武孝文皇帝中顯德四年(丁巳·九五七年). -卷294; 後周紀五(起著雍敦牂盡屠維協洽凡二年). 世宗睿武孝文皇帝下顯德五年(戊午·九五八年)~世宗睿武孝文皇帝下顯德六年(己未·九五九年).

한편, 調査本 「資治通鑑」은 朝鮮 世宗 16(1434)년에 王命으로 尹淮(1380~1436)·權韜(1387~1445)·薛循(?~1435) 등이 「通鑑源委」·「通鑑集覽」·「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資治通鑑」의 難解한 곳에 註釋을 붙이는 것은 물론 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李中允(??)·李師曾(1398~1464)·李季甸(1404~1459)·崔恒(1409~1474)·南季瑛(1415~?)·魚孝瞻(1405~1475)·姜孟卿(1410~1461)·閔媛(?~1458) 등에게 함께 參校하도록 하여 世宗이 친히 일일이 檢討한 후 道합 294卷으로 編纂을 完了한 바 있다.⁸⁾⁹⁾ 「資治通鑑」은 政治와 軍事의 敍述을 爲主로 統治者에게 國家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提供하는 것이 目的이었던 만큼 朝鮮에서도 國家의 經營에 絶對的으로 必要한 書籍이었다.

調査本은 世宗 16(1434)년에 編纂에 着手한지 2년만인 世宗 18(1436)년에 編纂이 完了되자마자 柳義孫의 序文을 붙여 鑄字所로 하여금 初鑄甲寅字로 刊行하여 京外에 配布하였던 것으로 推定되는 版本의 卷57~60의 4卷1冊이다.

調査本 「資治通鑑」의 表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資治通鑑’이고 版心題는 ‘通鑑’이며,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本文의 行字數는 10行19字이고 註文은 小字 雙行이며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收錄內容은 卷57은 漢紀49(孝靈皇帝上之下)이고 卷58은 漢紀50(孝靈皇帝中)이며, 卷59는 漢紀51(孝靈皇帝下·孝獻皇帝甲)이고 卷60은 漢紀52(孝獻皇帝乙)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刊行된 「資治通鑑」의 版本은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 등에 所藏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며, 歷史學·政治學·行政學·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初期의 金屬活字印刷術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 지정사례

調査本과 同一한 版本의 「資治通鑑」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8)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6年 6月 26(辛未)日條.

召中樞院事尹淮·禮曹左參判權躡·集賢殿副提學俛循等 會于集賢殿 考閱資治通鑑 其文義難曉之節 參究源委輯覽釋義 以至諸書 撰其所解 逐節附之 名之曰通鑑訓義 又選文臣集賢殿應教金末·校理柳義孫·右獻納李中允·前右獻納李師曾·集賢殿修撰李季甸·副修撰崔恒·吏曹佐郎南季瑛·世子左司經魚孝瞻·司憲監察姜孟卿·奉常錄事閔媛等參校 又以左承旨權孟孫兼掌之.

9) 春秋館 編, 「世宗實錄」. 世宗 16年 6月 26(辛未)日條.

召中樞院事尹淮·禮曹左參判權躡·集賢殿副提學俛循等 會于集賢殿 考閱資治通鑑 其文義難曉之節 參究源委輯覽釋義 以至諸書 撰其所解 逐節附之 名之曰通鑑訓義 又選文臣集賢殿應教金末·校理柳義孫·右獻納李中允·前右獻納李師曾·集賢殿修撰李季甸·副修撰崔恒·吏曹佐郎南季瑛·世子左司經魚孝瞻·司憲監察姜孟卿·奉常錄事閔媛等參校 又以左承旨權孟孫兼掌之.

- 寶物 第1281號(卷236~238, 國立中央博物館)
- 寶物 第1281-2號(卷131~135·卷246~250, 서울歷史博物館)
- 寶物 第1281-3號(卷193~195, 圓覺寺)
- 寶物 第1281-4號(卷226~229, 蔚山博物館)

○ 문헌자료

- 서울歷史博物館 編, 「2010 洪斗善 寄贈遺物特別展」. 서울 : 서울歷史博物館 遺物管理課, 2010.
- 蔚山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 調查報告書>(윤상기위원 조사보고서).蔚山 : 蔚山博物館, 2013.
- 문화재청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

□

○ 현 상

조사본 『資治通鑑』은 전체적으로 열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누습 흔적과 오염 흔적 등이 보인다. 일부 장에 약간의 접힘, 마멸 등 손상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좋다. 앞표지와 첫장의 상태로 보아 표지와 책사는 교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資治通鑑 卷57~60 / 司馬光(1019-1086, 北宋) 奉勅編集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 推定].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7.6×19.9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5×24.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卷首題：資治通鑑
卷末題：資治通鑑
版心題：通鑑

조사본 『資治通鑑』은 중국 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 등이 원풍(元豐) 7년(1084)에 편년체로 간행한 중국의 통사를 저본으로 조선 세종의 명으로 윤회(尹淮, 1380~1436), 권도(權蹈, 1387~1445), 설순(偈循, ?~1435), 김말(金沫, 1383~1464), 류의손(柳義孫, 1398~1450) 등 40여명의 문신들이 사마광의 『資治通鑑』에 『통감음주(通鑑音注)』·『통감원위(通鑑源委)』·『통감집람(通鑑輯覽)』·『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의 역대 주요 주석서를 바탕으로 총 294권으로 훈의(訓義)하고 교감한 뒤, 1436년(세종 18)년에 갑인자(甲寅字)로 간행한 판본 중 권57~60(4권 1책)이다. 이 책은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되었던 이유로 국왕이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 이름하였고, ‘자치통감 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 또는 ‘사정전훈의 자치통감(思政殿訓義資治通鑑)’, ‘통감훈의(通鑑訓義)’라 부르기도 한다.

『자치통감』은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BC403)에서 오대(五代) 후주(後周)의 현덕(顯德) 6년(959)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으로 간행한 책으로 편찬 당시까지의 정사는 물론 실록·야사 등 약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서법(書法)에 따라 찬진되었다. 편년 사용은 삼국의 경우에는 위조(魏朝)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南朝)의 연호로 각각 정통(正統)을 명시하였고, 중요한 기사에는 ‘신광왈(臣光曰)’이라는 안어(按語)로 사마광 자신의 평론을 첨가하고 있어 그의 역사관을 뚜렷이 살필 수 있다.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마광 자신이 별도로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을 저술하여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계고록(稽古錄)』을 저술하여 부족한 『자치통감』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자치통감』은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많은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 유안세(劉安世, 1048~1125)의 『자치통감음의(資治通鑑音義)』는 이미 실전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남송 사소(史炤, 1090~?)의 『資治通鑑釋文(資治通鑑釋文)』과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의 『통감지리통석(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자치통감』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서는 송말원초의 호삼성(胡三省, 1230~1302)의 『자치통감음주(資治通鑑音註)』로서 원대 이후의 대부분의 판본이 호삼성의 주석본이다.

조사본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에 착수하여 1436년(세종 18)에 완료된 세종 18(1436)년에 편찬이 완료된 총 294권 가운데 권57~60의 4권 1책본이다. 표제와 권두제 및 권미제는 ‘資治通鑑’이고 판심제는 ‘通鑑’이며,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다. 본문의 행자수는 10행 19

자이고 주문은 소자쌍행(小字雙行)이며,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다. 수록내용은 권57은 漢紀49(孝靈皇帝上之下)이고 권58은 漢紀50(孝靈皇帝中)이며, 권59는 漢紀51(孝靈皇帝下, 孝獻皇帝甲)이며 권60은 漢紀52(孝獻皇帝乙)이다.

세종대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의 「자치통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1998.06.29 지정)
-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2012.08.24 지정)
-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2012.12.27 지정)
- 보물 제1281-4호(권226~229, 울산박물관, 2015.04.22 지정)

□

○ 현 상

조사본 「資治通鑑」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취정사 住持 金應圭의 恩師인 兩翼선사가 소장했던 여러 경전과 고서 중 하나로, 2007년 입적 후 제자인 김응규에게 傳來되어 현재 취정사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조사본 「資治通鑑」의 상태는 원래 표지가 망실되어 다른 고서의 표지를 사용해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장정한 것으로 보이며, 表題는 없고 본문의 면지에 부분적으로 누수로 인한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은 중국 北宋의 司馬光(1019~1086)이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編年體 역사서로 「通鑑」이라고도 한다. 戰國時代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6년(960)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것이다. 全 294권.

원래 사마광은 治平 원년(1064)에 「春秋左氏傳」을 모방하여 戰國時代와 秦代의 史實을 서술한 「通志」 8卷을 英宗(재위:1064~1067)에게 헌상하였는데, 英宗 황제는 이것을 읽고 이를 擴大하여 編纂하라는 명을 내렸다. 다음해인 1065년부터 崇文院에 史局을 設置하고 사마광의 주재 하에 劉放(1023~1089)이 前後漢을, 劉恕(?~?)가 三國부터 南北朝까지를, 范祖禹(1041~1098)가 唐나라 및 五代를 각각 분담, 기술하여 착수한지 19년만인 元豐 7년(1084)에 전국시대 周나라 威烈王 23년(BC 403)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6년(960)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총 294卷으로 완성하였다. 英宗에 이어 등극한 神宗(재위:1068~1085)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미로 ‘資治通鑑’이라는 書名과 序文을 내렸다.

「資治通鑑」의 편찬을 위해 이용된 사료는 17史 등 正史는 물론 實錄, 野史, 文集, 小說, 墓誌類 등 300여종에 이르며, 서술방식은 「春秋左氏傳」을 따랐고 本문의 마지막에 史論을 덧붙였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는 ‘臣光曰’이라고 하여 사마광 자신의 평론을 가하고 있어 그의 사관을 엿볼 수 있다.

사마광이 「資治通鑑」을 찬술한 목적은 역대의 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王朝의 興亡盛衰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史觀에 의하여 기사를 선택하고,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평론하여 鑑戒가 될 만한 사적을 많이 拾錄하였다. 편년에 있어서도 三國의 경우 魏나라의 연호를, 南北朝의 경우에는 南朝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임을 명시하였다.

내용은 총 16紀, 294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周紀(권1~5) 5권, 秦紀(권6~8) 3권, 漢紀(권9~68) 60권, 魏紀(권69~78) 10권, 晉紀(권79~118) 40권, 宋紀(권119~134) 16권, 齊紀(권135~134) 10권, 梁紀(권145~166) 22권, 陳紀(권167~176) 10권, 隋紀(권177~184) 8권, 唐紀(권185~265) 81권, 後梁紀(권266~271) 6권, 後唐紀(권272~279) 8권, 後晉紀(권280~285) 6권, 後漢紀(권286~289) 4권, 後周紀(권290~294) 5권 등이다.

사마광은 「資治通鑑」 편찬과 함께 목록과 범례를 정리한 「資治通鑑目錄」과 史實의 고증에 참고가 되는 「資治通鑑考異」 30권도 찬집하였다.

「資治通鑑」의 초간본은 杭州에서 元祐 7년(1092)에 간행되었는데, 항주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紹興 2년(1132)년에 余姚에서 간행된 판본이 현존하는 最古本이다. 「資治通鑑」은 “천지간에 없어서는 안 될 책인 동시에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王鳴聲(1722~1797)의 평가처럼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많은 註釋書가 편찬되었다. 그 중 劉安世(1048~1125)의 「資治通鑑音義」는 이미 逸失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南宋 史炤(1090~?)의 「資治通鑑釋文」과 王應麟(1223~1296)의 「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대한 전면적인 註釋書는 宋末元初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註」이며, 이것이 通行本으로 元代 이후 거의 모든 「資治通鑑」의 판본은 胡三省의 註釋本이다.

「資治通鑑」의 편찬자인 사마광은 중국 북송시대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이다. 字는 君實이고 號는 迂叟, 諡號는 文正이다. 陝州 夏縣(현 陝西) 涑水鄉 出身이라 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사후에 溫國公으로 봉해져서 司馬溫公으로도 불린다. 20세에 되던 해인 寶元 2년(1039)에 進士에 급제하여 地方官을 두루 歷任한 뒤 嘉祐 6년(1061)에 起居舍人同知諫員에 轉職되고 神宗이 즉위하여 翰林學士에 任命하였으나, 駢文에 어둡다는 이유로 고사하여 御史中丞이 되었다. 熙寧 3(1070)년에 神宗과 王安石(1021~1086)이 新法政治를 시행하자 이를 비판하고 舊法의 회복을 도모하다 실각하여 洛陽에 은둔하면서 19년간에 걸쳐 「資治通鑑」 294권을 撰進하였다. 哲宗(재위:1086~1099) 즉위 후인 元祐 1년(1086)에 尙書左僕射兼門下侍郎에 기용되어 ‘元祐更化’를 주도하였으나 執政한지 8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사후 新法黨에 의해 명예가 박탈되었다가 南宋代에 명예를 회복하였다.

조사본은 「資治通鑑」 전체 294권중 卷57~60까지의 4권1책으로 수록내용은, 권57에는 漢紀四十九(起玄默困敦盡上章涓灘凡九年): 孝靈皇帝上之下熹平元年 壬子(서기172년) ~ 孝靈皇帝上之下光和三年 庚申(서기180년), 권58에는 漢紀五十(起重光作噩盡彊圉單闕凡七年): 孝靈皇帝中光和四年 辛酉(서기181년) ~ 孝靈皇帝中中平四年 丁卯(서기187년), 권59에는 漢紀五十一(起著雍執徐盡上章敦牂凡三年): 孝靈皇帝下中平五年 戊辰(서기188년) ~ 孝獻皇帝甲初平元年 庚午(서기190년), 권60에는 漢紀五十二(起重光協洽盡昭陽作噩凡三年): 孝獻皇帝乙初平二年 辛未(서기191년) ~ 孝獻皇帝乙初平四年 癸酉(서기193년)까지의 史實이 기술되어 있다.

初鑄甲寅字本 「資治通鑑」은 조선 世宗 16년(1434)에 왕명으로 尹淮(1380~ 1436), 權韜(1387~1445), 薛循(?~1435) 등이 「通鑑源委」, 「通鑑集覽」, 「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난해한 부분에 주석을 붙이고, 金沫(1383~1464), 柳義孫(1398~1450), 李中允(?~?), 李師曾(1398~1464), 李季甸(1404~1459), 崔恒(1409~1474), 南季瑛(1415~?), 魚孝瞻(1405~1475), 姜孟卿(1410~1461), 閔媛(?~1458) 등이 參校하게 하고 世宗이 친히 검토한 후,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년(1436)에 주자소에서 294卷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思政殿에서 訓義하였기 때문에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고도 불린다.

「資治通鑑」은 조선시대 국왕의 經筵과 왕세자 書筵의 교재로 사용되었고, 사대 부들에게도 필독서였으나 현재 전하는 판본은 세종 18년의 초주갑인자본 외에는 肅宗年間に 처음 인출된 후 英祖대에 재 인출된 戊申字本외에는 간행사실이 알

려진 것이 없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世宗 18년(1436)에 初鑄甲寅字로 인출하여 배포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희귀본이다. 현재 초주갑인자본 완질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보물 제1281-1호(卷236~23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81-2호(卷131~135, 卷246~250,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281-3호(권193~195, 圓覺寺), 보물 제1281-4호(권226~229, 울산박물관)로 이미 지정된 자료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卷70-71, 206-207, 281), 서울대 규장각(卷161-165), 고려대(卷26-30, 261-265) 등에 소장되어 있다.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資治通鑑」의 판본은 현재 완질본이 없고 전해지는 것이 드문 희귀본이다. 특히 조사본은 기 지정된 보물과도 권수가 중복되지 않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귀중본으로 조선 전기 歷史, 政治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며 印刷文化史 및 書誌學 연구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資治通鑑」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로 4건 지정되어 있다.

- 보물 제1281-1호(卷236~238, 國立中央博物館)
- 보물 제1281-2호(卷131~135, 卷246~250, 서울歷史博物館)
- 보물 제1281-3호(권193~195, 圓覺寺)
- 보물 제1281-4호(권226~ 229, 蔚山博物館)

○ 문헌자료

- 서울歷史博物館 編, 「2010 洪斗善 寄贈遺物特別展」. 서울 : 서울歷史博物館 遺物管理課, 2010.
- 蔚山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 調査報告書>(윤상기위원 조사보고서). 蔚山 : 蔚山博物館, 2013.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

12.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가. 검토사항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분율 권47~5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5.11)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사분율 권47~50(四分律 卷四十七~五十)
- 소유자 : 김미정(법명: 무애, 대한불교 대성종 대성사 주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 량 : 4권 1책(인경본)
- 규 격 : 세로 40.2(22.2) × 가로 29.2(46.7) cm
- 재 질 : 저지(종이)
- 판 종 : 목판본(대장도감)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244년(고려 고종 31) 판각, 조선초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대성사 소장인 『사분율』 권47-50의 1책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조선 초기에 인본이다. 거질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초기의 선장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四分律」은 「四分律」은 부처님(佛)께서 入滅하신 100년 後에 達磨笈多(曇無德, ?~?)羅漢이 印度 上座部の 法藏部に 전해지는 根本律 중에서 自己의 見解에 맞는 것만을 4次에 걸쳐 뽑아내어 編纂한 律文佛書を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410~412)년경에 長安에서 함께 漢譯한 60卷本の 佛書이다.

調査本 「四分律」 卷47~50의 4卷1冊本은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款式과 本文의 構成 및 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高麗 高宗 31(1244)年頃에 板刻된 高麗大藏經板을 朝鮮 世祖 4(1458)年頃에 印出하여 線裝한 版本이다.

調査本 「四分律」은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며, 佛敎學과 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高麗時代의 大藏經研究에는 물론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근거 기준

調査本 「四分律」과 同一한 版本의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사분율』 권47~50(4권1책)은 광곽과 간기를 제외한 형태서지학적(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陝川 海印寺 大藏經板)」에 포함된 『사분율』과 동일한 판본으로, 1244년(고려 고종 31) 경에 판각(板刻)된 것을 1458년(조선 세조 4) 경에 인출(印出)하여 선장(線裝)한 판본(版本)이다.

이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은 희귀한 자료로서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四分律」은 기원전 3세기 초 인도의 승려 達磨笈多(Dharmagupta, 曇無德, ?~?)가 五部律典 가운데 上座部 계통의 율전을 편찬한 法藏部の 律藏으로, 출가한 승려가 佛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불교의 律典이다. 姚秦(後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년(410~412) 경에 長安에서 공동으로 漢譯하였고 전체 내용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四分律」이라고 불리는 총 60卷의 佛書이다.

조사본 「四分律」은 卷47부터 50까지의 4卷1冊으로,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측면과 本文의 구성 체계, 刻手 등을 참고해 볼 때 ‘UNESCO 世界記錄

遺産’이자 ‘國寶 第32號’인 <海印寺大藏經版>에 포함된 「四分律」과 동일한 版本으로, 高麗 高宗 31年(1244) 經에 板刻된 것을 朝鮮 世祖 4年(1458) 經에 印出한 판本으로 추정된다. 특히 朝鮮 초기에 海印사 고려대장경판으로 印출된 판本 중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어 조사본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원래 표지가 온전하게 남아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文化財的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으로, 고려시대 대장경 연구 등 불교학 및 朝鮮 초기 인쇄문화연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 근거 기준

調査本 「四分律」은 朝鮮 초기에 海印사 고려대장경판으로 印출된 판本 중 처음으로 알려진 유일본이며, 同一한 판本의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가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명칭은 ‘재조본 사분율 권47~50’으로 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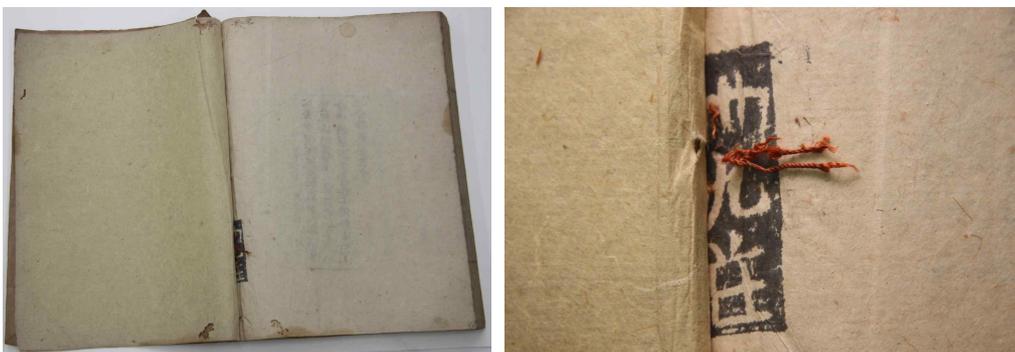
四分律. 卷47-50 / 佛陀耶舍, 竺佛念 共譯.
木板本
大藏都監: 高宗 31年(1244)刊, [朝鮮前期]後刷
4卷1冊(零本): 上下單邊 全郭 × cm, 無界, 23行14字, 無魚尾 ; 29.2 × 40.2 cm.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의 창(唱)함에 속하는 율부 경전의 인본이다.¹⁰⁾ 5세기 초 계빈국

출신의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중국의 축불념(竺佛念)이 함께 번역하였다. 내용은 출가(出家), 수계(受戒), 구족계(具足戒) 등의 의궤(儀軌)에 관한 것으로 전 60권이다. 이중에서 1-22권은 비구에 관한 계율 7법 250계, 23-37권은 비구니에 관한 계율 4법 348계와 비구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정, 38-49은 가축을 사용하는 규정을 서술한 피혁 건도(건度)를 비롯한 14개의 건도,¹¹⁾ 50-60권은 추가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 권47은 비구들의 네 가지 분쟁과 그것이 생기게 되는 원인 및 그를 조종하기 위한 방법인 《멸쟁건도》, 권48은 비구니들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몇 가지 계율에 대하여 규정한 《비구니건도》, 권49는 비구들이 지켜야 할 일상 생활의 규범인 《범건도》, 권50은 집과 방 등 잡다한 문제들에 대한 《방사건도》를 담고 있다.

이 경관은 권57-60의 각권 끝의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고려 고종 31년(1244)에 대장도감에서 판각되었다. 그러나 이 인본에는 이러한 간행기록은 인쇄되어 있지 않다. 1장의 행자수는 앞뒤 모두 23행 14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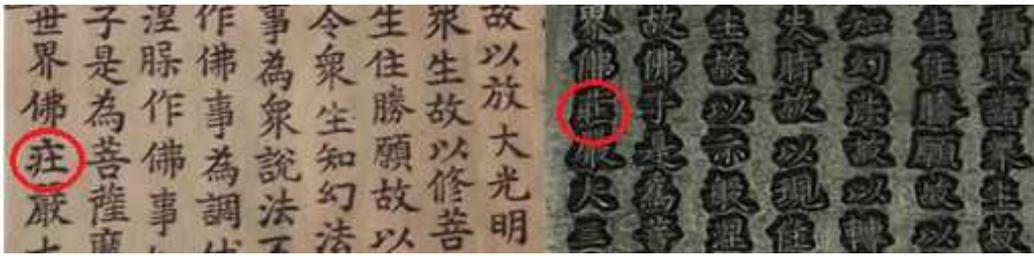
인본의 표지는 얇은 미황색, 현재는 끊어졌지만 원래는 가늘고 짙은 황색실로 엮은 오침의 선장본이다. 왼쪽에는 쌍행으로 된 종방형 안에 위에는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의 부호(符號), 그 아래에는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과 같이 제명과 권차, 종방형 바깥아래에는 천자문 함호인 “唱”을 묵서해 놓았다.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共一二冊”과 같이 전 책수 표시가 있고, 그 왼쪽에는 수결이 있다. 이러한 표시는 <사진 4>의 일본 소장본의 일체경음의 권53-4를 볼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의 소장자가 추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50, 32장의 뒷면에 있는 서뇌(書腦) 아래 안쪽에는 <사진 1>과 같이 “□九莊”으로 보이는 음각의 인장이 찍혀 있다. 여기서 “莊”이란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庄”과 통용되는 글자이므로 종이의 장수보다는 장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진 1> 권50의 마지막 장인 제3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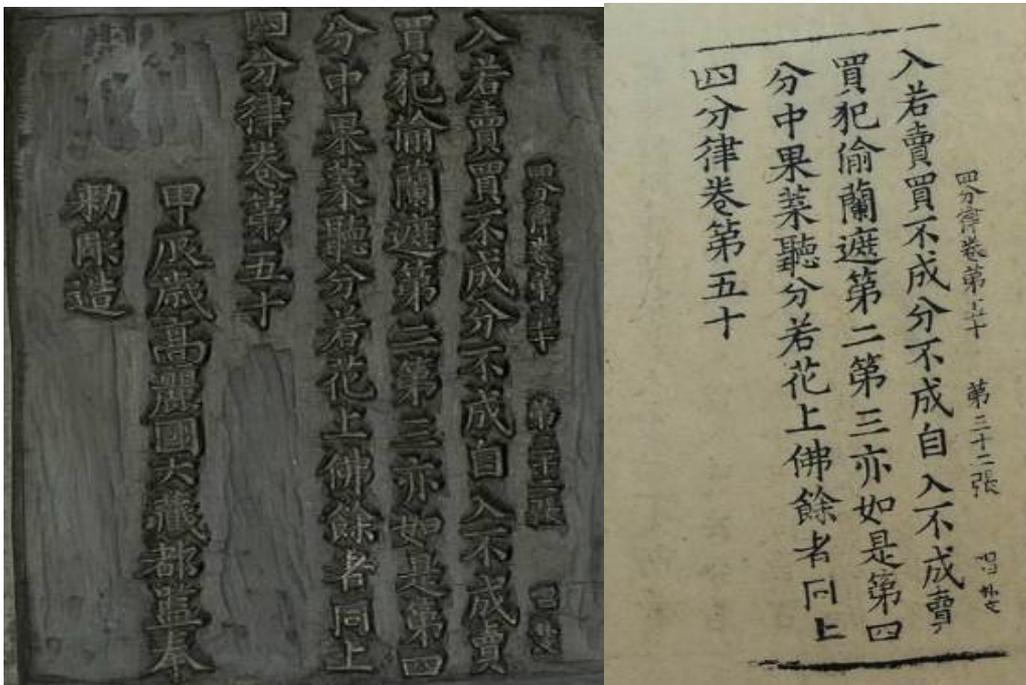
10) 1-10권은 和, 11-20권은 下, 21-30권은 睦, 31-40권은 夫, 41-50권은 唱, 51-60권은 婦함이다.

11) 건도(건度)란 장 또는 편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2> 莊嚴과 莊嚴

먼저 이 인본에는 <사진 3>과 같이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원간기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이러한 사례는 세조 3-4년 인본 또는 조선 초기의 인본에서 나타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사진 3> 사분율 권50의 마지막 장인 제25장 간기부분
(좌측은 해인사대장경판, 우측은 대성사 소장본)

이러한 사실은 20여 년 전에 일본에 전하는 세조 3-4년의 인본에서 확인된 이후 국내 발견의 인본에서도 확인되었다. 곧 <사진 4>와 같이 조선전기의 인본으로 추정되는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의 현겁경 권7(1책)과 <사진 7-8>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과승사 권1-5(1책)에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은 고려시대의 인본이 아니라 조선전기 또는 초기의 인본임이 확실하다.

12) 권47,48,49의 권미도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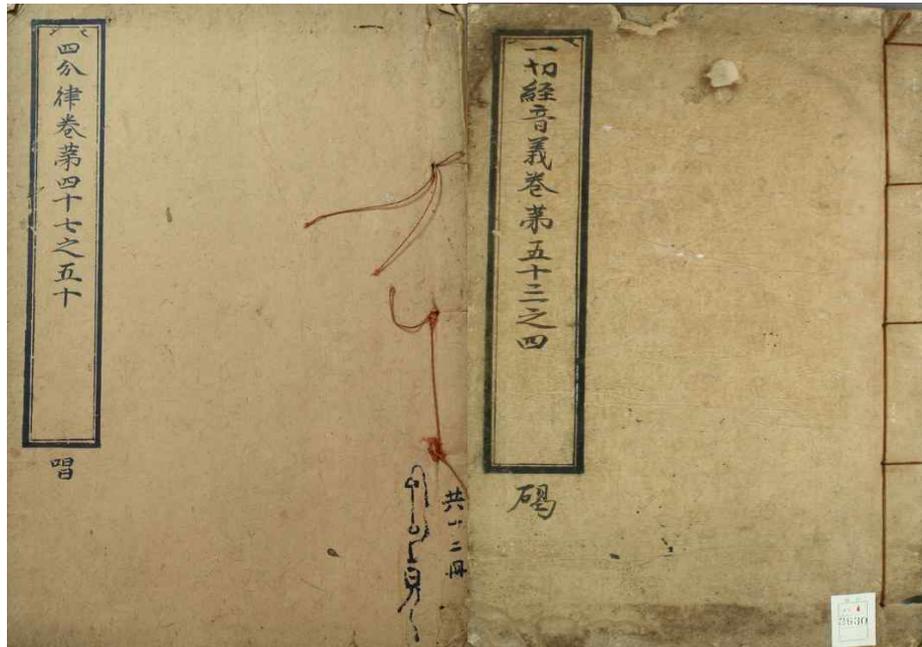
<사진 4> 현겁경권7 권미와 송광사 사천왕상복장의 현겁경 권7(2010년 발견)의 권미

한편 대성사 소장인 사분울 권47-50은 오침안정의 선장본형식이다. 원래 대장경은 두루말이(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대장목록이나 일체경음의 등의 사전류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판심이 없다. 그러므로 반접하여 선장본으로 장책하는 일이 쉽지 않고,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장책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인본은 인본 한 장을 적절하게 반접하고, 가는 실로 오침안정으로 장책해 놓았다. 이러한 장책 방식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의문도 조선전기에 인출된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의 현겁경 권7(<사진 5> 참조)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권1-5 등 2책의 장책방식을 보아 조선전기에는 이렇게 장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진 6>에서 보듯이 일본에 소장중인 “一切經音義 권53-4”는 대성사 소장의 사분울 권47-50과 쌍변의 종방형 안에 제명을 필사한 것이나 함차의 표시위치표시가 동일하다. 더욱이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과 “一切經音義第五十三之四”와 같이 “第”, “之”로 표시하는 권차의 표시법 등은 이들이 함께 인정되고 장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국내외 장책사례를 보면, 조선전기에는 대장경인본을 오침 선장본으로 장책한 다음 표지에 제명과 권차를 묵서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성사 소장의 이 인본은 조선전기에 간행되어 장책된 인본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장책된 조선전기의 인본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공개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 5>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과 송광사 사천왕상복장의 현겁경 권7(2010년 발견)



<사진 6> 대성사 소장의 사분율 권47-50과 일본 소장의 일체경음의 권53-54

그런데 이 인본의 인경시기를 조선전기 중에서 어느 시기인지를 밝히기는 쉽지가 않다. 추정한다면 정종, 태종, 세조연간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 또는 그 전후에 간행된 서책 중에서 이와 같은 후지를 사용한 사례는 거의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질로 보아 이 인본은 국왕 또는 왕실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으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은 <표1>과 같다. 이들은 대개 판각이후 바로 인출되었거나 늦어도 조선전기에 인출된 것으로 장치는 권자본이나 절첩장이다. 이에 비해 대성사 소장의 사분을 권47-50의 1팩은 조선전기의 인본이기는 하나 장책형식은 선장본으로 이전의 인본들과는 차이가 있다.

<표 1>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국가문화재(보물) 지정현황¹³⁾

구분	지정번호	명칭	인출시기	장책형식	관리자
1	제969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	13-14세기	권자본	국립중앙박물관
2	제972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	13-14세기	권자본	상동
3	제1155호	재조본 경률이상 권1	고려-조선전기	절첩장	가천박물관
4	제1156호	재조본 경률이상 권8	고려-조선전기	절첩장	국립중앙박물관
5	제1658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13-14세기	권자본	원각사
6	제1886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13-14세기	권자본	국립한글박물관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四分律」 卷47~50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四分律. 卷47~50 / 達磨笈多(?~?, BC3世紀 初) 編 ; 佛陁耶舍(?~?, 姚秦), 竺佛念(?~?, 姚秦) 等譯. -- 木板本(大藏都監). -- [漢城] : [印經處不明], [高麗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推定].

4卷1冊 : 上下單邊, 全郭 22.2×46.7cm, 無界, 23行14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40.2×29.2cm. 藁精·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四分律

卷頭題: 四分律

卷末題: 四分律

張次題: 四分律

函次名: 唱

13) 이외에 대장일람집(보물 제1335호)과 1503년에 해인사에서 추각한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949호 외)이 있으나 이들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內 容: -卷47(三分之一); 靈諍捷度第十六之一. -卷48(三分之一); 靈諍捷度第十六之二, 比丘尼捷度第十七之一. -卷49(三分之一); 比丘尼捷度十七之下, 法捷度第十八. -卷50(四分之一); 房舍捷度初.

刻手名: -卷47;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世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卷48;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卷49;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尨[命龍?]), 07(命尨[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世英), 17(世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卷50;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狀 態: 一部の面紙에 汚染의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임

裝 訂: 원래 卷子本의 裝訂을 위한 板刻으로 추정되나, 後代에 印出하면서 線裝으로 裝訂하였음.

所藏者: 大成寺 (釜山廣域市 西區 玉川路 142-22, 峨嵋洞 2街)

所 藏: 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廣域市 西區 九德路 225, 富民洞 2街)

傳來歷: 釜山 大成寺의 創建主로 2006년에 入寂한 曉潭 김한순의 所藏本이 그 弟子인 무애 김미정에게로 傳來된 文化財라 傳言함.

既指定: 無.

「四分律」은 부처님(佛)께서 入滅하신 100년 후에 達磨笈多(曇無德, ?~?)羅漢이 印度 上座部의 法藏部에 전해지는 根本律 중에서 自己의 見解에 맞는 것만을 4次에 걸쳐 뽑아내어 編纂한 律文佛書를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

이 弘始 12~14(410~412)년경에 長安에서 함께 漢譯한 60卷本の 佛書로 「曇無德律」 또는 「四分律藏」이라고도 하며, 「高麗大藏經」에는 물론 「大正新修大藏經」(第22冊)에도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四分律」은 釜山廣域市 西區 玉川路 142-22(峨帽洞 2街)에 소재한 大成寺의 創建主로 2006년에 入寂한 曉潭 김한순의 所藏本이 그 弟子인 무애 김미정에게로 傳來된 文化財라 傳言되고 있다.

調査本 「四分律」의 保存現狀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面紙는 完全하나 前後表紙의 角邊에 다소 말림현상이 있으며 裝訂用 綴絲는 斷絶된 상태이다. 특히 原來에는 卷子本の 裝訂을 위하여 板刻된 것이었으나 後代에 印經하면서 線裝으로 裝訂하였다.

調査本 「四分律」은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를 통한 前後表紙 裏面の 裱貼保守와 保存處理가 要求되고 있다.

調査本 「四分律」은 현재 大成寺에 專門的인 保存施設이 具備되지 않은 狀態라, 東亞大學校博物館이 大成寺로부터 寄託을 받아 收藏·管理하고 있는 形편이다.

○ 내용 및 특징

「四分律」은 부처님(佛)께서 入滅하신 100년 後에 達磨笈多(曇無德, ??)羅漢이 印度 上座部の 法藏部에 전해지는 根本律 중에서 自己의 見解에 맞는 것만을 4次에 걸쳐 뽑아내어 編纂한 律文佛書를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410~412)년경에 長安에서 함께 漢譯한 60卷本の 佛書이다. 전체의 內容이 第1分에 比丘의 250戒, 第2分에는 比丘尼의 348戒와 受戒犍度·說戒犍度 등 4犍度, 第3分에는 自恣犍度·皮革犍度·衣犍度·藥犍度·迦絺那衣犍度 등 14犍度, 第4分에는 房舍犍度·雜犍度·結集·調部 등의 4部分으로 分次되어 있어 「四分律」이라 일컬으며, 「曇無德律」 또는 「四分律藏」이라고도 한다. 「四分律」은 「高麗大藏經」에는 물론 「大正新修大藏經」(第22冊)에도 수록되어 있다.

編者인 達磨笈多(Dharmagupta, ??)는 曇無德·曇摩鞠多·曇摩屈多迦 등으로 音寫되고 法藏·法護·法鏡·覆法 등으로 意譯되는 紀元前 3世紀 初頃の 印度의 僧侶이다. 紀元前 4世紀頃の 論師인 第4祖 優婆鞠多(??)의 5대 제자 중의 한 분으로 目犍蓮(??)의 五藏說을 이어받아 五藏을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化地部에 속하였으나, 五藏說이 化地部の 論理에 어긋나므로 獨立하여 한 部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이 曇無德部는 曇無德律이라고도 하는데, 그 內容이 4種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四分律宗이라고도 한다. 이 四分律宗은 唐朝에 南山의 道宣(596~667)이 크게 일으켰다.

譯者인 佛陀耶舍(Buddhayaśas, ??)는 산스크리트어 'Buddhayaśas'의 音寫이며 '覺明'이라 翻譯되고 있다. 北人道 罽賓國의 婆羅門 出身으로 13歲에 出嫁하여 27歲에 具足戒를 받으면서 大小乘의 經典 數百萬言을 능히 暗誦할 수 있고 世間的

法術도 익혔을 정도로 精進하였다. 後에 沙勒國에 이르러 太子 達摩弗多의 尊敬과 歡待를 받으며 宮中에서 지내다가 龜茲國에서 온 鳩摩羅什(344~413)에게 「阿毘達磨」와 「十誦律」을 가르쳤는데 鳩摩羅什이 그를 좇아 공부하였다. 그 후에 鳩摩羅什의 請으로 五胡十六國時代에 甘肅省의 姑臧을 거쳐 後秦의 弘始(姚秦) 10(408)년에 長安에 이르러 姚興(366~416)의 歡待를 받으며 鳩摩羅什과 함께 譯經에 參與하여 「四分律」과 「長阿含經」 등을 번역하였다. 弘始 15(413)년에 다시 罽賓國으로 돌아가 「虛空藏經」 등을 얻었다고 전해지나 그 후의 行蹟은 알려진 바가 없다.

共譯者인 竺佛念(?~?)은 前秦·姚秦의 승려로 甘肅省 涼州(武威) 出身이다. 어려서 出嫁하여 뜻을 堅固하게 가지고 여러 經典을 익히는 한편 外典도 공부한 人物이다. 그가 前秦(苻秦) 建元 10(375)년경에 長安으로 왔을 때 僧伽跋澄(?~?)이 曇摩難提(?~?) 등과 함께 長安에 到着하자 朝廷의 要請을 받아 僧伽跋澄이 「婆須蜜所集論」을 翻譯하고 曇摩難提이 「王子法益壞目因緣經」과 「增一阿含經」 및 「中阿含經」 등을 翻譯하는데 助力하였으며 그는 傳語의 職責을 맡았다. 그는 「梁高僧傳」 卷1에 의하면 姚秦 弘始年間에 「菩薩瓔珞經」·「十住斷結經」·「出曜經」·「菩薩處胎經」·「中陰經」 등 5部를 翻譯하여 譯經宗師로 불리었다고 하며, 「三藏記集」 卷2에 의하면 5部 외에도 「王子法益壞目因緣經」도 翻譯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開元釋教錄」 卷4에 의하면 「增菩薩瓔珞本業經」·「鼻奈耶」·「持人菩薩經」·「大方等無想經」·「菩薩普處經」·「十誦比丘尼戒所出本末經」 등 6部까지 도합 12部 74卷을 翻譯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大方等無想經」·「菩薩普處經」·「十誦比丘尼戒所出本末經」 등은 모두 없어지고 傳來되지 않는다. 또한 後에 長安에서 入寂하였다고 傳해지나 入寂年度를 비롯한 歲壽 등은 알 수 없다.

「四分律」 60卷本の 卷次別의 分次와 目次는 다음과 같다.

-四分律序. -卷1(初分之一); 序, 四波羅夷法之一(淫戒第一, 盜戒第二). -卷2(初分之二); 四波羅夷法之二(殺人戒第三, 大妄語戒第四), 十三僧殘法之一(故失精戒第一, 摩觸女人戒第二). -卷3(初分之三); 十三僧殘法之二(與女人說粗語戒第三, 向女嘆身索供戒第四, 媒人戒第五, 無主僧不處分過量房戒第六, 有主僧不處分房戒第七, 無根重罪謗他戒第八之一). -卷4(初分之四); 十三僧殘法之三(無根重罪謗他戒第八之二, 假根謗戒第九, 破僧違諫戒第十之一). -卷5(初分之五); 十三僧殘法之四(破僧違諫戒第十之二, 助破僧違諫戒第十一, 汚家擯謗違諫戒第十二, 惡性拒僧違諫戒第十三), 二不定法(屏處不定戒第一, 露處不定戒第二). -卷6(初分之六); 三十舍墮法之一(長衣過限戒第一, 離三衣宿戒第二, 月望衣戒第三, 取非親里尼衣戒第四, 使非親里尼浣故衣戒第五). -卷7(初分之七); 三十舍墮法之二(從非親里居士乞衣戒第六, 過分取衣戒第七, 勸增衣價戒第八, 勸二家增衣價戒第九, 過限索衣價戒第十, 乞蠶綿作袈裟戒第十一, 黑毛作臥具戒第十二). -卷8(初分之八); 三十舍墮法之三(白毛作臥具戒第十三, 減六年作臥具戒第十四, 不貼坐具戒第十五, 持羊毛過限戒第十六, 使非親里尼浣染毛

戒第十七，畜錢寶戒第十八，質寶戒第十九，販賣戒第二十). -卷9(初分之九); 三十舍墮法之四(蓄長鉢過限戒第二十一， 乞鉢戒第二十二， 自乞縷使非親友織戒第二十三， 勸織師增衣縷戒第二十四， 先與衣後奪戒第二十五). -卷10(初分之十); 三十舍墮法之五(蓄七日葯過限戒第二十六， 過前求雨衣用戒第二十七， 過前受急施衣過後蓄戒第二十八， 有難當若離衣宿戒第二十九， 回僧物入己戒第三十). -卷11(初分之十一); 九十單提法之一(小妄語戒第一， 罵戒第二， 兩舌戒第三， 共女人宿戒第四， 共未受具戒人宿過限戒第五， 與未具人同誦戒第六， 向非具人說粗罪戒第七， 實得道向未具人說戒第八， 與女人說法過限戒第九， 掘地戒第十). -卷12(初分之十二); 九十單提法之二(坏生種戒第十一， 異語惱僧戒第十二， 嫌罵僧知事戒第十三， 露地敷僧物不舉戒第十四， 覆處敷僧物不舉戒第十五， 強敷臥具止宿戒第十六， 牽他出僧房戒第十七， 坐脫脚床戒第十八， 用蟲水戒第十九， 覆屋過三節戒第二十， 輒教尼戒第二十一). -卷13(初分之十三); 九十單提法之三(與尼說法至日暮戒第二十二， 譏教尼人戒第二十三， 與非親尼衣戒第二十四， 與非親尼作衣戒第二十五， 獨與尼屏露坐戒第二十六， 與尼期行戒第二十七， 與尼同船戒第二十八， 食尼嘆食戒第二十九， 與女人期同行戒第三十， 施食處過受戒第三十一， 展轉食戒第三十二). -卷14(初分之十四); 九十單提法之四(別衆食戒第三十三， 過兩三鉢受食戒第三十四， 足食竟更食戒第三十五， 勸足食者更食戒第三十六， 非時食戒第三十七， 食殘宿食戒第三十八). -卷15(初分之十五); 九十單提法之五(不受食戒第三十九， 索美食戒第四十， 與外道食戒第四十一， 先受請不囑餘比丘戒第四十二， 食家強坐戒第四十三， 屏與女坐戒第四十四， 獨與女人坐戒第四十五， 言與食後不與戒第四十六， 過四月葯請戒第四十七， 觀軍戒第四十八， 有緣軍中過限戒第四十九). -卷16(初分之十六); 九十單提法之六(觀軍鬪戰戒第五十， 飲酒戒第五十一， 水中戲戒第五十二， 擊攙他戒第五十三， 不受諫戒第五十四， 怖比丘戒第五十五， 半月浴戒第五十六， 露地燃火戒第五十七， 藏他衣鉢戒第五十八， 真實淨不語取戒第五十九， 新衣不作坏色著戒第六十， 斷畜生命戒第六十一， 飲蟲水戒第六十二). -卷17(初分之十七); 九十單提法之七(故惱比丘戒第六十三， 覆他粗罪戒第六十四， 與年不滿受具戒第六十五， 發諍戒第六十六， 與賊期行戒第六十七， 惡見違諫戒第六十八， 與被舉比丘同事戒第六十九， 畜被擯沙彌戒第七十). -卷18(初分之十八); 九十單提法之八(拒勸學戒第七十一， 毀訶毗尼戒七十二， 恐舉先言戒第七十三， 同羯磨後悔戒第七十四， 不與欲起去戒第七十五， 與欲後悔戒第七十六， 屏聽四諍戒第七十七， 嗔打比丘戒第七十八， 搏比丘戒第七十九， 無根僧殘謗戒第八十， 突入王宮戒第八十一， 捉寶戒第八十二). -卷19(初分之十九); 九十單提法之九(非時入聚落戒第八十三， 過量床足戒第八十四， 兜羅貯床褥戒第八十五， 骨牙角作針筒戒第八十六， 過量尼師壇戒第八十七， 覆瘡衣過量戒第八十八， 雨衣過量戒第八十九， 與佛等量作衣戒第九十)， 四提舍尼(在俗家從非親尼取食戒第一， 在俗家偏心受食戒第二， 學家過受戒第三， 有難當若受食戒第四)， 式叉迦羅尼法(齊整著涅槃僧戒第一， 齊整著三衣戒第二， 反抄衣戒第三， 反抄衣坐戒第四， 衣纏頸戒第五， 衣纏頸坐戒第六， 覆頭戒第七， 覆頭坐戒第八). -卷20(初分之二十); 百種學法

之二(跳行戒第九, 跳行坐戒第十, 蹲坐戒第十一, 叉腰戒第十二, 叉腰坐戒第十三, 搖身戒第十四, 搖身坐戒第十五, 掉臂戒第十六, 掉臂坐戒第十七, 覆身戒第十八, 覆身坐戒第十九, 左右顧視戒第二十, 左右顧視坐戒第二十一, 靜默戒第二十二, 靜默坐戒第二十三, 戲笑戒第二十四, 戲笑坐戒第二十五, 用意受食戒第二十六, 平鉢受食戒第二十七, 平鉢受羹戒第二十八, 羹飯等食戒第二十九, 以次食戒第三十, 不挑鉢中央食戒第三十一, 索羹飯戒第三十二, 飯覆羹戒第三十三, 視比座鉢戒第三十四, 系鉢想食戒第三十五, 大搏食戒第三十六, 張口待飯食第三十七, 含食語戒第三十八, 遙擲口中戒第三十九, 遺落飯食第四十). -卷21(初分之二十一); 百衆學法之三(頰飯食戒第四十一, 嚼飯作聲戒第四十二, 吸飯食戒第四十三, 舌舐食戒第四十四, 振手食第四十五, 手把散飯食戒第四十六, 汚手捉食器戒第四十七, 棄洗鉢水戒第四十八, 生草上大小便戒第四十九, 水中大小便戒第五十, 立大小便戒第五十一, 爲反抄衣人說法戒第五十二, 爲衣纏頸者說法戒第五十三, 爲覆頭者說法戒第五十四, 爲裹頭者說法戒第五十五, 爲叉腰者說法戒第五十六, 爲着革屨者說法戒第五十七, 爲着木屨者說法戒第五十八, 爲騎乘者說法戒第五十九, 佛塔內宿第六十, 藏物佛塔中戒第六十一, 著革屨入佛塔戒第六十二, 捉革屨入佛塔戒第六十三, 着革屨遶塔行戒第六十四, 着富羅入佛塔中戒第六十五, 捉富羅入佛塔中戒第六十六, 塔下坐食戒第六十七, 塔下担死尸戒第六十八, 塔中埋死尸戒第六十九, 塔下燒死尸戒第七十, 向塔燒死尸戒第七十一, 塔四邊燒死尸戒第七十二, 持死人衣及床從塔下過戒第七十三, 塔下大小便戒第七十四, 向塔大小便戒第七十五, 遶塔四邊大小便戒第七十六, 持佛像至大小便處戒第七十七, 塔下嚼楊枝戒第七十八, 向塔嚼楊枝戒第七十九, 塔四邊嚼楊枝戒第八十, 塔下涕唾戒第八十一, 向塔涕唾戒第八十二, 塔四邊涕唾戒第八十三, 向塔舒脚坐戒第八十四, 安塔在下房戒第八十五, 人坐已立說法戒第八十六, 人臥已坐說法戒第八十七, 人在座已在非座說法戒第八十八, 人在高坐已在下坐說法戒第八十九, 人在前行已在後說法戒第九十, 人在高經行處已在下經行處說法戒第九十一, 人在道已在非道說法戒第九十二, 携手在道行戒第九十三, 上樹戒第九十四, 杖絡囊戒第九十五, 爲持杖人說法戒第九十六, 爲持劍人說法戒第九十七, 爲持矛人說法戒第九十八, 爲持刀人說法戒第九十九, 爲持盖人說法戒第一百, 七滅諍法). -卷22(二分之一明尼戒法); 八波羅夷法(淫戒第一, 盜戒第二, 殺人戒第三, 大妄語戒第四, 摩觸戒第五, 八事成重戒第六, 覆他重罪戒第七, 隨舉三諫不舍戒第八), 十七僧殘法之初(媒嫁戒第一, 無根重罪謗他戒第二, 假根謗戒第三, 詣官言人戒第四, 度賊女戒第五, 界外輒解三舉戒第六, 四獨戒第七). -卷23(二分之一明尼戒法); 十七僧殘法之餘(受染心男子衣食戒第八, 勸受染心男子衣食戒第九, 破僧違諫戒第十, 助破僧違諫戒第十一, 汚家擯謗違諫戒第十二, 惡性拒僧違諫戒第十三, 習近住違諫戒第十四, 謗僧勸習近住違諫戒第十五, 嗔心舍三寶違僧三諫戒第十六, 發起四諍謗僧違諫戒第十七), 三十舍墮法(張衣過限戒第一, 離五衣宿戒第二, 一月衣戒第三, 從非親里居士乞衣戒第四, 過知足受衣戒第五, 勸增衣價戒第六, 勸二家增衣價戒第七, 過限匆切索衣價戒第八, 蓄錢寶戒第九, 質寶戒第十, 販賣戒第十一, 乞鉢戒第

十二，乞縷使非親織戒第十三，勸織師增衣縷戒第十四，與他衣強奪戒第十五，蓄七日葯過限戒第十六，過前受急施衣過後蓄戒第十七，回僧物入己戒第十八). -卷24(二分之三明尼戒法); 三十舍墮法之二(乞酥油戒第十九，互用說戒堂物戒第二十，回現前僧食直用作五衣戒第二十一，互用別房戒第二十二，互為現前僧堂戒第二十三，蓄長鉢過限戒第二十四，過蓄十六枚器戒第二十五，許病衣不與戒第二十六，非時衣受作時衣戒第二十七，貿易衣已後強奪戒第二十八，過乞重衣戒第二十九，過乞輕衣戒第三十)，一百七十八單提法之一(小妄語戒第一，罵戒第二，兩舌戒第三，共男人宿戒第四，共未受人宿過三夜戒第五，與未具人共誦戒第六，向非具人說粗罪戒第七，實得道向未受具者說戒第八，與男人說法過限戒第九，掘地戒第十，坏生種戒第十一，異語惱僧戒第十二，嫌罵僧知事戒第十三，露敷僧臥具戒第十四，覆處敷僧物戒第十五，強敷戒第十六，牽她出僧房戒第十七，坐脫脚床戒第十八，用蟲水戒第十九，覆房過三節戒第二十，施一食處過受戒第二十一，別衆食戒第二十二，取歸婦賈客食戒第二十三，非時食戒第二十四，食殘宿戒第二十五，不受食戒第二十六，不囑同利入聚落戒第二十七，食家強坐戒第二十八，屏與男子坐戒第二十九，獨與男子坐戒第三十，驅他出聚戒第三十一，過受四月葯請戒第三十二，觀軍陣戒第三十三，有緣軍中過限戒第三十四，觀軍合戰戒第三十五，飲酒戒第三十六，水中戲戒第三十七，擊攙戒第三十八，不受諫戒第三十九，怖比丘尼戒第四十，半月浴過戒第四十一，露地然火戒第四十二，藏他衣鉢戒第四十三). -卷25(二分之四明尼戒法); 一百七十八單提法之二(真實淨不語取戒第四十四，著新衣戒第四十五，奪畜生命戒第四十六，飲蟲水戒第四十七，疑惱比丘尼戒第四十八，覆他粗罪戒第四十九，發諍戒第五十，與賊期行戒第五十一，惡見違諫戒第五十二，隨舉戒第五十三，隨擯沙彌尼戒第五十四，拒勸學戒第五十五，毀咿毗尼戒第五十六，恐舉先言戒第五十七，同羯磨后後戒第五十八，不與欲戒第五十九，與欲後悔戒第六十，屏處四諍戒第六十一，嗔打比丘尼戒第六十二，搏比丘尼戒第六十三，質根僧殘謗戒第六十四，突入王宮戒第六十五，捉寶戒第六十六，非時入聚落戒第六十七，過量床足戒第六十八，兜羅貯床褥戒第六十九，食蒜戒第七十，剃三處毛戒第七十一，洗淨過分戒七十二，用胡膠作男根戒第七十三，共相拍戒第七十四，供僧水扇戒第七十五，乞生五谷戒第七十六，生草上大小便戒第七十七，不看弃大小便戒第七十八，觀伎樂戒第七十九，共男子入屏處共語戒第八十，共男子入屏障處戒第八十一，遣伴遠去與男子屏處耳語戒第八十二，入白衣舍坐已不辭主人去戒第八十三，輒坐他床戒第八十四，白衣舍輒宿戒第八十五，與男子入暗室戒第八十六). -卷26(二分之五明尼戒法); 一百七十八單提法之三(不審諦受語向人說戒第八十七，惡心呪詛戒第八十八，因嗔椎胸哭戒第八十九，覆身同床戒第九十，同被褥臥戒第九十一，故惱客舊戒第九十二，同活尼病不看戒第九十三，安居中索她出房戒第九十四，三時無事游行戒第九十五，安居竟不知請戒第九十六，邊界恐怖處游行戒第九十七，界內繞城四邊有疑恐怖處游行戒第九十八，習近住違諫戒第九十九，往觀王宮戒第一百，泉渠水中露身洗浴戒第一百零一，過量浴衣戒第一百零二，縫僧伽梨過五日戒第一百零三，過五日不看僧伽梨戒第一百零四). -卷

27(二分之六明尼戒法); 一百七十八單提法之四(與僧衣作留難戒第一百零五, 輒著他衣戒第一百零六, 與俗人外道衣戒第一百零七, 遮僧分衣戒第一百零八, 停衆僧出功德衣戒第一百零九, 遮比丘尼僧不出功德衣戒第一百一十, 不與他滅諍戒第一百一十一, 與白衣外道食戒第一百一十二, 爲白衣作使戒第一百一十三, 自手紡織戒第一百一十四, 著俗服輒在白衣床臥戒第一百一十五, 經宿不辭主人去戒第一百一十六, 自誦呪術戒第一百一十七, 教人誦習呪術戒第一百一十八, 度妊身女人戒第一百一十九, 度乳兒婦女戒第一百二十, 度童女年不滿受具戒第一百二十一, 不與二歲學戒羯磨戒第一百二十二, 不說六法名字戒第一百二十三, 度諸遮童女戒第一百二十四). -卷28(二分之七明尼戒法); 一百七十八單提法之五(度諸遮童女戒第一百二十四之餘, 度少年曾嫁婦受具戒第一百二十五, 度受諸遮曾嫁婦女戒第一百二十六, 度姪女戒第一百二十七, 不與二事攝弟子戒第一百二十八, 不二歲隨和尚尼戒第一百二十九, 違僧度人授具戒第一百三十, 未滿十二夏度人戒第一百三十一, 無德度人戒第一百三十二, 不聽度人謗僧戒第一百三十三, 父母夫主不聽輒度人戒第一百三十四, 度惡行喜嗔者戒第一百三十五, 不與學戒尼授具戒第一百三十六, 受衣已不與授具足戒第一百三十七, 多度弟子戒第一百三十八, 不卽往大僧求具戒第一百三十九). -卷29(二分之八明尼戒法); 一百七十八單提法之六(教授日不往聽戒第一百四十, 不半月請教授師戒第一百四十一, 不詣大僧自恣戒第一百四十二, 不依大僧安居戒第一百四十三, 不白入大僧寺戒第一百四十四, 訶罵比丘戒第一百四十五, 罵尼衆戒第一百四十六, 不白衆使男子治癰戒第一百四十七, 背請戒第一百四十八, 于家生嫉妒心戒第一百四十九, 用香塗摩身戒第一百五十, 以胡麻滓塗摩身戒第一百五十一, 使比丘尼塗摩身戒第一百五十二, 使式叉摩那塗摩身戒第一百五十三, 使沙彌尼塗摩身戒第一百五十四, 使白衣婦女塗摩身戒第一百五十五, 著貯跨衣戒第一百五十六, 畜婦女莊嚴具戒第一百五十七, 著革屨持盖行戒第一百五十八). -卷30(二分之九明尼戒法); 一百七十八單提法之七(无病乘乘戒第一百五十九, 不著僧祇支入村戒第一百六十, 向暮至白衣家戒第一百六十一, 向暮開僧伽藍門戒第一百六十二, 日沒開僧伽藍門戒第一百六十三, 不安居戒第一百六十四, 度有病女受具戒第一百六十五, 與二形人受具戒第一百六十六, 與二道合人受具戒第一百六十七, 度負債難病難人受具戒第一百六十八, 誦咒爲活命戒第一百六十九, 以世俗技術教授白衣戒第一百七十, 被擯不去戒第一百七十一, 先不請比丘尼輒問義戒第一百七十二, 身業惱他戒第一百七十三, 在比丘寺內起塔戒第一百七十四, 百歲尼不敬比丘戒第一百七十五, 搖身趨行戒第一百七十六, 作婦女莊嚴香塗身戒第一百七十七, 使外道女香塗身戒第一百七十八), 八提舍尼法(乞酥食戒第一, 乞油食戒第二, 乞石蜜食戒第三, 乞黑石蜜食戒第四, 乞乳食戒第五, 乞酥食戒第六, 乞魚食戒第七, 乞肉食戒第八). -卷31(二分之十); 受戒捷度第一之一(菩薩族姓, 摩竭王泐沙願爲佛弟子, 菩薩出家, 証不用處定 証有想無想定, 六年苦行, 坐菩提樹下得四勝法証三明, 最初受二歸依優婆塞, 菩薩本生, 諸神中最初受二歸依, 最初受二歸依優婆夷及其全家歸依, 最初受二歸依畜生, 佛觀所獲緣起及涅槃法甚深難解衆生難知). -卷32(二分之十一); 受戒捷度

第一之二(梵天王請轉法輪，鹿苑所初轉法輪度五比丘世間間六阿羅漢，二度耶輸伽世間有七羅漢最初優婆塞三自歸，最初受三自歸優婆夷聽受僧次聽請別請，三度耶輸伽四友世間有十阿羅漢弟子如來爲十一，四度耶輸伽五十友世間有六十阿羅漢弟子如來爲六十一，五度同友五十世間有百一十阿羅漢弟子佛爲百一十一，六度那羅陀世間有一百一十一阿羅漢佛爲一百一十二，畜生最初受三自歸，世尊偈告比丘佛與阿羅漢皆已究竟解脫一切俱証一切解，佛遣比丘人間游行說法制三歸受具，度郁鞞羅跋陀羅跋提同友五十人，度三迦葉及千梵志因緣之初)。-卷33(二分之十二)；受戒捷度第一之三(度三迦葉及千梵志之餘，度瓶沙王受羅闍城迦蘭陀竹園，度舍利弗目犍連及二百五十梵志，舍三語聽滿十人授具足戒，聽十歲比丘授人具足戒)，聽十歲智慧比丘授人具足戒(制和尚法，制弟子法)。-卷34(二分之十三)；受戒捷度第一之四(聽請阿闍梨爲依止，聽與外道衆僧中四月共住，不度坏内外道者出家，不得度奴出家，不得度賊出家，不得度負債人出家，不應授年未滿二十者具足戒，不得度五種病人授具足戒，與波羅夷戒，度沙彌，年不滿二十受具足後開數胎月數閏月數十四日說戒日，若得阿羅漢即名爲出家受具足，聽結小界受具，無或多和尚不得受具足戒，受具與四依法，不得度官人，無衣鉢者不得受具足戒，不與犯比丘尼者不應與出家受大戒，不與賊心入道者出家受具足戒)。-卷35(二分之十四)；受戒捷度第一之五(不得與黃門出家受具足戒，不得與畜生出家受具足戒，不得與造五無間罪者出家受具足戒，轉異形送比衆中，轉二形滅擯，自截男根滅擯意外失不滅擯，不自称字不肯称和尚名教乞戒而不乞三種人不得受具足戒，着俗服外道服衆莊嚴身具三種人不成受具足戒，眠醉狂三種不得授具足戒，裸形瞋恚強與受具足戒者三種人非受具足戒，一切污辱衆僧者不得度受具足戒，不同界不名受具足，不與沙彌戒便受具足戒衆僧有犯，先問十三難事然後授具足戒，授具足戒白四羯磨，作羯磨已當先說四波羅夷法及四依，被舉已即休道還來受具，舍前制，從不持戒和尚受具足戒不知得戒)，說戒捷度第二之上(開六齋日集會說法，聽夜集一處說法，聽夜集坐禪，制半月說戒，結大界，結戒場，解界，結不失衣界，結不失衣界除村村外界，二界不得相接錯涉，先解不失衣界却解大界，不得隔馱流水外結不失衣界除常有橋者，結同一利養同一說戒，結同一說戒別利養，結別說戒同一利養，別說戒別利養，行時下道結小界說戒，解小界，不得合河水結同一說戒界，不得住處相去遠結同一說戒，先白然後說戒)。-卷36(二分之十五)；說戒捷度第二之下(不足四人說戒，法和合衆羯磨說戒者名爲說戒，與欲清淨，聽當在衆中立及高座說，聽轉授欲清淨，聽略說戒，作心亂狂痴羯磨狂止還解，聽作自言治，制五歲比丘誦戒羯磨，依能誦戒比丘夏安居，弟子辭和尚遠行，痴比丘恭敬知法律比丘，說戒日犯罪發露忏悔，于犯中生疑自說後聞戒，說戒時有比丘犯罪語邊人，說戒時于罪有疑語比，一切僧盡犯，一切僧于罪有疑，一切衆僧盡犯罪作白，一切衆僧于罪有疑作白，一切僧盡犯罪不識罪，客比丘至說戒，說戒時客比丘來，說戒日有舊比丘來，見聞疑有比丘相，見聞疑有比丘在界場上，見聞疑有比丘在界內，不應回避爲己作羯磨若遮說戒，餘衆不得遮羯磨說戒，不應在未受大戒人前作羯磨說戒，僧還和合說戒)。-卷37(二分之十六)；安居捷度第三，自恣捷度第四之一

(不應行啞法), (三分之一). -卷38(三分之二); 自恣撻度第四之二, 皮革撻度第五之一. -卷39(三分之一); 皮革撻度第五之餘, 衣撻度第六之一. -卷40(三分之一); 衣撻度第六之二. -卷41(三分之一); 衣撻度第六之三. -卷42(三分之一); 藥撻度第七之一. -卷43(三分之一); 藥撻度第七之二, 迦絺那衣撻度第八, 拘睒彌撻度第九. -卷44(三分之一); 瞻波撻度第十, 呵責撻度第十一之一. -卷45(三分之一); 呵責撻度第十一之餘, 人撻度第十二之一. -卷46(三分之一); 覆藏撻度第十三, 遮撻度第十四, 破僧撻度第十五. -卷47(三分之一); 靈諍撻度第十六之一. -卷48(三分之一); 靈諍撻度第十六之二, 比丘尼撻度第十七之一. -卷49(三分之一); 比丘尼撻度十七之下, 法撻度第十八. -卷50(四分之一); 房舍撻度初. -卷51(四分之一); 房舍撻度之餘, 染撻度之一. -卷52(四分之一); 染撻度之二. -卷53(四分之一). 染撻度之三. -卷54(四分之一). 染撻度之四, 七百集法毘尼. -卷55(四分之一雜篇戒中調物部). 調部之一(調部淫戒第一, 調部盜戒第二). -卷56(四分之一). 調部之二(調部殺戒第三, 調部大妄語戒第四, 調部僧殘事). -卷57(四分之一). 調部之三(調部僧殘事之餘), 毘尼增一之一(一法, 二法). -卷58(四分之一). 毘尼增一之二(三法, 四法). -卷59(四分之一); 毘尼增一之三(四法之餘, 五法). -卷60(四分之一). 毘尼增一之四(五法之餘, 六法, 七法, 八法, 九法, 十法, 十一法, 餘法).

이상과 같이 「四分律」 60卷本은 初分, 第二分, 第三分, 第四分 등 도합 4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初分은 比丘 250條의 戒律條目을 포함한 20卷이고 (2) 二分은 比丘尼 348條의 戒律條目과 受戒·說戒·安居·自恣(上) 등 4撻度を 포함한 15卷이며, (3) 三分은 自恣(下)·皮革·衣·葯·迦絺那衣·拘睒彌·瞻波·呵責·人·覆藏·遮·破僧·滅諍·比丘尼·法 등 15撻度の 14卷이고 (4) 四分은 房舍撻도와 染撻度 및 五百集法·七百集法·調部毗尼·毗尼增一 등을 포함한 11卷이다.

그러나 이러한 卷數의 分類는 高麗藏本에 根據한 것이며, 宋·元·明 등의 3藏本에는 多少의 出入이 없지도 않다. 또한 以上の 四分이 구별은 經義에 근거하여 分類된 것이 아니라 段章의 名稱에 의거하여 判立된 것이다.

調査本 「四分律」 卷47~50의 4卷1冊本은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款式과 本文의 構成 및 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UNESCO 世界記錄遺産’이자 ‘國寶 第32號’인 <海印寺大藏經版>에 포함된 「四分律」과 동일한 版本으로, 高麗高宗 31(1244)年頃에 板刻된 것을 朝鮮世祖 4(1458)年頃에 印出하여 線裝한 版本인 듯하다. 그러나 원래 <海印寺大藏經>版本에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甲辰歲’(고려 고종 31, 1244)의 板刻時代를 비롯하여 ‘高麗國’ 및 ‘大藏都監奉勅彫造’의 板刻主體와 板刻處 등의 刊記가 板刻되어 있었을 것이나, 調査本 「四分律」의 各 卷末에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의 刊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朝鮮世祖朝에 이르러 印出할 때에 勝國의 國號를 忌避한 緣由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調査本 「四分律」의 題簽題·卷頭題·卷末題·張次題 등은 ‘四分律’이고 函次名은 ‘唱’

이다.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本文의 行字數는 23行14字 內外이고 註文은 小字雙行이다. 卷子本 形式의 裝訂을 念頭に 두고 板刻된 것이라 界線을 비롯하여 板心이나 板口 및 魚尾 등은 없다.

調査本 「四分律」의 收錄內容은 卷47은 ‘三分之十一’으로 <靈諍捷度第十六之一>이 수록되고 卷48은 ‘三分之十二’로 <靈諍捷度第十六之二>과 <比丘尼捷度第十七之一>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49은 ‘三分之十三’으로 <比丘尼捷度十七之下>와 <法捷度第十八>이 수록되어 있고 卷50은 ‘四分之一’로 <房舍捷度初>가 수록되어 있다. 紙質은 藁精과 楮가 섞인 薄韓紙·厚韓紙 및 黃色韓紙 등이며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한편 調査本 「四分律」의 每板에는 本文을 板刻한 刻手名이 板刻되어 있는데, 卷47에는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世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등이 板刻되어 있고 卷48에는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등이 板刻되어 있으며, 卷49에는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尨[命龍?]), 07(命尨[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世英), 17(世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등이 板刻되어 있고 卷50에는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등이 板刻되어 있다.

調査本 「四分律」은 高麗 高宗 31(1244)年頃に 板刻된 高麗大藏經板을 朝鮮 世祖 4(1458)年頃に 印出한 것으로 그 傳本이 매우 稀貴한 版本이며, 佛敎學과 書誌學 등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자료이다. 특히 高麗時代의 大藏經研究에는 물론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資料이다.

따라서 調査本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 지정사례

調査本「四分律」과 同一한 版本의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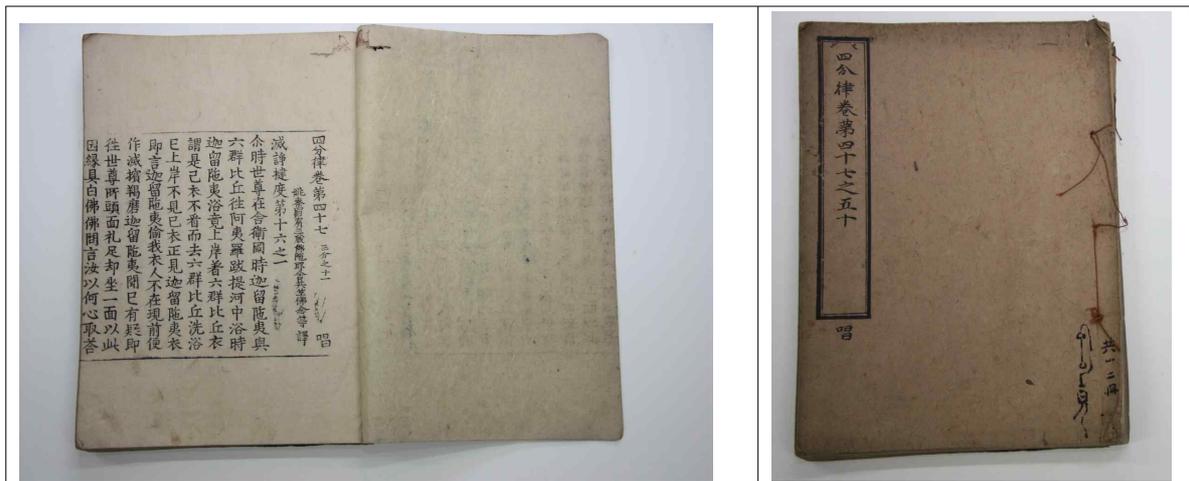
○ 문헌자료

- 増上寺史料編纂所 編, 「増上寺三大藏經目錄解題」. 東京 : 増上寺史料編纂所, 1982. p.47.
- 馬場久幸, 「高麗大藏經이 日本佛敎에 미친 影響」. 博士學位論文. 益山 : 圓光大學校大學院, 2008. pp.145~146.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및 <檢討意見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文化財委員會 有形分科委員會 審議議決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최영호 編, <大成寺 所藏 「四分律」 調査報告書>. 釜山 : 釜山廣域市, 2014.
- 김미정(大成寺 住持 무애), <大成寺 四分律 所藏 經緯書>. 釜山 : 峨眉山大成寺 住持 무애, 2015.
- 文化財廳 文化財檢索(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

□

○ 현 상

조사본 『사분율(四分律)』 권47~50은 본래 권자본(卷子本)의 형식으로 판각되었으나 후대에 인경 후 선장(線裝)한 상태이다. 표지에는 약간의 말림현상이 있으며 철사(綴絲)는 훼손된 상태이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수탁 관리중이다.



○ 내용 및 특징

書誌事項

四分律. 卷47~50 / 達磨笈多(?~?, BC3世紀 初) 編 ; 佛陀耶舍(?~?, 姚秦), 竺佛念(?~?, 姚秦) 等譯. -- 木板本(大藏都監). -- [漢城] : [印經處不明],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推定].

4卷1冊 : 上下單邊, 全郭 22.2×46.7cm, 無界, 23行14字 內外, 註雙行, 無魚尾 ; 40.2×29.2cm. 藁精·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四分律

卷頭題: 四分律

卷末題: 四分律

張次題: 四分律

函次名: 唱

刻手名: -卷47;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世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卷48;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已[惠己?]), 32(中才), 33(-). -卷49;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尨[命龍?]), 07(命尨[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世英), 17(世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公式?]), 37(公式). -卷50;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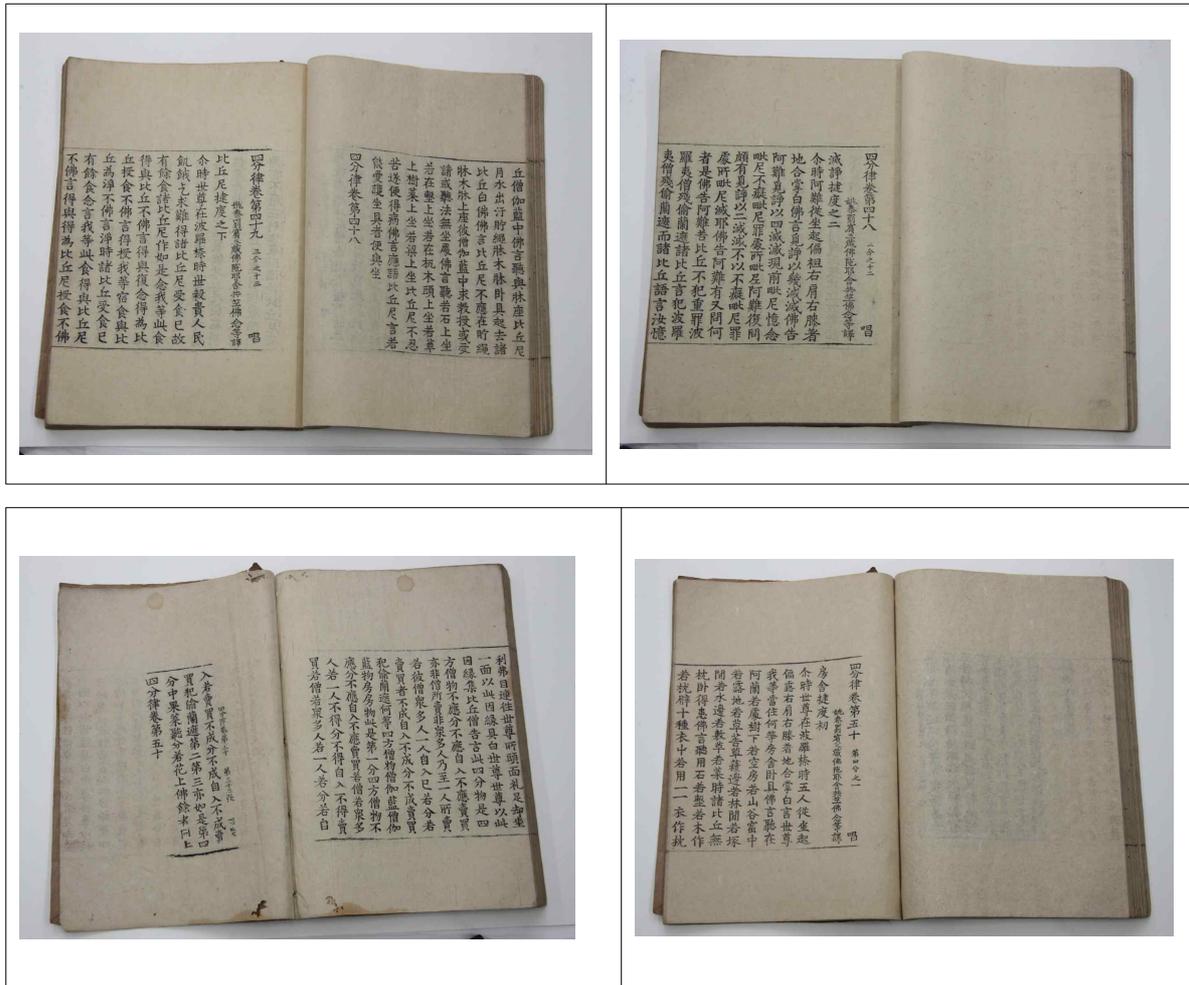
『사분율(四分律)』은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100년 후에 달마굽다(達磨笈多, ?~?)가 인도 상좌부(上座部)의 법장부(法藏部)에 전해지는 근본율(根本律) 중에서 자기의 견해에 맞는 것만을 4차에 걸쳐 뽑아내어 편찬한 율장(律藏)을 중국 요진

(姚秦)의 불타야사(佛陀耶舍, ?~?)와 축불념(竺佛念, ?~?) 등이 장안에서 함께 한역한 60권본이다.

『사분율』 60권본은 초분(初分), 제2분(第二分), 제3분(第三分), 제4분(第四分) 등 도합 4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초분은 비구 250조의 계율조목(戒律條目)을 포함한 20권이고 (2) 제2분은 비구니 348조의 계률조목과 수계(受戒)·설계(說戒)·안거(安居)·자인(自恣, 上) 등 4건도(犍度)를 포함한 15권이며, (3) 제3분은 자인(自恣, 下)·피혁(皮革)·의(衣)·약(藥)·가치나의(迦絺那衣) 등 15건도의 14권이고 (4) 제4분은 방사건도(房舍犍度)와 염건도(染犍度) 및 오백집법(五百集法)·칠백집법(七百集法) 등을 포함한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같은 권수(卷數)의 분류는 고려대장경본(高麗大藏經本)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 宋·元·明 등의 3藏本에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한다.

조사본 『사분율』 권47~50(4권1책)은 광곽과 간기를 제외한 형태서지학적(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각수(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陝川 海印寺 大藏經板)」에 포함된 『사분율』과 동일한 판본으로, 1244년(고려 고종 31) 경에 판각(板刻)된 것을 1458년(조선 세조 4) 경에 인출(印出)하여 선장(線裝)한 판본(版本)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래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판본에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甲辰歲’(고려 고종 31, 1244)의 판각 시기를 비롯하여 ‘高麗國’ 및 ‘大藏都監奉勅彫造’의 판각 주체와 판각처 등의 간기(刊記)가 있었으나, 조사본 『사분율』의 각권말(卷末)에는 간기가 나타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선 세조조에 이르러 인출할 때에 국호(國號)를 기피한 이유때문으로 이해된다.

조사본 『사분율』의 제첨제(題簽題)·권두제(卷頭題)·권말제(卷末題)·장차제(張次題) 등은 ‘四分律’이고 함차명(函次名)은 ‘唱’이다. 판식(版式)의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본문의 행자수는 23행 14자 내외이고 주문(註文)은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 권자본 형식의 장정을 염두에 두고 판각된 것이라 계선(界線)을 비롯하여 판심(板心)이나 판구(板口) 및 어미(魚尾) 등은 없다. 또한 매 판에는 본문을 판각한 각수의 이름이 판각되어 있다. 조사본 『사분율』의 수록 내용은 권47은 ‘三十一’으로 <靈諍犍度第十六之一>이 수록되고 권48은 ‘三十二’로 <靈諍犍度第十六之二>과 <比丘尼犍度第十七之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49은 ‘三十三’으로 <比丘尼犍度十七之下>와 <法犍度第十八>이 수록되어 있고 권50은 ‘四十一’로 <房舍犍度初>가 수록되어 있다.



○ 지정사례 :

조사본 『사분율』 권47~50과 동일한 판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및 <檢討意見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文化財委員會 有形分科委員會 審議議決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최영호 編, <大成寺 所藏 「四分律」 調查報告書>. 釜山 : 釜山廣域市, 2014.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四分律」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四分律. 卷47-50 / 達磨笈多(?~?, 印度) 編 ; 佛陀耶舍(?~?, 姚秦), 竺佛念(?~?, 姚秦) 共譯. -- 木板本(大藏都監). -- [漢城] : [發行處不明],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4卷1冊(全60卷12冊) : 上下單邊, 全郭 22.2 × 46.7cm, 無界, 23行14字, 註雙行, 無魚尾 ; 40.2 × 29.2cm. 藁精·楮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四分律

卷頭題: 四分律

卷末題: 四分律

張次題: 四分律

函次名: 唱

內 容:

- 卷47(三分之十一): 滅諍捷度第十六之一
- 卷48(三分之十二): 滅諍捷度之二, 比丘尼捷度第十七
- 卷49(三分之十三): 比丘尼捷度之下, 法捷度第十八
- 卷50(四分之一): 房舍捷度初

刻手名:

- 卷47: 01(·), 02(仁一), 03(英伯), 04(英白), 05(·), 06(惠印), 07(世圭), 08(·), 09(正順), 10(正順), 11(保令), 12(保令), 13(宗素), 14(宗素), 15(元瑩), 16(·), 17(元瑩), 18(·), 19(惠之), 20(惠之), 21(□湛[宗湛?]), 22(宗湛), 23(法雷), 24(法雷), 25(印一[印幹?]), 26(仁幹), 27(光看[光著?]), 28(光看[光著?])
- 卷48: 01([性良?]), 02(韓璉), 03(韓璉), 04(戒休), 05(戒休), 06(·), 07(全一[全一?]), 08(□□[性良?]), 09(性良), 10(長命), 11(長命), 12(惠右), 13(·), 14(戒山), 15(戒山), 16(仁京), 17(仁京), 18(益明), 19(益明), 20(成允), 21(□覺[性允?]), 22(·), 23(守呂), 24(中守), 25(中守), 26(日生), 27(日生), 28(東海), 29(東海), 30(·), 31(惠巳[惠己?]), 32(中才), 33(·)
- 卷49: 01(·), 02(·), 03(曹規), 04(令順), 05(令順), 06(命龙[命龍?]), 07(命龙[命龍?]), 08(克中), 09(克中), 10(弘郎[命節?]), 11(弘郎[命節?]), 12(長存), 13(長存), 14(戒之), 15(戒之), 16(世英), 17(世英), 18(順眞), 19(順眞), 20(允兼), 21(允兼), 22(中□[中才?]), 23(中才), 24(心一), 25(心一), 26(·), 27(甘大), 28(允仁), 29(允仁), 30(曹守), 31(□守[曹守?]), 32(益恕), 33(益□[益恕?]), 34(□□[惠珍?]), 35(惠示[惠珍?]),

36(公口[公式?]), 37(公式)

-卷50: 01(·), 02(宝山), 03(元呂), 04(元呂), 05(·), 06(金奇), 07(保印[保守?]), 08(保口[保守?]), 09(喜玄), 10(喜玄), 11(升有), 12(升有), 13(升有), 14(·), 15(文正), 16(文正), 17(中花[中希?]), 18(中花[中希?]), 19(惠暉), 20(惠暉), 21(盡母[只每?]), 22(盡母[只每?]), 23(能大), 24(能大), 25(朴文), 26(朴文), 27(惠光), 28(惠光), 29(了眞), 30(了眞), 31(朴文), 32(朴文)

刊 記: 高麗 高宗 31(1244) 刻, 朝鮮 世祖 4(1458) 印出 추정

裝 訂: 線裝, 원래 卷子本으로 장정하기 위한 板刻이나 조선 세조때 인출
본을 線裝으로 장정함

表 紙: 楮紙, 원래 표지로 추정됨

題 簽: 표지에 검정선으로 그림. 세로 26.9 × 가로 4.8 cm

狀 態: 保存狀態는 매우 良好한 편임

所 藏: 大成寺(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142-22, 아미동 2가)

管 理: 東亞大學校博物館(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傳來歷: 1963년 釜山 大成寺 창건 시부터 2006년 入寂할때까지 주지를 지낸
曉潭(속명: 김한순)의 소장본으로, 제자인 무애 김미정에게 전해짐

既指定: 없음

조사본 「四分律」은 1963년 釜山 大成寺 창건 시부터 2006년 入寂할때까지 주지를 지낸 曉潭(속명: 김한순)의 소장본으로 제자인 무애 김미정에게 傳來되어 그의 사후인 2014년 초 호담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되었다고 하며, 大成寺에서 東亞大學校博物館에 기탁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의 동아대학교에 수장,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四分律」의 보존 상태는 장정을 위한 紅絲가 끊어지고 표지이면과 卷 47 앞부분 面紙 몇 장의 상단 오른쪽 여백에 줌으로 훼손된 부분이 다소 보이나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또한 원래 卷子本으로 장정하기 위한 板刻을 조선 세조때 인출하면서 線裝으로 꾸몄다.

○ 내용 및 특징

「四分律」은 기원전 3세기 초 인도의 승려 達磨笈多(Dharmagupta, 曇無德, ?~?)가 五部律典 가운데 上座部 계통의 율전을 편찬한 法藏部の 律藏으로, 출가한 승려가 佛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불교의 律典이다. 姚秦의 佛陀耶舍(?~?)와 竺佛念(?~?) 등이 弘始 12~14년(410~412) 경에 長安에서 공동으로 漢譯하였고 전체 내용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四分律」이라고 불리는

전체 60卷 12冊의 佛書이다.

編著者인 達磨笈多(Dharmagupta ?~?)는 기원전 3세기 초에 살았던 인도의 승려로 인도의 論師인 優婆鞠多(?~?)의 제자이며, 曇無德, 曇摩鞠多, 曇摩屈多迦 등으로 音寫되고 法藏, 法護, 法鏡, 覆法 등으로 意譯되어 불린다. 처음에는 化地部に 속하였으나, 五藏說이 化地部の 論理에 어긋나므로 독립하여 한 部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이 曇無德部는 曇無德律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4種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四分律宗이라고도 한다.

譯者인 佛陀耶舍(buddhayaśas, ?~?)는 산스크리트어 ‘buddhayaśas’의 音寫이며 ‘覺明’으로 번역된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인 북인도 罽賓國의 바라문 출신으로 13세에 출가하여 27세에 具足戒를 받고 沙勒國에 이르러 太子 達摩弗多的 존경과 환대를 받으며 궁중에서 지냈다. 그때 龜茲國에서 온 鳩摩羅什(344~413)에게 「阿毘達磨」와 「十誦律」을 가르쳤으며, 그 후 鳩摩羅什의 請으로 五胡十六國時代에 甘肅省의 姑臧을 거쳐 姚秦(後秦)의 弘始 10년(408)에 長安에 이르러 姚興(366~416)의 환대를 받으며 鳩摩羅什와 함께 譯經에 참여하여 「四分律」과 「長阿含經」 등을 번역하였다. 弘始 15년(413)에 다시 罽賓國으로 돌아가 「虛空藏經」 등을 얻었다고 전해지나 그 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共譯者인 竺佛念(?~?)은 前秦~後秦의 승려로 甘肅省 涼州 出身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뜻을 堅固하게 가지고 여러 경전을 익히는 한편 外典도 공부했다. 그가 前秦 建元 10년(375) 경에 長安으로 왔을 무렵 僧伽跋澄(?~?)도 曇摩難提(?~?) 등과 함께 長安에 도착하자 朝廷의 요청으로 僧伽跋澄이 「婆須蜜所集論」을 번역하고 曇摩難提이 「王子法益壞目因緣經」과 「增一阿含經」 및 「中阿含經」 등을 번역하는데 조력하였으며 그는 傳語의 직책을 맡았다. 「梁高僧傳」에 의하면 後秦 弘始年間(399~415)에 「菩薩瓔珞經」, 「十住斷結經」, 「出曜經」, 「菩薩處胎經」, 「中陰經」 등 5部를 번역하여 譯經宗師로 불리었다고 하며, 「三藏記集」에 의하면 5部 외에 「王子法益壞目因緣經」도 번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開元釋教錄」에 의하면 「增菩薩瓔珞本業經」, 「鼻奈耶」, 「持人菩薩經」, 「大方等無想經」, 「菩薩普處經」, 「十誦比丘尼戒所出本末經」 등 6部까지 합해 총 12부 74권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持人菩薩經」외에는 모두 逸失되었다. 나중에 長安에서 입적했는데, 입적한 해나 世壽는 알려지지 않는다.

전체 四分으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 初分은 권1부터 권21까지로 比丘의 具足戒인 250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250계는 죄를 범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4가지 婆羅夷法, 죄를 범하면 20명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해야만 승려로서 남을 수 있는 13가지 僧殘, 계를 범하면 그 재물을 대중에게 내놓고 참회해야 하는 30가지 捨墮罪, 죄를 범한 뒤 대중에게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90가지 單墮罪, 익히고 닦아야 할 100가지의 衆學戒, 서로의 다툼을 없애고 화합을 얻게 하는 7가지 滅諍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二分은 권22부터 권36까지의 15권으로 되어 있으며 比丘尼 348계가 수록되어 있다. 比丘의 250계와는 달리 婆羅夷法이 8계, 僧殘이 17계, 捨墮罪가 30계, 單墮罪가 178계로 비구보다 계율이 더 세분되어 있고, 衆學戒와 滅諍法은 같다. 三分은 권 37부터 권49까지 13권이며, 내용은 수도정진기간인 安居 때에 지켜야 할 사항, 안거하는 동안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自恣에 관한 것, 옷과 약에 관한 것, 惡性比丘를 꾸짖는 법, 죄를 짓고 숨기는 비구를 참회시키는 법, 비구니에 대한 특수한 威儀 등 16종의 편장으로 되어 있다. 四分은 권50부터 권60까지의 11권으로, 방에 머무는 방법이나 기타 雜法에 관한 것, 경전 편찬에 관한 五百結集 및 七百結集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조사본은 「四分律」 권47부터 50까지의 1책으로, 卷47(三分之一)에는 滅諍捷度第十六之一이 수록되어 있고, 卷48(三分之一)에는 滅諍捷度之二, 比丘尼捷度第十七, 卷49(三分之一)에는 比丘尼捷度之下, 法捷度第十八, 卷50(四分之一)은 房舍捷度初가 기술되어 있다.

조사본은 匡郭과 刊記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측면과 本文의 구성체계 및 刻手 등을 고려해 볼 때 ‘UNESCO 世界記錄遺産’이자 ‘國寶 第32號’인 <海印寺大藏經版>에 포함된 「四分律」과 동일한 版本으로, 高麗 高宗 31년(1244) 경에 板刻된 것을 朝鮮 世祖 4년(1458) 경에 印出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본에는 <海印寺大藏經> 판본 卷尾題 다음에 새겨진 “甲辰歲(고려 고종31, 1244)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의 刊記는 누락되어 있다.

사용된 종이는 藁精과 楮가 섞인 여러 종류의 두터운 한지와 黃色한지 등이며 장정은 紅絲, 五針眼訂의 線裝本이다. 표지 왼쪽 상단에는 題簽 형태의 사주쌍변 직사각형(세로 26.9 × 가로 4.8 cm)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四分律卷第四十七之五十” 이라는 表題를 썼다. 또한 調查本 「四分律」의 총 130張, 每板에는 本文을 판각한 刻手名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권 첫 번째 판의 각수명은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四分律」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신라시대 고승들이 많은 주석서를 남겼고, 「梵網經」과 함께 출가한 승려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근본계율서로 채택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즉 출가자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우리나라 고승들의 주석서로는 智明(?~?)의 「四分律羯磨記」, 慈藏(590~658)의 「四分律羯磨記」와 「四分律木叉記」, 圓勝(?~?)의 「四分律羯磨疏」, 「四分律木叉記」, 元曉(617~686)의 「四分律羯磨疏」, 「四分律疏科」, 「四分律宗記」 및 「四分律諸緣記」, 憬興(?~?)의 「四分律羯磨記」, 「四分律拾毗尼要」, 明晶(?~?)의 「四分律決問」 등이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고려판 인경본은 「禮念彌陀道場懺法」, 「瑜伽師地論」, 「大方廣佛華嚴經」등 몇 종에 불과하고 「四分律」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사본 「四分律」은 조선 세조 4년(1458)에 印出된 것으로 추정되는 印經本으로

원래 표지가 온전히 남아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으로 조선 초기에 인출된 판본 중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가 없어 처음 소개되는 유일본이며, 고려시대 대장경 연구 등 불교학 및 조선 초기 인쇄문화 연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四分律」은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四分律」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등의 指定·認定 資料報告書> 및 <檢討意見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編, <文化財委員會 有形分科委員會 審議議決書>. 釜山 : 釜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5.
- 최영호 編, <大成寺 所藏 「四分律」 調査報告書>. 釜山 : 釜山廣域市, 2014.
- 김미정(大成寺 住持 무애), <大成寺 四分律 所藏 經緯書>. 釜山 : 峨眉山大成寺 住持 무애, 2015.
- 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13.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加平 懸燈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가. 검토사항

‘가평 현등사 사리장엄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가평 현등사 사리장엄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1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5.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加平 懸燈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현등사
- 소 재 지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34
- 수 량 : 2점
- 규 격 : 원제원통형 사리합 높이 6.5cm, 지름 5.8cm , 수정제 사리호 높이 4.0cm
- 재 질 : 은, 수정
- 조성연대 : 1470년(성종 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현등사 사리기는 비록 유례가 많지 않은 명문을 지닌 15세기 사리기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사리기의 구성이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문양이 없는 점에서 정교함이나 기술적인 역량이 그다지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사리기 자체만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승격은 부족해 보인다. 다만 출토지가 현등사 석탑이란 점에서 석탑의 건립연대를 추정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라는 점에서 석탑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낙산사의 공중사리탑과 사리장엄 유물은 사리탑의 가치보다 사리탑 내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관련 일괄 유물이 보다 높이 평가되어 함께 보물로 일괄 지정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현등사 사리기도 그 자체로는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다소 미흡한 편이지만 조선전기의 희소가치를 지닌 석탑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사리기의 명문을 통해 석탑의 건립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두 유물을 함께 일괄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현등사 삼층석탑의 사리기는 뚜껑이 있는 원통형의 은제사리함에 수정사리병이 넣어진 구조이다. 수정사리병에는 여러 과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은제사리함에는 ‘成化六年庚寅三月日 願堂雲岳山懸燈寺改造, 捨利五枚安邊大施主 帶方府夫人宋氏女子 普安□主李氏億千 折衝將軍中樞府僉知事具壽永’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을 통해 세종의 8남인 영웅대군(1434-1467)의 부인인 송씨와 그의 딸 길안현주와 사위인 구수영이 사리를 봉안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품이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다. 이는 시대적으로 불교를 억압하였던 조선시대의 분위기와도 연결된다. 현등사 삼층석탑과 여기에서 출토된 사리기는 제작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조성 주체도 분명한 미술품이다. 이런 점에서 현등사 석탑과 사리기는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일괄로 지정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미흡)

현등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는 은제사리함의 외면에 1470년에 봉안하였다는 봉안기를 가지고 있어, 제작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조선 전기 사리장엄구이다. 그러나 이 사리장엄구는 시기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유출되어 봉안 당시의 사리차림새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사리차림새는 보통 석탑 탑신에 방형의 사리공을 마련하고, 그속에 동제-은제-수정(금제) 등으로 구성된 3점의 차림새로 사리를 봉안하게 되는데,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은제원통형 사리함과 수정제 사리병 등 2점의 차림새만 남아있다. 따라서 사리장엄구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지정가치를 부여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리장엄구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삼층석탑이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과 함께 국가지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삼층석탑이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는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리장엄구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1. 가평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사리기에 음각된 명문을 통해 1470년이라는 제작시기와 발원자가 밝혀진 중요한 유물이다. 특히 사리장엄구의 시주자가 세종의 여덟 번째 아들인 永膺大君의 부인이었던 송씨를 비롯하여 딸과 사위라는 사실은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등사 사리장엄구의 문화재적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기에 제작된 사리장엄구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반출경위가 불분명한 문화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도굴로 인해 반출되었다가 회수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봉안 당시의 원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명문에 사리 5매를 봉안했다는 내용과 달리 현재 2매의 사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현존하는 사리장엄구의 구성이 제작당시 사리장엄구 전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진정성 및 완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리장엄구와 비교하여 작품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며, 1510년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덕오년명사리구 등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사리장엄구와 비교하더라도 예술성 면에서 탁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사리장엄구가 현등사의 탑에서 반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석탑에 봉안되었던 유물인지 특정할 수 없다. 현재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현등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63호)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의 내용 중에 ‘현등사의 탑을 고쳐짓고 사리 5매를 안치했다(懸燈寺塔改造 捨利五枚安邀)’는 기록은 원봉안처를 현존하는 삼층석탑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현등사 삼층석탑은 양식적으로 15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15세기 전반에 건립된 탑을 불과 수십 년의 차이를 두고 1470년에 중수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1927년에 간행된 『奉先寺本末寺誌』에 따르면 현등사에는 현존하는 삼층석탑 외에도 칠층석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칠층석탑의 부재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탑재의 일부가 현등사 地鎮塔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7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현등사 사리장엄구의 출처는 삼층석탑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1927년까지 존재했던 칠층석탑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현등사 사리장엄구가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는 제한적이며,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조선전기의 사리 장엄구는 현존하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아 이 사리기를 비롯하여 修德寺石塔 사리기(1458년), 水鐘寺石塔 사리장엄구(1493, 1628)와 正德 5年銘 사리기(1510) 등 정도만이 남아있다. 이들은 비록 수효는 적으나 꾸준히 계승되어온 석탑 사리봉안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이 현등사 사리기는 사리합의 외면에 명문이 남아있어 일찍부터 중요하게 알려져 왔는데, 삼성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오랜 기간 보관되어 오다가 ‘雲岳山 懸燈寺’란 명문이 남아있어 오랜 소송 끝에 원 출토지로 추정되는 현등사로 다시 반환되었다.

懸燈寺 사리기는 고려 후기까지 라마탑의 영향을 받거나 승탑의 형태를 모방한 사리기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형태면에서 조선 시대적인 변화를 잘 보여준다. 우선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은제 합은 뚜껑이 낮고 중앙이 솟아오른 형태이며 문양은 전혀 없다. 내부에 봉안된 수정제 사리기기는 고려 말 수종사 부도에서 발견된 수정 사리병 형식을 계승한 형태이다. 그러나 몸체가 훨씬 둥글며 단순화되었고 사리병 아래로 육각의 받침을 둔 점이 색다르다. 은제의 사리기 외면에는

成化六年庚寅三月日願堂

雲岳山懸燈寺塔改造

舍利五枚安邀大施主

帶方府夫人宋氏女子

普安○主李氏億千

折衝將軍中樞府僉

知事具壽永

의 명문이 음각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成化六年은 1470년에 해당되며 願堂인

雲岳山懸燈(燈)寺의 탑을 개조하고 사리 5매를 안치했다는 것과 帶方府夫人 宋氏와 사위, 딸이 시주하였고 折衝將軍의 지위를 가진 구수영이 발원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사리기는 직접적인 왕실 발원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대군의 부인과 집안이란 점에서 큰 의미에서는 왕실과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록 단순하지만 세부의 모습이 단정하고 특히 맑고 투명하면서도 內部를 호리병처럼 정성스럽게 깎아낸 水晶製 사리병이 비교적 정성스럽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현등사 석탑의 사리기 형식을 계승한 작품이 <正德5年銘(1510) 사리구>이며 이 사리구는 바깥의 은제사리함이 훨씬 장식적이며 정교한 문양으로 시문하여 당시로서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안에 봉안된 수정제 사리기는 현등사 사리병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보다 단순하고 받침도 없다. 그러나 이 사리기의 시주자들은 왕실보다 일반 계층으로 바꾸어 시대적 차이를 보여준다.

□

○ 내용 및 특징

1) 현등사의 연혁과 현황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63번지에 위치한 현등사는 『奉先寺本末寺誌』 등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법흥왕(514~540) 때 인도의 마라하미(摩羅訶彌) 스님을 맞이하여 세운 절이라 전한다. 898년 선각국사 도선이 중창하고 고려시대 희종 6년 普照國師 知訥이 재창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현등사에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을 없으나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탑 1기가 남아있다. 이 석탑은 지진탑으로 전해지는데 지눌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雲岳山懸燈寺事蹟(1772)』에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己和大師 涵虛堂(1376-1433)에 의해 1411년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등사에는 함허당의 사리를 모신 승탑(1433년)과 석등이 건립되어 있다. 기화대사의 부도 건립에는 효령대군이 직접 관계하였다고 한다. 왕실과 관계된 또 다른 기록으로는 세종의 7자인 平原大君(1427-1445)과 그의 부인 홍씨, 예종의 2자 齊安大君(1466-1525)과 그의 두 부인, 위패가 모셔졌었다는 내용이다. 제안대군이 평원대군의 양자로 입적되었던 관계로 원당이 같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 현등사 삼층석탑의 특징

삼층석탑은 가람의 중심축에서 벗어난 경내로 진입하는 마당 중앙에 세워져 있다. 이 탑은 1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사찰이 1411년 중수되었다는 기록과 1470년 탑이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참고가 된다.

사각 평면의 탑으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 넓은

바위 한 매를 바닥돌로 삼아서 만들었으나, 체감 비율로 볼 때 좁아서 전체적으로 탑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요인이 된다. 현등사의 삼층석탑은 이와 같이 기단부와 상층기반의 면적이 1매의 바위로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제작 방식은 영릉의 장명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대에 왕릉제도가 정리되면서 體石이라는 부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대석은 넓은 판석형 석재로 만들었으며 기단 부재는 흙을 파서 연결하였다. 기단부에 새겨진 연화문과 안상은 구 영릉의 장명등(1446), 광평대군묘의 장명등(1444), 수종사의 팔각오층탑(1459-1493)와 비슷한 형식이다. 탑신부의 탑신석은 체감 비율이 크지 않고, 탑신석 좌우에는 우주석을 표현하였다. 옥개석의 처마부분은 살짝 들려 올려서 전체적으로 딱딱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상륜부는 연화문이 장식된 복발석과 원형의 보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간략화된 형식의 탑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리기의 현황

현등사 삼층석탑의 사리기는 뚜껑이 있는 원통형의 은제사리함에 수정사리병이 넣어진 구조이다. 수정사리병에는 여러 과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은제사리병에는 ‘成化六年庚寅三月日 願堂雲岳山懸燈寺改造, 捨利五枚安邊大施主 帶方府夫人宋氏女子 普安□主李氏億千 折衝將軍中樞府僉知事具壽永’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현등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은제 사리함은 표면에 ‘成化六年庚寅三月日 願堂雲岳山懸燈寺改造, 捨利五枚安邊大施主 帶方府夫人宋氏女子 普安□主李氏億千 折衝將軍中樞府僉知事具壽永’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을 뿐 다른 문양은 없다. 문양을 새긴 직사각형의 은판에 명문을 새긴 뒤 이를 감아서 제물땀으로 용접하여 원통형은 만들었다. 다시 뚜껑의 턱을 만들기 위해 몸통의 구연부 부분에는 은판을 감아서 제물땀으로 용접하였다.

그 내부의 수정사리함은 육각형 대좌에 복박형의 몸체에 보주형의 지붕을 한 간략한 형태이다. 내부를 병모양으로 파서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림 1 은제사리함의
몸통부분, 현등사 삼층석탑



그림 2 은제사리함 내부,
현등사 삼층석탑



그림 3 수정사리병,
현등사삼층석탑

은제 사리함의 명문내용을 통해 사리를 봉안한 주체를 알 수 있다. 즉 성화6년(1470)년 탑을 개조하여 사리 5매를 봉안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중 시주자인 대방부인 송씨는 세종의 8남인 영응대군(1434-1467)의 부인이다. 송씨는 영응대군 사이에서 吉安縣主 1녀를 두었다. 명문의 ‘普安□主李氏億千’가 바로 송씨의 자녀로 생각된다. 李荇의 『容齊集』 10卷에는 길안현주 이씨의 묘비명(“縣主 乃我世宗莊憲大王之孫 永簡大君敬孝公淡之女 同知中樞院事宋復元之外孫 續川君具壽永之夫人 以天順丁丑七月生. 正德己卯十月卒 用是年十二月. 葬于楊州八谷山群場里 癸坐丁向之原 從先塋也”)이 전한다. 이 명문을 통해 송씨가 딸인 길안현주와 그의 남편 구수영과 함께 사리를 봉안한 것을 알 수 있다.

원통형의 사리기에 명문을 새기는 방식은 사리구는 1932년 방화선 공사 도중에 금강산 월출봉의 석함안에서 발견된 이성계 사리구에서도 확인된다. 이성계 사리기는 내사리기의 역할을 하는 도금탑형사리기위에 다시 은제팔각당형사리기,

동제발, 백자가 중첩된 구조로 백자대발이 외사리기인 썸이다. 이외에도 백자발 두점과 백자향로와 백자향합이 동반되어 있다.



그림 4 이성계발원 사리기 일괄, 금강산 일출봉, 1390-1391년

이성계발원 사리기중 탑형 사리기의 몸통부분에는 이성계, 강씨, 물기씨의 발원자 이름이 종으로 쓰여져 있다. 이 施主發願記에는 고려에서 이성계의 직위인 “奮忠定難 匡復變理 佐命功臣 壁上三韓 三重大匡 守門下侍中”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세 인물만 표시된 점이 주목된다.

라마형사리기는 다시 은제도금팔각형탑형사리기안에 들어가는 구조이다. 은제도금팔각형사리기는 팔각지붕, 몸통, 대좌가 따로 분리되는데 몸통부분에 경오 삼월일에 발원하여 봉안한다는 내용이 각서되어 있다. 바로 이 은제 팔각형 사리기에 명문을 새긴 방식이 현등사 삼층석탑의 사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 은제도금팔각형사리기
명문, 이성계발원사리기

조선시대 불교 미술품이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다. 이는 시대적으로 불교를 억

압하였던 조선시대의 분위기와도 연결된다. 현등사 삼층석탑과 여기에서 출토된 사리기는 제작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조성 주체도 분명한 미술품이다. 이런 점에서 현등사 석탑과 사리기는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이순영, 「조선 초기 가평 현등사(懸燈寺)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 연구』 18, 2010.5, pp. 239-271.

周旻美, 「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再論」, 『진단학보』 113, 2011. 12, pp. 61-97.

엄기표, 「朝蘇初期 己和大師 함虛堂의 分舍利 石造浮屠에 대한 考察文化」, 『文化史學』 25, 한국문화사학회, 2006.



○ 내용 및 특징

현등사는 운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신라 말 고려 초 선각국사 도선에 의해 중창된 사찰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재창하고 경내에 지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지진탑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현재 삼층석탑이 세워져 있는 사역의 능선 끝 지점 아래쪽에 지진탑으로 전해지고 있는 석탑 1기가 존재한다. 조선시대에는 涵虛堂 己和大師(1376-1433)가 1411년(태종 11)에 크게 중창하였다고 『雲岳山懸燈寺事蹟』(1772년 간행)에 기록되어 있다. 경내에는 함허당 사리를 분사리하여 모신 승탑과 석등이 한 세트라 건립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등사는 사찰의 지리적 위치가 한양 도성과 가까워 조선 전기에는 왕실과 종친과 연계된 원당으로 발전하였다. 세종의 일곱 번째 아들 平原大君과 그의 부인 洪氏, 예종의 둘째 아들 齊安大君과 그의 두 부인의 위패가 모셔졌고, 현등사 삼층석탑 사리기에도 ‘願堂’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탁자형 기단부와 낮고 넓은 탑신과 옥개석을 갖춘 조선 전기의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에 봉안된 것인데, 시기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유실된 것을 1991년 무렵에 삼성문화재단이 구입소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5년 8월 22일 사리기에 새겨진 명문을 토대로 삼성문화재단 측에 사리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원고 패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불교계의 반발로 삼성문화재단에서는 선의로 사리장엄구를 현등사로 돌려주었다.

사리장엄구는 원통형의 은제사리의함과 수정제 사리호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제 사리호는 팔각형의 받침에 원통형의 몸통, 그리고 보주모양의 꼭지를 단 반구형의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리호의 속을 병(甁) 모양으로 파내었고 그 속에 사리를 안치하였다. 속은 甁모양으로 파내었고 그 속에 사리를 안치하였다. 사리호의 전체적인 형태는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의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리병은 1439년 貞懿翁主 舍利塔

(남양주 수종사 부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에서 출토된 수정제 사리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선 초기 왕실을 중심으로 유행한 사리병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은제함은 상단부 뚜껑이 맞닿은 부분에 턱을 두었고, 그 위에 낮고 완만한 곡선으로 둥글린 뚜껑이 알맞게 이가 맞도록 하였다. 몸통은 하나의 은제판을 둥글게 말아 뿔뿔하였다. 표면은 거칠게 부식 흔적이 남아 있다. 뚜껑과 몸통에는 특별한 문양을 아로새기지 않았지만, 사리함의 몸통에는 음각으로 다음과 같은 명문을 새겼다.

成化六年庚寅三月日願堂
 雲岳山懸燈寺塔改造
 舍利五枚安邀大施主
 帶方府夫人宋氏女子
 吉安縣主李氏億千
 折衝將軍中樞府僉
 知事具壽永

위의 명문을 통해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帶方府 夫人 宋씨의 딸, 吉安縣主 李億千과 折衝將軍 中樞府僉知事 具壽永¹⁴⁾(1456-1523)의 대시주로 1470년 3월 願堂인 현등사의 석탑을 개조하여 사리 5과를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3 현등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그림 284 은제사리함 명문

□

○ 현 상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은제원통형사리함과 수정제사리호로 구성되었다. 은제원통

14) 본관은綾城. 자는眉叔. 강원도 부원수 具成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목사 具揚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具致洪이며, 어머니는 鎭川宋氏로 좌랑 宋啓後의 딸이다. 큰아버지는 영의정 具致寬이다. 12세에 永膺大君(세종의 여덟째 아들)의 사위로 뽑혀 세조로부터 특별히 宣略將軍副護軍을 제수 받았다. 예종이 즉한 뒤에는 은총을 입어 折衝將軍에 오르고, 성종이 즉위하자 原從功臣이 되었으며,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후 五衛都總府都總管과 知敦寧府事, 판돈녕부사, 판의금부사, 한성부판윤,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형사리합의 동체는 은판을 말아서 기형을 성형하고, 연결부위는 뿔으로 접합하여 이음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바닥은 별도의 은판을 뿔으로 부착하여 바닥 내부에 뿔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부 상단에는 뚜껑이 맞물리도록 별도의 은판을 덧대어 뚜껑받이를 마련하였다. 단조로 제작된 뚜껑은 중앙이 솟아오른 반원형이며, 문양은 표현되지 않았다. 사리합의 표면에는 제작시기와 발원자를 기록한 59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은제사리기 내부에 들어있었다고 추정되는 사리호는 맑고 투명한 수정을 깎아서 제작하였다. 팔각의 받침과 원형의 동체부는 일체이며, 사리를 담은 내부공간은 사리병 형태로 매우 정교하게 가공하였다. 뚜껑은 반원형의 받침 위에 보주형의 꼭지를 표현하였다. 사리합의 명문에는 5매의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현재 사리는 2과가 전한다.

○ 내용 및 특징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은제사리기와 수정제사리호로 구성되어 재질면에서 수종사부도 사리장엄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덕오년명사리장엄구, 봉인사 세존부도 사리장엄구 등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유행하는 사리장엄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은제사리기의 원통형 기형은 고려시대 청동재질로 유행하던 것에서 고려 말 이후 소형화되고 재질이 은으로 바뀌는 양식변화를 잘 보여준다.

은제원통형사리합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이지만 얇은 기벽임에도 뚜껑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매끈한 표면처리를 통해 당시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술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수정제사리호는 팔각과 구형을 일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비치는 내부 공간을 사리병 모양으로 정교하게 가공하고, 균형 잡힌 보주형 뚜껑으로 마무리하여 조선시대 수정 연마기술의 결정체로 평가할 수 있다.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은제사리합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발원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은제원통형사리합의 표면에는 다음과 같이 59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成化六年庚寅三月日願堂「雲岳山懸燈寺塔改造」捨利五枚安邀大施主」 帶方府夫人宋氏女子」吉安縣主李氏億千」折衝將軍中樞府僉」知事具壽永

위의 명문에 의하면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1470년 雲岳山 현등사탑을 고쳐지을 때 봉납된 것이며, 사리기의 제작에는 세종의 8째 아들인 永膺大君의 부인이었던 宋氏와 딸 李億千, 사위인 具壽永이 시주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조선 왕실과 관계된 조선 초기 사리장엄구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소장경위

현등사 사리장엄구는 1470년에 제작되어 현등사 석탑에 봉안되었으나 불특정시기 도굴로 인해 외부로 발출되었다. 이후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었다가 2006년 11월 현등사로 반환되었다.

14.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4.2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6.11.23), ('16.11.29)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南楊州 佛巖寺 木造觀音菩薩坐像)
- 소 유 자 : 불암사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산로 190 불암사
- 수 량 : 보살상 1구, 복장유물 3점(조성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중수발원문 1점)
- 규 격 : 보살상 전체높이 67.0cm, 어깨폭 23.0cm, 슬폭 35.2cm, 슬고 8.5cm, 조성발원문 33.2×33.2cm, 중수발원문 33.2×22.7cm, 후령통 18×3.0cm
- 재 질 : 나무, 종이, 금속
- 조성연대 : 1649년(인조 27)
- 제 작 자 : 無染, 性修, 心印, 尙林, 敬性
- 개금중수연대 : 1907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처럼 이 관음보살좌상은 단아한 형태, 일정한 양감, 깔끔한 선묘 등으로 무염계

불상 조각 가운데서도 수작에 드는 보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성기에 있다시피 1649년 11월 5일에 조성되어 무염작 가운데 보이지 않던 1640년에 불상의 예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무염과 불상연구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대 최고의 고승 각성(覺性) 도총섭이 그의 문도인 조각승 무염(無染) 일과를 거느리고 불사를 수행한 또 하나의 예로써 크게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땅 끝 마을 대흥사 묘련암에서 1907년 서울 근교인 불암사로 이안되어 만일회의 주불로 널리 신앙된 연기도 중수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조선 후반기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예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불암사 관음보살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반드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형적으로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며 조선후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무염(無染)이 수조각승을 맡아 제작한 보살상으로서 제작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어 조선후기 17세기 중엽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보살좌상은 처음 대둔산 묘련암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보살좌상으로, 1649년에 당대의 최고승 벽암각성과 소요태능을 비롯하여,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무염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1907년에는 양주 천보산 불암사 만일회 수월도량에 봉안하기 위해 개금 중수하였다는 중수기록도 함께 간직하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불상이 보여주는 미적 감성도 조선후기의 미의식인 대중적인 평담미를 담담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아담하고 실재감 있는 조형적 감각을 추구했던 무염의 조각적 특징도 잘 간직하고 있고, 조선 후기의 대중적인 예술적·종교적 감성도 두루 갖추었다.

이 보살상은 현재까지 무염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 중 1640년대에 제작한 유일한 불상이다. 1640년대 무염의 조각경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자, 1640년대 조각 경향이 1650년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성발원문」과 「개금중수발원문」, 그리고 복장유물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후령통 등을 관음보살상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현재 불암사에 봉안되어 있는 관음보살상은 나무로 조성된 관음보살좌상이다. 이 관음보살상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왼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무릎에 내려 엄지와 중지를 대고 있는 아미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결가부좌로 앉아있는 모습이다.

머리에 쓴 보관은 나무로 된 크고 복잡하고 화려한 보관인데 꽃과 구름과 화염무늬 등을 투조나 양각으로 새겨 나무관에 부착하여 만든 보관으로 좌우로 장식띠를 내려 감아올리고 있다. 보관 정면 중앙에는 화불을 안치했으나 꽃과 구름 무늬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상투를 틀어 올렸는데 높고 긴 상투 끝을 고사리 모양으로 마감하고 그 중간에 금색 묶음으로 장식하여 상투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머리카락이 좌우 귀를 감아 어깨로 흘러내리게 한 것은 다른 보살상과 마찬가지로이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지만 뺨과 턱이 통통하여 각져 보이지 않고 이지적으로 보이게 한다. 크고 높은 코를 돌출시켜 무염계 내지 당시 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입을 꼭 다물어 보조개를 나타내고 도톰한 눈두덩에 가는 눈을 살짝 뜨게 하여 부드러운 얼굴 표정과 함께 은은한 미소를 띠게 함으로써 같은 무염작 불갑사 지장보살상(1654)이나 신흥사 지장보살상(1651)의 얼굴과 아주 유사하게 보이고 있다.

상체는 두꺼운 옷에 싸여 양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직사각형의 단정한 형태로 가슴의 볼륨은 없으나 어깨는 궁글려 어깨의 둥근 선은 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결가부좌한 하체는 다소 높고 큼직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불갑사 지장보살상이나 비래사 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통견한 불의는 상의(上衣) 위에 대의(大衣)를 걸치는 2중착의법(二重着衣法)인데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감아 오른쪽 팔꿈치 뒤로 돌아 앞으로 내리게 하

고 있어서 왼팔로 내려진 자락과 함께 두 무릎을 덮어내려 기대 위에서 깔끔하게 마감하고 있다. 가슴에는 목걸이에서 영락장식 3가닥이 균의 위로 드리워지고 있는데 비교적 화려한 편이다.

□

○ 현 상

남양주 불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이 절은 조선초 세조연간에 한양성의 사방에 왕실의 원찰을 한 곳씩 정할 때 동불암으로 지정되었던 사찰이다. 사찰에 전해오는 문화재로는 1673년에 불암사에서 관각된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 목판(보물 제 591호) 212매가 있다.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14년에 상의 바닥에서 묵서와 주서(朱書)의 명문이 조사되었고 복장에서는 「불상조성기」를 비롯해서 「개금중수기」, 후령통, 다라니 등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이 보살상이 완주 대둔산 묘련암에서 순치 6년(1649)에 조각승 무염에 의해 제작되었고 이 불사(佛事)에 대선사 벽암각성(碧巖覺性)과 같은 당대 불교계의 주요 인물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도 1). 또한 광무 11년(1907)의 「개금중수기」에는 이 상이 개금되어 양주 불암사에 봉안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어느 시기에 불암사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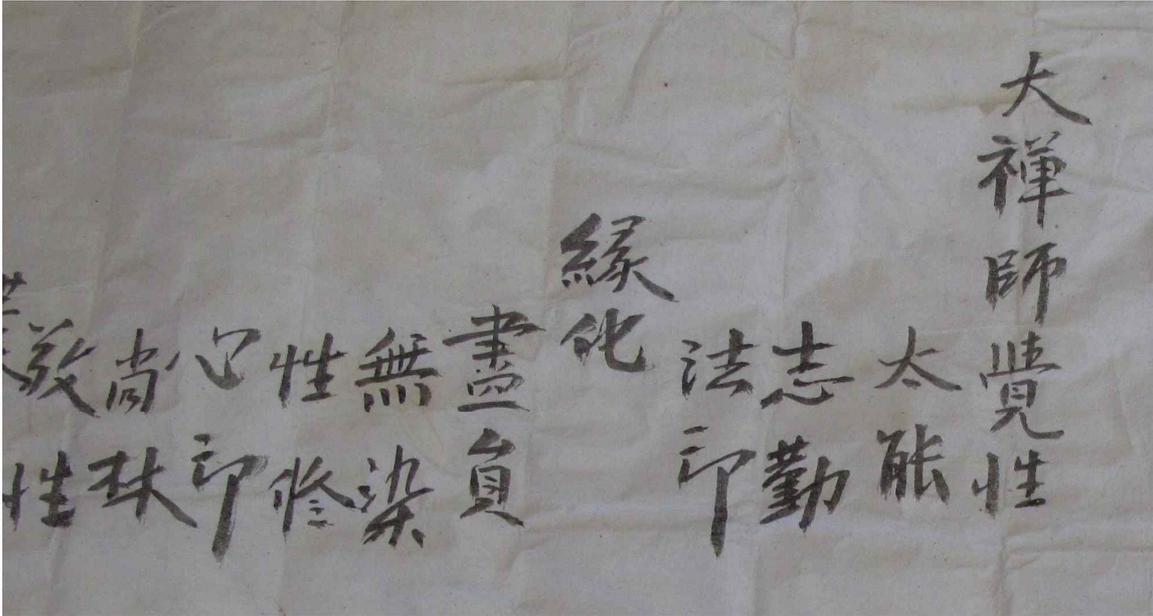
관음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신체의 비례가 좋고 단엄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머리에는 상투[보계寶髻]를 장식띠로 묶었는데 묶음 띠 전체가 금색으로 칠해지고 중앙에 화문(花紋)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도 2). 앞머리는 가지런히 새겨지고 그 위에는 보관을 올려놓을 턱이 마련되었으며 머리 양 측면에 내려오는 머리는 컷바퀴를 돌아 어깨위에 세 가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머리의 뒷면에는 등 간격으로 세로 홈을 파고 그 사이사이에는 얇은 선각으로 머리칼을 촘촘하게 새겨져 있다. 머리에 올려진 보관은 장식이 떨어진 곳도 있으나 화염보주와 화문, 운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좌우에 관대(冠帶)장식이 늘어져 있다. 보살상의 얼굴은 이마가 좌우로 넓고 편평하며 턱이 둥글고 길게 반개한 두 눈과 크고 우뚝한 콧날, 넓은 인중,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 띤 입술은 자비롭고 원만한 상호(相好)를 보인다.

보살상의 착의형식은 천의(天衣)가 아니라 여래상의 대의(大衣) 형태인데, 가사를 두벌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법(혹은 변형 편단우견으로도 부름)’의 형식으로 가사 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U자형의 주름을 이루며 걸쳐지고 반대쪽 자락은 왼쪽 어깨 뒤로 넘겨져 등 뒤에 늘어져 있다. 가슴에는 세 가닥의 술이 늘어진 영락을 드리우고 내의는 윗단이 사선으로 접혀진 채로 수평으로 표현되었다.

양손은 별재(別材)로 조각하여 손목 구멍에 끼워 넣었는데, 손등은 통통하고 손목에는 띠 모양의 팔찌가 양각되어 있으며 손바닥에는 손금이 표현되었다(도 3). 손가락은 왼손의 무명지, 오른손의 무명지와 소지의 끝마디를 잃은 상태이나 길고 가지런하며 수인(手印)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하품중생인으로 부르기도 함)을

결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살짝 안으로 구부렸다.

가부좌한 다리는 옷으로 덮혀 오른쪽 발의 일부만 밖으로 드러나며 발끝은 옷자락 속에 감춰져 있는데, 발을 감싼 옷자락이 둥글게 접혀 왼쪽 무릎 위에 올려져 있다. 무릎을 덮은 옷자락은 발목 부분에 접힌 옷단이 부드러운 주름을 이루고 그 좌우로 부드러운 옷주름을 이루며 흘러내린다.



도 1.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조성발원문(부분), 조선시대 1649년



도 2.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상 (부분), 조선시대 1649년



도 3.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목제 손, 조선시대 1649년

○ 내용 및 특징

이 보살상의 바닥에는 묵서로 ‘化主 德忍 畫員 無染 妙’, 주서(朱書)로는 ‘順治六年己丑’이라는 명문이 써있을 뿐 아니라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조성기」(가로 66.6cm x 세로 33.2cm)을 통해서 정확한 제작시기와 봉안처, 조각승, 화주, 시주질 등을 알 수 있다. 이 불사에는 불상 바닥에 묵서된 무염(無染)을 수조각승으로 하여 성수(性修), 심인(心印), 상림(尙林), 경성(敬性)의 4명의 보조 조각승들이 참여했다.

수조각승 무염은 17세기 중엽 호남지역 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그가 제작한 불상은 선운사 대웅보전 삼신삼세불좌상(1633년)을 비롯해서,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좌상(1635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50년),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좌상(1651년)과 지장보살좌상, 불갑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상(1656년, 발원문傳)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차(次)조각승을 맡은 성수(性修)는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창 선운사 목조 삼신불좌상(1633년)와 영광 불갑사 목조삼세불좌상(1635년)의 제작에서 제 4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1651년)

제작에는 무염의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무염의 제자 해심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54년)의 제작에는 차조각승을 담당했다.

제 3위 조각승 심인(心印)은 불암사 관음보살좌상에 조성된 3년 뒤, 역시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652년) 제작에서 제 3위의 조각승을 담당하였고, 그 후 조능(祖能)이 수조각승을 맡은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년) 제작에 화불(畫佛)로 참여하였다.

제 4위 조각승 상림(尙林, 尙琳)은 사인(思印)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순창 만일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9년) 제작에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회감(懷感, 恢鑑)이 수조각승을 맡은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61년) 제작에도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제 5위 조각승 경성(敬性, 敬聖)은 대전 비래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51년)과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1652년) 제작에 수화승 무염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무염의 상수제자였던 해심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8년)의 제작에는 각각 제 12위, 제 10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했으며, 이 밖에 수조각승 자수(自修)와 웅천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73년, 해인사 명부전 봉안)을, 수조각승 계주(戒珠)와는 고창 선운사 참담암의 불단(1684년)을 제작하였다.

불암사 관음보살좌상 제작에 참여했던 무염을 포함한 다섯명의 조각승들은 이 후에도 계속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조각승 다섯명이 67cm 높이의 관음보살상 한 구를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독존상으로 조성했던 서봉사 향로각 관음보살상(1655년, 現 김제 청룡사 봉안)은 조성발원문에 독존상으로 조성된 것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발원문의 제목이 불상조성기(佛像造成記)로 적혀있다. 아마도 당시에 조성된 상은 아미타삼존불상이고 이 보살상은 본존 아미타불상의 협시보살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조성발원문]

順治六年歲次己丑十一月初五日大菴
山妙蓮庵佛像造成記
佛像大施主亡母天義靈駕黃金大施主朴
泰仁兩主布施大施主俞生壽兩主孫石兩主金冬
乙於應伊兩主姜宮己兩主懿德兩主金命
吉兩主論今兩主金春生兩主張業龍兩主

大禪師 覺性

太能
志勸
法印

緣化

畫員
無染
性修
心印
尙林
敬性
供養主
幸俊
善律
智明

願我臨終滅罪障往參西方大慈尊
金色光中蒙授記盡未來際度衆生
虛空有盡願不盡十方諸佛作證明
大化主 德忍比丘

○ 문헌자료

-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과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1, 2006.
-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김창균, 「大菴山 妙蓮庵 목조관음보살상과 조각승 교류를 통해 본 無染의 작품 연구」, 『미술사학보』 45, 미술사학연구회, 2015.

□

○ 내용 및 특징

이 보살상은 2014년 8월 29일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불상의 복장에서는 불상 제작과 중수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조성발원문」과 「개금중수기」이 발견되었고, 이외 조성 당시에 납입된 후령통과 다라니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에는 順治 6년 己丑(1649년, 인조 27) 11월에 大菴山 妙蓮庵 불상으로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大菴山 妙蓮庵은 문헌기록상 보이지 않지만, 完州 大菴山에 있었던 소규모 암자로 추정된다. 대둔사 묘련사에 봉안되어 있던 이 보살

상은, 대한 광무 11년인 1907년에 한 차례 개금 중수가 이루지고, 이후 지금의 남양주 불암사에 봉안되었는데,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묘련암의 사세가 기울어 폐사되고, 급기야 불암사로 이안되어 개금 중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불상의 밑판에도 붉은 글씨(朱書)로 “順治六年己丑“이라는 조성연대를 적고, 다시 먹 글씨(墨書)로 ”化主 德忍 畫員 無染 妙“라는 제작주체를 기록하여 놓았다. 이는 조성발원문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하는 것으로, 발원문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발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불상의 조성에는 당대의 최고승 碧巖覺性を 필두로 逍遙 太能 등이 참여하였는데, 아마도 증명법사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상의 제작은 17세기 전반기에 전국 각지에서 크게 활약한 대화승 무염을 비롯하여 성수, 심인, 상림, 경성 등 모두 5명의 승려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각하였다. 化主는 德忍이 맡았는데, 그는 이 보다 1년 뒤에 제작된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제작 때도 化主 소임을 맡았다. 개금 중수는 1907년에 이루어졌는데, 石舟常一과 舍影法曇이 개금불사를 증명하였고, 19-20세기 초 경기지역에서 활약한 普庵肯法과 繼恩鳳法이 개금화원으로 참여하였다. 대시주는 조선 말 궁내부의 고관으로 재직하면서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불사에 진력을 다한 姜在喜 居士가 동참하여 주목된다. 특히 개금 중수에서는 이 상이 楊州 天寶山 佛巖寺 萬日會 水月道場에 봉안하기 위해 개금 중수된 관음보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살상 외 다른 1구의 관음보살상이 함께 개금중수 되었음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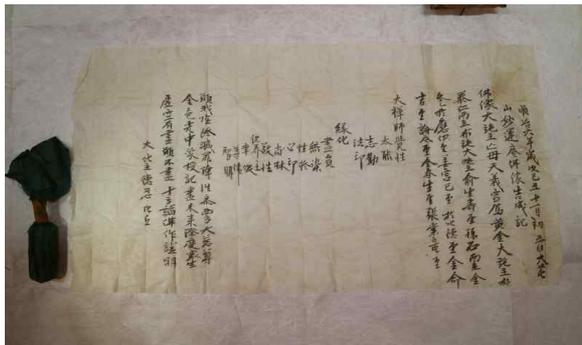


그림 289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1649년



그림 290 중수발원문, 1907년



그림 291 목조관음보살좌상, 정면



그림 292 목조관음보살좌상, 배면

우선 보살상은 최근에 조성된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였는데, 보관은 꽃잎으로 모양으로 능선을 잡은 기본 형태에 화염, 구름, 연꽃무늬, 관대 등을 별도로 조각하여 부착 장엄한 화려한 보관을 썼다. 이러한 보관의 형태는 17세기 보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보관의 정면에는 양·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化佛’이 장식판으로 가리워져, 감입된 것처럼 표현된 점이 흥미롭다. 이 화불을 통해 조성기에 존명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관음보살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머리의 꼭대기에는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달팽이 모양의 보계를 이루고 있으며, 보계는 꽃무늬가 새겨진 장식띠로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보계표현은 1652년에 무염이 제작한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협시보살상의 보계표현과도 비교된다. 머리에는 보관이 놓이는 곳에 턱을 두었으며, 노출되는 머리카락은 굵은 띠 모양으로 질서있게 부착하였다. 구레나루와 귀밑머리를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서 복잡하게 엮어 두툼한 둥근 매듭을 만들었고, 다시 세 가닥으로 굵은 모발이 어깨와 등뒤로 蛇行하듯 드리웠다. 큼직한 킷바퀴는 둥글게 표현하였고, 킷바퀴 밑에는 짧고 도톰하게 늘어진 귀불이 외반하였다. 외반한 킷불에는 꽃모양의 귀고리를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킷바퀴 내부의 상·하각 연골은 쇠기모양의 음각선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고, 耳屏은 볼록하게 살집있게 처리하였다. 킷구멍은 물방울이 맺히듯 작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귀의 표현은 1650년에 무염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이 보다 2년 뒤인 1652년에 제작한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얼굴의 턱 선은 날렵하게 처리하여 가름하고, 이목구비는 실재감 있는 잘 생긴 丈夫의 얼굴로, 무염의 조각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넓고 반반한 이마에는 작은 백호를 박아 넣었다. 활처럼 휘어진 눈썹 골을 따라 초록색으로 눈썹을 그려 넣었다. 볼록하게 도드라진 눈두덩에는 버들잎모양으로 반개한 눈을 표현하였다. 작고 도톰한 입술은 다소 곳이 다물고 입가를 눌러 부드러운 미소를 만들었으며, 코 뿌리에서 듬직하게 솟구친 큼직한 콧날이 인상적인데, 이러한 코는 무염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 어깨는 약간 움츠려 고개 숙여 중생을 그윽하게 굽어보듯 처리된 시선은 이 시기 다른 불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이다. 목에는 강약을 달리하여 삼도를 표현하였고, 가슴의 쇄골선은 형식적으로 둔덕처럼 표현하였다.

듬직하게 노출된 가슴에는 3줄로 길게 늘어진 목걸이를 부착하였다. 착의는 두장의 대의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군의를 표현하였다. 특히 부드럽게 반전하며 내려온 목깃 주름과 왼쪽 어깨에 넓게 드리워진 삼각형의 겹 주름은 무염의 조각적 특징 중 하나이다. 복부에는 수평으로 입은 치마(裙衣) 단이 표현되었고, 치마 단은 비스듬히 한번 접어 멋을 내었는데, 이 시기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군의 표현방식이다. 띠 매듭 없이 짝 동여 맨 치마의 아래 쪽으로는 볼록하게 복부의 윤곽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며, 전반적으로 佛衣가 신체의 윤곽을 잘 살려주며 조화롭게 조성되었다. 어깨 뒤로 넘긴 대의자락은 나카로운 나뭇잎모양으로 해서 엉덩이 부근까지 뻗어 내렸다.

불신에 표현된 주름의 특징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처리하여 여백을 강조하였고, 하체에는 율동적인 주름을 사용하여 밀도를 높여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감추듯 반전시킨 목깃 주름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름들은 생략하여 윤곽선 위주의 선묘를 보이며, 하체는 골이 깊은 긴장감 넘치는 주름들로 구성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하였다. 노출된 오른발은 왼쪽 팔목을 덮고 내린 소맷자락을 둥근 나뭇잎 모양으로 형태를 잡았다. 무릎에 표현된 활달한 선묘는 17세기 전반의 단순 수평 3단의 형식화된 주름보다 보다 생동감 있다.

이 보살상을 제작한 수조각승 무염은 1624년 순천 송광사 광원암의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발원문에 화주로 처음 등장하고, 이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5년), 해남 도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48년, 차화원),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1년) 및 목조지장보살삼존상(1651년),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1654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2년),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1656년)을 제작하는 등 17세기 전·중엽 경에 걸쳐 크게 활약한 조각승이다. 무염은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임에 불구하고, 누구의 조각적 전통과 계보를 잇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16세기말~17세기

초에 활약한 元悟, 覺敏, 太顛 등의 선배 조각승의 계보를 이었음 것으로 생각한다.
 次畫員 性修는 수조각승 무염과 함께 1633년에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1635년에는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다. 1653년에는 수조각승 해심과 함께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조성하였다. 세 번째 화원 心印은 1652년에 수화원 무염과 함께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고, 1657년에는 靈圭와 祖能을 도와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네 번째 화원 상림은 1649년에 사인을 도와 만일사 목조석가불좌상을 제작하였고, 1661년에는 회감을 도와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을 제작하였다. 다섯 번째 화원 敬性은 1648년에 무염을 도와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50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2년)을 제작하였고, 1653년에는 해심을 도와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1673년에는 自修를 도와 해인사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제작에 참여하였고, 1684년에는 戒珠와 함께 고창 선운사 참담암 불단을 제작하였다.

○ 조성발원문

1649년, 33.2x 66.5cm

順治六年歲次己丑十一月初五日大茆
 山妙蓮庵佛像造成記
 佛像大施主 亡母天義靈駕黃金大施主朴
 泰仁兩主布施大施主俞生壽兩主孫石兩主金
 冬乙於應伊兩主姜宮己兩主 懿德兩主金命
 吉兩主論今兩主金春生兩主張業龍兩主
 大禪師 覺性
 太能
 志勸
 法印
 緣化
 畫員
 無染
 性修
 心印
 尙林
 敬性
 供養主

幸俊
善律
智明

願我臨終滅罪障往參西方大慈尊
金色光中蒙授記盡未來際度衆生
虛空有盡願不盡十方諸佛作證明)
大化主 德忍比丘 왕

○ 개금중수기

1907년, 33.2×22.7cm

大韓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七日神供二十四日
落成點眼觀世音菩薩二位改金重修奉
安于楊州天寶山佛巖寺萬日會水月道
場

大施主

乾命庚申生姜在喜

奉父辛丑生姜文煥

監董乾命丁未生元 駟常

乾命丁卯生李德基

信女丁巳生任氏極樂月

證明 石舟常一

含影法曇

持殿 溧河定修

誦呪 碧山海順

金魚片手 普庵肯法

繼恩鳳法

供司 宗元

別供 昌典 환

鍾頭 圓照

茶角 性學

都監 碧波法昕

別座 青曇道含

化主 栗庵景河

보고 사항

15. 국보 승격 지정조사 대상 선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우리청(유형문화재과)에서 추진 중인 국보 승격과 관련하여, 국보 승격 지정조사 대상 선정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보 승격 지정조사 대상 선정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임.

다. 추진경과

- 국보 승격 추진 계획 보고('16.10.25.)
- 국보 승격 대상 추천('16.11~'17.1월)
 - (요청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량소장처(국립중앙박물관·조계종), 관련 학회 등
·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역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 (추천결과) 34건
· 불상 10건, 전적 7건, 회화 6건, 불화 5건, 불교공예 5건, 도자 1건
- 국보 지정조사 대상 선정 동산분과 제2차 소위원회('17.3.14. 안휘준 등 9명)
 -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등 19건 조사대상 선정
 - 보물 제595호 자수초충도병풍 등 11건 보물 유지
 - 추가 조사 대상 :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등 4건
 - 일괄검토 통한 조사대상 선정 분야 : 초상화·계회도, 패불도·후불도·팔상도
- 국보(일반회화) 지정조사 대상 선정 동산분과 제5차 소위원회('17.5.23, 박정혜 등 5명)
 - 보물 제547호 김정희 초상 등 초상 4건
 - 보물 제638호 기사계첩 등 계회도 5건
- 국보(불교회화) 지정조사 대상 선정 동산분과 제6차 소위원회('17.5.26, 박은경 등 5명)
 - 보물 제670호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등 후불도 4건
 -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 패불탱 등 패불도 3건
 - 보물 제1041호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등 팔상도 2건

라. 국보 승격 지정조사 실시대상 : 총 39건

○ 일반회화 : 총 11건

연번	문화재명	비고
1	보물 제743호 정조필 파초도	
2	보물 제744호 정조필 국화도	
3	보물 제547-1호 김정희 초상	
4	보물 제613호 신숙주 초상	
5	보물 제1487호 서직수 초상	
6	보물 제1493호 오재순 초상	
7	보물 제638호 기사계첩	
8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9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	
10	보물 제868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획도	
11	보물 제1406호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 전적 고문서 : 8건

연번	문화재명	비고
1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2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3	보물 제1294호 이제개국공신교서	
4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	
5	보물 제1405호 비해당 소장팔경시첩	
6	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7	보물 제1654호 신편산학계몽	
8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 공예 : 4건

연번	문화재명	비고
1	보물 제175호 순천 송광사 경패	
2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3	보물 제277호 부안 내소사 동종	
4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 불교조각 : 7건

연번	문화재명	비고
1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2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3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4	보물 제41호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5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6	보물 제1360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7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 불교회화 : 9건

연번	문화재명	비고
1	보물 제670호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2	보물 제1042호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	
3	보물 제1237호 해인사 영산회상도	
4	보물 제1364호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5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	
6	보물 제1268호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	
7	보물 제1551호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	
8	보물 제1041호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9	보물 제1368호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마. 향후계획

- 분야별 지정조사 실시(2017. 6월~)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